

I. 국민교육헌장 vs 고교교육헌장

I. 「국민교육헌장」 VS 「고교교육헌장」

한 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보고 아무런 구애도 받지 말고 학교와 가정에 대한 불만을 무기명으로 써내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거의가 수업과 진학에 관한 것이었고, 교사에 대한 불만은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정의적이든지간에 결국엔 선생의 의사대로 한다」는 것과 같은 의견이 수두룩 하였다.

가장에 대한 불만 역시 부모들의 옳지 못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공부에 힘쓰라고 하면서도 케케묵은 가치관념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모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였다.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아이들의 생각은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중학생인 K모군은 자기의 작문에 이렇게 썼다.

「시험자체는 일종의 경쟁이다. 만일 내가 합격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낙방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합격되었다면 내가 낙방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컨데 여러 사람들이 다 노력하여 서로 도우면서 모두 합격되어야 한다고 한 선생님의 말은 거짓이다. 가령 여럿이 다 노력하여 서로 배우고 도와주어도 나중에는 모두 합격될 수 없는 것이다. 선생님의 말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모두 찬성하였고 나 자신도 손을 들었지만 내심으로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진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들의 표리부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심리를 좀더 생각해 보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두들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교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구를 갖고 있다. 그들은 교사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차별없이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문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였기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기에게 질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자신있는 눈길로 교사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고대한다. 이와는 달리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에게 질문이 올까봐 긴장해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하고 속궁리를 한다. 그들은 애써 교사의 시선을 피하면서 황황한 심정으로 「제발 나를 짚지 말아주세요」라고 빌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머리를 떨구고 잠자코 앉아 있다. 이때 만약 교사가 그의 앞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질문하면 그는 한숨을 돌리는데 그러다가도 다음번엔 나의 차례가 아닐까? 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가 그를 스쳐지나 그의 뒤에 앉은 학생에게 질문하면 그는 무슨 영문인지 얼떨떨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야, 별일이다. 왜 나를 스쳐지나 버릴까? 선생님이 저녀석은 어쨌든 모르니까 질문해도 쓸데없다고 여긴게 틀림없어. 흥! 이것은 나를 깔보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이 나는 모른다고 짐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리하여 그의 현재의 생각은 갑자기 변화된다.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를 스쳐지나 버리지 말 것을 바라는 이것은 그들의 진실한 심리상태이다.

흔히 성인들은 아이들과 달리 자신의 생각과 실제 표현(행동)간의 모순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의 생각과 실현 표현을 혼동하여 어느 곳이 마음속의 생각이고 어느 것이 본의가 아닌가를 가리지 못하여 늘 애매한 기분속에 빠져 있다. 예컨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때 만일 다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완강하면 우선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거나 「원래는 이런 일이었구나」하고 말하다가도 갑자기 「아니야 절대 그럴수 없어!」라고 말하며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사물을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히 교사나 부모에게 대해서는 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만일 교사나 부모의 엄한 훈계를 받으면 그들은 그에 맞서면서 부모나 교사의 비판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교사가 마음씨가 고와서 그들에게 방임의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또 「교사라면 그래도 좀 엄하게 대하는 것이 좋지. 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무심한데 책임감이 없어」라고 흥을 보면서 좀 엄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입으로는 「선생님이 우리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교사가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애들의 집은 찾아가면서 왜 우리집만은 찾아오지 않는거야? 저 선생님은 ‘이애는 제

멋대로 내버려두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제 편한 생각을 한다.

어른 VS 아이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 중학교 시기(중학교 상급학년)에 이르면 새로운 지적 발달 단계에 이르러 성인과 비슷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행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아이들은 어머니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행을 비판하게 되며 어떤 원칙에만 의거하여 일부 사물을 철저히 뒤엎으려 한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논리가 극단적이고 과격하다.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린 아이적의 특유의 주관적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아동기의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생리·정서 상태가 2차 출현과 더불어 정서적 불안이 초래된다.

이때의 그들은 자기에 대해 엄격한 동시에 마음이 맞던 부모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비난한다. 전에는 무슨 말이든지 다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말을 앓고 이야기 장소를 피하며 집에 돌아오면 자기방에 틀어 박혀 있는 일이 자주 있게 되었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돌연한 비정상적인 표현에 대해 당황해한다. 어머니들은 이전처럼 아이들에게 무엇이냐 터놓고 말하도록 하고 싶어하나 어찌할 줄 몰라한다. 이때의 아이들은 자기를 내세울 경우에 성인이나 현존사회에 대하여 반항한다. 이때의 아이들은 자기를 내세울 경우에 성인이나 현존사회에 대하여 반항한다. 심지어 아이들도 「지금 우리는 반항기에 있기에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와 같이 감정을 멋대로 터놓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정체의 위기에서 그들은 번민과 딜레마를 경험한다. 그러나 번민을 버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즉 심리적으로 완전히 어머니와 분리되는 일은 바로 그들 자신의 일이다.

이때 그들의 눈에는 어른들의 형상이 전혀 달리 보인다. 특히 아버지의 형상이 단번에 달리 보인다.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흔히 제 2반항기로 표현되는 이 시기를 거쳐 그들은 자아완성에 도달한다. 부모에 좌우되지 않는 자기 본연의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학교·중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기의 가치관으로 한다. 부모가 옳다고 하면 그도 옳다하고 부모가 틀렸다고 하면 그도 틀렸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받아들인 가치관을

개조하기 시작한다. 부모의 말에 대해 그들은 때론 의심하고 때론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인식을 찾는다. 그 결과 그들은 부모에 반항하기 시작한다.

사실 반항하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되도록 회피하려고 한다. 특히 아버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는 입장에 서기 쉽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도 한다. 예컨대, 그들은 「너의 말이 완전히 옳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체제 내에서 나의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없다. 현실사회에서 네가 꼭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책임을 사회에 밀어버리고 정치제도 또는 교육제도에 미뤄버린다. 다시 말해 사회체제가 옳지 못하므로 아이의 말이 옳지만 실현될 수 없으니 참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창 정의감이 강한 그들의 눈엔 무엇이나 다 거슬려 보인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회체제가 좋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아버지는 옳지 못한 사회에 살고 계시는구나! 만일 나쁜 사회라면 개선하기에 힘써야 하지 않은가?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참으라고 하니 모순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시며 나를 속이려 한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찌 들을 수 있는가! 어쩌면 아이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아버지는 아이의 신임을 잃을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위신도 잃을 것이다.

정말로 청소년과 어른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로서 상대를 격렬히 비난하는 것 같다.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이나 견해의 차이는 「부모의 관심」 VS 「자녀의 요구」 또는 「부모의 염려」 VS 「자녀들의 감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아이들의 외침을 좀더 들여보자. 14세의 아이를 둔 어머니는 임버릇처럼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행복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뜻과 정반대의 말을 한다. 「어머니는 내 행복에 대해서 더이상 말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어머니가 내 일생을 망치려 한다니까, 어머니의 안달과 노파심이 날 미치게 해요.」 또한 열여덟 살의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난 그 애가 시시껄렁한 대학에 다닌다는 건 생각만해도 견딜수가 없어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아 마음도 놓이지 않고……, 더구나 그애는 내 외동딸인데」 그러나 어머니를 달갑게 생각치 않는 딸은 「우리 어머니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신단 말이야. 내 대신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야. 끝써 우리 어머니는 비오는 날 내 옆에서 내게 우산을 맡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빗물에 녹아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가봐, 제발 간섭 좀 안해줬으면 좋겠어.」

이와 같은 「부모의 관심」 VS 「자녀의 요구」는 「부모의 염려」 VS 「자녀의 감정」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10대의 자녀들에게 온 편지를 몰래 읽고 전화를 걸 때도 숨어서 엿듣는 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아이들은 울분을 토해낸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다. 글썄 책상 설함을 열어보고 일기장을 훑쳐 보거든요」

어른과 아이는 「국민교육헌장」 VS 「고교교육헌장」의 관계

이렇듯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관계는 서로 부정하고 비슷한 관계처럼 보인다.

한편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요즘 젊은애들은……」라든지 「옛날에 우리는……」하는 식의 아이들에 대한 고정화된 인식을 보인다.

다음의 인용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김인회 교수가 진단해 본 그 현장(경향신문, 1985, 4·3~7·3)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이들의 버프장머리 없는 애기는 뒤로 미뤄 둔다고 해도 큰일 난 것은 요즘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도 일상 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처리할 줄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고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시내 북판에다 혼자 갖다 놓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집을 찾아 오는데까지 반나절이 넘도록 헤맬 것이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와서 엄마더러 돈을 치르라고 할게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할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알지도 못 하거니와 신경을 쓰려고도 안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다. ……몸만 커다랗지 살아가는 일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야무지게 처리할 줄 모르는 것이 요즘의 청소년들이다.」

「요즘 아이들은 한마디로 음식의 맛을 모른다. 더구나 맛과 함께 느끼는 정서나 기분에 대한 이해같은 것은 전혀 없다. 맛 보다는 음식 먹는 장소의 분위기를 중요시 할 뿐이다. 그러니 냉수에 보리밥 말아서 굴비반찬 해 먹는 전통적인 맛과 문화를 느낄 까닭이 없고, 어버이 세대가 애뜻하게 그리워하는 굴비맛을 알 까닭이 없다. 설탕의 단맛과 조미료의 누린 맛이 아이들의 감각을 버려냈다. 그러나 정말로 버려진 것은 음식에 대한 감각이 아니다. 굶주림을 전디는 감각, 배고픔의 맛을 공유하는 문화적 감각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연민, 감사, 동정 같은 정서가 메달라 가는 것을 뜻한다.

「어느 시대에서나 기성세대의 눈에는 젊은 세대가 버릇이 없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지만 요즘의 청소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버릇이 없어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도대체 저들이 자랄동안 언제 어느 곳에서 좋은 버릇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진단이 청소년들의 삶의 실재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느냐의 문제는 덮어두고서라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에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기성세대의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들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결과」라는 정형화된 인식 즉 성인의 색안경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 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소위 세대차란 말로 설명되기도 하는 성인과 아이들간의 갈등을 두 집단간의 독립적이고 이분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려 하며,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 자신에게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그들에 대한 처치, 다시 말해 청소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지식,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을 교육(지도)을 통해 길러주어 그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위 문제 청소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연구도 많이 되었고 또한 실천도 많이 되었다.

성인들의 또 다른 진영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어른(자신)의 문제로 환원하여 소위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사회가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들의 생각에는 청소년의 문제는 문제가정과 문제 부모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하나의 증상과 같은 것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청소년 자신을 통해서가 아닌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 두 진영의 어른들이 전자는 기성세대의 고정된 눈으로 그리고 후자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을 통해 이해하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청소년들 자신의 눈으로 본 청소년들만의 세계와는 커가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후자는 청소년들의 안경으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려 할지라도 성인들의 입장(패러다임)에서 청소년들의 세계를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 보다는

청소년들의 실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청소년들의 패러다임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실한 모습은 어른의 눈으로 본 그들이 아닌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본 삶의 실제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어른들의 삶과 청소년 삶의 차이를 세대차란 용어로 설명을 하면서 아직도 어른들의 생각이 옳고 청소년들은 그들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선대지향적 문화 양태를 보인다. 바로 이 선대지향적 문화양태는 어른들의 안경으로만 청소년들을 보려는 관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이드의 말대로 이제는 「훨씬 더」 상상적이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배려를 청소년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제화하여 미래를 요청하는 후대지향적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피부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문제의식과 사고태도를 살펴 알아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논의의 초점을 「어른 VS 아이」의 갈등으로 좁혀보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현장은 우리나라에 사는 30~40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암기했을 내용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온나라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민교육현장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감히 이 국민교육현장을 우스개로 만들어 버린 용감한(?) 아이들이 있다. 대학입시의 전투병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주범이다. 그들은 자신을 「입시전쟁터」로 보낸 오늘의 교육현실을 비웃거나 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소중한 문서를 주저없이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이 「고교교육현장」이라 부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 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이하생략)」

점잖고 고상한 국민교육현장을 이같이 우스개로 비웃었다고 노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현상황을 더 솔직히 그런 것같은 「고교교육현장」은 청소년 자신의 눈을

통해 본 우리의 정확한 교육현실인지 모른다.

흔히 어른들과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를 세대차로 표현할 경우 이는 이 두 세대간의 「안경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어른의 안경으로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볼 수 없다. 이론바 의식있다는 어른들이 흔히 쓰는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옛 이집트의 상형문자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문제시 하는 색안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른의 색안경은 아이들이 볼 때 마음이 맑지 못함을,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선량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위선등을 의미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색안경을 쓰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의 의식을 갖게 된다.

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안경은 무엇인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는 안경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관심은 바로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간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과 행동이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환경에는 부적합하며 「허구성 짙은 권위주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급진적이고 철없는 이상주의」를 경계하고 불안해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든다. 어렵고 힘들게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대학에 보낸 자녀가 어느덧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젊은이가 되어 버렸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절망감, 배신감은 엄청난 것이다.

한국일보가 1988년에서 1989년에 걸쳐 60회로 연재한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는 이 부자세대(父子世代)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야심찬 기획으로서 우리 사회의 갈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몇 가지 세대간의 갈등 사례를 인용해 보자

경찰공무원 A모씨는 운동권인 딸 때문에 몇 번이나 신분상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유난히 신경을 써 왔으나 그의 노력은 허사였다. 부녀는 「학생운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팽팽한 견해차 때문에 늘 입씨름을 하게 된다. 그런 생활이 거듭되어 부녀간의 갈등은 불신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딸은 공무원인 아버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관계기관에 조사를 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딸이 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에 가담해 A씨는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이 되버렸다. 아버지의 사퇴문제가 거론되자 딸은 내가 「운동권인 것과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아버지와 나는 별개의 인격체」라고 말해 또 다시 A씨를 놀라게 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경우 5공화국 시절의 공무원들에게 흔한 일이었다.

정부투자기관인 모공사(公社)의 부장인 G모씨는 여대생인 딸이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옳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많다는 식으로 말할 때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운동권에 휩쓸릴까 걱정이 되어 가능하면 씨클에 가입하지 말라고 타이르면 딸은 「씨클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며 또 남자를 볼줄 아는 시각을 갖게 된다」며 「아버지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대든다. G씨는 그런 딸을 조금이라도 운동권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주말이면 낚시나 등산을 함께 가자고 해 보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또는 씨클모임에 가야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이다.

또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자부하는 고급공무원 H모씨도 자녀들에게 「데모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무안을 당했다. 「데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 「자식들의 사고방식까지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일축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H씨는 「민주화 논리나 시국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 자식들을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상태」라며 자식들 말대로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실정이다.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上, 한국일보사, 1990. pp. 148-150)

위의 경우처럼 부모와의 갈등의 주인공인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현실안주와 보수성 때문에 구조적 불평등과 비인간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한다.

물론 어른과 아이 즉 신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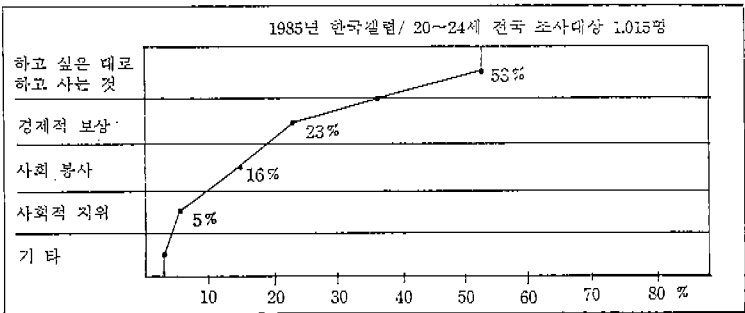
있다. 예컨대, 고려대의 임희섭 교수는 신세대와 부모와의 갈등은 반드시 민주화라는 명분에 얽힌 이념적 갈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식의 안위와 가족의 피해를 걱정하는 부모입장이 자식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연세대의 송복 교수는 농경사회의 전통속에서 성장한 기성세대와 다원화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신세대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세대는 극단적 부류이든 온전한 부류이든 기성세대보다 투쟁적·열정적·행동적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고집하는 가치규범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갈등의 일차적 원인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지않다. 우선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데에 있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태도 즉,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지금까지 국제간의 비교연구를 포함하여 대한히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런 조사들을 통해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부분 밝혀졌다.

1985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의 20대의 청년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결과는 몇 가지 두드러진 그들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한 예로서 개인의 행복과 한국전체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개인」(26%)을 「국가」(15.4%)보다 높게 평가하여 전체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높게 나타냈다. 「사회봉사형 인간」에 대해서도 22%가 「훌륭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반수가 넘는 59%가 「훌륭하지만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낯의 희생적인 삶은 평가할지라도 자신은 그런 삶을 선호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살아가는 목표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사는 것」(53%)을 「경제적 부」(23%), 「사회적 지위」(5%), 「사회봉사」(16%)

〈표 I - 1〉 삶의 목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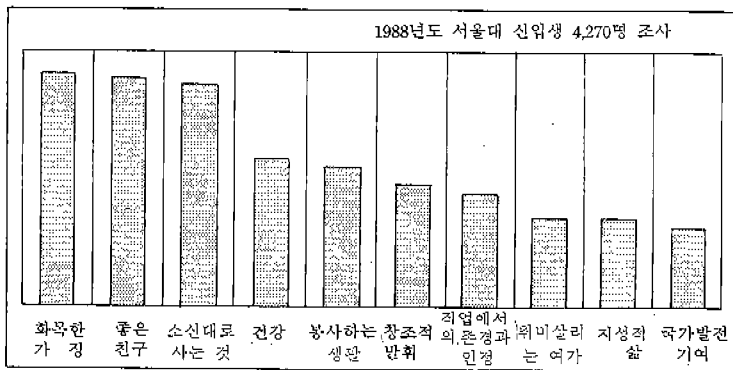


보다 앞세워 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들은 특히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예컨대, 「타인을 믿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5% 정도가 「믿고 살 수 없다」고 반응하였다.

아래의 <표 I-1>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떠한 지를 요약해 준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1988년에 신입생 4,2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표 1-2>도 이와 유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I-2>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일관되게 반영해주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들(기성세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으나 어른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낀다.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이 VS 어른」 간의 이분법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아이×어른」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황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심의 추점을 두려한다.

이는 「총체적인 관점」으로서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이 아닌 상황(context), 특이성(idiosyncracies), 복잡성(complexitie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화된 「사실」보다 「의미」를 추구하려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상황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청소년이란 개념을 「젊은이」, 「10대」, 「신세대」, 「아이들」과 같이 여러 용어로 애매하게 쓰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시기의 어린이부터 20대 후반의 청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이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그 조사의 대상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는 6년간의 간격속에 포함되는 아이들이라 하겠으나 특히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는 사고와 정서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어른(특히 부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인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당연히 성인들의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은 어른들을 부정적으로도 또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모를 좋아하면서도 부모가 일방적인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때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분개하다가도 어느 때는 세대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 :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간의 인식의 차이」 이것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것인지에 특히 관심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른과 아이들 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둘째,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

셋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영된 어른의 상(image)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어른과 아이의 갈등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 III장과 제 IV장에서는 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영역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은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조사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 V장은 요약과 결론부분으로서

「아이의 눈 VS 어른의 눈」을 대비시켜 청소년을 보는 어른의 관점 정립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Ⅱ.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에 대하여

II.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에 대하여

어른의 안정과 아이들의 안정의 차이가 바로 세대차이며, 이것이 두 세대간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하는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춘기 이후에 오는 소위 제 2 반항기로부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가치관을 이제 자기의 인식으로 개조함으로써 비롯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티없는 완전무결성과 이상을 추구한다. 이에 대한 추구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들은 흔히 이 마약에 도취된다. 이와같은 청년기의 사고는 당연히 기성세대의 현실위주의 가치관과 충돌을 빚게 마련이다.

발달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입장이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을 상당히 타당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나,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독립적이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 갈등을 정태적으로 설명한다는 약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과 아이간의 갈등을 「어른 VS 아이」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닌 「어른 X 아이」의 상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을 전제하였다. 이는 총체적인 입장으로서는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일반화된 법칙이나 사실 보다는 「의미」를 찾아내려는데 더 큰 비중을 둘을 말한다.

본 연구는 부모와 아이들간의 갈등의 원천을 부모와 아이들의 일상적인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찾으려 한다. 이는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상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아이들은 어른들을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도 본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분개하기도 하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맥락: 어른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어른이 보이는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그리고 어른과 아이 두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대체로 야기된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렇게 온 몸이 아프고 피로워서야 빨리 죽어야 나도 편하고 자식들 걱정거리도 하나 줄어들텐데…… 내가 집이 되서야” 입버릇처럼 말하는 병든 노인이 그래도 좋다는 보약은 다 챙기며 삶의 끈질긴 욕망을 나타낸다.」

「얼마전 신문의 해외 토막에 실린 기사 한 토막. “자살권 옹호단체의 창립자인 험프 리여사가 한 별관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인근 별장에서 찢막한 유서를 찾았다고 발표”(동아일보, 1991. 10. 11)」

위의 두 가지 정황은 말과 행동에 관하여 재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앞의 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뒤의 사례는 말 즉 자신의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진 일관된 삶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조금은 비약하는 면이 있으며 또한 극적인 예들 든 이유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결코 보편적으로 나쁜 또는 신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논제를 풀어나가려는 의도에서 있다.

흔히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자기주장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 등 보다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인간형 구분의 상징적 척도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있으며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사람인가?

다시 앞의 예문을 생각해 보자. 앞에 제시된 노인의 예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 사고와 행위를 감지할 수 있다. 노인의 말, 즉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삶에 대한 강한 본능적 집착이라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뒤의 예는 그 여자의 신념이 곧 행동으로 옮겨졌지만 해외토막에 날만큼 기이한 아니 적어도 이상한 행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어떤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궁극적인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점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사회속에서 상황과 다른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변수 때문에 제한된 이론에 불과하다. 이 점은 마르틴 부버가 쓴 글에서도 상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참된 사건의 굴절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은 말하자면 말이 사람안에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가운데 서 있으며 그말로부터 말을 하는 것이다.」(마르틴 부버, p. 23)

또한 행동의 관점에서도 말과의 일관성 관계의 예를 들 수 있다. 만일 어떤 코메디언이 극 중에서 예견된 행위—물론 시청자들이 미리 예측가능한 코메디는 가능할지라도—자신의 행동을 미리 설명하고 코메디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코메디의 요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예로 우리는 장난을 한다. 짚쑤은 장난꾸에 의해 튼튼한 의자에 앉는다고 믿고 앉았다가 의자를 빼는 바람에 나자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생활의 다양한 현상으로 표출되어지는 하나의 개인적 또는 인위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와의 관계(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령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과 행동은 늘 똑같을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만일 말과 행동이 항상 똑같다면 세상은 보다 투명해질지 모르지만 인류의 발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로 비유한다면 동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른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 또는 다중인격자, 못믿을 사람, 위선자 등으로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특히 못가진 자와 잘 가진 자 등의 사회·경제적 계층간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바담 풍하면서도 우리보고는 바람 풍하라고」 한다는 조소섞인 비난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이 아직 현실과 많은 또한 치열한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당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철없는 소리라고 외면해 버린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여러 측면 중 어른들과 아이들의 갈등의 원천이 되는 면에 대한 논의로 말과 행동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시각을 고찰해보자.

말과 행동 : 자연스러운 불일치와 인위적인 불일치

모든 말 뒤에 꼭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 사람의 사변작용은 큰 제약을 받게 되며 그러한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는 사실이다.

배고파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미워죽겠다.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다.

위의 문장들은 얼핏 보면 부사와 동사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표현된듯하지만 사실은 앞의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형태의 서술어가 쓰여진 예이다.

이렇듯 말과 행동은 그 관계의 특수성을 설정하기 전에 즉 행동을 암시하는 말이 즉각적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한 인간의 가치 또는 주체적 특성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자기자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뚜렷한 인간적 자각위에 섰던 것이며, 따라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인간은 참다운 의미로서의 주체적인 인간이 된 셈이다. 주체성이란 요컨대 객체에 대한 인간 태도의 자주성의 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능에 따라 자연계에 맹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적 인생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외계에 작용하는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것에 입각해서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는 단계에까지 우리들의 선조들이 진보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기술과 결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자각은 주체성 성립의 중요한 내면적 요소이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변경하고 동시에 또 그 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환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환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지위와 존재양식에 대한 자기 인식도 가져야 한다. (풀빛편, pp. 171-172)

따라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발전의 기초적 토대이고 원동력이다. 어떤 행동은 대상을 향한 의지 또는 욕구의 표현이지만 말은 자신을 향한 주체적 정신작용의 범위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의 원론적인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인위적인 불일치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모순과 특성 중에는 바로 자연스러움과 인위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하지

많은 태도를 내면적 가치로 고집하는 사람을 통해 왜곡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말과 행동은 인간의 겉과 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의 교제나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이같은 겉과 속, 즉 공적 얼굴과 사적 얼굴을 잘 배려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조종해 나간다. 이를테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오랫동안 길가다 만났다 하자. 속으로 재수없게 만났다. 빨리 가버리라고 속 얼굴은 징그리면서 겉으로는 「반갑다. 다음에는 꼭 한 잔 하자」고 겉 얼굴은 웃는다.(이규태, p. 263) 이렇듯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인간관계에 선의로 쓰일 수 있고 때로는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더럽고 징그러운 녀석은 처음왔다. 내일부터는 씻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다음날 열심히 물을 따뜻하게 데워 씻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불일치가 확고한 가치나 신념화되고 타인의 생활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에서 발전해 인위적인 불일치가 나타날 때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또한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명확히 보편화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의 말과 행동의 차이는 말에 비해 그 행동을 자주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

인조반정 당시의 공신인 김유 대감 마님의 생신날에 상류 고관 부인들이 빠짐없이 모였다. 당시 북변에서 날로 강해져 가는 호족이 미구에 우리나라를 침범하리라는 전운이 감돌 때라, 이 상류 사회의 마님들은 이 호족이 쳐들어 왔을 때 자기네 처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예외 없이 비수를 품고 다니다가 자결하겠느니, 투신하겠느니를 말했다. 의당 그러해야할 당위요, 명분을 말한 것이다. 그중 김모 승지 부인만이 당해봐야 알겠다고 용기있게 본심을 말한 것이다. 모두들 김 승지 부인을 빈축했고, 그중 이모 참판 부인은 「되놈에게 몸을 팔 년」이라고까지 막말을 했다. 대감 마님들이 예상했던 대로 임금의 피난하기에도 초급했을 만큼 호군이 서울을 점령, 남한산성으로 피난가던 일단의 대감 마님들이 삼전도 나루를 건너자마자 호군에게 잡힌 몸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당해봐야 알겠다면 김 승지 부인도 또 증론을 대변하여 「되놈에게 몸을 팔년」이라고 막말을 했던 이 참판 부인도 있었다. 한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수절하여 성난 호장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운 채 송파진 터 벌에 널리운 것은 당해봐야 알겠다면 김승지 부인뿐이요, 자결하고 투신하겠다면 마님들은 강물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어느 한 마님도 실천하지 않았고, 특히 되놈에게 몸을 팔 년이라고 막말을 했던 이 참판

부인은 호장의 애첩이 되어 전후 청나라까지 따라가 살았던 것이다.(이규테, pp. 263-264)

위의 사례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관한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김모 승지 부인을 욕한 이모 참판 부인이 더 현실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다. 또한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였는지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로 확신하는 인간도리의 당위가 행동으로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받는 상처는 김모 승지부인이 행한 현실에서의 가변성을 뒤집는 행동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 불완전한 확신에 가득찬 이모 참판부인의 말은 그의 행동이 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 말 때문에 더 한층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

한편 이와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인간의 윤리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윤리를 지켜가야 할 이유는 결국 사람들 자신의 이익, 그들 자신의 최대 만족에 있다는 것이다. 남들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도 남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 이문, p.91)

결국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주위의 상황 속에서 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남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기 위한 인위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혼란이 온다.

특히 어른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교육적인 학습모델로서 대하는 —또한 어른들은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어른들의 인위적인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아이들의 성장 및 사고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커다란 갈등 요소가 된다. 더욱이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오는 윤리적 가치관의 소용돌이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변화된 사회분위기의 특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적어도 애브라함 매슬로의 동기이론¹⁾을 근간으로 대입한 사회현상 설명에 동조한다면

1) 매슬로는 그의 동기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정 및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 등 5가지로 단계별로 분류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욕구단계를 사회적 발전단계로 대입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생리적 욕구 중 1차적 욕구의 생물학적 욕구(먹는 것 등) 단계를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생리적 욕구의 2차적 현상인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성적 욕구가 분출되고 자리잡아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당위간의 괴리가 가장 심한—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와 이렇게 해야한다는 등 성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하고 통제되어 있는 반면 성이 갖는 특성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현실화시키려는 면이 강하다—성의 문제에서 갖는 어른과 아이들과의 갈등은 심하다. 이와함께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토 등은 정신적인 면에 숭고성을 강조하는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심각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갖는 느낌과 태도는 어떤가를 알아본다.

어른들의 말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어른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 온 아이들에 대한 불만과 질타라면,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 「어른들은 거짓말한 하는 위선자들이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반항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도 커보면 안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어 사나? 나도 거짓말한다는 이야기 안듣고 양심의 가책 안받고 살고 싶다. 다 먹고 살라면 별 수 있나 너희도 어른이 되어 봐라」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책임을 져야할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다. 이것은 어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회현실과 부딪치며 살아간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속에서 그들은 아이들의 중심이 된다.

가정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은 가장 많이 만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그들은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회관계에서보다도 가정에서 훨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른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도 우리 아이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는데. 세상에 담배라니요. 그것은 불량한 학생들이나 피우는 것이지요」

상담을 해 온 어느 피상담자의 하소연에서 가정에서의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본다. 똑같은 아이라도 나의 아이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안된다. 그러나 다른 아이의

문제는 그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테두리가 가장 편안한 장소이고 고유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일관성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의식적으로 계속된다. 또한 많은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문제가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가정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자신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의식은 가치로 내재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어른들에 대해 불신하는 갈등의 근원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자연스러운 불일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현실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 어른들은 가장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말을 많이 한다.

「지도층의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소비를 하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같은 아이들이 접대하는 술집에서 회회낙낙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이러한 옳은 바람직한 말들의 향연은 곧 현실속에서 슬그머니 객관화되어 버린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술집도 골라다니며 마셔야 하나 가다 보며 아이들이 있는 술집도 갈 수 있고 나만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만 아니야? 가끔 가다가 친구들하고 내가 골프 좀 쳤기로서니 그렇게 방송에서 매도할 수 있어? 그래 그 친구는 이번에 도와주어야지 그래도 우리학교 동문 중에서는 똑똑한 놈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도 좋지 뭐」

이것은 앞서 말한 바대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다른 사람은 인위적인 태도나 생각에서 나오고 자신은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생활현상에서 비롯된다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든 그렇지 않든 간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른들이 어떤 부문에서 더욱 불일치를 야기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 생존자체, 즉 잘사는 일 자체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더욱 재미있게 사는 일에 관심을 옮겨온 우리사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왜곡되어 금전과 권력의 강한 욕구와 쾌락의 추구 등이 사회적 가치의 우선이 되는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른들의 행태와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다.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따라서 움직인다. 아이들도 말과 행동이 늘 같지는 않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해 놓고 하지 않고, 친구집에 놀러간다고 하면서도 만화가게로 향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들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말을 한다.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어도 그들은 어른들처럼 말과 행동의 차이 또는 괴리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말과 행동의 차이를 느끼면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심히 느껴 괴로워한다.

아이들은 이상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 말과 행동이 똑같이 살고 싶어한다. 자기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싶어한다. 이와같은 것은 때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렬한 반항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자신의 주체성을 통해 상대에게 존경과 실의 등 그 무엇을 얻으려는 욕망의 발로는 아니다. 그 불일치는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펼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는 아니다.

「어른들은 묘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리지만 이해합니다. 살다보면 거짓말 할 때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할 때도 있다는 것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른들은 자신이 해놓고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끄러워서겠지만 그런데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점점 삶이 꼬이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결인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며 지나치는 모든 사람에게 자애로운척하는 목사인 아버지를 우연히 본 아들의 냉소적인 말이다.

아이들의 세계가 어른들에 비해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며 단순한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단선적이다.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조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아이라는 사회적 한계(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신들만 살 수 있는 세계라면 서로를 속이지 않고 배운대로 실행하며 인간다운 윤리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싶어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기대한다.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어른이 되어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의 당위성을 갖고 그대로 행동하는 어른, 물질보다는 인간과의 정을 소중히 하는 어른을 바란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그대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된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많은 부분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이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모두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 즉 자신들에게 해준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실망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늘 제기되는 당연한 문제일까?

아이들은 이야기한다. 사람이 어떤 방식 또는 신념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며 이상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 동의하는 절대가치의 이상이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요새 어른들은 그런 기본적 삶의 명제에 대한 피로움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가치간의 어쩔 수 없는 괴리가 아니다. 삶의 표피적인, 육감적인 현상에 대한 선택과 집착에서 나온 황폐화된 그야말로 가치없는 모습이다.

「모두 가난한 마음으로 조금씩 남을 이해하며 살자고 외치면서도 왜곡된 자기확신으로 소비의 화신이 된 어른, 손녀뻘 되는 여자를 끼고 뿔건 눈으로 대낮 거리를 활보하며 남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떤 가치나 고민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일까?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오늘날 아이들은 어른들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기 이전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불일치가 아니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껍데기에서 나오는 지극히 인위적인 불일치를 자연스러운 불일치로 속이며 나아가 영뚱한 일관성으로 강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결국 말과 행동의 일관성은 너무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틀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며 그것의 불일치가 기본적 신뢰나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목표에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어른들과 아이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를 당연시하며 현실에 대한 개선보다는 윤리적인 삶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편하고 단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은 아이들과 어른들간의 또 다른 인식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예전엔 산에서 나는 수많은 약초들의 효능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화학적 실험으로 성분을 분석할 수 없었던 시대엔 오직 사람과 동물들의 체험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그 효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나 출판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까지 많은 희생이 뒤따랐을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병원보다는 민간요법으로 행하는 치료에 더 신뢰를 가진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모든 약초들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인체에 유용한 성분만을 빼내 간편한 약으로서 만들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 선대들은 약초의 효능을 알 수 있게끔 도와준 선조의 전통과 경험을 소중히 생각해왔다. 그것이 곧 그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은 이와같은 전통을 단지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증해주는 역사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시 하지도 않는다.

이와같은 상황을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의 전통과 관련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통이란 전해져 오는 것이라는 문자의 뜻보다는 현재의 생활에 비추어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 파악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전통이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모든 관행, 관습, 인습을 총괄해서 말하고 있다. 전통이란 말 자체는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물론 어른들이 그 주체가 되겠지만—들이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합의된 공동체의 신념체제이기 때문에 그 소중성이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전통은 그 시대의 역사성과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연대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시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전통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주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까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른들과 청소년들간의 해석과 평가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앞서 언급한 약초의 예와 같이 전통은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의 학술적

논리와 의미에 따르면 약초의 효능을 민간요법의 경험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비합리적이며 이미 전통을 계승하는, 즉 경험의 축적을 뜻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약초를 현대의 과학으로 분석하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전통을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른들은 전통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가?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은 기성세대 또는 구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의 결실이요, 터전 즉 자신들이 성취해 놓은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부정 기운을 잃으신 것 같다. 매일 시름시름 앓으시는 것 같다. 마음의 병인가 보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던 낡은 증절모와 요강을 버리고 난 후부터 그러시는 것 같다. 할머니는 내심 섭섭하신 눈치를 감추시면서 어머니의 그것들에 대한 무용론과 위생론에 고개를 숙이셨다.」

어느 여대생의 ‘할머니와 요강’이라는 글 중에서 우리는 기성세대의 지난 것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전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 이전에 기성세대가 전통 아니 정확히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키며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애착이며 새로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 아이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른들은 매우 소심하다. 처량하기도 하다. 위험스러운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 한다. 도대체 모험심이 없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른들은 자신의 삶의 폭이 좁아지는데 따른 두려움을 앞서 태어났다는 현상—이 개념에는 강한 권위의식이 내포되어 있다—으로 떨쳐내려는 강한 투사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물론 사회적 역할을 땃땃이 감당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위의 할머니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미련을 자기에 대한 자책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전통유산인가라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문제는 왜 어른들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고 고수하며, 그와는 달리 아이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바른 전통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감으로써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괴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이며 논의의 초점은 아니다.

이렇듯 전통에 대한 의미와 시각을 앞서 이야기한 것은 전통은 곧 권위의식을 수반

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전통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어른들은 권위를 갖고 싶어한다. 또한 그들은 적절히 그 권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더욱이 오랜 문화유산과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권위는 동양적인 사고체제가 가중되어 그 어휘는 절대적 힘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과학발달 이전의 농경사회 그리고 유교문화가 사회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었던 시대엔 권위의 힘에 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권위는 그 내용에 있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같은 권위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많은 갈등요인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권위자체에 대한 시각차이라기 보다는 권위를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상이함을 의미한다. 사실 이 차이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전한 사회 갈등이 될 수 있으며 사회가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진 활발한 모습을 보이게도 하지만, 문제는 갈등의 심화로 인해 바람직한 권위자체가 상실될 때의 일이다. 또한 이것은 자칫 전통을 부정하는 엄청난 파고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른과 아이들과의 시각차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비록 각기 상황 때문에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도 더 큰 위험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른들은 왜 전통적 가치에 따른 권위에 집착하며 고수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눈에는 어떤 형태로 비추어지는가?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권위에 따른 인식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권위와 권위의식

일반적으로 윗사람의 지위에 있는 기성세대(부모, 연장자, 직장의 상사)는 젊은 세대가 「전방지고 버릇이 없으며 예절을 지킬 줄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아랫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으며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 복종만을 요구한다」고 불만스러워한다.

이와같은 갈등은 우선 권위주의적 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즉 아랫사람의

‘정당한’ 권리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자신의 공적인 지위에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인격적이고 사사로운 관계에 까지 연장해서 행사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권위주의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문화전통과 사회발전, p.226)

사실 권위는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이다. 권위는 상대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성립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권위는 그 행위형태로서 권력을 동반한다. 즉 권력이 정당성을 승인할 때 비로소 권위가 된다. 이것은 권위주의와는 다른 말이다. 외재적인 권위에 대하여 자기비하와 복종하는 태도 및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권위주의이다. 사람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사물을 인정, 평가등을 하는데 감정적, 정서적 일정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사고는 힘에의 맹신, 일체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반이성적 반근대적 내용을 가진다. 요약하면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권위적 사고 즉 감성적인 권위가 사회 속에서 존재할 때의 갈등이다.

보편적으로 감정적인 요소의 권위는 어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것은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힘에 앞서 이전 사회적 체제와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생각과 자신의 선행경험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경우이다.

기업간의 제품판매경로를 협상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A 회사의 사장과 B 회사의 회장 즉 실질 경영주끼리 만나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털어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젊은 A 회사의 사장논리가 그 협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 B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B 회사의 회장이 불리하게 되자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A 회사의 사장에게 「자네의 선친과 나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였네 자네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이 한마디에 A 회사의 사장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B 회사의 회장말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어른들의 권위의식은 논리 또는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우격다짐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권위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학술적인 용어로 쓰는 경

우의에는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말을 따로이 구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

막스·웨버는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그가 말한 권위를 구분한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본 논의에 적용하면 카리스마적 권위는 역사성과 사건 또는 신의 은총 등으로 부여받는 하나의 특수한 능력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위는 아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가 통용되는 실정이다. 전통적 권위는 기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시말해 기성세대라는 기득권과 그들의 합법화된 권리의 혼합물이다. 이것은 관습이나 법률에 의해 행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분에 의해 사용된다. 반면에 합법적인 권위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고 어떤 직무나 직책에 따라 적법한 권위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위 기성세대 즉 어른들이 내세우는 일반적인 권위의식은 전통적 권위의 성향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합법적 권위만을 인정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같은 갈등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합법적 권위로서만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무런 사회의 위계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아이들은 어른들이 떳떳하다면 합법적 권위로서만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자신들을 교육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권위에 대한 해석과 함께 권위가 행사되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 심리학적인 용어이지만 권위에 따른 행동에 의한 제한된 범위를 수용권(zone of acceptance)이라 한다. (Herbert Simon, p.12)

만일 권위있는 사람이나 직위가 수용권을 벗어나서 권위의 행사를 시도한다면 불복종할 확율이 많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전문적 권위를 필요로 하며 이 권위는 환자의 행동에 통제를 가한다. 즉 여성 환자의 경우 남자 의사앞에서 쉽게 옷을 벗는다. 이것은 환자의 수용권의 한계밖에 있는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는 전자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학생의 사적인 일, 똥똥한 학생에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조금 먹으라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수용권 밖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른들의 전통적 권위의 집착은 거의 심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전통적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즉 수용권을 벗어난 어른들의 행태를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와 권위의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른과 아이들은 권위를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어른과 아이들간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와 권위에 의해 놀림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해 버린다. 그들은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권위의식을 간과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도 자신들의 세계에서 권위의식의 만연을 도외시 하거나 크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권위 대 합법적 권위

아이들은 어른들은 전통적 권위에 집착이 강하고 자신들은 합법적 권위의 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아이들은 산업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영향 그리고 급속히 이루어지는 정보전달의 영향으로 어른들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교육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해온 권위가 그 능력을 상실당하고 있다. 요사이의 유치원 어린이에게조차 「돌라도 돼,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경우 자신의 옷은 자신이 선택한 것만을 고집한다. 엄마가 풀라주는 대로 입던 옛날 어른들의 어린시절과는 다르다. 일일이 그 수준에서 납득이 가고 수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꺼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 더 이상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에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부장적 제도아래에서 과거의 며느리들은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의 부덕을 요구 당하며 남성위주의 권위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었다. 나이 어린 시누이가 손위 올케로부터 식사준비부터 설거지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손하나 까딱않고 식사 시중을 받았으며 직장에 다니는 부인을 둔 남편도 가사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등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시달리며 생활해왔다. 이같은 권위의식이 통용되었던 이유중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권위에 굴복하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권위에 의지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은 그러한 권위에의 의지를 점차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제 맹목적인 복종은 아이들에게 미덕이 될 수 없다. 가족 내에서도 가사분담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전통적 가치나 윤리에 따른 권위의 무조건적 복종의 요구는 결국 가족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치마를 입고 다니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당한 말이 아니다. 물론 치마를 입는 모습이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더 여성스럽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바지가 편할 때도 있고 더 멋있을 경우도 있다.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아버지의 이야기는 수긍할 수 없다. 그냥 욕박지르면 된다고 믿으시는 아버지가 어느 때는 가엽기까지 하다.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할 수 없이 학교에 와서 바지로 갈아입고 다닐 때가 많다. 아버지는 내가 바지를 입으면 무척 나쁜 아이가 되는 줄 아시는 듯이 기겁을 하신다.」

그렇다고 아이들은 늘 합법적 권위만을 갖고 그들의 세계속에서 생활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권위를 가장 배척하는 아이들에게조차 권위의식 성향이 강하게 젖어 있음을 본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의 조사연구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우익, 보수적 권위주의 체제에 수용적인 성격증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정도의 권위주의적 복종과 강인성 지향적인 증후를 보이고 있다. 즉 권위에 대한 맹목적, 무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그러한 권위에 대한 힘의 행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향은 학생들의 성별, 가정배경별, 종교별 차이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지적인 성숙 정도와 관련없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치 이데올로기 색채를 가미하지 않은 독단적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독단 정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 예로 운동권의 한 대학생은 「운동권은 철저한 상하 구별이 있어 수뇌부를 각 하라고 까지 부른다.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다. 전술상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하기 위해 서러지만 민주정치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권위주의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와 합법적 권위 중 어떤 권위가 더욱 실제적인 위력과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권위를 실제 권위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집착하여 합법적 권위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같은 권위는 사회적 변화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에 대한 갈등은 세대간의 사고방식을 양분하여 판단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어른들은 전통적이며 도식적인 동시에 감정적이다. 반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나의 선생님은, 부모는 무조건 합리성과 정형화된 사회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한다. 우리 같은 아이들의 입장은 한번도 생각하여 주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은 전통적 권위에 대항하는 합법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개개의 수준에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전통과 권위라는 어휘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권위의 확대는 권위주의적 양심의 확산을 가져온다. 권위주의적 양심은 자율성이 아닌 타율에 의거한 사회질서나 개인의 일정한 행동형태의 유지이다.(이상우, p.84) 이것은 건강하지 않지만 관계를 갖는 인간에게 있어 불가피한 사고 또는 행동의 틀이 된다. 따라서 그것이 합법적인 권위이건 전통적인 권위이건 어른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무척 소중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는 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강압의 수단일 경우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이 전통적인 권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불가피한 인간생활의 현상이라 수용하면서도 그 권위의 행사에는 어른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른들이 권위가 없어요, 욕박지르려고만 하지요. 오래 살았고 힘센 것이 권위인가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들의 도덕성, 근면성, 자주성으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경험이나 어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비굴하지요. 힘깨나 있는 사람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등 절제가 없고 힘없는 사람은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참권위를 찾을 수 있는지 딱막할 때가 있어요.」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이 전통적 가치를 집착하고 고수하는 행동을 권위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르게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지만 간혹 그 권위가 합법성을 상실한 즉, 전통적 가치를 재해석 노력없이 단순히 전승되어진 권력으로 책임감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반감이 강하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당면문제라는 현실아래에서 권위를 복합적인 인간생활의 요소로 보고 있다.

3. 인식의 세대차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버지가 갈비를 두 대 먹는 동안 나는 다섯 대나 먹을 때 세대차를 느낀다.」

세대차란 갈비 다섯 대와 두 대 먹는 차이인가?

어쩌면 옳은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갈비를 먹는 습관—좋은 음식도 늘 먹어본 사람만이 잘 먹는다—에 익숙하지 못하고 아들은 갈비를 먹는데 익숙한 음식 문화에서 자라나 훨씬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것은 문화적 환경과 이로 인해 생기는 의식의 차이이다. 우리의 경우 아버지 세대는 갈비보다 채소를 먹는데 익숙한 생활일 수 밖에 없었고 오늘날 아이들은 그 반대로 갈비먹을 기회가 더 많다. 갈비는 분명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지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전에는 쉽게 먹을 수 없었다.

서로 의식의 합의를점을 찾으려는 세대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시간성 때문에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차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서로 다른 기대욕구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원전 이집트 상형문자의 「요즈음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라는 해석을 거론치 않더라도 어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진보적인 사고나 행동에 대해 늘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어른들의 경험적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며 어른들의 세계는 고루하고 진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질책한다.

사회적 준거체계가 다른 이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당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의 사회질서를 이끌고 있는 어른들과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은 서로의 관심 세계가 틀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의 과정은 어쩌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깨끗한 간난 어린이로부터 삶의 갖가지 모습을 그리며 그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인지 모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어른들은 자연히 현실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와 과정을 이행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반면 아이들은 현실을 자기의 이상과 목표를 수정하는 열려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가 그 긍정적인 사회적 갈등을 요소가 될 수 있는 면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는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세대차를 넘어 세대간의 단절로 이르게 된 원인을 사회적 현상 안에서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어른과 아이들간의 이해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세대간의 인식수준과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른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할리

「할머니상을 당하고 빈소에서 어머니가 호곡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곡을 하려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또 어른들이 문상객을 맞을 때 눈물은 흘리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아이고’하고 소리로만 곡을 하는 것이 우스워 웃음을 참느라고 혼이났다. 그 뒤 49제 때도 절하는 법을 몰라 꾸중을 들었다. 기본적인 의례는 배울 생각이지만 그러나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예절은 의미가 없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습의 변화되어가는 과정도 알 수 있지만 또한 세대차이라는 의미에서 요즈음 아이들 생각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면을 보인다. 그들은 변화가 필요하면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어른들과는 항상 갈등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성세대 즉 어른과 신세대인 아이들과의 경험상의 차이에 따른 인식차와 지금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상의 차이 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를 성장배경으로 가진 어른들은 이미 도시화되고 대중화된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아이들 세대와는 생활감각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경험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의 생활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엇갈린 평가 속에 대화단절에까지 이르게 된다.

「요즈음 아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용한 분위기에 공부하라고 독방을 마련해 주었더니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고 공부하기 일쑤고 조용하다 싶으면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돌려가며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러고도 공부가 되는 건지……」 반면 아이들은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조용한 가운데서만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예요」라며 오히려 어른들의 물이해를 몰아붙인다.

이외에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외국가수나 국내가수에서 열광하고 랍바다 춤을 즐기며 유니섹스적인 옷차림에 유행어, 은어, 약어를 즐겨쓰는 언어생활을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한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는 상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틀에 맞추길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단막을 만들게 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문화인 것이다.

60~70년대의 산업화를 주도해 온 어른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보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는 같은 사상을 갖고 있지만 전통주의와 권위주의가 짙은 사회적 환경에서 실제 생활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다분히 보수적이며 권위적이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었고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열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근면과 성실을 제일신조로 삼고 개인적인 성공과 신분상승을 꾀하면서 엘리트지향적이고 출세주의적인 인생관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개인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큰 꿈없는 소시민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학회(1990)에서 조사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덜 놀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62%인데 반해 젊은 세대는 2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좀 적게 놀더라도 여가를 즐기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 기성세대는 36%인데 반해 젊은 세대는 69%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일하고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 세대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이런 경향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운동도 집단운동보다는 혼자서

또는 두 명이 하는 운동을 선호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 모든 것에 내면화돼 있는 어른들에 비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양보하는 상황도 합리적일 때 가능하다. 어른들이 다소 비합리적이거나 포용적인데 반해 아이들은 합리적일지도 모르지만 단편적이고 순간적이다. 또한 질적으로 변화되어진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인간관계의 서열성보다는 평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강조하고 개인이 집단에 우선한 개인주의가 내면화되어 있으며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주부 김 모씨는 제사때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큰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아들은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묵념만 해 집안 어른들로부터 꾸중을 듣기 일쑤이다.

식당을 경영하는 최 모씨도 자식이 야속할 때가 많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아들 하나만 믿고 뒷바라지 해온 최씨는 얼마전 결혼한 아들이 자꾸만 「나가 살겠다」고 우겨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최씨는 아들을 불러 달래곤 했으나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도 너무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의 삶을 찾으라」고 충고했다.

D자동차 회사 과장 이 모씨는 최근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너무 이기적인데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퇴근 후 회사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곧바로 귀가하기 바쁘고 회사의 특별한 행사나 전체적 모임이 있을 때는 갖은 핑계를 다해 빠지거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하더라도 1차만으로 끝내고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게 보통이다. 또 조금만 더 하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일도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덮어버리고 어찌다 갑작스럽게 야근이 걸리면 대놓고 불평불만을 터뜨린다.(한국일보사회부, 1990).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경험의 차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인식을 요구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생활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두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른들의 사회화에 대한 기능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준거집단으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 체계와 행동양식을 갖게 만든다.

세대단절

칼 만하임은 세대를 사회학적 의미에서 해석하여 세대의 상황, 관련, 통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Karl Mannheim, pp.276-320)

그가 말한 세대의 상황은 세대가 태어나는 사회적 기반을 말하며, 세대의 단절은 세대상황아래서의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문제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며, 세대의 통합은 세대가 집단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힘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세대차이는 원론적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세대간의 경험과 문제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는 세대의 상황이나 관련을 가지는데 불가피한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세대차이는 그것이 가지는 괴리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초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세대차이가 세대간의 생활속에서 상호작용도 못하는 단절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 일어난다.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신다. 그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 딱하시다. 나는 나고 어머니는 어머니이다. 어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그만두었다.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버스 안에서 앉아 있던 어떤 아저씨가 나의 가방을 받아 주었다. 사람이 많아 엉겁결에 그냥 말기고 내릴 때가 되어서 가방을 집어 승강구로 가는 순간 아저씨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학생은 고맙다는 말도 안해? 나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않고 내렸다. 나는 고마운 줄 안다. 그렇다고 꼭 표현해야 하나 어른들은 이상하다. 늘 이런 식이다. 생색을 내려고 한다. 물론 그 아저씨의 섭섭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은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모른다. 사실 그냥 야단 한 번 맞으면 될 일이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세대격차 또는 세대단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원인-결과와 단선적 논리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그 원인은 역사성과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 세대간의 연계와 전승통로의 문제도 부가될 수 있다.

예전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식과 그에 대해 역동적 반항의 힘을 키워왔다. 따라서 그 세대는 이전 세대의 경험적 모습과 행위 그리고 사고를

바탕으로 한 변증법적 체계의 발전을 해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은 새로운 상황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항을 정보의 개방을 표명하는 각종 수단을 통해 모두 열어 놓았다. 이로인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제시된 현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우리와 같이 경험적 문화유산이 지배했던 과거와 서구 문화의 화려한 유입을 통해 변화한 현재와의 갈등은 세대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세대의 단절을 가져올 소지가 매우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성세대를 축으로 한 젊은 세대의 변혁과 개혁에 따른 세대차의 문제가 아닌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고를 탄생시키므로서 서로의 단절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다. 정정해 보이셔서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나무랬다. 나는 그냥 일어서서 다른데 가서 서 있었다.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귀찮았다. 어른들은 자신의 세계가 소중할 것이다. 그 세계는 우리와는 다르고 또한 나는 별 관심이 없다.」

결국 세대의 단절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세대간의 무관심은 한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범주를 좁혀 놓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앞서 말한 세대간의 단절에 대한 징후가 예사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세대의 단절이라는 어휘와 관념이 젊은 세대 즉 아이들의 인식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다.

「어른들은 심각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제 방송매체에 나와 어떤 정책에 대해 약속을 한 지도자가 오늘은 신문을 통해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어른들은 남들을 위한 삶이 보람되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남들을 짓누르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수단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한다. 결과가 좋으면 나쁜 수단이라도 면책되어 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려고 애쓰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은 인생을 젊음을 즐긴다. 그들은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어른들처럼 직업이나 위치에 대한 비굴한 존경을 하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 나는 나 스스로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젊은 세대는 매우 현실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 기성세대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산업화되고 정보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의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신체적, 생리적으로는 빨리 성숙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가치있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병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늘 적응하는 심리적 긴장을 경험한다.

주부교실중앙회가 성년기를 앞둔 중고교생 자녀와 어머니들이 부딪치는 교육생활의 전반적 문제를 토론허기 위해 마련한 대화모임에서 어머니들은 공부로 인해 대화시간의 절대 부족을 내세웠으나 자녀들은 단 5분이라도 성의있는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큰 괴리를 보였다. 한 어머니는 딸 아이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9시에 집에 온다면서 「공부이외에 다른 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못한다. 대화도 피곤해 할까봐 피한다. 일요일에는 편히 쉬도록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고충을 털어냈다. 또 한 어머니도 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춘기 자녀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이같은 어머니의 정성은 과잉보호, 간섭, 극성스런 엄마로 느끼게 할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딴 데에 있다」는 것이 자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 고등학생은 「우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5분이라도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은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우리 아들은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있게 단언한 엄마에게 아들은 「문제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자제하고 있어요」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86, 5. 20)

이전보다 현실사회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갖기

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만 어른들의 이해부족으로 그 통로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은 때로는 자기폐쇄적이거나 대화단절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사이 중 어떤 세대가 더 옳은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시비 이전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 세대의 가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것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면 다가오는 세대의 생각은 그들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성세대는 세대의 단절을 깊이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농경사회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어른들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아이들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의 시대적 경험의 현격한 차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이 갈등은 사회발전의 힘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사회 구조적 역동 속에서 세대의 단절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른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수직적 인간관계 속에서 복종, 극기, 인내, 근검절약 등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지배와 복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체면 등을 존중하는 형식주의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탈권위주의를 표방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런 어른들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로부터 버릇없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와 인정주의에 입각한 어른들의 사고방식도 아이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연령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경험과 외식의 차이로 세대차이를 보았던 어른과 아이들의 눈은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속에서 서로의 문화적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고 그를 토대로 다른 세대와 연관지으려는 세대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는 다른, 스스로 형성한 문화수준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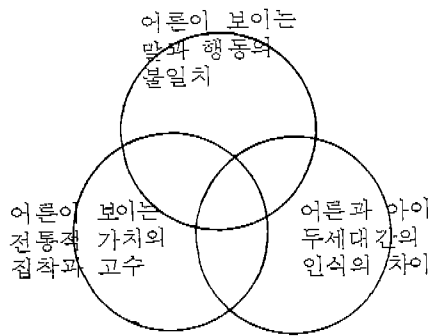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청소년과 어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적 인식론의 문제로서,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른과 아이의 이분법적 관계를 가정하는 「원인-결과」 패러다임의 오류를 인식하여 「부모×자녀」 또는 「어른×아이」들간의 상호작용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기본적 상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모와 아이들간의 관계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총체적 관점이란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황, 독특성, 복합성, 상호의존성 등에 탐구의 주안점을 두는 입장으로 탐구에서 일반화된 「사실」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관점은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그것을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어른과 아이들의 갈등은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그리고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가 주요 갈등의 원천이다.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개념모형

○ 조사도구 제작의 근거는 어른과 아이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의 관점과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개념모형이었다.

； 질문지는 위에서 추출된 3개 영역에 따라 본 연구진에 의해 설문문항이 작성되었다. 설문은 세 영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갈등상황을 제시하여 그 반응을 선택케 한다든지, 세대간의 인식의 비교를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등이다.

○ 조사 대상을 위한 표집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이다.

〈표 II-1〉 응답자의 학교급별·지역별 분포

[단위: 명(%)]

지 역 \ 학교급 성 별	중		고		합 계 (%)
	남	여	남	여	
서 울	87	95	99	102	383(24.4)
강원/춘천	52			55	107(6.8)
충남/대전	49	45	49	48	191(12.2)
충북/청주		54	55		109(6.9)
전남/광주	45	51	39	49	184(11.7)

전북/전주	45			55	100(6.4)
경남/부산	44	97	98	49	288(18.4)
경북/대구	52	53	51	51	207(13.2)
계	374	395	391	409	1569
(%)	(23.8)	(25.2)	(24.9)	(26.1)	(100.0)

〈표 II-2〉 응답자의 성별·학교급별 분포

[단위 : 명 (%)]

성 별	남	여	계
학 교			
중 학 교	374(23.8)	395(25.2)	769(49.0)
고등학교	391(24.9)	409(26.1)	800(51.0)
계	765(48.8)	804(51.2)	1569(100.0)

〈표 II-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지 역	서 울	직할시	기타시	계
비 율	383(24.4)	870(55.5)	316(20.1)	1569(100.0)

〈표 II-4〉 응답자의 개인배경 - 부모의 연령

[단위 : 명(%)]

연 령	부	모
30대	39(2.5)	283(18.0)
40대	978(62.3)	1070(68.2)
50대	440(28.0)	193(12.3)
60대이상	33(2.1)	12(0.8)

〈표 II-5〉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의 학력

[단위 : 명(%)]

학 력	부	모
무 학	11(0.7)	32(2.0)
국 중	148(9.4)	317(20.2)
고 중	284(18.1)	451(38.7)
대 중	653(41.6)	597(38.0)
대졸이상	83(5.3)	11(0.7)

〈표 II-6〉 응답자의 개인배경-부모의 직업

[단위 : 명(%)]

직 업	부	모
무 직	42(2.7)	871(55.5)
일용근로자	118(7.5)	80(5.1)
근로자	227(14.5)	98(6.2)
농림어업자	125(8.0)	112(7.1)
자영업	399(25.4)	283(18.0)
사무직	469(29.9)	94(6.0)
관리직	63(4.0)	7(0.4)
전문직	48(3.1)	13(0.8)

〈표 II-7〉 응답자의 개인배경-가족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소 득	비 율	소 득	비 율
30만원미만	43(2.7)	90~110만원	338(21.5)
30~50만원	139(8.9)	110~130만원	180(11.5)
50~70만원	229(14.6)	130~150만원	140(8.9)
70~90만원	255(16.2)	150만원이상	243(15.5)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5개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전집의 비율에 따라 한 학급씩 단순무선 표집방식으로 1,600명을 표집하였으나 분석된 사례수는 1,569명이었다.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분석의 주요 변인은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그리고 응답자의 가정배경 변인인 부모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정의 소득수준 등이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주요 통계적 방법은 Frequencies, χ^2 test였다.

Ⅲ.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

III.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

앞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갈등의 원천을 세 측면 : 말과 행동의 일관성,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위의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눈을 통해본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1. 어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는 아이들의 눈

「이그, 이 바보야, 막 퍼주면 어떡하니?」 하며 엄마의 손은 여지없이 내 머리로 직행했다. 「내가 바보까? 정말로?」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웃기는 일을 당했다. 전번에 TV를 보고 있는데 벨이 울렸다. 나가보니까 어떤 어저씨가 쌀푸대를 등에 지고 자기는 불행한 이웃을 위해 쌀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갑자기 불쌍해 지면서 나는 쌀 한 바가지를 퍼서 그 어저씨께 드렸다. 밖에 갔다오던 엄마가 쌀을 주는 것을 보더니, 나를 바보라 꿀밤을 때렸다. 의문이 간다. 내가 쌀을 준 것이 바보들이나 할 짓일까?

또 한번은 학교에서 수재민을 돕는다고 쌀을 갖고 오란 적이 있었다. 라면 한 봉지 양의 쌀을 가져오라 했는데 엄마는 불쌍하다면서 쌀을 비닐봉지로 가득 준 적이 있었다. 정말 엄마는 그들이 불쌍해서 일까? 아니면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일까? 진정 그들이 불쌍했다면 엄만 바보다. 불쌍해서 쌀을 내준 나에게 바보라 했으니, 엄마도 역시 바보일 수밖에 없다.

난 그 사건으로 이것이 세상이요, 사회라는 것을 배웠다. ‘아’와 ‘어’가 다른 세상, 사회……. 이중삼중의 인격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

이것이 어른이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만든 사회인 것이다. 개조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스승인 우리가 하는 것이다.

어깨의 짐이 하나 더 올랐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다. 왜냐 우리는 개조할 줄 아는 바보이기예……. (푸른나무II, pp. 125-126)

어느 중학생이 쓴 위글은 어른들을 모두 위선자로 몰아부치기에 충분하다. 왜 그들의 눈에 많은 어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로 보일까? 이는 간단히 답할 문제가 아니나 우선 아이들과 어른들의 사고양식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실에서의 문제점들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어른들은 보다 가변성있고 융통성을 갖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려는 차이일 것이다. 즉 아이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에는 단 하나만의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어른들은 다양한 선택 속에서 그 해결을 생각해 내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어른들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이는 가상의 몇 개의 갈등적 상황을 예문으로 아이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였다.

〈예문 1〉

옛날, 몸이 허약한 한 사람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 마침 다른 나라와 전쟁중이어서 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고 있었다. 그 청년도 전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고을 원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징집에서 면제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소 아홉마리의 털 중에서 하나 빠졌다 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하고 애원하였더니, 그 말이 그럴 듯하게 들렸던지 원이 그 청년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즉 소 아홉마리의 털처럼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 한 사람 면제해 준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정의는 지켜야 한다

대다수의 아이들은(61.4%)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이는 아이들 눈으로 볼 때 국민의 의무로서 당위로 인식)를 개인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수의(18.6%)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다.

〈표 III-1〉 징집영장을 받았어도 전시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3.1	11.8	19.6	26.5	29.6	23.9(373)
남 고	5.1	11.3	17.6	34.0	32.0	24.9(391)
여 중	6.3	7.6	24.6	31.9	29.6	25.2(395)
여 고	5.9	13.7	19.1	33.3	28.1	26.1(409)
합 계 (실수)	7.5 (118)	11.1 (174)	20.2 (317)	32.5 (494)	29.7 (465)	100.0 (1568)

$\chi^2 : 38.39^{***}$

*P< .05, **P< .01, ***P< .001

〈표 III-2〉 “소 아홉마리 털 중에서 하나 빠졌다 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은 일리가 있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8.3	11.5	15.2	23.3	41.7	23.8(374)
남 고	6.4	9.5	12.0	30.9	41.2	24.9(391)
여 중	7.3	11.9	14.2	26.3	40.3	25.2(395)
여 고	4.2	10.5	9.3	28.1	47.9	26.1(409)
합 계 (실수)	6.5 (118)	10.8 (174)	12.6 (317)	27.2 (494)	42.6 (465)	100.0 (1569)

$\chi^2 : 38.39^{***}$

*P< .05, **P< .01, ***P< .001

위 두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당위적인 태도 즉 징집영장을 받았으면 목숨의 위태롭더라도 전쟁에 나가야 하며 아무리 그 청년이 허약하더라도 병역의무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회정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예문과 같은 상황에서 당위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자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 Ⅲ-3〉 위의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도 청년의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3.6	14.2	29.4	14.7	28.1	23.8(374)
남 고	15.3	25.3	25.1	15.1	19.2	24.9(391)
여 중	11.6	12.2	34.4	17.7	24.1	25.2(395)
여 고	11.5	22.7	26.7	17.4	21.8	26.1(409)
합 계 (실수)	13.0 (204)	18.7 (293)	28.9 (453)	16.3 (255)	23.2 (364)	100.0 (1569)

$\chi^2 : 38.39^{***}$

*P<. 05, **P<. 01, ***P<. 001

자기의 아버지의 경우에 사회정의를 어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39.5%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어른의 행동을 불신의 태도로서 보고 있는 아이들이(자신의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3, 중립적인 태도의 아이들이 약 1/3, 그리고 신뢰의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1/3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불신하는 태도는 다음의 예시상황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문 2〉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의 아버지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공장에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철수 아버지에게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면 물건값을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그럴 경우 다른 회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 결국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해방지 시설은 무리이다

위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47.9%)이 철수 아버지 회사의 형편으로 보아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무리라고 일단 현실긍정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3이상의 아이들은 어쨌든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의 <표 Ⅲ-4>는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 제시한 것이다.

<표 Ⅲ-4>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무리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4.7	26.7	25.1	16.3	17.1	23.8(374)
남 고	11.0	46.5	15.3	20.7	6.4	24.9(391)
여 중	8.9	32.7	25.1	22.8	10.6	25.2(395)
여 고	6.1	44.5	18.1	24.0	7.3	26.1(409)
합 % (실수)	10.1 (158)	37.8 (593)	20.8 (327)	21.0 (330)	10.3 (161)	100.0 (1569)

$\chi^2: 89.22^{***}$

*P< .05, **P< .01, ***P< .001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 어른들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의 <표 Ⅲ-5>에서 보듯이 88.2%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정직한 행동 즉, 돈이 많다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표 Ⅲ-5> 돈이 많아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 어른이 많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53.5	26.7	9.9	2.9	7.0	23.8(374)
남 고	67.3	24.8	3.1	1.3	3.6	24.9(391)
여 중	53.2	32.9	9.1	1.8	3.0	25.2(395)
여 고	64.1	29.6	2.2	0.5	3.7	26.1(409)
합 계 (실수)	59.6 (935)	28.6 (448)	6.0 (94)	1.6 (25)	4.3 (67)	100.0 (1569)

$\chi^2: 62.96^{***}$

*P< .05, **P< .01, ***P< .001

그러나 이 상황을 자신의 부모와 연결시켜 물어본 질문에는, 약 18%정도만이 「자기

아버지의 경우에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을 보여 어른들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자기의 부모의 경우에는 보다 관대하게 생각하려 한다.

〈표 Ⅲ-6〉 위의 경우 우리 아버지도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7.0	10.2	39.6	17.6	25.7	23.8(374)
남 고	7.9	16.1	39.6	21.2	15.1	24.9(391)
여 중	3.5	7.3	41.8	23.8	23.5	25.2(395)
여 고	5.4	14.2	40.3	27.0	18.1	26.1(409)
합 계 (실수)	5.9 (93)	12.0 (188)	40.3 (633)	21.2 (333)	20.5 (322)	100.0 (1569)

$\chi^2 : 39.93^{***}$

*P<. 05, **P<. 01, ***P<. 001

자신의 부모와 관련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은 다음에 제시된 두가지 사례(예문3, 예문4)에서 잘 보여진다.

〈예문 3〉

어떤 지역에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회관 설립이 좌절되고 만 적이 있다. 이 때 그 곳 주민들이 내세운 회관 건립 반대 이유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 아이들의 교육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 집 값도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장애자와 고아들의 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어른의 이기주의이다.

위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회관 건립을 반대한 이유는 간단히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른들이 들고 있는 이유는－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회관이 건립되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 67.5%가 반대하고 있고, 13%만이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아이들은「그래서는 안된다」는 식의 당위적 인식을 보여주는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이 또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당위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표 Ⅲ-7〉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회관이 건립되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7.0	11.5	25.7	24.6	31.3	23.8(374)
남 고	4.1	10.2	12.8	34.8	38.1	24.9(391)
여 중	3.5	7.6	20.5	32.9	35.9	25.2(395)
여 고	1.2	7.1	12.0	36.4	43.3	26.1(409)
합 계 (실수)	3.9 (61)	9.1 (142)	17.6 (276)	32.3 (507)	37.2 (583)	100.0 (1569)

$\chi^2 : 68.44^{***}$

*P< .05, **P< .01, ***P< .001

이와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아이들(76.9%)이 장애인과 고아들을 회관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표 Ⅲ-8〉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회관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들의 행동이 옳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6.1	5.6	21.4	28.1	38.8	23.8(374)
남 고	2.0	4.3	13.3	34.0	46.3	24.9(391)
여 중	2.8	5.6	15.4	32.9	43.3	25.2(395)
여 고	1.7	4.2	10.8	32.4	51.0	26.1(409)
합 계 (실수)	3.1 (49)	4.9 (77)	15.1 (239)	31.9 (500)	45.0 (705)	100.0 (1568)

$\chi^2 : 41.56^{***}$

*P< .05, **P< .01, ***P< .001

소수가 다수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아이들(51:4%)이 소수가 다수의 힘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27.6%)의 아이들은 소수가 다수의 힘에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다(〈표 Ⅲ-9〉 참조).

이렇게 어른들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소수가 다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반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자신의 부모와 관련시켜 물어본 질문-위의 경우라면 우리

〈표 Ⅲ-9〉 소수가 다수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9.9	18.2	26.7	22.2	23.0	23.8(374)
남 고	6.6	21.5	15.9	31.7	24.3	24.9(391)
여 중	5.3	16.7	30.9	28.6	18.5	25.2(395)
여 고	6.6	25.4	11.2	31.8	24.9	26.1(409)
합 계 (실수)	7.1 (111)	20.4 (322)	21.0 (330)	28.7 (450)	22.9 (356)	100.0 (1569)

$\chi^2 : 75.12^{***}$

*P<. 05, **P<. 01, ***P<. 001

부모님도 반대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20.3%의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해해주려는 태도(6.0%)에 비해 자기 부모의 경우에는 보다 허용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Ⅲ-10〉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을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8.8	12.6	38.5	21.4	18.7	23.8(373)
남 고	6.4	16.9	33.2	23.5	19.9	24.9(391)
여 중	4.8	12.2	38.7	23.0	21.3	25.2(395)
여 고	3.9	15.7	30.3	27.9	22.0	26.1(409)
합 계 (실수)	5.9 (93)	14.4 (226)	35.1 (551)	24.0 (377)	20.5 (322)	100.0 (1569)

$\chi^2 : 24.39^{***}$

*P<. 05, **P<. 01, ***P<. 001

다음에 제시되는 상황(예문 4)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학업성적과 학교의 입장 그리고 이 경우 부모의 행동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문 4〉

영선은 학교에서 제일가는 육상선수이다. 학교에서는 영선이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영선의 부모는 운동을 계속하면 성적이 떨어지므로 운동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하기를 원한다.

학교의 명예보다 나의 성적이 우선이다.

앞의 상황과는 달리 아이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된 문제상황에서는 당위적인 태도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중시하려는 현실적(실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학교의 명예보다 자신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2.2%인데 비해 학교의 명예와 같은 명분이나 당위를 중시하려는 태도는 6.3%에 불과하다.

아이들에게는 학업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록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개인의 이해보다 이상적이고 당위적일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이해(성적)를 희생 하더라도 당위(명분)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응은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또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크게 보였다.

〈표 III-11〉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은 바람직하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9.4	12.8	34.5	27.8	15.5	23.8(374)
남 고	2.6	6.2	25.1	43.0	20.2	24.9(391)
여 중	5.3	5.8	35.9	35.4	17.5	25.2(395)
여 고	0.7	5.6	21.5	50.9	21.3	26.1(409)
합 계 (실수)	4.4 (69)	8.3 (130)	29.1 (457)	39.5 (620)	18.7 (293)	100.0 (1569)

$\chi^2: 107.07^{***}$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는 학교의 명예보다 우리의 출세를 중요시 할 것이다.

항상 공부만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음의 표〈표 III-12〉에 제시된 것처럼 60.9%의 아이들이 부모는 학교와 교장의 명예보다는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부모의 현실적인 모습을 인정함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부모가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중시할 것이라는 부모에 대한 당위나 명분과 같은 이상적인 인식은 20.0%이었다.

〈표 III-12〉 부모님은 학교와 고장의 명예보다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24.6	32.9	19.3	15.0	8.3	23.8(374)
남 고	27.4	44.0	13.8	10.2	4.6	24.9(391)
여 중	15.9	33.4	25.8	14.9	9.9	25.2(395)
여 고	21.3	44.0	17.6	12.2	4.9	26.1(409)
합 계 (실수)	22.2 (349)	38.7 (607)	19.1 (300)	13.1 (205)	6.9 (108)	100.0 (1569)

$\chi^2: 56.46^{***}$

*P< .05, **P< .01, ***P< .001

부모는 공부하기 만을 원할 것이다

위의 상황을 자신의 경우와 관련시켜 물어본 질문에서도 반수 이상의 아이들(50.1%)이 자신의 부모라면 마찬가지로 학교의 명예보다는 공부하기만을 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표 III-13〉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도 공부만 하기를 원할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21.5	29.0	19.1	19.4	11.0	23.9(374)
남 고	19.7	34.3	16.4	21.5	8.2	25.0(391)
여 중	15.4	31.6	20.5	22.8	9.6	25.0(392)
여 고	20.3	32.4	19.1	21.1	8.1	26.1(409)
합 계 (실수)	19.2 (301)	31.9 (499)	18.5 (290)	21.2 (332)	9.2 (144)	100.0 (1566)

$\chi^2: 11.34^{***}$

*P< .05, **P< .01, ***P< .001

위와 같은 갈등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른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대체로 1/3 정도의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에 불신의 태도를 1/3 정도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나머지 1/3 정도는 신뢰의 태도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질문, 즉 부모는 말과 행동에서 일

관성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48.2%, 중립적인 태도는 22.8% 그리고 19.1%는 아니더라고 응답하였다(부록의 <표 1> 참조). 이 문항에서 비록 반수 정도의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말·행동의 일치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을지라도 나머지 아이들(61.8%)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거나 유보하려는 것으로 볼 때 앞서 조사된 문항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불신 특히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쩌면 엄밀한 의미로 보면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앞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람들(특히 어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는 당위적인 「말」과 현실 속에서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괴리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기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의 행동인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의 교육작용 (어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치관이나 행위규범을 배우는데 그들이 배운 가치관이나 행위규범이 학교밖의 장면 예컨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들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인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적을 수 있다.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아이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우리의 주변에서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다. 소위 「고급사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은 위선의 경우를 잠시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고급사기란 가장 죄질이 나쁜 형태의 사기로 규정될수 있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이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하기가 어렵고 또한 피해의 범위도 다른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흔히 「인텔리 범죄」나 또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불리는 사기는 크게 타인의 「돈」을 훔치려는 목적을 가진 것과 「마음」을 훔치려는 목적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대형부동산 사기사건이나 끊임없이 보도되는 크고 작은 사기사건 등은 첫째의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를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 형태의 사기가 보통사람들의 재산을 훔친다면, 다른 형태의 사기는 보통사람들의 정신, 예컨대, 「존경」이나 「신뢰」 등을 훔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형태의 사기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그의 위선에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기는 남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부 사회지도자들에 의해 생긴다. 감언이설, 교묘한 언변, 숫자적인 꾀변을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보통사람에게 「선」과 「덕」과 그리고 「사랑」 등의 덕목을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만이 세상의 선과 덕과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양 행사한다. 유명해지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들은 더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야 할 책임을 느껴 부지런히 TV, Radio, 강연회 등을 뛰어다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있다. 그들이 보통사람들에게 「선」이나 「덕」 또는 「사랑」을 강요할 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결코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말재주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아마 그것은 자신의 말을 진술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자신의 행동은 초라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어쩌면 말의 무제한성에 비해 행동은 제한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도덕적인 삶을 담보로 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소위 「고급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는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 남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에 선량한 보통사람을 아이들이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고급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른들이라고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의 논리가 이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지 알아본 본 조사의 결과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그리 높게 평가해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로 하여금 예측하게 한 위의 조사결과로 성급히 어른들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관성 있게 어른들의 도덕적 행동을 불신하는 그들의 인식을 우리는 소홀히 넘길 수만은 없다.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이 살펴봄에 따라 배우는 모델이라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2. 어른의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를 보는 아이들의 눈

권위주의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들에 의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일반적인 지시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인습과 전통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학내 민주화문제로 진통을 겪는 대학가에서 오늘의 대학생들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갖고 교수들의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예산공개요구 등으로 학교행정의 경직성에도 도전하며 심지어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까지 간섭할 정도이다. 이들은 「교수들이 시대의 변화나 사상의 흐름을 무시한 채 연구 학습의 낡은 축적물만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문제제기는 예외나 고루한 스승관 등의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묵살해 왔다」며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이야말로 인맥·파벌·어용·무능시비로 얼룩진 교수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p. 26).

심지어 권위주의 체제가 가장 심한 병영에서도 탈권주의화의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특히 최근의 민주화·개방화의 추세는 충성과 복종의 가치관을 전수하는 군조직에서도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한 예로 군의 민간인 명령과 복종에 대한 생각이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사병은 오홍근 중앙경제신문 사회 부장에 대한 군의 테러사건을 예로 들면서 「전시하의 명령에는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평시에는 다르다. 명령이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나의 의사를 전달한 뒤에 복종·불복종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지한 상관은 적보다 더 무섭다」는 의견을 말한다(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p. 145).

이에 대해 지휘관들도 「이동병의 생각이 사단장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전제 「상명하복보다는 하의상달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의식전환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편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신세대에게 기성세대는 가차없이 비난과 질책을 퍼붓는다.

다음의 인용은 상인 K모씨(50세)가 시골에서 사촌형이 찾아왔을 때 겪었던 당혹감을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사촌형이 집에 들어서자 대학 4년인 아들(23세)과 2학년인 딸(20세)은 절을 하기는 커녕 목례만 가볍게 했는데 당숙을 무어라 불러야 할 지 몰라 당황했다. 또 저녁을 먹을 때는 어른들보다 먼저 식탁에 앉아 당숙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밥을 먹기 시작 하였다.

순간 당숙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돼」라고 가르쳤다. 「예」라고 대답한 아들은 어른들이 식탁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황급히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겠다며 자리를 떴다. 식사를 끝낸 당숙이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놓는게 아니다」며 제사지내는 친척의 호칭에 대해 물어 보자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당숙」이 아닌 「아저씨, 그런 걸 꼭 알아야 하나요」하고 반문해 김씨의 뺨을 또겁게 했다. 화가 난 사촌 형은 그때 「너는 가정교육도 안 시키느냐」고 나무라고는 하루밤만 자고 가 버렸다(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pp. 194-195).

결국 어른들(기성세대)과 아이들(신세대)의 갈등의 또다른 한 원인은 어른들이 현상 유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반면 아이들은 탈권위주의의 입장에서 합리와 정당성을 요구하는데에 설명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의 눈에는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이는지를 알아보려는 데에 주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질문형식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쓴 「고교교육현장」¹⁾을 제시해 주고 기성세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고교교육현장〉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적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교교육현장은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가치의 표현인 「국민교육헌장」을 고등학생들이 각색한 내용으로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며 능률적 짝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부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복돋운다.

나의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되며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재와 시샘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학생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정신에 투철한 입시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 물려 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도와 줄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친구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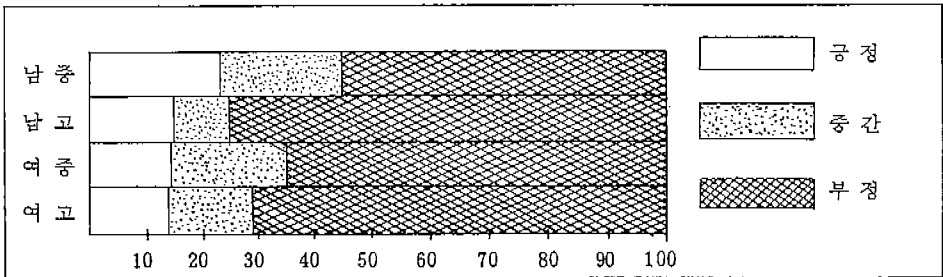
시험자체는 일종의 경쟁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남의 성적에 따라 자신의 서열이 결정되는 소위 상대평가에 익숙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입시에서의 합격여부가 자신이 얼마나 잘 시험을 치루었느냐보다 남보다 얼마나 높은 점수를 얻는가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특히 학교에서의 교사)은 여러 사람들이 다 노력하여 서로 도우면서 모두 합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교육에서 경쟁의 정신뿐 아니라 서로 돕는 협동의 가치를 하나의 사회정의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아이들이 우스개로 만든 국민교육현장에는 「협동」이라든지 「상부상조」의 정신을 특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른들에 의한 허위 또는 위선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국민학교현장의 내용이 어른들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주장이라면 고교교육현장은 아이들에 의한 전통적 가치의 부정내지는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친구타도는 어쩔 수 없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16.4%의 아이들이 긍정의, 16.4%가 중립의 그리고 67.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의 <표 III-14>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Ⅲ-14〉 좋은 성적을 위해 친구타도는 어쩔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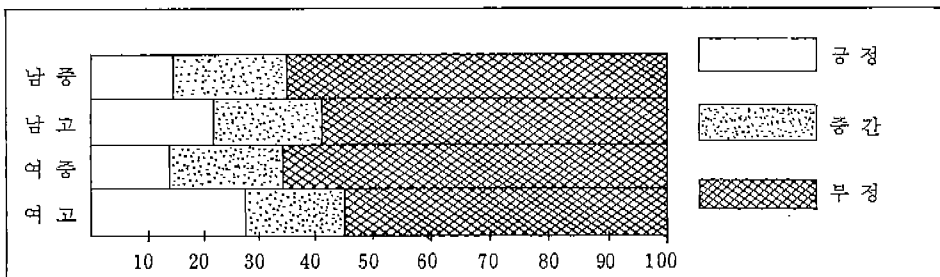


$\chi^2 : 80.80$ $P < .001$

필요한 이기주의

전체 응답자 1,569명 가운데 20.3%인 319명이 「이기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이기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기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인식을 함으로서 어른들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표 Ⅲ-15〉 이기주의는 필요하다



$\chi^2 : 37.64$ $P < .001$

이기주의의 필요성을 긍정하려는 현실적인 태도의 성향은 여고(27.6%), 남고(21.7%), 남중(16.9%), 여중(14.7%)의 순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여학생(21.3%)이 남학생(19.3%)보다 그리고 서울(21.2%), 직할시(20.9%)의 대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이 지방의 소도시(17.7%)에 사는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록의 〈표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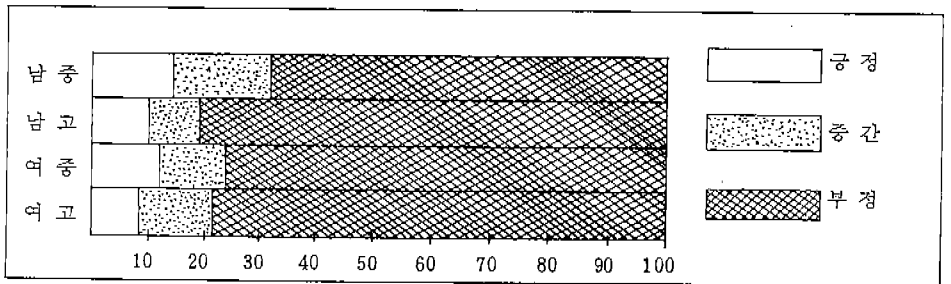
그러나 소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소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소질을 무시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11.5%), 중립(11.9%), 부정(76.6%)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소질을 무시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고등학생들(9.4%)보다 중학생(13.8%)들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자녀들(13.5%)이 부모학력이 중학교(11.8%) 또는 그 이하(4.5%)의 자녀들 보다 더 높게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부록의 <표 32>참조).

다음의 <표 Ⅲ-6>는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별로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Ⅲ-16> 소질을 무시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chi^2 : 80.80 \quad P < .001$

성적은 그들에게 행복의 기준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란 말은 맞는 말인가」의 질문에 대해 30.5%가 긍정의, 16.6%가 중립적인 그리고 53.0%가 부정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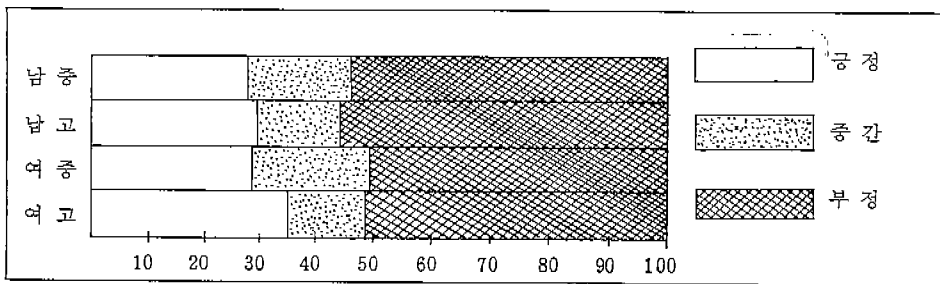
성적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학습지표로서 아이들 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에게도 무척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그들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정도이다. 아이들의 학업의 결과로서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나 열려되는 점은 학부모나 자녀 모두 성적을 학습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의 지수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90년도에 수행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조사결과에서 예컨대, 대다수(96.1%)의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석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녀들의 교과지도 또는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나타난다.

부모의 관심이 오직 석차에만 집중되는한 이는 아이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30%이상의 아이들이 성적을 행복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 고등학생(32.4%)이 중학생(28.4%)보다 그리고 거주지가 대도시일수록(서울 : 34.7%, 직할시 : 29.5%, 기타시 : 28.2%)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록의 <표 33> 참조).

다음의 <표 III-17>는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제시한 것이다.

<표 III-17>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란 말은 맞는 말이다



$\chi^2 : 32.08 \quad P < .001$

실제로 중요한 눈치와 찍기 기술

시험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소위 「눈치」와 「찍기기술」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도 35.2%의 아이들이 눈치와 찍기기술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2.1%가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42.7%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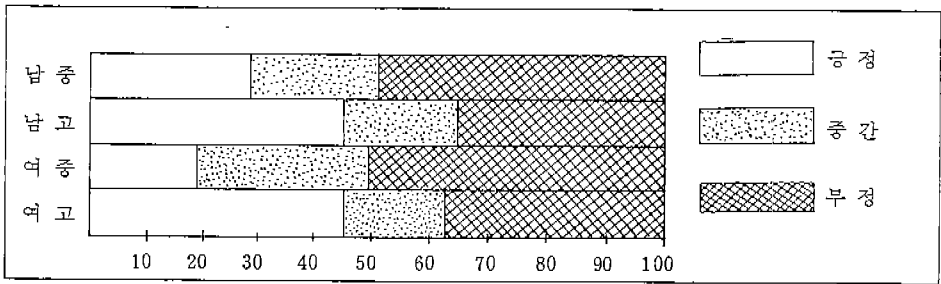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을 생활화하다시피 지내고 있는 아이들은 눈치, 즉 요행과 답안 고르기는 수없이 경험을 해본 실재이다.

눈치와 찍기기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고등학생(46.8%)이 중학생(23.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를 앞에 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눈치와 찍기훈련도 훨씬 더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의 <표 III-18>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제시한 것이다.

<표 III-18> 눈치와 찍기기술은 실제로 중요하다



$\chi^2: 125.07 \quad P < .001$

시대에 뒤떨어진 상부상조의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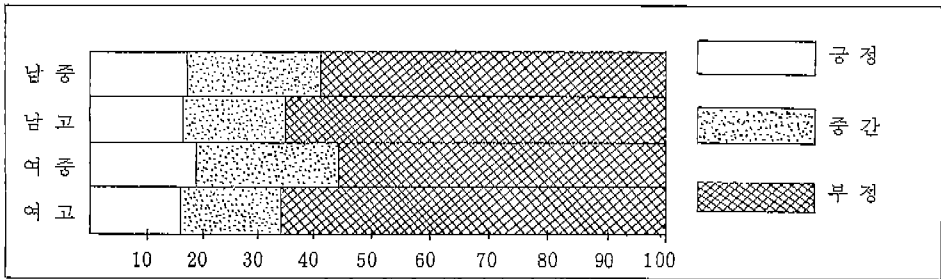
국민교육헌장의 「상부상조의 전통」이란 말은 아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치열한 학업성취 경쟁에 휘말려 있는 아이들에겐 서로간에 도와서 함께 좋은 성적을 올리자거나 좋은 대학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말은 이미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본 조사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보는 아이들이 전체의 18.1%,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아이들이 20.4%, 그리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존중하려는 아이들이 31.5%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I-19>는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 · 제시한 것이다.

〈표 Ⅲ-19〉 상부상조의 정신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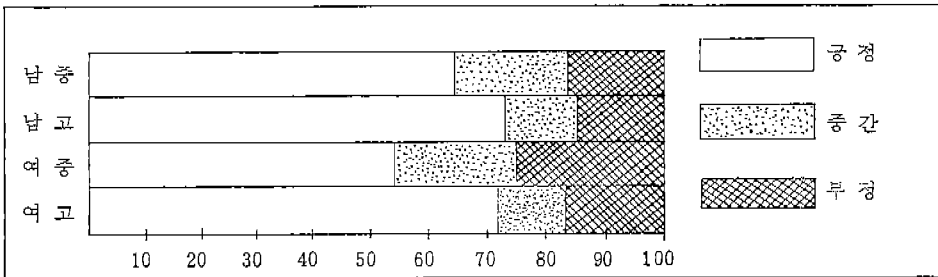


경쟁정신은 성공의 필수요건

다수의 아이들(66.7%)은 경쟁정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정신과 상부상조의 정신은 어쩌면 상호 배타적인 관계의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상부상조의 정신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가치라면 아이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대안적 가치는 경쟁정신이다. 물론 경쟁정신과 상부상조의 정신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일 수도 있으나 치열한 경쟁의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상부상조의 정신이 경쟁정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경쟁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남학생(69.9%)이 여학생(63.5%)보다 고등학생(73.7%)이 중학생(59.3%)보다 높았다. 이를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표 Ⅲ-20〉 성공하기 위해 경쟁정신은 필수적이다



$\chi^2 : 63.32 \quad P < .001$

구분하여 비교하면 여고(75.6%), 남고(73.7%), 남중(65.0%), 여중(54.2%)의 순으로 경쟁 정신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0〉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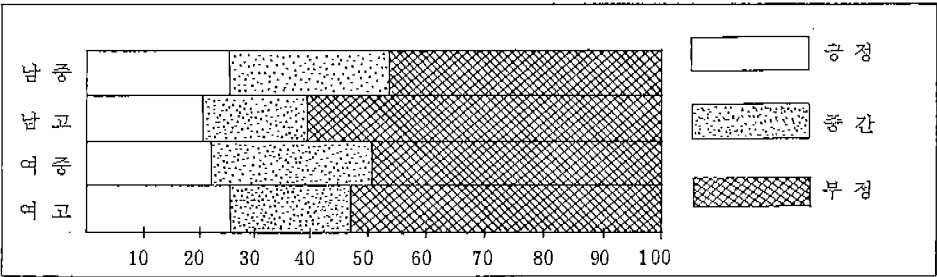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의 원인

경쟁을 통한 나의 성공은 반드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으며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

「남의 성공은 나의 파멸의 근본인가」라는 질문에 24.4%의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으며 23.5%는 중립의 태도를 그리고 52.1%의 아이들은 부정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다음의 〈표 Ⅲ-21〉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제시한 것이다.

〈표 Ⅲ-21〉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



$\chi^2 : 80.80 \quad P < .001$

결국 그들의 현실적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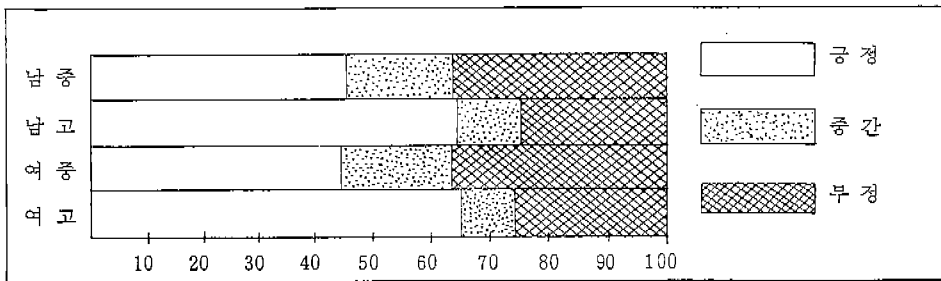
아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명문대 입학」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정말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이다.

본 조사에서도 66.7%의 아이들이 명문대 입학을 그들의 최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12.2%는 중립의 태도를 그리고 31.1%의 아이들만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명문대 입학을 그들의 현실적 목표로 인식하는 태도는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

생들이(66%), 중학생(44.9%)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I-2>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제시한 것이다.

<표 III-22>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chi^2 : 76.81 \quad P < .001$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어른들의 권위를 의심하고 거부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지어낸 소위 「고교교육현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국민교육현장」을 비웃는 것이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어른들의 국민교육현장을 비웃는 정도를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해석해도 두방할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아이들이 어른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는 여림잡아 20~30%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점잖고 고상한 국민교육현장을 이같이 우스개로 비웃었다고 노여워할 필요는 없다. 대학입시의 전투병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은 자신을 입시전쟁터로 보낸 오늘의 교육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어른들이 그들을 위해 단들어준 이 소중한 문서를 주저없이 우스개 거리로 만든 그들의 심리는 아다 그들이 앞으로 입시전쟁터에서 겪게될 극심한 공포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일론지 모른다.

아이들이 보기에 현재의 교육제도는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대한 「강요의 체제」로 보일 것이다.

사실 우리의 제도교육은 구석구석 그 강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사전에 처방된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부과

된다. 학생들은 그런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배울 수도 없다. 그리고 공부는 무엇보다도 「시험」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물론 크고 작은 시험과 그 성적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아이들의 외침을 뒷바침이나 하듯이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문제점을 소리높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에 연일 메아리쳤다가 사라져가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되버렸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교육제도가 어째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려하지 않는다.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 인류가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구축해온 오늘의 교육제도가 그들 개인의 감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가? 그들은 결코 이에 대해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학자들이 틈만나면 우리의 교육제도 특히 대학입시제도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바꾸려 시도해 왔다. 소위 대학졸업정원제, 3수감점제, 전시험 후지원 등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이었으며,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의 우스개조차 되버렸다. 한마디로 이러한 실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현행의 입시제도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데서 찾으려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가 최선의 제도냐에는 의문이 있지만, 이 문제에 결정적인 해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현재의 제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최상의 표준으로 사람을 가늠하려는 현행의 입시제도는 어떤 개인의 일시적 결정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우리사회에서 집단적인 합의에 의해 지지되고 보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라는 제도적 수단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존하기는 하지만 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시험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개인의 구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필요악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국민교육헌장 이 시사하는 의미가 기성세대에 의한 전통적인 가치의 집착과 고수라고 할 때, 소위 고교교육헌장은 아이들에 의해 전통적인 권위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른과 아이들의 견해차이의 여러 모습

세대차라는 단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류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한 세대(약30년)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며 인류역사가 만들어지고 한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차이가 인간문화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세대차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합리주의·개인주의·보편주의로 요약되는 신세대와의 갈등은 생활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현안에서부터 경제·사회·교육·결혼·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세대간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두 세대간의 갈등이나 마찰은 두 세대간의 복잡한 상호역동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한두 요인으로서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신세대나 기성세대 모두 자신들에 유리하게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 같다. 흔히 우리가 세대차를 느낀다고 말할 때에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표현할 경우가 많으며 또 그것의 책임을 상대방에 묻는 데에 세대차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어른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청소년기도 미루어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서「요새 젊은 놈들은……」처럼 발언을 하는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아이들 또한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른들에 돌리려 한다.

’90년에 본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청소년을 보는 성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78.4%의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세대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타산적이고, 개방적이고, 물질적이며, 성적으로 조속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고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판적이며 약삭빠르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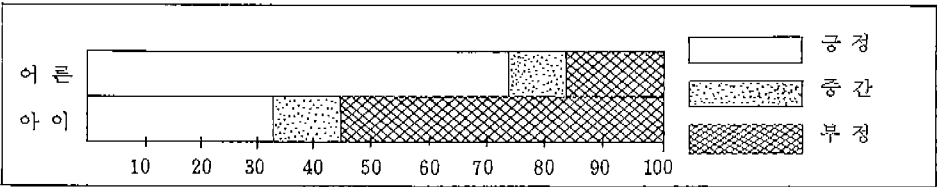
본 조사는 이제 어른들의 위와 같은 생각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기 위해 ’90년에 어른들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제시하였고 그 반응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거부한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복종」에 대하여 어른들과 아이들간에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74%의 부모들이 찬성했고, 17%만이 반대의 태도를 보였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33.6%가 찬성의 태도를 12.6%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53.9%가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질문에는 특히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보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 수록 더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23〉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른과 아이들간의 인식의 차이는 합리적 사고경향을 보이는 아이들과 아직도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려 하는 전통적인 어른의 사고방식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III-24〉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8.7	23.8	13.4	27.8	16.3	23.9(274)
남 고	17.2	31.8	10.3	30.3	10.5	24.9(390)
여 중	6.3	13.5	14.7	40.9	24.6	25.1(394)
여 고	5.9	18.1	12.0	37.4	26.7	26.1(409)
합 계 (실수)	11.9 (186)	21.7 (340)	12.6 (197)	34.2 (536)	19.7 (308)	100.0 (1567)

$\chi^2 : 13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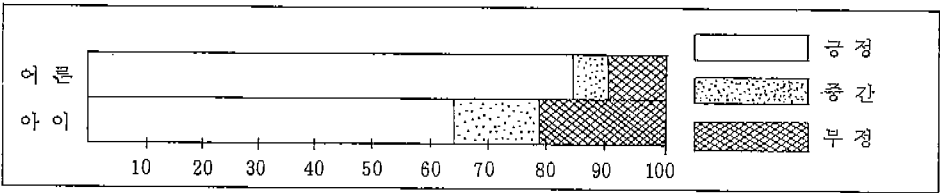
*P< .05, **P< .01, ***P< .001

〈표 III-24〉는 위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어른에 대해 존대말을 써야 한다.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90%의 어른들이 자녀들의 존대어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 비해 아이들은 65%만이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0.2%는 어른에 대한 존대말 사용에 거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25〉 자녀들은 존대말을 써야 된다



존대말 사용에 대한 긍정의 태도에 대해서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아이들간에 뚜렷히 구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아이들의 74.1%가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데 비해 여자아이들은 56.4%가 긍정의 태도를 나타냈으며,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아이들(65.3%)이 중학교아이들(64.8%)보다 긍정적이었다.

다음의 〈표 III-26〉은 이를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III-26〉 존대어 사용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 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47.3	28.6	11.5	9.1	3.5	23.8(374)
남 고	37.9	34.5	13.3	10.5	3.8	24.9(391)
여 중	24.1	30.4	18.5	18.2	8.9	25.2(395)
여 고	24.2	34.2	15.2	22.5	3.9	26.1(409)
합 계 (실수)	33.1 (519)	32.0 (502)	14.7 (230)	15.2 (239)	5.0 (79)	100.0 (1569)

$\chi^2 : 1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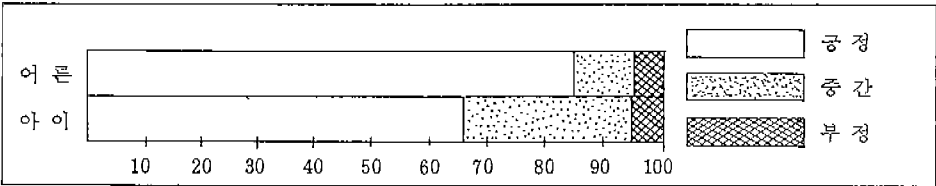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우리는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효」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이다.

본 조사의 결과 67.8%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고 26.6%는 「그런 것 같다」고 응답하여 대다수(94.4%)의 아이들이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어른들(86.4%)보다 효에 대한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어른과 아이 모두 「효」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대간의 갈등이 없음을 말해 준다.

〈표 Ⅲ-27〉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다음의 〈표 Ⅲ-28〉은 부모에 대한 효도에 관한 태도를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또 여자아이들 보다는 남자아이들이 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Ⅲ-28〉 효도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72.2	20.3	5.1	1.1	1.3	23.8(374)
남 고	70.3	26.9	1.5	0.8	0.5	24.9(391)
여 중	63.8	28.9	5.3	1.0	1.0	25.2(395)
여 고	65.0	29.8	2.9	0.2	2.0	26.1(409)
합 계 (실수)	67.8 (1063)	26.6 (417)	3.7 (58)	0.8 (12)	1.2 (19)	100.0 (1569)

$\chi^2 : 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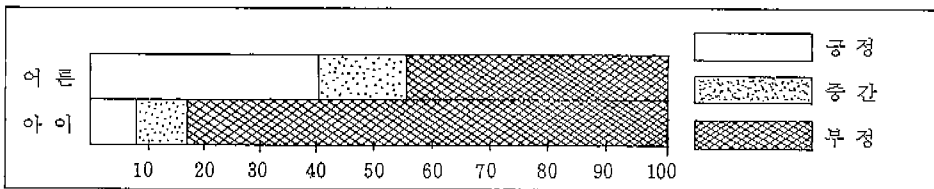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우리의 일기를 보아서는 안된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하는가」의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온 논란의 문제이었으나, 정작 아이들 자신은 부모가 자신의 일기를 보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명백히 보여준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일기를 보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 8.5%, 중립이 8.6%이었으며 83.0%가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표 III-29〉 자식의 일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위 〈표 III-29〉에서 보여주는 부모와 아이들간의 태도의 차이는 두 세대간의 인식상의 차이에서 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일기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녀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일기가 자신들의 비밀스런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 것인만큼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기에 조심스럽게 적은 내면의 이야기나 비밀스럽게 혼자만 되뇌이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자녀의

〈표 III-30〉 일기공개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6.1	5.3	9.4	26.2	52.9	23.8(374)
남 고	1.8	4.3	10.2	26.9	56.8	24.9(391)
여 중	3.8	4.8	10.1	22.5	58.7	25.2(395)
여 고	1.5	6.1	4.9	18.3	69.2	26.1(409)
합 계 (실수)	3.3 (519)	5.2 (502)	8.6 (230)	23.4 (239)	59.6 (79)	100.0 (1569)

$\chi^2: 44.54^{***}$

* $P < .05$, ** $P < .01$, *** $P < .001$

허락없이 몰래 보려고 시도하다가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부모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의 일기를 보는데 대하여 여자아이들(84.5%)이 남자아이들(81.4%)보다 고등학교아이들(85.6%)이 중학교아이들(80.3%)보다 더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30〉은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별로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

과외공부의 필요성은 어른의 생각이다

과외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대학에 꼭 보내겠다」는 부모들의 욕심과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심리에 기인한다.

80년 7. 30 교육개혁 조치로 금지됐던 과외가 9년 만에 다시 허용됨으로써 그동안 표면적으로나마 잠잠했던 과외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80년 당시에는 과외를 「방국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혐오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내린 국약치방이었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VTR과외, 별장과외, 승차과외, 주말과외, 전화과외 등 별별 이름으로 과외는 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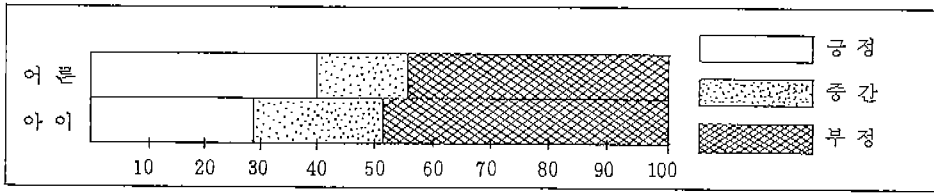
학력위주 사회에서 경쟁에 이기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교육제도하에서는 과외는 필요악인지도 모른다.

작년에 수행했던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이러한 생각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과외공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어른들이 28.6%인 반면에 그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아이들은 약 60% 정도나 되었다.

다음의 〈표 III-31〉은 과외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을 비교한 것이다.

과외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특히 거주지, 부모의 학력정도, 그리고 가정의 소득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학력이 높은 아이들이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집의 아이들이 과외공부의 필요성에 더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20〉 참조).

〈표 III-31〉 입시에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가 필요한가



다음의 〈표 III-32〉는 네 집단별로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32〉 과외공부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6.7	19.0	24.6	23.8	25.9	23.8(374)
남 고	8.2	20.5	20.7	28.6	22.0	24.9(391)
여 중	9.6	18.2	20.3	28.1	23.8	25.2(395)
여 고	7.1	24.7	22.5	25.9	19.8	26.1(409)
합 계 (실수)	7.9 (124)	20.7 (324)	22.0 (345)	26.6 (418)	22.8 (358)	100.0 (1569)

$\chi^2: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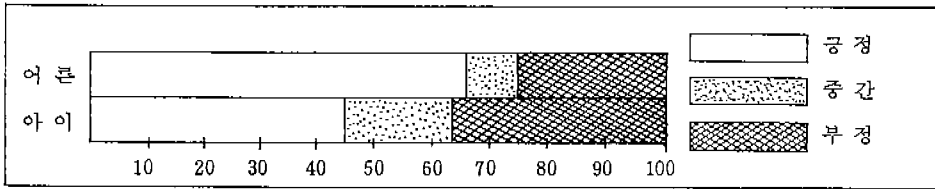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어느 정도의 부모의 체벌을 인정하겠다

본 조사에 의하면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의 질문에 46.0%의 아이들이 긍정의 대답을 16.9%가 중립의 그리고 37.0%가 부정의 대답을 하였다. 체벌에 대한 아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67.6%가 긍정, 8.3%가 중립, 그리고 24.1%가 부정의 태도를 보여 아직도 자녀교육을 위해 매의 사용이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하는 어른들의 생각과 대비가 된다.

자녀교육에서 매의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은 새삼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옛속담에도 미운 자식에 댕을 주고 예쁜자식을 매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교육에서 매의 사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온 것이다.

〈표 Ⅲ-33〉 자녀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점차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한 두 자녀 갖기 운동으로 평균 4인가족이 되면서 우리의 부모들은 가정을 자녀중심으로 이끌려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매의 사용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Ⅲ-34〉는 매의 사용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Ⅲ-34〉 부모의 매사용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9.3	30.7	16.3	16.8	16.8	23.8(374)
남 고	18.4	30.9	16.1	19.4	15.1	24.9(391)
여 중	15.7	25.3	18.2	17.0	23.8	25.2(392)
여 고	12.7	31.5	16.9	19.6	19.3	25.2(409)
합 계 (실수)	16.4 (258)	29.6 (465)	16.9 (265)	18.2 (286)	18.8 (295)	100.0 (1569)

$\chi^2: 20.6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는 우리를 강제로 공부시킬 권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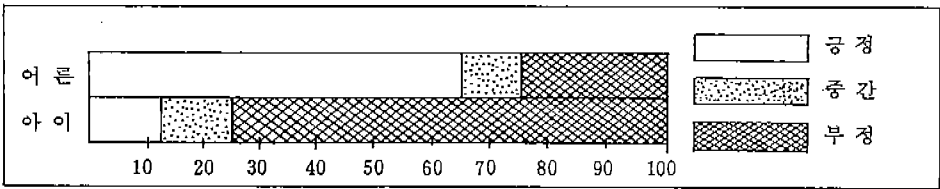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중의 하나는 부모와 교사의 공부에 대한 지나친 강요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11.8%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4.2%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거부감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의 인식은 부모들의 생각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바 66.7%의 부모들이 공부의 강요는 부모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3.2%만이 공부의 강요는 부모의 권

리라는데 반대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Ⅲ-35>는 공부의 강요에 대한 어른과 아이들간의 태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35>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인가



다음의 <표 Ⅲ-36>은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에 대한 남중, 남고, 여고, 여중의 네집단별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36> 부모의 공부강요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3.7	8.0	16.0	30.2	42.0	23.8(374)
남 고	5.1	10.0	11.0	36.1	37.9	24.9(391)
여 중	3.5	6.3	14.9	28.6	46.6	25.2(392)
여 고	2.9	7.6	13.9	28.9	46.7	26.1(409)
합 계 (실수)	3.8 (60)	8.0 (125)	14.0 (219)	30.9 (485)	43.3 (680)	100.0 (1569)

$\chi^2 :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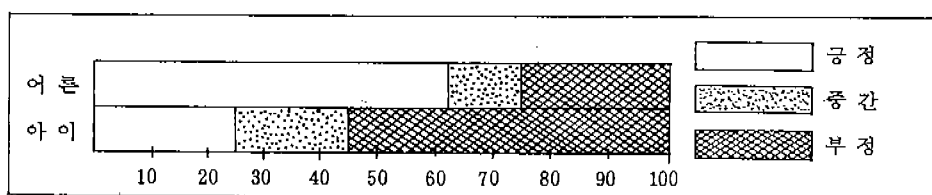
*P< .05, **P< .01, ***P< .001

부모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응답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25.9%만이 부모의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반면에 57.3%는 그에 대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Ⅲ-37) 참조)

〈표 III-37〉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심리적 이유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이제까지 정신적 의존관계에 있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 즉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이 약화되고 관심이나 취미, 생각이 비슷한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게 된다. 심리적 변동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사고나 행동에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자녀들의 학습, 교우,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가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그러한 통제의 적도로 삼음으로서 자녀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상급학교의 진학 즉 대학진학으로 보고 대학입학 이전에는 자녀들의 자유를 「유보」하려 한다. 부모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맘껏 자유를 누리라」고 설득하면서 공부이외의 활동에는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에 대한 일종의 과잉보호로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자립심의 확립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관련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표 III-38 부모의 자유제한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0.4	17.4	21.1	23.3	27.8	23.8(374)
남 고	8.4	18.2	14.6	32.0	26.9	24.9(391)
여 중	10.4	13.2	17.2	25.1	34.2	25.2(392)
여 고	6.6	19.3	14.4	27.4	32.3	26.1(409)
합 계 (실수)	8.9 (140)	17.0 (267)	16.8 (263)	27.0 (423)	30.3 (476)	100.0 (1569)

$\chi^2: 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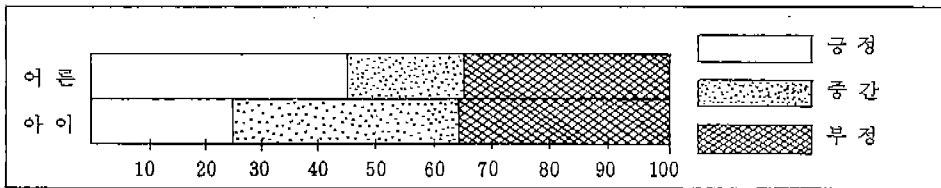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8〉은 어른의 자유제한에 대한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별 태도이다.

우리의 자위행위는 비정상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위행위」에 대해서 14.9%가 비정상으로 37.6%가 중립적인 태도 그리고 37.45%가 정신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서 어른들의 태도는 43.8%가 비정상적으로 22.5%가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33.6%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표 III-39〉 청소년의 자위행위에 정상이 아닌가



청소년의 자위행위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녀간에 또 중학생·고등학생 간에는 구별되는 차이를 보인다

본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이(41.9%), 여학생(33.3%)보다 그리고 고등학생(44.9%)이 중학생(29.7%)보다 정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의 〈표 III-40〉은 자위행위를 보는 태도를 남중, 여중, 남고, 여고의 네 집단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I-40〉 자위행위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5.0	12.0	41.7	14.4	16.8	23.8(374)
남 고	7.7	8.2	32.2	26.6	25.3	24.9(391)
여 중	16.2	12.9	42.8	14.7	13.4	25.2(392)
여 고	17.6	10.3	34.0	24.4	13.7	26.1(409)
합 계 (실수)	14.1 (222)	10.8 (170)	37.6 (590)	20.1 (316)	17.3 (271)	100.0 (1569)

$\chi^2 : 74.92^{***}$

*P<. 05, **P<. 01, ***P<. 001

이 <표 Ⅲ-40>에서 보듯이 자위행위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남자고등학생(51.9%), 여자고등학교(38.1%), 남자중학생(31.2%), 여자중학생(28.1%)의 순이었다.

사실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거의 보편화 되어있고 전문가들도 적당한 정도의 자위 행위는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를 비정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아이들과 어른들간에 자위행위를 인식하는데 커다란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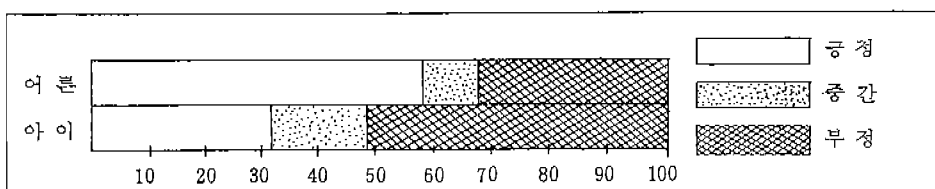
우리의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성교제의 필요성은 인정할지라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자제해 줄 것을 희망한다. 어떤 부모들은 이성교제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학생은 당연히 공부만해야 하고 여자(남자)에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고집한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키거나 규제하는 것은 이성교제가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자(남자) 친구 사귀는 것은 대학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부모들의 말이나 「대학에서 만날 때까지 당분간 절교하자」라는 청소년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모들은 「전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문항에 59.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2.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30.1%만이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19.1%는 중립적인 태도 그리고 50.8%가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성교제를 학업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다.

<표 Ⅲ-41> 남녀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되는가



그러나 점차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 등에 의해, 남·녀중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가속화 될 것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지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런 삶의 일부분이고 이 시기의 동성간의 우정이 한 평생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청소년기의 이성친구도 역시 한 사람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III-42>는 남녀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 단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III-42> 이성교제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1.0	18.7	24.6	24.6	20.9	23.8(374)
남 고	8.2	18.9	15.6	34.3	23.0	24.9(391)
여 중	10.36	18.2	19.5	31.4	20.3	25.2(392)
여 고	10.3	24.2	17.1	31.3	17.1	26.1(409)
합 계 (실수)	10.0 (157)	20.1 (315)	19.1 (300)	30.5 (479)	20.3 (318)	100.0 (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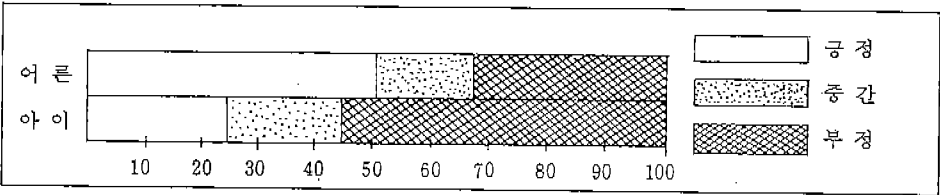
$\chi^2 : 25.28^*$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는 우리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많은 부모(51.3%)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6.6%의 아이들이 그들의 이성교제를 부모들이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24%의 아이들은 부모의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43>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녀별,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아이들(60.3%)이 여자아이들(53.0%)보다 고등학생들(60.5%)이 중학생들(52.4%)보다 부모가 이성교제를 금지하는데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 Ⅲ-44>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Ⅲ-44> 부모의 이성교제 금지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11.2	11.5	23.0	27.3	27.0	23.8(374)
남 고	4.6	14.3	15.1	33.8	32.2	24.9(391)
여 중	13.7	13.4	22.3	27.8	22.8	25.2(392)
여 고	7.1	20.0	17.6	30.1	25.2	26.1(409)
합 계 (실수)	9.1 (143)	14.9 (234)	19.4 (305)	29.8 (467)	26.8 (420)	100.0 (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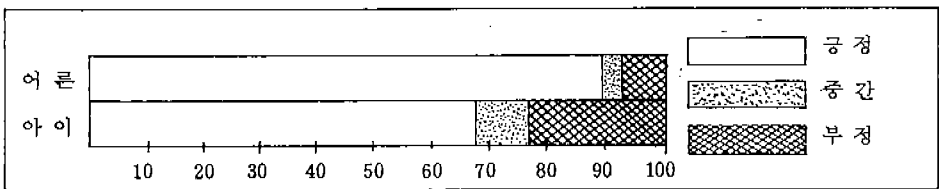
$\chi^2 : 51.28^{***}$

* $P < .05$, ** $P < .01$, *** $P < .001$

우리도 음주와 흡연을 반대한다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비율은 88.5%에 이르고 있으며 한편 아이들도 자신들의 음주와 흡연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68%의 아이들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23.0%의 아이들은 음주와 흡연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표 Ⅲ-45>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가



음주와 흡연을 반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여와 중·고등학교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또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반대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다음의 <표 Ⅲ-46>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를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Ⅲ-46> 음주와 금연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70.3	7.0	5.3	2.9	14.4	23.8(374)
남 고	36.6	21.7	16.1	13.6	12.0	24.9(391)
여 중	63.3	8.6	4.8	4.1	19.2	25.2(392)
여 고	53.5	11.5	9.8	11.0	14.2	26.1(409)
합 계 (실수)	55.8 (875)	12.2 (192)	9.1 (142)	8.0 (125)	15.0 (235)	100.0 (1569)

$\chi^2 : 16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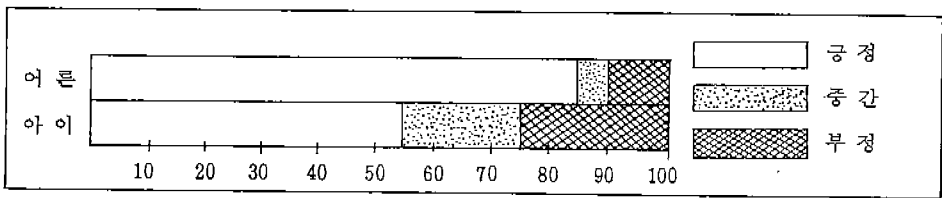
*P< .05, **P< .01, ***P< .001

디스코장 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들은 내 아이들만은 유흥업소에 가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중고생들이 디스코장과 카페등 유흥업소를 상용하고 있다. YMCA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 남학생의 14.4%, 여학생의 5.2%가 디스코텍을 이용한 적이 있고 전체 응답자의 38.6%가 카페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66.2%의 아이들이 학생들의 디스코장 출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의 디스코장 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은 어

<표 Ⅲ-47> 학생들이 디스코장에 가서는 안되나



른들의 경우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85.0%가 청소년들이 디스코장 출입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디스코장 출입을 부정하려는 태도에서 중학교 아이들(72.1%)이 고등학교 아이들(60.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 III-48>은 학생들의 디스코장 출입에 대한 태도를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별로 구분·제시한 것이다.

<표 III-48> 디스코장 출입금지에 대한 남중, 여중, 남고, 여고별 반응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남 중	63.9	10.7	6.4	4.5	14.4	23.8(374)
남 고	39.4	19.4	14.6	12.3	14.3	24.9(391)
여 중	57.7	11.9	6.6	6.3	17.5	25.2(392)
여 고	46.5	15.6	10.3	14.9	12.7	26.1(409)
합 계 (실수)	51.7 (811)	14.5 (227)	9.5 (149)	9.6 (151)	14.7 (231)	100.0 (1569)

$\chi^2 : 90.33^{***}$

*P< .05, **P< .01, ***P< .001

지금까지 13개 문항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의견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예상했던 것처럼 어른들과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는 그 간격이 무척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효도라든지 존대말 사용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관해서는 아이들과 부모와 어느 정도 접근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문제들 예컨대, 자녀의 외사에 반해 공부를 강요한다거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과 같은 지금까지 부모들이 당연히 해온 부모위주의 일방적인 태도는 강력히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교육상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한 극단적인 대립의 예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공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자녀들은 부모의 노력에 맞출 것을 원하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해 주는 것에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업과 진로문제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부모 일방적인 태도는 자녀들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은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싹튼 사랑의 씨앗은 일종의 탈선행위로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금지당하였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극단적으로 금지시킨 사회적 상황이 최근에 와서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성충동 및 성호기심과 같은 일차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하기를 아이들에게 요구한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를 보는 눈에서도 부모와 아이들간의 차이는 명백히 나타난다. 사실 자위행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충동이 해소된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적당한 정도의 자위행위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위행위를 금기시하고 있다. 자위행위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러 성행동이 정상·비정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의 성문제를 금기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성교제가 그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성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 이성친구의 인간됨이나 이성교제 중에 일어나는 대화 등을 연상하기에 앞서 이성교제로 인한 학업태만이나 성적부진만을 염려한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청소년의 성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 줄 문제로 생각하며 그 근거는 「그들의 장래 행복을 위해서」와 같은 부모중심적인 태도인 반면에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이성교제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려 한다.

이러한 어른과 아이들간의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는지 모른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제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어른들의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성인위주인 정형화된 인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른의 안경이며 이는 확실히 아이들의 안경과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는 어른의 안경과 아이들의 안경이 다를 것을 보여 주었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드러내 주었다. 두 세대(어른과 아이)간의 안경의 차이를 세대차라고 할 때 서로 갈등하는 세대차이의 해결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두 관점(안경)의 갈등은 둘간의 우열이나 옳고 그름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안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좀더 적절하게 볼 수 있는가 또는 부적절한가의 차이이지 옳고 그른 즉, 진.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IV. 아이들 마음속에 비친 어른의 이미지

IV. 아이들 마음속에 비친 어른의 이미지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면 그들은 독자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개성있고 생생한 글을 쓸 수 있으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면 모두 비슷한 말투로 개성없이 써낸다고 한다. 예컨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건강에 주의하세요!」 등의 천편일률적인 논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처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펴보는 앞에서 「밥을 짓고», 「물건을 사들이고», 「빨래하고», 「집안청소를 하는」 구체적인 일을 보여줌으로써 당당히 여성어른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매일 접촉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일에 지쳐 기진맥진하여 저녁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 휴일에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어머니로부터 「무용지물」로 멸시(?)당하는 아버지, 일요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토요일에 술에 만취되어 「오늘은 풀이 아파 못가겠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아버지, 어머니와 논쟁하면 단번에 무시당하는 아버지다. 이러한 아버지를 남성어른의 진정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다.

지난날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였다. 예컨대, 농촌출신의 어린이는 매일 밭에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전기축을 데리고 밭에 나가 일하며, 아버지가 일년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뜻하지 않은 재해를 어떻게 이겨나가며, 가을에 거두어 들일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극히 훌륭한 모델이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났다」는 말처럼 어린이는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살펴보고, 남성 어른의 생각, 감정 및 행위방식을 따라 배웠다.

바로 심미적인 인식의 결과로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어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케 해준다.

본 조사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른」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인성,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들과 관련지워 아이들에게 제시하여 응답케 하였다. 여기에서의 인성특성은 「도덕적 특성」, 「역할 능력적 특성」, 「사회활동적 특성」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도덕적 특성이란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것들로서 「믿을 수 있다」, 「예의 바르다」, 「정 의롭다」와 같은 특성들이 포함되며 역할 능력적 특성이란 「엄격하다」, 「책임감 있다」, 「신중하다」 등과 같은 특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 활동적 특성은 「친절하다」, 「관 대하다」, 「멋지다」 등의 특성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한 특성들은 총 26개였고 각각에 대하여 긍정, 중립, 부정의 반응을 알아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어른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미지란 것은 그 대상의 행위와 활동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정이나 사회생활의 장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 사고, 감정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어른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적극적 이미지 : 50% 이상의 긍정반응을 얻은 문항

1) 강한 이미지 : 70% 이상의 긍정반응을 얻은 문항

2) 중간 이미지 : 60% 이상~70% 미만의 긍정반응을 얻은 문항

3) 약한 이미지 : 50% 이상~60% 미만의 긍정반응을 얻은 문항

◎ 소극적 이미지 : 50% 미만의 긍정반응을 얻은 문항

1. 아버지의 모습

본 조사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적어도 50% 이상의 긍정반응을 보인 특성은 14개 이었다. 이 중에서 70% 이상의 긍정반응을 얻은 강한 이미지는 「부지런하다」, 「예의 바르다」, 「책임감있다」, 「고생한다」, 「정직하다」, 「믿을 수 있다」이며, 중간 이미지로서는 「친절하다」, 「신중하다」, 「솔직하다」이며 약한 이미지는 「침착하다」, 「행복하다」, 「현실적이다」, 「이해성 많다」, 「다정하다」 등이었다.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소극적인 이미지는 「엄격하다」, 「관대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멋지지 않다」, 「자신감없다」, 「지성적이지 않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긍정적 이미지)

부지런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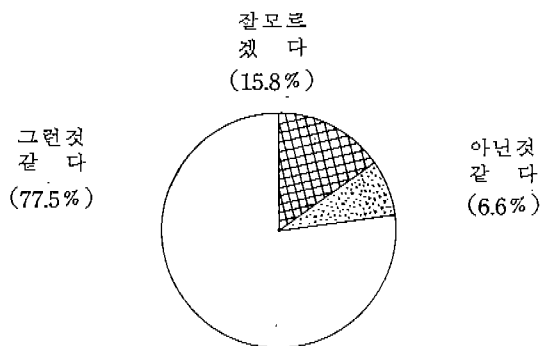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77.5%의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부지런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15.8%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6.6%만이 부지런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를 근면하다고 느끼는데 있어서 중학생(76.7%)보다는 고등학생이(78.7%)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반응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근면성을 느끼는 비율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자(91.9%), 관리직(85.7%), 사무직(79.7%), 전문직(79.2%), 근로자(75.3%), 자영업(75.2%), 일용근로자(66.1%), 무직(61.9%). (부록 <표 102> 참조)

다음의 <그림 IV-1>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근면성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 근면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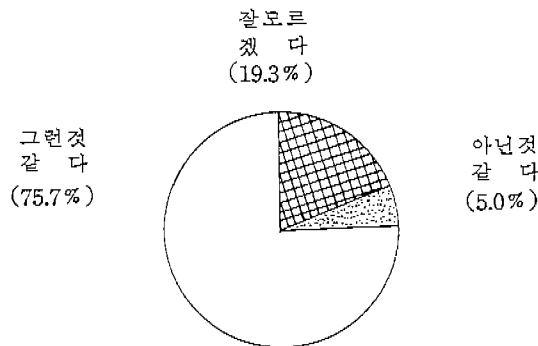
예의바른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75.7%가 긍정적으로 19.3%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5.0%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예의바르다 라는 아이들의 느낌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특히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는데 대체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이를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졸(80.6%), 대학원졸(78.2%), 고졸(75.6%), 중졸(74.6%), 국졸(69.9%), 무학(45.5%), (부록의 <표 80> 참조).

다음의 <그림 IV-2>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예의바름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 예의바른 아버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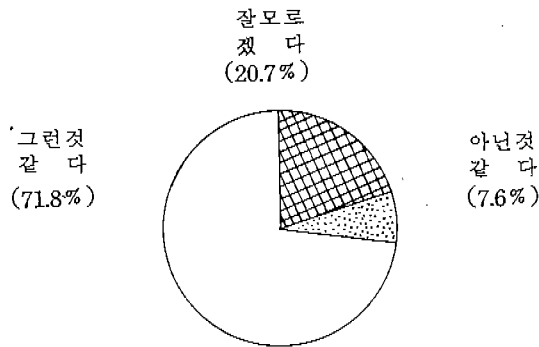
아버지와 책임감에 대해서 71.8%는 긍정적으로 20.7%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7.6%는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의 인식은 성별이나 학교급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그리고 가정의 소득 등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부모의 연령별로 보면 젊은 부모일수록(30대 : 75.0%, 40대 : 73.7%, 50대 : 66.3%), 부모의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 일수록(대학원졸 : 90.4%, 대졸 : 77.7%, 고졸 : 70.7%, 중졸 : 70.2%, 국졸 : 60.5%, 무학 : 54.5%),

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대체로 사무·관리직이 자영업 및 근로직보다(전문직 : 89.6%, 관리직 : 84.1%, 사무직 : 77.0%, 농림어업직 : 73.4%, 자영업 : 69.2%, 근로자 : 68.0%, 일용근로자 : 61.9%, 무직 : 47.6%), 그리고 가정의 소득정도가 높을수록(상 : 75.3%, 중 : 72.7%, 하 : 66.3%) 아버지를 책임감이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부록의 <표 58> 참조).

다음의 <그림 IV-3>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 책임감 있는 아버지



고생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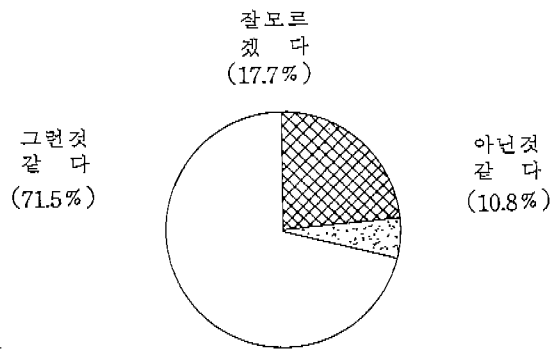
아이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미지를 아버지에게서 느끼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71.5%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7.7%는 중립적 태도 그리고 10.8%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가 고생이 많다고 느끼는 인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 부모의 학력별, 부모의 직업별, 가정의 소득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보다(남자 : 74.1%, 여자 69.0%),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보다(고등학생 : 76.0%, 중학생 : 67.0%), 서울에 사는 아이들보다는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직할시 : 73.1%, 기타시 : 72.8%, 서울 : 66.9%),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 85.8%, 중졸 : 83.7%, 고졸 : 73.5%, 무학 : 72.7%, 대졸 : 57.0%, 대학원졸 : 48.2%), 비전문직이 전문직보다(농림어업 : 86.4%, 무직 : 83.3%, 근로자 : 80.6%, 일용근로자 : 80.5%, 자영업 : 71.2%, 사무직 : 65.2%, 전문직 : 54.2%, 관리직 : 50.8%), 소득이 낮

을수록(하 : 79.6%, 중 : 71.8%, 상 : 63.2%) 아버지를 고생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부록의 <표 68> 참조).

다음의 <그림 IV-4>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고생하는」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4> 고생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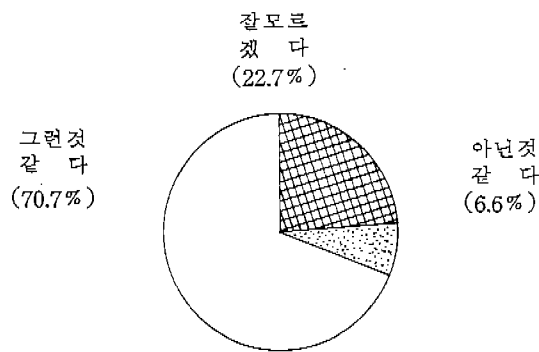


정직한 아버지

아버지의 「정직한」 이미지에 대하여 70.7%가 긍정적으로 22.7%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6.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정직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그리고 부모의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중학생 : 73.1%, 고등학교 : 68.4

<그림 IV-5> 정직한 아버지



%)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30대 : 77.8%, 40대 : 71.5%, 50대이상 : 67.1%)보다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부록의 <표 76> 참조).

다음의 <그림 IV-5>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정직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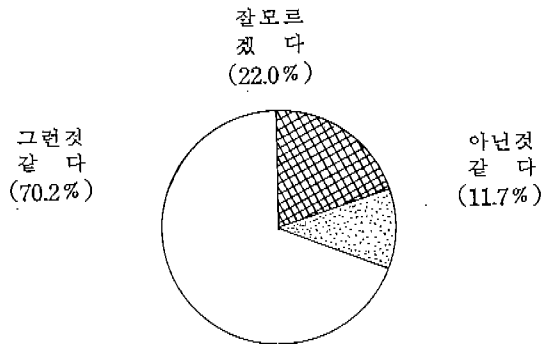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의 비율은 70.2%,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2.0%,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태도는 11.7%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태도는 중학생이(71.9%), 고등학생(68.5%)보다 높았으며, 부모의 연령에 있어서 40대부모(71.0%), 50대부모(65.3%) 그리고 30대 부모(58.3%)의 순으로 신뢰의 태도가 높았다(부록의 <표 86> 참조).

다음의 <그림 IV-6>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6> 믿을 수 있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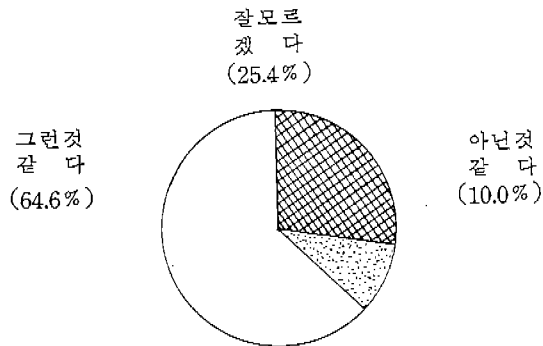


친절한 아버지

아버지를 「친절한」 이미지로 응답한 비율은 64.6% 이었고, 25.4%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10.0%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즉, 고등학생(59.6%)보다는 중학생(69.7%)이 아버지에 대해서 친절한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부록의 <표 66> 참조).

다음의 <그림 IV-7>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친절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7> 친절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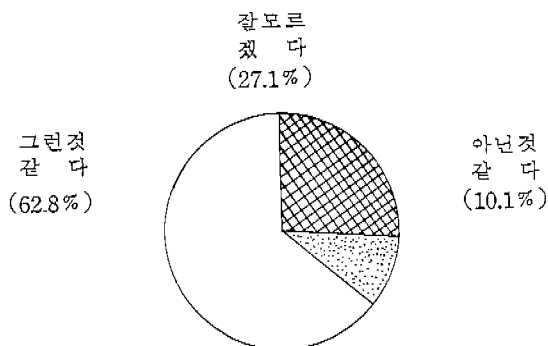


신중한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중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다.

본 조사에서 62.8%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27.1%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10.1%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아버지를 신중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중학생 : 65.0%, 고등학생 : 60.6%), 부모(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 77.1%, 대졸 : 71.7%, 고졸 : 60.4%, 중졸 : 59.2%, 국졸 : 56.1%, 무학 : 36.4%)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상 : 62.8%, 중 : 61.6%, 하 : 59.2%) 높았다(부록의 <표 60> 참조).

<그림 IV-8> 신중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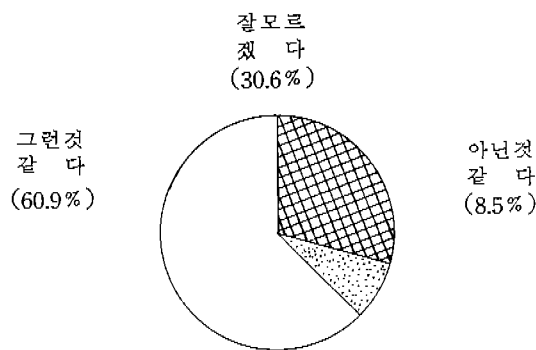
앞의 <그림 IV-8>은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신중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솔직한 아버지

60.9%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솔직하게 느끼고 있고, 30.6%는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8.5%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를 솔직하게 보는데 있어서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중학교 : 64.8%, 고등학교 : 57.7%),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30대 : 69.4%, 40대 : 61.3%, 50대 : 52.0%)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부록의 <표 92> 참조).

다음의 <그림 IV-9>는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솔직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9> 솔직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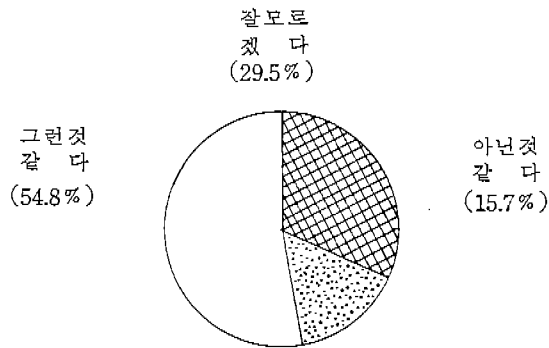
침착한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침착한 이미지는 54.8%가 긍정의 반응을 29.5%는 중립적인 반응을 그리고 15.7%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버지를 침착하게 보는 인식에서는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보다(중학교 : 59.2%, 고등학교 : 50.4%), 부모님의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 66.3%, 대졸 : 63.1%, 고졸 : 54.6%, 중졸 : 48.9%, 국졸 : 45.9%, 무학 : 27.3%) 그리고 부모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사무직과 관리직이 근로직 또는 농업직보다(관리직 : 71.4%, 사무직 : 62.7%, 전문직 : 60.4%, 무직 : 57.1%, 농림어업직 : 52.0%, 근로직 : 49.3%, 일용근로자 : 44.1%) 높은 비율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부록의

〈표 74〉 참조).

다음의 〈그림 IV-10〉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침착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0〉 침착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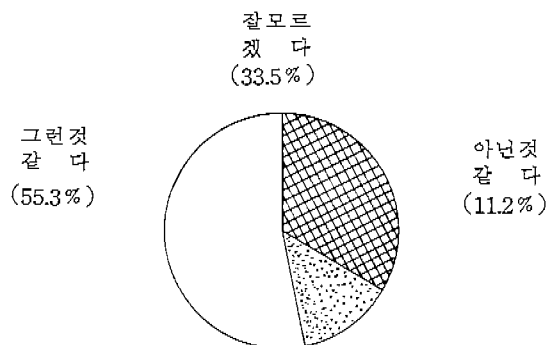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55.3%가 긍정의 33.5%는 중립적인 그리고 11.2%가 부정의 반응을 보인다. 행복한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중학교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중학교 : 62.0%, 고등학교 : 48.8%), 부모(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30대 : 69.2%, 40대 : 55.6%, 50대 : 54.5%)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부록의 〈표 88〉 참조).

다음의 〈그림 IV-11〉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행복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1〉 행복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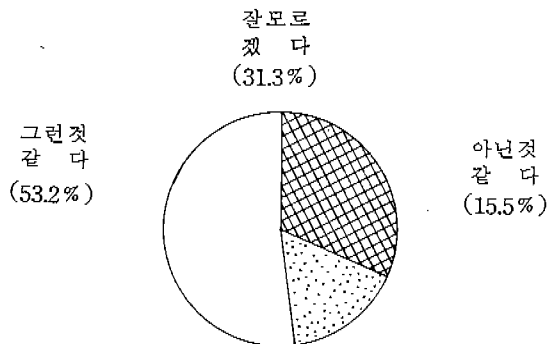


실리적인 아버지

아버지를 실리적으로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53.2%가 긍정, 31.3%가 중립 그리고 15.5%가 부정의 견해를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실리적인 이미지 인식은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중학교 : 54.3%, 고등학교 : 52.2%) 부모(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대졸 : 58.9%, 대학원졸 : 55.4%, 고졸 : 54.6%, 무학 : 54.5%, 중졸 : 47.9%, 국졸 : 44.6%)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상 : 58.7%, 중 : 54.4%, 하 : 45.2%) 보다 실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부록의 <표 104> 참조).

다음의 <그림 IV-12>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실리적」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2> 실리적인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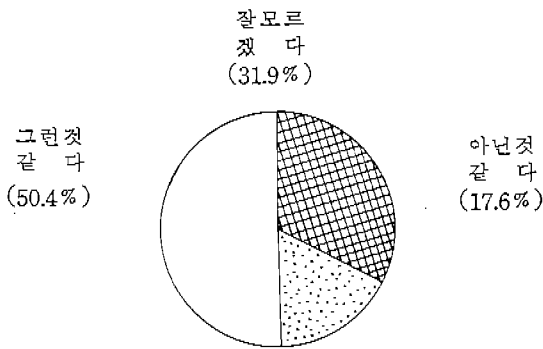
이해성이 많은 아버지

이해성 많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50.4%가 긍정의 31.9%는 중립의 그리고 17.6%는 부정의 반응을 보였다.

이해성이 많다는 이미지는 남녀학생들간에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그리고 부모의 연령과 학력간에 구별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남자 : 54.1%, 여자 : 47.0%), 중학교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보다(중학교 : 55.7%, 고등학교 : 45.1%),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40대 : 51.8%, 30대 : 50.0%, 50대 : 42.2%), 부모(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대졸 : 55.7%, 대학원졸 : 54.2%, 고졸 : 50.3%, 중졸 : 45.8%, 국졸 : 45.3%, 무학 : 27.3%) 아버지를 이해성이 많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부록의 <표 82> 참조).

다음의 <그림 IV-13>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이해성 많은」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3> 이해성 많은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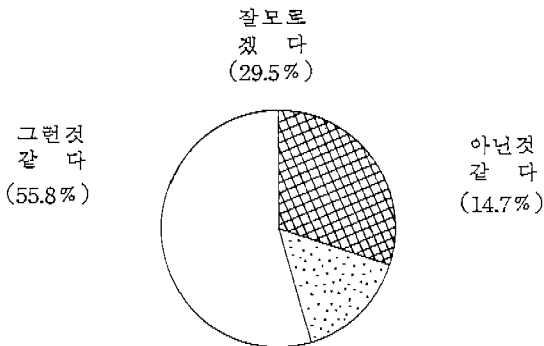
다정한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의 이미지 인식에 대하여 55.8%는 긍정 29.5%는 중립의 그리고 14.7%는 부정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 배경변인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학교간(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구분되는 차이를 보인다. 즉, 중학교아이들이 61.5%, 고등학교아이들이 50.1%로 아버지를 보다 다정하게 느끼고 있었다(부록의 <표 96>참조).

다음의 <그림 IV-14>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다정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4> 다정한 아버지



(부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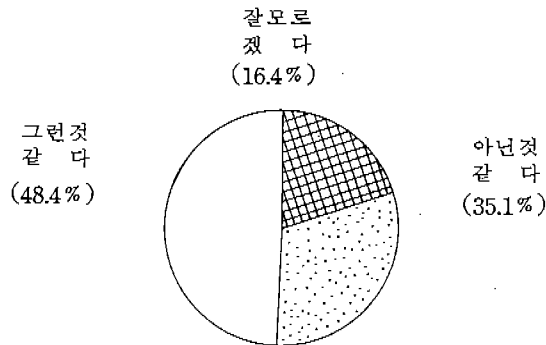
엄격한 아버지

아버지를 엄격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48.4%가 긍정적으로 16.4%는 중립의 그리고 35.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 인식에 대한 반응은 남자 중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52.6%), 여자 고등학생(51.2%), 남자 고등학생(50.9%) 그리고 여자 중학생(39.3%)의 순서이었다(부록의 <표 56> 참조).

다음의 <그림 IV-15>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엄격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5> 엄격한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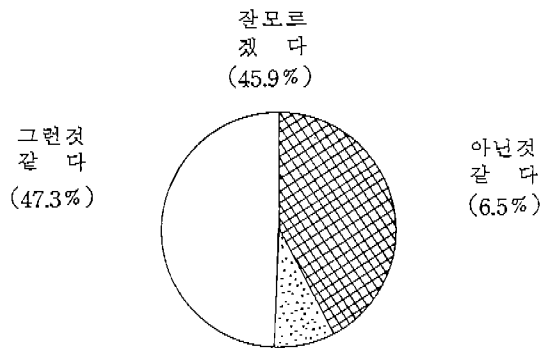
정의롭다고 볼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정의로운가의 질문에는 47.3%의 아이들은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45.9%의 아이들은 판단을 유보하는 중립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의로운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은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반대는 여자 고등학생들이었다.

다음의 <그림 IV-16>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정의로움」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6〉 정의로운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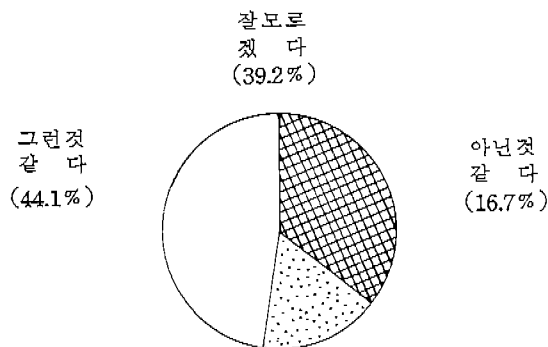
멋있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 멋진 모습으로 연상하지 않는 듯하다. 44.1%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멋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39.2%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16.7%는 멋지지 못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를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성향을 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남자 : 58.9%, 여자 : 53.1%),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보다(고등학교 : 60.9%, 중학교 : 50.9%),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 71.7%, 50대 : 58.2%, 40대 : 57.8%, 30대 : 48.7%),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무학 : 72.8%, 국졸 : 69.6%, 중졸 : 60.2%, 고졸 : 56.0%, 대졸 : 48.7%, 대학원졸 : 43.3%) 아버지를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부록의 〈표 78〉 참조).

다음의 〈그림 IV-17〉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멋진」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7〉 멋진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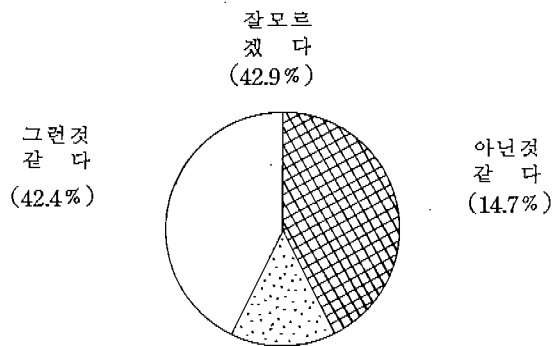
관대하지 않은 아버지

아버지를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42.4%, 관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유보하는 아이들이 42.9%, 그리고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14.7% 나 되었다.

아버지를 관대하지 않다고 인식하려는 태도는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여자 : 61.2%, 남자 : 53.8%),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중학생 : 66.4%, 고등학생 : 49.0%),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사는 아이들보다(시지역 : 66.5%, 직할시 : 56.3%, 서울 : 53.5%)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30대 : 69.4%, 40대 : 56.2%, 50대이상 : 54.3%),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하 : 69.4%, 중 : 60.3%, 상 : 49.4%),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하 : 62.9%, 중 : 58.2%, 상 : 21.2%) 아버지를 관대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부록의 <표 70> 참조).

다음의 <그림 IV-18>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관대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8> 관대한 아버지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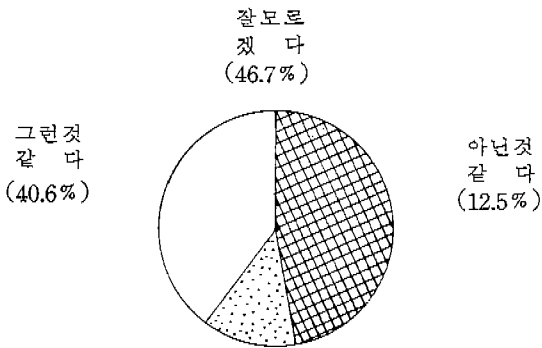
아버지에 대한 자신감을 긍정하는 태도는 40.6%, 이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는 46.7%,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태도는 12.5% 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감의 이미지를 갖지 않는 성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고등학교 : 62.1%, 중학생 : 56.7%),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60대이상 : 69.7%, 50대 : 60.9

%, 40대 : 59.1%, 30대 : 43.6%),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무학 : 81.9%, 중졸 : 66%, 국졸 : 65.5%, 고졸 : 61.3%, 대졸 : 51.6%, 대학원졸 : 38.6%), 부모의 직업이 농업직 및 근로직이 사무직이나 관리직 보다(농림어업직 : 67.2% 일용근로자 : 66.1%, 무직 : 64.3%, 자영업 : 59.1%, 사무직 : 58.6%, 전문직 : 45.8%, 관리직 : 41.3%),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하 : 61.9%, 중 : 61.8%, 상 : 13.2%) 높게 나타났다(부록의 <표 84> 참조).

다음의 <그림 IV-19>는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9> 자신감 있는 아버지



지성적이지 않은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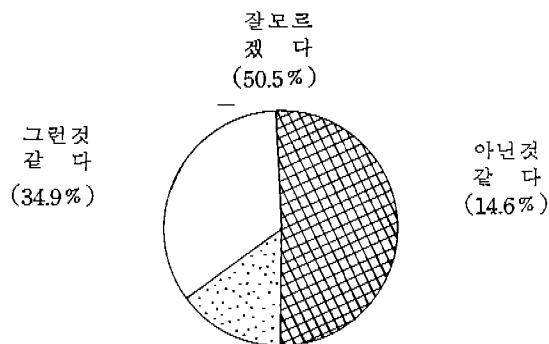
아버지를 지성적으로 느끼는가의 물음에 34.9%는 긍정, 50.5%는 보류의 태도를 그리고 14.6%는 부정의 태도를 보인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별로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를 지성적인 이미지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의 경향을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 거주지별로 부모의 연령에 따라 또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경제적인 소득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고등학교 : 66.4%, 중학교 : 63.7%), 서울 아이들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이(시지역 : 64.1%, 직할시 : 63.6%, 서울 : 61.0%),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 : 77.9%, 40대 : 63.1%, 30대 : 58.3%), 부모의 학력(부)이 낮을수록(무학 : 90.9%, 국졸 : 84.5%, 중졸 : 77.1%, 고졸 : 68.4%, 대졸 : 44.0%, 대학원졸 : 34.9%), 부모의 직업이 농업이나 근로직보다는 사무

직이나 관리직이(일용근로자 : 78.8%, 근로자 : 75.4%, 농림어업직 : 75.2%, 자영업 : 68.4%, 무직 : 61.9%, 사무직 : 58.6%, 관리직 : 33.4%, 전문직 : 29.2%)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하 : 70.9%, 중 : 67.4%, 상 : 54.8%) 아버지를 지성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부록의 <표 62> 참조).

다음의 <표 IV-20>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지성적」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0> 지성적인 아버지



지금까지 살펴본 아버지의 이미지를 요약해 보자

우선 긍정적인 이미지로서는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정직한»,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 외에도 「친절하고», 「신중하며», 「솔직하고», 「침착한」 그리고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이 비취지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를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면서도 오히려 「고생을 하는」 모습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같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대조되는 소극적인 이미지(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엄격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멋지지 못한」 그리고 「관대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으며»,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 단독적으로서 보다는 다음에 제시되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보다 선명한 모습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의 많은 장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고,

행위, 감정방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 또한 이와 관련지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어머니의 모습

본 조사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로서 적어도 50%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특성은 14개이었다. 이 중에서 70% 이상의 긍정반응의 강한 이미지는 「근면하다」, 「예의있다」, 「친절하다」, 「고생을 많이 한다」, 「믿을 수 있다」, 「다정하다」, 「정직하다」의 7개이며 중간 이미지로는 「신중하다」, 「솔직하다」, 「이해성이 많다」의 3개, 약한 이미지로는 「행복하다」, 「침착하다」, 「현실적이다」의 3개, 한편 부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소극적 이미지로는 「자신감이 없다」, 「지성적이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등이었다.

이들을 살펴보자.

(긍정적 이미지)

부지런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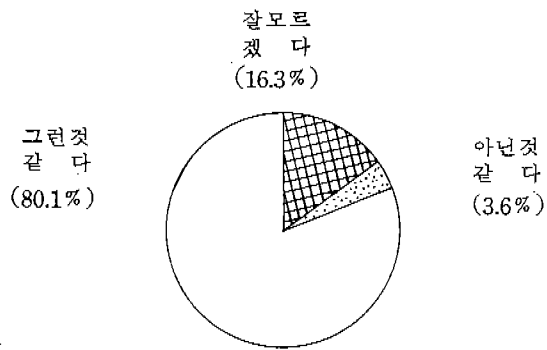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가장 먼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부지런한 어머니상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80.1%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버지의 첫번째 이미지도 부지런한 모습이었었는데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은 아버지의 부지런한 모습(77.5%)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부지런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에는 중학생(76.5%) 보다는 고등학생(83.4%)이, 서울아이들(78.7%) 보다는 지방의 아이들(85.0%)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84.5%, 중졸: 84.0%, 무학: 81.3%, 고졸: 77.1%, 대졸: 72.0%, 대학원졸: 54.5%) 어머니에 대한 부지런한 모습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여준다(부록의 <표 103> 참조).

다음의 <그림 IV-21>은 어머니의 부지런한 느낌을 인식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1〉 부지런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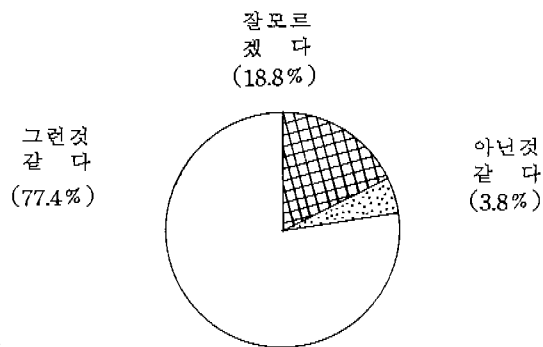
예의바른 어머니

어머니의 또다른 모습은 예의바른 어머니의 이미지이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예의바르다고 느끼는 비율은 77.4%, 18.8%는 중립의 태도 그리고 3.8%만이 이런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본 조사에 의하면 예의바른 어머니의 상에 대해 지방 아이들보다는 서울 아이들이 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부록의 〈표 81〉 참조).

다음의 〈그림 IV-22〉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예의바른」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2〉 예의바른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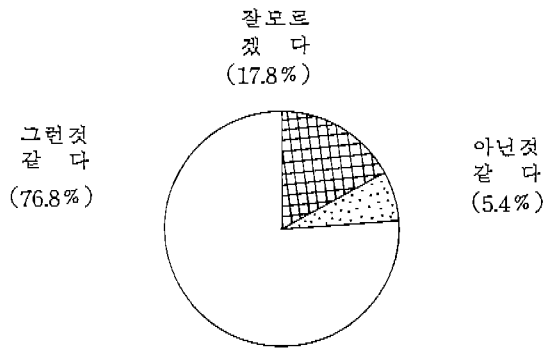


친절한 어머니

친절한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크게 나타나는 어머니의 이미지이다. 어머니의 착실한 이미지에 대해 76.8%의 아이들은 긍정의, 17.8%는 중립의 그리고 5.4%의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IV-23>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친절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3> 친절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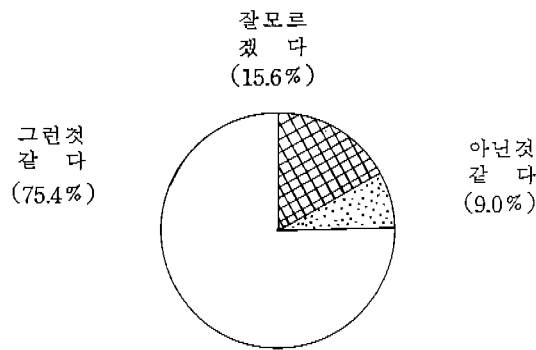


고생을 많이 하는 어머니

많은 아이들(75.4%)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고생스런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정도는 중학생(70.1%)보다는 고등학생이(80.5%) 서울 아이들(70.6%) 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76.2%)이, 또 부모(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 88.3%, 중졸 : 82.9%, 고졸 : 68.3%, 대졸 : 54.7%, 대학원졸 : 54.5%), 부모의 직업이 비전문직일수록(농림어업 : 90.2%, 근로자 : 81.9%, 일용근로자 : 78.6%, 자영업 : 73.6%, 사무직 : 69.0%, 관리직 : 66.7%, 전문직 : 58.3%)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소득이 낮을수록(하 : 81.7%, 중 : 76.0%, 상 : 97.9%) 높게 나타났다(부록의 <표 69> 참조).

다음의 <그림 IV-24>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고생하는」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4〉 고생하는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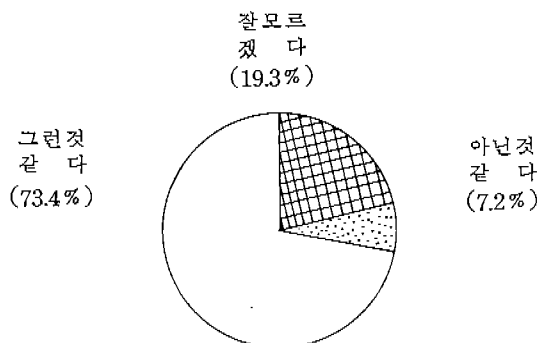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신뢰의 이미지에 대해서 73.4%가 긍정의 19.3%는 중립의 그리고 7.2%만이 부정의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의 태도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는데, 부모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의 긍정적 태도(84.4%)를 보여 주고 있어 사무직이나 관리직 부모보다 근로직을 부모로 둔 아이들이 보다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의 〈표 87〉 참조).

다음의 〈그림 IV-25〉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신뢰」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5〉 신뢰로운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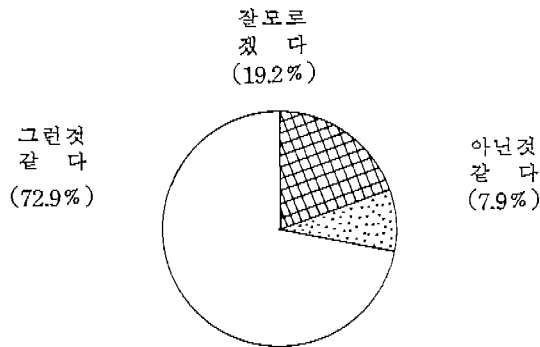
다정한 어머니

「다정한」 모습의 이미지는 72.9%의 높은 비율로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한 이미지로서 나타났는데 아버지에 대해서(55.8%)는 약한 이미지로서 대조가 된다.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에 대한 느낌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를 다정하게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도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아버지로 둔 아이들보다 농업이나 근로직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어머니를 더 다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의 <표 97> 참조).

다음의 <그림 IV-26>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다정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6> 다정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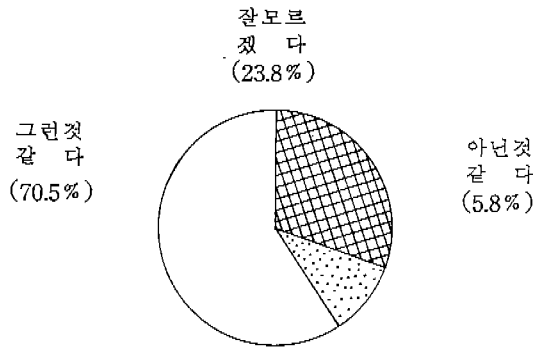
정직한 어머니

어머니를 정직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70.5%이고 증립적인 반응은 23.8%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은 5.8%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들의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아이들(73.2%)이 지방의 아이들(70.7%)보다 어머니를 정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정직한」 이미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70.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 어른들에 대한 이미지로서 「정직한」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강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IV-27>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정직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7〉 정직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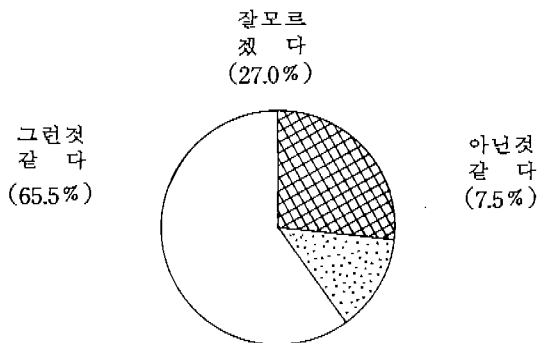
신중한 어머니

어머니를 신중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5.5%로서 아버지에 대해 신중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62.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를 신중하게 느끼는 정도는 남학생(61.9%)보다는 여학생(69.0%)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의 있어서는 농업을 하는 부모 밑의 아이들이 가장 높게 어머니를 신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부록의 〈표 61〉 참조).

다음의 〈그림 IV-28〉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신중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8〉 신중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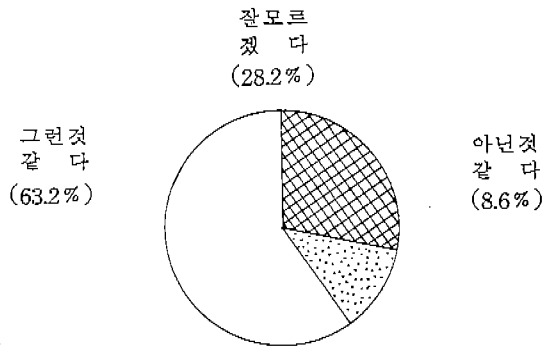
솔직한 어머니

솔직한 이미지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60.9%이었다.

어머니의 솔직한 느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경향은 부모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74.6%)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 다른 어느 직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어머니가 중졸(65.9%), 국졸(66.2%)인 아이들이 고졸(59.3%), 대학졸(66.0%)의 아이들보다 어머니를 솔직하게 바라 보고 있다(부록의 <표 93> 참조).

다음의 <그림 IV-29>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9> 솔직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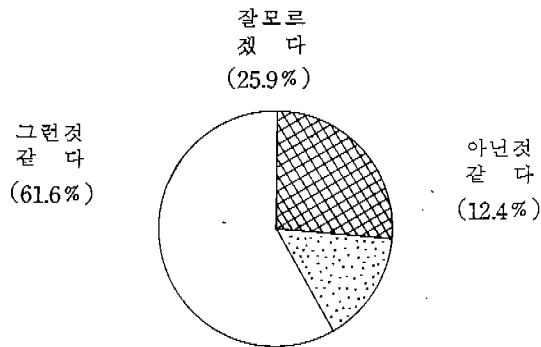
이해성이 많은 어머니

이해성 많은 어머니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해성에 대한 50.4%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61.6%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다. 즉, 이해성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경우 약한 이미지인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모습이다.

이해성 많은 이미지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남·녀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부모의 연령과 학력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다. 즉, 비전문직 부모를 둔 아이들(63.8%)이 전문직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어머니에 대해 이해성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부록의 <표 83> 참조).

다음의 <그림 IV-30>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이해성 많은」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0> 이해성 많은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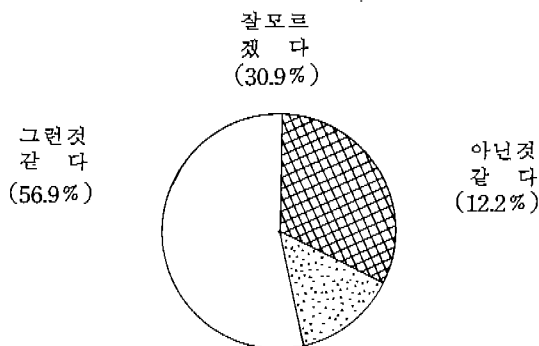
행복한 어머니

어머니를 「행복한」 이미지로 관련시켜 느끼는 비율은 56.9%이고 중립적인 태도는 30.9%, 그리고 12.2%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행복한 어머니의 이미지는 학교급별, 부모의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64.0%)이 고등학생(50.1%)보다 그리고 30대 부모를 둔 아이들(62.2%)이 40대(56.4%), 50대(50.8%) 부모를 둔 아이들 보다 어머니를 보다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부록의 <표 89> 참조).

다음의 <그림 IV-31>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행복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1> 행복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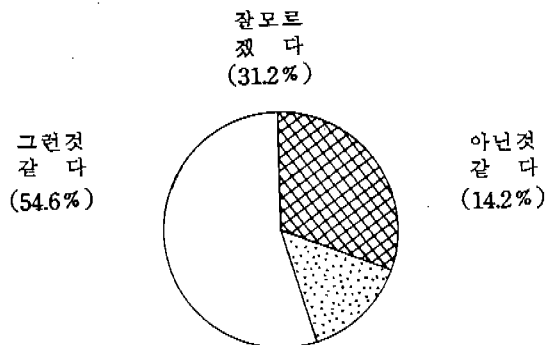
침착한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 「침착한」 모습으로 관련시키는 비율은 54.6%가 긍정적으로 31.2%는 중립적으로 그리고 14.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여학생(56.7%)이 남학생(52.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중학생들이(56.6%) 고등학생들(52.7%)보다 어머니를 침착한 모습으로 그려내려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남중, 남고, 여중, 여고의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여중생들이(58.6%), 여고생(54.9%), 남중생(54.6%), 남고생(50.4%)의 순으로 어머니에 대한 침착한 모습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IV-32〉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침착한」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2〉 침착한 어머니



현실적인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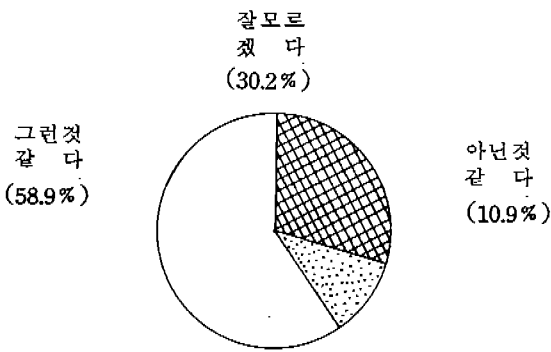
「현실적」인 이미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약하게 나타났을지라도 어머니를 현실적(실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크다.

본 조사에서는 58.9%가 어머니의 현실적 이미지를 긍정하는 반면 아버지에게 대해 그렇게 느끼는 비율은 53.2%이었다. 어머니를 현실적(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들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 아이들(63.3%)이 남자 아이들(54.3%)보다 훨씬 어머니를 실리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학교 간에도 나타났는데 고

등학생들(61.6%)이 중학생들(56.2%)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부록의 <표 105> 참조).

다음의 <그림 IV-33>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현실적」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3> 현실적인 어머니



(부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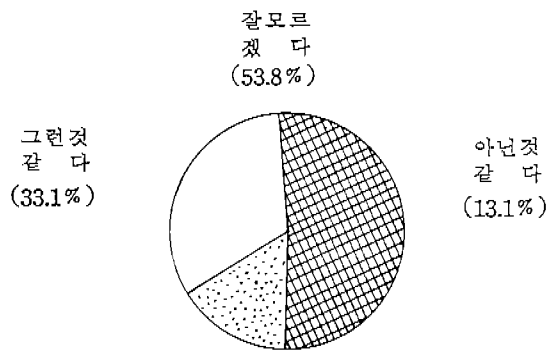
자신감이 없는 어머니

33.1%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자신감」 있는 이미지로서 느끼지만 자신감 있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유보하려는 태도는 66.9%에 이른다.

이렇게 자신감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유보하려는 태도는 고등학교 아이들(70.6%)이 중학교 아이들(63.1%)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50대 : 71.5%, 40대 : 67.2%, 50대이상 : 66.7%, 30대 : 63.2%)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무학 : 78.1%, 국졸 : 72.9%, 중졸 : 72.5%, 고졸 : 64.0%, 대졸 : 48%, 대학원졸 : 45.5%) 가정의 경제적인 소득이 낮을수록(하 : 70.8%, 중 : 68.3%, 상 : 60.3%) 높은 비율을 보인다(부록의 <표 105> 참조).

다음의 <그림 IV-34>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4〉 자신감 있는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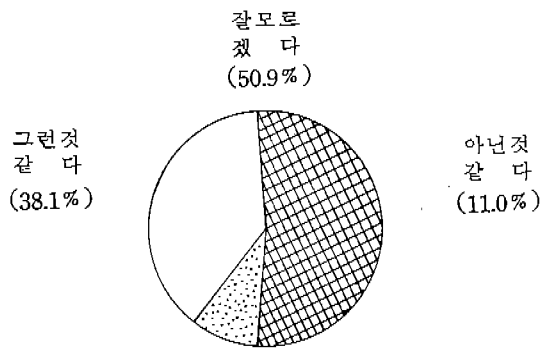


지성적이지 못한 어머니

어머니를 지성적인 이미지와 결부시키려 하지 않는 태도는 61.9%이다. 이러한 태도는 학교급간, 지역간, 부모의 연령간, 부모의 학력급간, 부모의 직업간, 그리고 가정의 소득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고등학생(67.4%)이 중학생(56.1%)보다, 지방의 아이들(67.9%)이 서울의 아이들(56.7%)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60대이상 : 75.0%, 50대 : 68.9%, 40대 : 61.9%, 30대 : 56.2%),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무학 : 78.2%, 국졸 : 74.5%, 중졸 : 70.1%, 대학원졸 : 63.6%, 고졸 : 55.4%, 대학졸 : 32.0%), 아버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일수록(농림어업 : 71.3%, 근로직 : 67.8%, 일용근로직 : 67.5%, 무직 : 63.4%, 자영업 : 61.0%, 사무직 : 58.9%, 관리직 : 41.3%, 전문직 : 39.6%)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하 : 68.4%, 중 : 64.5%, 상 : 47.8%) 지성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어머니를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부록의 <표 63> 참조).

다음의 〈그림 IV-35〉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지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5〉 지성적인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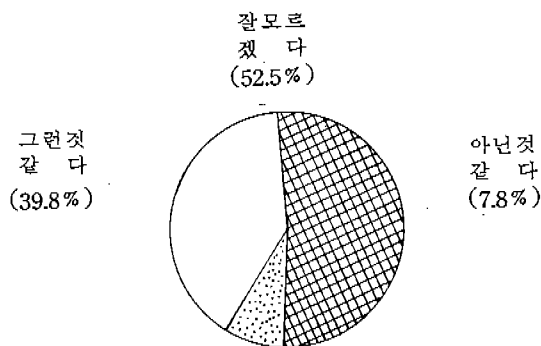


정의롭지 못한 어머니

어머니를 정의로운 이미지에 결부시키지 않는 태도는 60.3%이다. 이러한 태도는 학교급간, 부모의 학력간,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이(고등학생 : 61.3%, 중학생 : 59.2%)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국졸 : 66.4%, 중졸 : 61.9%, 고졸 : 56.7%, 대졸 : 54.0%, 대학원졸 : 54.5%)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하 : 65.6%, 중 : 61.1%, 상 : 53%) 덜 정의롭게 어머니를 인식하고 있다(부록의 <표 101> 참조).

다음의 <그림 IV-36>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정의로운」 이미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36〉 정의로운 어머니



지금까지 살펴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정리해 보자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이미지로서는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친절하나 고생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수준의 이미지로서는 신중하고 솔직하고 이해성 많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약한 수준의 이미지는 행복하고, 침착한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의 어머니이다.

한편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자신감이 없으며, 지성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어머니로서 아이들은 그리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어른들의 이미지로서 추출된 내용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나타난 것은 우리 어른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중요한 시사점을 해준다.

아이들은 부모의 평상시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어른의 행위방식을 따라 배운다. 부모의 행동은 두말할 필요없이 아이의 본보기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부모는 아이가 살펴보고 따라 배우는 모델이다. 아버지는 남성어른의 대표이고 어머니는 여성어른의 대표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일상적 행위를 살펴보면서 남자어른의 행위방식을 배우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일상적 행위를 살펴보면서 여성어른의 행위방식을 배운다. 부모의 일상적 행위에서 부모의 형상이 생긴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만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어린이에게 남성의 사고방식, 행위방식, 감정방식을 가르쳐 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아버지들은 아이를 꾸짖고 교양하는 것이 어머니의 임무라고 여겨 아이에 대한 교양을 포기하는데 이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어른의 이미지들은 바로 어른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하겠다.

V. 어른의 눈 vs 아이의 눈

V. 어른의 눈 vs 아이의 눈

이 연구의 관심은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어른들의 어떤 면을 보느냐, 즉 어른과 아이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기본가정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 VS 어른」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닌 「아이×어른」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어른의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둘째,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이 바라보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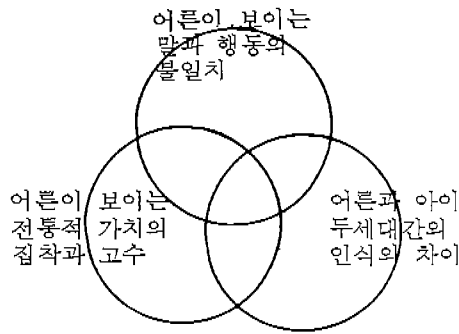
셋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어른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위 세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과정은 제Ⅱ장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갈등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이 논의를 거쳐 도출된 영역들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질문지를 통해 아이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제Ⅳ장에서는 심미적인 측면에서 어른들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 연구를 결산하는 요약 및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논의하고 조사된 결과를 간단히 정리·제시할 것이다.

1. 어른과 아이의 갈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원천을 부모와 아이들간의 일상적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을 상정하였고, 이는 어른과 아이들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상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다음의 세 가지 맥락을 주요 원천으로 설정하였다.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

제 2장에서 어른과 아이들간의 갈등의 근원을 탐색하기 위해 편의상 위 세 영역을 각각 분리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위 세 영역은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서로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제 2장에서 논의를 통해 추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어른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런 모습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주위의 상황속에서 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남들로 부터 존경을 받기위한 인위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많은 혼란이 온다.
- 어른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이것은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을 불신하는 갈등의 근원이 되기 쉽다.
- 아이들도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어른들처럼 말과 행동의 괴리를 합리화하지 않는다.
- 아이들 역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동조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아이들 이라는 사회적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보이는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

- 전통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주요한 수단이며 목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른과 아이들간의 해석과 평가는 매우 다르다.
- 아이들과 어른들간의 갈등은 전통적 가치에 따르는 권위주의적 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 즉 아랫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릇된」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
-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권위적 사고, 즉 감정적 권위가 사회속에 존재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된다.
- 일반적으로 감정적 요소의 권위는 어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것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는 힘에 앞서 이전의 사회체제와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생각과 자신의 선행 경험으로 아이들을 억누르는 경우이다.
- 기성세대의 권위는 전통적 성향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합법적 권위만을 인정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인식의 세대차)

- 사회적 준거체제가 서로 다른 두 세대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자연스러우나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서로 다른 기대욕구 때문에 문제가 된다.
- 세대차가 긍정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데 문제가 있다.
- 세대차는 경험의 차이에 의한 인식의 차이와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상의 차이에 그 갈등이 비롯된다.
- 어른들은 다소 비합리적이거나 포용적인데 비해 아이들은 합리적이거나 단편적이고

순간적이다.

- 세대간의 단절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세대간의 무관심은 한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범주를 좁혀놓았고 나아가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향하게 된다.
-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갖길 원하며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지적 호기심 등을 충족키 위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만 어른들의 이해부족으로 그 통로를 잃게 된다.

2. 아이들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어른의 모습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관해서)

- 어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3명중 2명의 아이들은 이를 불신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 어른의 행동을 신뢰하려는 태도는 3명중 1명에 불과하다.
-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기 부모의 경우에는 그 태도를 바꾼다.
- 아이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면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태도에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어른의 전통적 가치의 집착과 고수에 관해서)

- 어른의 권위(전통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대략 20~30%수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6.4%의 아이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친구타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3%의 아이들은 「이기주의」가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 30.5%의 아이들은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35.2%의 아이들은 「눈치」와 「찍기기술」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 18.1%의 아이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은 시대착오로 생각한다.
- 66.7%의 아이들은 경쟁정신이 성공의 필수라고 생각한다.
- 24.4%의 아이들은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6.7%의 아이들은 명문대 입학은 그들의 최종목표로 인식한다.

(어른과 아이들의 인식의 차이)

- 64.6%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 그러나 부모의 74.0%는 부모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4.6%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부모의 86.4%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1.6%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일기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57.6%의 부모들은 자녀의 일기보는 것을 찬성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 71.4%의 아이들은 과외공부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 그러나 50.0%의 부모들은 이를 인정한다.
- 74.2%의 아이들이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
: 그러나 66.7%의 부모들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 57.3%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 그러나 62.0%의 부모들은 자녀의 자유를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85.1%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자위행위가 비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68.4%의 어른들은 자위행위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한다.
- 70.0%의 아이들이 남녀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60.0%의 부모들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한다.
- 76.0%의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51.3%의 부모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68.0%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반대한다.
: 어른들이 음주와 흡연을 반대하는 비율은 88.5%이다.
- 66.2%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디스코장 출입을 반대한다.
: 그러나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는 85%이다.

3.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친 어른의 이미지

1) 아버지의 이미지)

〈강한 이미지〉

- 아버지의 강한 긍정적 이미지는 부지런하고, 예의바르고, 책임감 있으며,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이다.
그 구체적인 정도(느끼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아버지의 근면한 모습의 이미지는 77.5%이다.
: 도시 아이들보다 지방의 아이들이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근면하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 아버지의 예의 바른 모습의 이미지는 75.7%이다.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를 예의바르게 느낀다.

○ 아버지의 책임감 있는 이미지는 71.8%이다.

: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를 책임감 있게 느낀다.

○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는 71.5%이다.

: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서울아이들이 지방아이들보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정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70.7%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믿을 수 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70.2%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보통의 이미지〉

○ 아버지의 친절한 모습의 이미지는 64.6%이다.

: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아버지에 대해 친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신중한 모습의 이미지는 62.8%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중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솔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60.9%이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솔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약한 이미지〉

-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의 이미지는 55.3%이다.
 -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의 이미지는 55.8%이다.
 -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실리적인 모습의 이미지는 53.2%이다.
 - ：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리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이해성 많은 모습의 이미지는 50.4%이다.

〈부정적 이미지〉

-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의 이미지는 65.1%이다.
 -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 지방의 아이들이 서울의 아이들보다
 -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성적이지 않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 아버지의 자신감없는 모습의 이미지는 59.4%이다.
 -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감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관대하지 못한 이미지는 57.6%이었다.

：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들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 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대하지 못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멋지지 못한 이미지는 55.9%이다.

：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멋지지 않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아버지의 정의롭지 못한 이미지는 52.4%이었다.

： 남자고등학생들이 아버지를 정의롭지않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의 이미지는 51.6%이었다.

2)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의 대한 강한 긍정적 이미지로 「근면하다」, 「예의있다」, 「친절하다」, 「고생을 많이 한다」, 「믿을 수 있다」, 「다정하다」, 「정직한」 모습이며 보통의 이미지로는 「신중하다」, 「솔직하다」, 「이해성 많은」 모습이며 약한 이미지로는 「행복하다」, 「침착하다」, 「현실적이다」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신감 없는」, 「지성적이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모습의 어머니였다.

—〈강한 이미지〉—

-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의 이미지는 80.1%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 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지런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어머니의 예의바른 모습의 이미지는 77.4%이었다.
- 어머니의 친절한 모습의 이미지는 76.8%이었다.
-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의 이미지는 75.4%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생하는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어머니의 믿을 수 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73.4%이었다.
-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의 이미지는 72.9%이었다.
- 어머니의 정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70.5%이었다.
: 서울 아이들이 지방아이들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보통의 이미지〉—

- 어머니의 신중한 모습의 이미지는 65.5%이었다.
- 어머니의 솔직한 모습의 이미지는 60.9%이었다.
- 어머니의 이해성있는 모습의 이미지는 61.5%이었다.

—〈약한 이미지〉—

-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의 이미지는 56.9%이었다.

: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어머니의 철칙한 모습의 이미지는 54.6%이었다.

○ 어머니의 실리적 모습의 이미지는 53.2%이었다.

: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현실적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부정적 이미지〉—

○ 어머니의 자신감 없는 모습의 이미지는 66.9%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어머니의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의 이미지는 61.9%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지방아이들이 서울아이들보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성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어머니의 정의롭지 못한 이미지는 60.3%이었다.

: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4. 결 언

지금까지 요약된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이들이 어른을 보는 눈은 어른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눈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주저없이 거부하고 비난한다. 물론 자기의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하게 보여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잠재되는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기성세대가 전통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고수하려는데 대해 거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예문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어낸 「고교교육현장」은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국민교육현장」의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는 모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면 기성세대의 전통과 권위를 거부하려는 정도는 대략 20~30%수준이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이는 이러한 정도는 그들이 보다 성인들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커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컨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정도가 중고생들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결과로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들간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에서는 그 견해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인정할지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의 민감한 부분까지 간섭할 때는 아이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을지라도 자녀의 삶을 부모의 편견이나 소망만으로 결정지를 권리는 없을 것이다.

다행스런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영된 부모의 심미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록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지라도('91년도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 아이들은 아직 건전한 안경으로 어른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생각에 앞서 아이들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른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겪는 경험이나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 애착을 가지고

깊숙히 참여하여야 한다.

어른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 어른의 아이에 대한 올바른 권리는 아이들이 존경하며 답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인 어른들을 덕목의 사표로서 존중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길(1986). 소설속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I. 서울:문음사.
- 대한YMCA연맹(1990). YMCA 조사연구 90-3 부모와 자녀의 대화. 서울:대한 YMCA 연맹 출판부.
- 한승희외(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청소년 연구원.
- 김성이외(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서울:체육부.
- 김형모(1989). 자녀문제 부모고민. 서울:십대들의 쪽지.
- 대한YMCA연맹(1979).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대한 YMCA 연맹 출판부.
- 대한YMCA연합회(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조사. 서울:대한 YMCA 연합회 출판부.
- 박아청(1988).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배영사.
- 정원석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조선일보사회부(1987). 우리집 가정교육. 서울:도서출판 우석.
- 청소년교육선교회(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IV. 서울:청소년 교육 선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1989, 1990). 청소년 백서.
- 푸른나무이야기모임(1988, 1989). 푸른나무 I. II. III. 서울:도서출판 푸른나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이규태(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1-4. 서울:신원문화사.
- 한국일보사회부(1990).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上, 下. 서울:한국일보사 출판국.
- 한국교육개발원편(1989). 한국인의 남녀 역할관. 서울:(주)딘돈고.
- 윤태림(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동방도서.
- 「이땅」편집동인(1991).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서울:도서출판 친구.
- 정원석(1984).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서울:집현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1985). 한국인의 주체성.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도서출판 나남.

- 이동식(1989).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 일지사.
- 임희섭(1988).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 한국금연운동연합회(1990). 우리의 자녀들을 담배연기 없이 기릅니다.
- 한국여성개발원(1986).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이혜정(1989). 노년 애들의 세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 M. 블레어, R. S. 존스 지음, 김인식 옮김 (1988). 청년심리학. 서울 : 배영사.
- 토마스 고오든 지음, 이태영 · 황영자 옮김(1987). 아동 · 청소년 그들의 세계. 서울 : 홍익제.
- W. 휴 머실다인 지음, 이종범 · 이석규 옮김 (1989). 몸에 밴 어린시절. 서울 : 가톨릭교리 신학원.
- Mike O'Donnell (1985). Age and Generation. New York : Tavistock Publications.
- Deutscher, I., (1970). Words and Deeds :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In W. J. Filstead(Ed.), *Qualitative Methodology*, Chicago : Markham.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reud, A., (193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trike, K., (1972).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 The Impact of Science on Our Concept of Man. In L. G. Thomas(Ed.), *Philosophical Redirection of Educational Research*. The Seven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總務庁 青少年対策本部, (1989) 青少年 問題 現狀 対策, 東京.
- 總務庁 青少年対策本部, (1989). 目 見 世界青年意識調査, 東京.

부 록

I. 청소년의 부모인식 조사 설문지

II. 부 록 표

청소년의 부모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산 218번지

전화 695-3856, 695-3857

※ 각 문항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응답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 하
주십시오.

I. 응답자의 일반사항

1. 당신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재학 중인 학교는?

-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실업계고등학교

3. 당신의 거주지역은?

- ① 서울 ② 직할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③ 기타시

4. 당신의 부모님은?

- ① 양친 모두 계심 ② 아버님만 계심 ③ 어머님만 계심 ④ 두분 모두 사망

5. 부모님의 연세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① 아버님.....	1	2	3	4	5
② 어머님.....	1	2	3	4	5

6.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부	학	국민학교 졸업	중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 학 교 졸업	대 학 원 졸업이상
① 아버님...	1	2	3	4	5	6
② 어머님...	1	2	3	4	5	6

7. 부모님의 직업은?

1	2
아버님	어머님

- | | | |
|---|---|------------------------------------|
| 1 | 1 | : 무 직 |
| 2 | 2 | : 일용근로자(육체노동·파출부 등) |
| 3 | 3 | : 근로자(기능공, 미용사, 운전기사, 수위 등) |
| 4 | 4 | : 농림어업자(농·어업, 축산, 원예) |
| 5 | 5 | : 자영업(상업, 식당, 가내공장 경영 등) |
| 6 | 6 | :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교사, 기술자, 군인, 경찰 등) |
| 7 | 7 | : 관리직(사무직의 고위직: 부장, 국장급 등) |
| 8 | 8 | : 전문직(변호사, 판·검사, 교수, 성직자, 의사 등) |

8. 가족의 월평균 소득(소득이 있는 가족 전체의 합계)은?

- ① 30만원 미만 ② 30~50만원 ③ 50~70만원 ④ 70~90만원
 ⑤ 90~110만원 ⑥ 110~130만원 ⑦ 130~150만원 ⑧ 150만원 이상

9.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의 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상가 또는 사무실에 딸린 가옥

10. 당신의 종교는?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기독교(가톨릭)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II. 다음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지의 번호에 <보기>와 같이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지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령다갈다줬다갈다니다

1.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면
2.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3.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4.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5. ‘확실히 아니다’고 생각하면

- | | | | | |
|---|---|---|---|---|
| ① | 2 | 3 | 4 | 5 |
| 1 | ② | 3 | 4 | 5 |
| 1 | 2 | ③ | 4 | 5 |
| 1 | 2 | 3 | ④ | 5 |
| 1 | 2 | 3 | 4 | ⑤ |

Ⅱ-1.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확실	그런	잘모	아닌	확실
	히	그	것	르	것
	히	아	렇	다	겠
	다	같	다	겠	다
	니	다	니	다	다
1) 부모님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교통질서 및 공중도덕을 잘 지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형편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기분에 따라 꾸중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칭찬에 인색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대화보다는 주로 체벌에 의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정의 주도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가정에서 우리를 돌보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보람을 갖는 일이나 행동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머니는 집안일 보다는 바깥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버지는 못사는 사람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애정표현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앞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머니는 이상적인 여성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버지는 이상적인 남성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2. 다음 내용은 어른들(부모)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	그런	잘모	아닌	확실
	히	그	것	르	것
	히	아	렇	다	겠
	다	같	다	겠	다
	니	다	니	다	다
1) 자식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들은 존대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식의 일기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5) 입시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6) 자녀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7) 자녀에게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8)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9)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0) 남녀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1)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2)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3) 학생들이 디스코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4)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3. 다음은 청소년들이 국민교육헌장을 바꾸어 지어낸 「고교교육헌장」입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며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매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복돋운다.

나의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하며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착하는 학생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정신에 투철한 입시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 물려 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도와 줄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려다 갈다 겹다 갈다 니다

- | | | | | | |
|----------------------------------|---|---|---|---|---|
| 1) 좋은 성적을 위해 친구타도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기주의는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소질을 무시해서라도 좋은대학에 가는것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란 말은 맞는 말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눈치와 찍기 기술은 실제로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상부상조의 정신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성공하기 위해 경쟁정신은 필수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남의 성공이 나의 과멸의 근본이란 말은 일리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남이 실패하는 것은 나의 성공에 유리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II-4. 다음 예문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문 1)

옛날, 몸이 허약한 청년 한 사람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 마침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고 있었다. 그 청년도 전사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고을 원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징집
 에서 면제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소 아홉마리의 털 중에서 하나 빠졌다 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하고 애원하였더니, 그 말이 그럴 듯하게 들렸던지 원
 이 그 청년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즉 소 아홉 마리의 털처럼 많은 청년
 들이 있는데, 그 청년 한 사람 면제해 준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려다 갈다 겹다 갈다 니다

- | | | | | | |
|---|---|---|---|---|---|
| 1) 징집영장을 받았어도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나가
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소 아홉마리의 털 중에서 하나 빠졌다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나”는 말은 일리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원이 청년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아량있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였다.
- 4) 위의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도 청년의 아버지와 똑같이 ① ② ③ ④ ⑤
행동하였을 것이다.

(예문 2)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의 아버지는 요즈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공장에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철수 아버지에게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면 물건값을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그럴 경우 다른 회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 결국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랑다갈다갸다갈다나다

- 1) 철수 아버지 회사의 형편으로 보아 공해방지 시설을 갖 ① ② ③ ④ ⑤
추는 것은 무리이다.
- 2) 자연은 후손들로 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3) 돈이 많아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① ② ③ ④ ⑤
않는 어른이 많다.
- 4) 위의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 ① ② ③ ④ ⑤
을 것이다.

(예문 3)

어떤 지역에 장애자와 고아들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회관 건립이 좌절되고 만 적이 있다. 이때, 그 곳 주민들이 내세운 회관 건립 반대 이유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뿐아니라, 집값도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랑다 같다 겹다 같다 니다

- 1) 장애자와 고아들을 위한 회관이 건립되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 2) 장애자와 고아들을 위한 회관 건립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의 행동은 옳다. ① ② ③ ④ ⑤
- 3) 소수가 다수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 4)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예문 4)

영선이는 학교에서 제일 가는 육상선수이다. 학교에서는 영선이가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학교와 고장의 명예를 높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영선이의 부모는 운동을 계속하면 성적이 떨어지므로 운동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하기를 원한다.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히그 것 르 것 히아
 랑다 같다 겹다 같다 니다

- 1)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은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 2) 학생에게 성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3) 부모님은 학교와 고장의 명예보다는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4)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도 공부만 하기를 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 5.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음의 말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1) 어머니		
	그런것 잘못 아닌것			그런것 잘못 아닌것		
	같 다 겹 다 같 다			같 다 겹 다 같 다		
1) 엄격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2) 책임감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3) 신중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4) 지성적이다.	①	②	③	①	②	③
5) 독선적이다.	①	②	③	①	②	③
6) 친절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7) 고생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①	②	③
8) 관대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9) 냉정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10) 침착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11) 정직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12) 멋지다.	①	②	③	①	②	③
13) 예의가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14) 이해성이 많다.	①	②	③	①	②	③
15) 자신감이 넘친다.	①	②	③	①	②	③
16)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①	②	③
17) 행복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18) 위선적이다.	①	②	③	①	②	③
19) 솔직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20) 답답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21) 다정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22) 무섭다.	①	②	③	①	②	③
23) 정의롭다.	①	②	③	①	②	③
24) 근면하다.	①	②	③	①	②	③
25) 현실적(실리적)이다.	①	②	③	①	②	③
26) 허세가 많다.	①	②	③	①	②	③

감사합니다.

[부 록 2]

〈표 1〉 부모님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인다

M : 2.43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2.7	39.7	21.8	13.5	2.2	48.8 (765)	23.24 ***
여	15.5	38.6	23.6	20.5	1.7	51.2 (804)	
학 교 중학교	23.5	38.6	23.5	12.5	1.9	49.0 (770)	35.08 ***
고등학교	14.8	39.8	22.0	21.5	2.0	51.0 (800)	
거주지 서울	21.4	37.6	21.4	16.7	2.9	24.4 (383)	8.42
직할시	18.9	38.9	22.3	18.0	1.8	55.5 (871)	
기타시	16.5	41.8	25.6	14.9	1.3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3.9	30.6	38.9	16.7		3.8 (36)	16.74 *
40 대	19.8	41.5	21.0	16.4	1.2	77.8 (732)	
50 대	15.6	36.4	25.4	18.5	4.0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4.0	31.4	36.4	9.9	3.3	13.5 (121)	36.38 ***
중	15.8	40.2	25.2	17.5	1.2	45.1 (405)	
상	24.7	41.4	15.3	16.4	2.2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18.2	33.7	26.0	15.9	1.2	84.9 (643)	9.98 *
전문직	17.5	42.1	16.7	19.3	4.4	15.1 (114)	
소 득 하	15.6	39.4	26.0	15.8	3.2	26.2 (411)	18.12 *
중	19.0	38.2	23.3	18.2	1.3	49.3 (773)	
상	23.0	41.0	18.0	15.9	2.1	24.4 (383)	
합 계 (실 수)	19.1 (299)	39.1 (614)	22.8 (357)	17.1 (268)	2.0 (31)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2〉 부모님은 교통질서 및 공중도덕을 잘 지키신다

M : 2.28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5.6	35.4	26.4	11.6	0.9	48.8 (765)	15.08 **
여	19.5	44.2	24.0	11.2	1.1	51.2 (804)	
학 교 중학교	28.1	40.2	23.1	8.1	0.5	49.0 (770)	41.95 ***
고등학교	17.1	39.6	27.1	14.6	1.5	51.0 (800)	
거주지 서울	25.3	38.4	24.5	10.7	1.0	24.4 (383)	7.40
직할시	21.7	40.5	24.2	12.3	1.3	55.5 (871)	
특별시	21.2	40.2	23.5	9.8	0.3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5.0	41.7	25.0	8.3		3.8 (36)	8.19
40 대	23.1	40.2	24.0	11.7	1.0	77.8 (732)	
50 대	18.5	34.1	30.1	15.3	1.7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8.2	42.1	22.3	15.7	1.7	13.5 (121)	11.60
중	21.5	40.7	25.2	11.9	0.7	45.1 (405)	
상	28.5	39.5	21.0	9.7	1.3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20.1	40.0	26.4	12.4	1.1	84.9 (643)	2.92
전문직	23.7	44.7	21.1	9.6	0.9	15.1 (114)	
소 득 하	20.0	36.7	27.3	14.6	1.5	26.2 (411)	10.48
중	22.9	41.0	24.7	10.5	0.9	49.3 (773)	
상	24.5	41.0	23.8	9.9	0.8	24.4 (383)	
합 계 (실 수)	22.5 (353)	39.9 (626)	25.2 (395)	11.4 (179)	1.0 (16)	100.0 (1,569)	

** $P < .01$ *** $P < .001$

〈표 3〉 부모님은 형편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신다.

M : 1.73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7.8	36.3	9.4	5.0	1.4	48.8 (765)	2.49
여	50.0	34.6	9.5	5.2	0.7	51.2 (804)	
학 교 중학교	49.2	33.6	11.2	4.4	1.6	49.0 (770)	10.86 *
고등학교	48.6	37.3	7.8	5.8	0.6	51.0 (800)	
거주지 서울	50.9	31.9	11.5	5.2	0.5	24.4 (383)	8.86
직할시	47.5	37.1	9.1	4.8	1.5	55.5 (871)	
기타시	50.3	35.4	7.9	5.7	0.6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38.9	36.1	16.7	8.3	-	3.8 (36)	13.84
40 대	49.3	35.8	9.7	4.2	1.0	77.8 (732)	
50 대	47.4	32.4	8.7	8.7	2.9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55.4	29.8	9.1	5.8	-	13.5 (121)	10.46
중	51.4	34.1	8.4	4.7	1.5	45.1 (405)	
상	44.1	37.1	12.1	5.9	0.8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47.6	37.9	8.4	5.0	1.1	84.9 (643)	4.37
전문직	45.6	32.5	12.3	7.9	1.8	15.1 (114)	
소 득 하	51.1	33.3	8.8	5.6	1.2	26.2 (411)	5.52
중	49.7	35.2	9.6	4.8	0.8	49.3 (773)	
상	44.9	38.6	9.7	5.2	1.6	24.4 (383)	
합 계 (실 수)	48.9 (768)	35.4 (556)	9.4 (148)	5.1 (80)	1.1 (17)	100.0 (1,569)	

* $P < .05$

〈표 4〉 부모님은 기분에 따라 꾸중하시는 편이다.

M : 2.98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2.4	33.5	11.9	26.8	15.4	48.8 (765)	0.76
여	12.8	34.3	12.1	24.9	15.9	51.2 (804)	
학 교 중학교	14.7	28.7	12.3	26.1	18.2	49.0 (770)	23.67 ***
고등학교	10.6	39.0	11.6	25.5	13.3	51.0 (800)	
거주지 서울	16.2	34.2	9.9	21.1	18.5	24.4 (383)	14.96
직할시	11.7	33.5	12.3	27.9	14.6	55.5 (871)	
특별시	10.8	34.8	13.6	25.6	15.2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9.4	27.8	13.9	22.2	16.7	3.8 (36)	6.39
40 대	13.0	34.2	12.2	25.3	15.4	77.8 (732)	
50 대	15.0	36.4	10.4	28.3	9.8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9.0	41.3	10.7	19.0	9.9	13.5 (121)	11.19
중	13.1	33.3	12.8	25.9	14.8	45.1 (405)	
상	11.6	34.1	11.0	26.9	16.4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13.2	35.9	12.4	23.6	14.8	84.9 (643)	0.82
전문직	11.4	36.0	11.4	23.7	17.5	15.1 (114)	
소 득 하	11.2	32.8	12.9	27.5	15.6	26.2 (411)	3.95
중	12.8	33.8	11.6	26.3	15.5	49.3 (773)	
상	13.8	35.5	11.7	22.7	16.2	24.4 (383)	
합 계 (실 수)	12.6 (198)	33.9 (532)	12.0 (188)	25.8 (405)	15.7 (246)	100.0 (1,569)	

*** $P < .001$

〈표 5〉 부모님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신다

M : 3.19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5.0	21.8	16.5	24.2	22.5	48.8 (765)	2.13
여	13.3	21.4	18.7	23.4	23.3	51.2 (804)	
학 교 중학교	14.8	16.8	18.8	23.9	25.7	49.0 (770)	23.49 ***
고등학교	13.6	26.3	16.4	23.6	20.1	51.0 (800)	
거주지 서울	14.1	19.3	17.0	23.0	26.6	24.4 (383)	12.51
직할시	13.8	22.5	16.2	25.3	22.3	55.5 (871)	
기타시	15.5	21.8	22.2	20.6	19.9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3.9	19.4	27.8	19.4	19.4	3.8 (36)	5.80
40 대	14.3	21.3	17.5	24.2	22.7	77.8 (732)	
50 대	17.9	23.7	14.5	24.3	19.7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8.2	25.6	20.7	16.5	19.0	13.5 (121)	18.45 *
중	13.6	24.7	17.5	24.9	19.3	45.1 (405)	
상	13.4	19.1	14.5	24.5	28.5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13.8	24.3	18.7	21.9	21.3	84.9 (643)	4.11
전문직	11.4	23.7	14.0	21.9	28.9	15.1 (114)	
소 득 하	18.7	19.5	17.5	23.6	20.7	26.2 (411)	15.79 *
중	13.8	21.6	17.9	24.3	22.4	49.3 (773)	
상	10.2	24.0	17.2	22.2	26.4	24.4 (383)	
합 계 (실 수)	14.1 (222)	21.6 (339)	17.6 (276)	23.8 (373)	22.9 (359)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6〉 부모님은 칭찬에 인색하시다.

M : 3.58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8	14.9	22.0	28.9	26.4	48.8 (765)	13.01 *
여	7.7	14.6	16.3	23.1	33.3	51.2 (804)	
학 교 중학교	8.8	13.0	22.7	24.3	31.2	49.0 (770)	25.99 ***
고등학교	6.8	16.4	15.5	32.5	28.9	51.0 (800)	
거주지 서울	9.9	16.4	16.4	26.1	31.1	24.4 (383)	12.31
직할시	7.3	13.2	19.3	29.0	31.1	55.5 (871)	
특별시	6.3	16.8	21.5	29.7	25.6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1.1	8.3	25.0	30.6	25.0	3.8 (36)	8.73
40 대	7.4	14.6	17.3	27.9	32.4	77.8 (732)	
50 대	11.0	13.9	22.5	27.2	25.4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9.9	17.4	14.9	34.7	23.1	13.5 (121)	29.77 ***
중	7.7	17.0	18.8	23.9	27.7	45.1 (405)	
상	7.3	7.8	16.7	23.5	39.8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7.0	14.9	19.3	28.5	30.3	84.9 (643)	2.66
전문직	7.0	19.3	15.8	31.6	26.3	15.1 (114)	
소 득 하	9.0	18.2	20.7	26.0	26.0	26.2 (411)	10.97
중	7.4	13.2	18.5	29.8	31.2	49.3 (773)	
상	7.3	13.3	18.5	23.5	31.9	24.4 (383)	
합 계 (실 수)	7.8 (122)	14.7 (231)	19.1 (299)	23.5 (447)	30.0 (470)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7〉 부모님은 대화보다는 주로 체벌에 의존하신다

M : 3.896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9	9.3	16.9	23.0	43.9	48.8 (765)	2.12
여	6.3	9.7	14.7	25.0	44.3	51.2 (804)	
학 교 중학교	6.5	11.0	20.1	22.9	39.5	49.0 (770)	30.70 ***
고등학교	6.8	8.0	11.5	25.1	48.5	51.0 (800)	
거주지 서울	6.8	7.8	12.8	22.2	50.4	24.4 (383)	11.28
직할시	6.4	9.4	17.1	24.8	42.3	55.5 (871)	
기타시	7.0	11.7	15.5	24.1	41.8	20.1 (316)	
부모님 30 대	8.3	11.1	22.2	33.3	25.0	3.8 (36)	8.05
연 세 40 대	6.3	9.3	15.2	23.4	45.9	77.8 (732)	
50 대	7.5	11.0	12.7	26.0	42.8	18.4 (173)	
부모님 하	8.3	13.2	19.0	24.0	35.5	13.5 (121)	12.24
학 력 중	7.2	7.7	15.1	24.4	45.7	45.1 (405)	
상	5.4	8.9	12.6	22.6	50.5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6.8	10.9	16.3	22.6	43.4	84.9 (643)	3.86
직 업 전문직	7.0	15.8	11.4	20.2	45.6	15.1 (114)	
소 득 하	8.5	10.9	15.6	26.5	38.4	26.2 (411)	14.40
중	5.3	8.4	15.8	24.5	46.1	49.3 (773)	
상	7.3	10.2	15.7	20.1	46.7	24.4 (383)	
합 계 (실 수)	6.6 (104)	9.5 (149)	15.7 (247)	24.0 (377)	44.1 (692)	100.0 (1,569)	

*** P < .001

〈표 8〉 가정의 주도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

M : 2.29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3.7	23.0	14.2	11.4	7.7	48.8 (765)	16.49 **
여	34.5	25.2	14.9	15.7	9.7	51.2 (803)	
학 교 중학교	39.5	23.3	16.3	12.5	8.5	49.0 (769)	4.92
고등학교	38.4	24.9	13.0	14.6	9.1	51.0 (800)	
거주지 서울	35.8	24.0	16.7	13.6	9.9	24.4 (383)	8.32
직할시	40.5	24.5	14.0	13.7	7.4	55.4 (870)	
특별시	38.6	23.1	13.6	13.3	11.4	20.1 (316)	
부모님 30 대	30.6	25.0	27.8	11.1	5.6	3.8 (36)	8.17
연 세 40 대	40.3	25.1	14.2	13.9	6.4	77.8 (732)	
50 대	45.1	22.5	11.6	13.3	7.5	18.4 (173)	
부모님 하	53.7	21.5	8.3	15.7	0.8	13.5 (121)	22.95 **
학 력 중	38.8	28.1	12.8	13.3	6.9	45.1 (405)	
상	36.0	26.9	18.0	12.6	6.5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43.5	24.9	10.3	14.3	7.0	84.9 (643)	9.71 *
직 업 전문직	30.7	24.6	14.0	22.8	7.9	15.1 (114)	
소 득 하	40.0	21.0	12.2	14.4	12.4	26.2 (410)	14.78
중	39.5	25.1	15.1	12.5	7.8	49.4 (773)	
상	36.8	25.6	16.2	14.4	7.0	24.5 (383)	
합 계 (실 수)	39.0 (611)	24.1 (378)	14.6 (229)	13.6 (213)	8.7 (137)	100.0 (1,568)	

* P < .05 ** P < .01

〈표 9〉 어머니는 가정에서 우리를 돌보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보람을 갖는 일이나 행동을 하신다.

M : 2.87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7.4	21.3	21.8	23.7	15.8	48.8 (765)	16.75 **
여	24.6	23.0	18.5	18.9	14.9	51.2 (804)	
학 교 중학교	23.9	23.6	21.9	17.0	13.5	49.0 (770)	25.26 ***
고등학교	18.5	20.8	18.4	25.3	17.1	51.0 (800)	
거주지 서울	26.1	20.6	19.1	20.1	14.1	24.4 (383)	15.32
직할시	18.6	23.3	19.3	23.1	15.7	55.5 (871)	
기타시	22.2	20.9	23.7	17.4	15.8	20.1 (316)	
부모님 30 대	33.3	36.1	13.9	11.1	5.6	3.8 (36)	20.38 **
연 세 40 대	22.4	22.0	19.1	22.3	14.2	77.8 (732)	
50 대	15.6	17.3	19.1	28.3	19.7	18.4 (173)	
부모님 하	18.2	13.2	18.2	28.1	22.3	13.5 (121)	35.54 ***
학 력 중	15.8	22.2	19.8	23.5	18.8	45.1 (405)	
상	29.6	23.1	16.4	18.8	12.1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5.9	20.8	21.5	22.1	19.8	84.9 (643)	47.62 ***
직 업 전문직	39.5	27.2	16.7	11.4	5.3	15.1 (114)	
소 득 하	18.5	18.7	24.1	22.1	16.5	26.2 (411)	22.81 **
중	19.1	23.5	19.4	22.3	15.7	49.3 (773)	
상	27.9	23.2	17.5	18.0	13.3	24.4 (383)	
합 계	21.1	23.2	20.1	21.2	15.4	100.0	
(실 수)	(331)	(348)	(316)	(333)	(241)	(1,569)	

** P < .01 *** P < .001

〈표 10〉 어머니는 집안일 보다는 바깥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M : 3.993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4	7.5	12.3	30.6	45.2	48.8 (765)	5.18
여	5.2	7.8	14.4	32.7	39.8	51.2 (804)	
학 교 중학교	4.2	7.1	14.2	30.8	43.8	49.0 (770)	3.59
고등학교	5.5	8.1	12.6	32.5	41.3	51.0 (800)	
거주지 서울	6.8	9.9	12.0	27.2	44.1	24.4 (383)	14.98
직할시	3.6	7.0	14.1	33.0	42.4	55.5 (871)	
특별시	6.0	6.6	13.0	33.5	40.8	20.1 (316)	
부모님 30 대	8.3	8.3	16.7	22.2	44.4	3.8 (36)	11.17
연 세 40 대	4.4	7.1	12.2	34.3	42.1	77.8 (732)	
50 대	5.8	6.9	19.7	27.2	40.5	18.4 (173)	
부모님 하	6.6	5.8	12.4	30.6	44.6	13.5 (121)	7.18
학 력 중	3.5	6.2	11.1	33.3	45.9	45.1 (405)	
상	4.8	9.1	13.2	32.0	40.9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4.5	6.1	12.8	32.5	44.2	84.9 (643)	14.51 **
직 업 전문직	6.6	14.9	13.2	34.2	31.6	15.1 (114)	
소 득 하	4.6	7.8	12.9	31.6	43.1	26.2 (411)	10.01
중	4.1	7.9	12.2	31.2	44.6	49.3 (773)	
상	6.5	7.0	16.2	32.9	37.3	24.4 (383)	
합 계	4.8	7.6	13.4	42.4	42.4	100.0	
(실 수)	(76)	(120)	(210)	(666)	(666)	(1,569)	

** P < .01

〈표 11〉 아버지는 못사는 사람을 무시한다

M : 4.54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4	2.6	6.3	21.0	68.6	48.9 (765)	2.62
여	1.2	3.0	6.5	18.0	71.3	51.1 (801)	
학 교 중학교	1.7	2.0	6.4	18.9	71.1	48.9 (767)	5.77
고등학교	1.0	3.6	6.4	20.0	69.0	51.1 (800)	
거주지 서울	2.6	3.1	6.3	15.9	72.1	24.4 (383)	17.99 *
직할시	0.8	3.3	6.5	21.7	67.7	55.4 (868)	
기타시	1.3	0.9	6.3	17.7	73.7	20.2 (316)	
부모님 30 대	-	-	8.3	22.2	69.4	3.8 (36)	8.59
연 세 40 대	1.9	2.9	5.2	19.8	70.2	77.8 (732)	
50 대	0.6	2.9	7.5	26.0	63.0	18.4 (173)	
부모님 하	3.3	1.7	4.1	21.5	69.4	13.5 (121)	14.70
학 력 중	0.2	3.0	5.4	18.8	72.6	45.1 (405)	
상	1.3	5.6	4.6	18.3	70.2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2	2.2	5.3	21.2	70.1	84.9 (643)	8.63
직 업 전문직		6.1	3.5	16.7	73.7	15.1 (114)	
소 득 하	2.0	3.4	8.8	21.7	64.1	26.2 (410)	15.66 *
중	0.9	2.3	6.1	19.7	71.0	49.4 (772)	
상	1.6	3.1	4.5	16.5	74.3	24.4 (382)	
합 계 (실 수)	1.3 (21)	2.8 (44)	6.4 (100)	19.5 (305)	70.0 (1,096)	100.0 (1,566)	

* $P < .05$

〈표 12〉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애정표현을 잘한다.

M : 3.07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2	12.8	48.4	22.4	9.3	48.9 (765)	15.10
여	8.4	19.3	44.5	18.4	9.5	51.1 (800)	
학 교 중학교	9.3	18.9	47.4	17.2	7.2	48.9 (766)	26.76 ***
고등학교	6.4	13.4	45.5	23.3	11.5	51.1 (800)	
거주지 서울	8.1	15.1	42.6	24.8	9.4	24.5 (383)	7.65
직할시	7.6	16.3	47.3	19.1	9.7	55.4 (867)	
특별시	7.9	16.8	48.7	18.0	8.5	20.2 (316)	
부모님 30 대	11.1	19.4	50.0	16.7	2.8	3.8 (36)	28.71 ***
연 세 40 대	9.4	18.3	43.2	21.6	7.5	77.8 (732)	
50 대	6.4	8.1	49.4	24.9	17.3	18.4 (173)	
부모님 하	5.0	13.2	50.4	24.0	7.4	13.5 (121)	7.02
학 력 중	8.1	17.5	45.4	20.0	8.9	45.1 (405)	
상	8.3	20.4	44.6	17.7	8.9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7.9	14.3	47.7	20.5	9.5	84.9 (643)	8.17
직 업 전문직	7.0	21.9	36.8	19.3	14.0	15.1 (114)	
소 득 하	8.0	12.4	51.0	19.5	9.0	26.2 (410)	20.15 **
중	6.5	15.7	46.8	21.9	9.2	49.4 (772)	
상	10.0	21.0	40.9	17.8	10.2	24.4 (381)	
합 계 (실 수)	7.8 (122)	16.1 (252)	46.4 (726)	20.3 (318)	9.4 (147)	100.0 (1,565)	

** $P < .01$ *** $P < .001$

〈표 13〉 앞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

M : 2.58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8.6	20.9	44.1	11.9	4.6	48.9 (765)	8.29
여	19.2	24.7	43.7	8.1	4.2	51.1 (801)	
학 교 중학교	23.5	25.6	42.2	6.3	2.5	48.9 (767)	55.72 ***
고등학교	14.5	20.3	45.5	13.5	6.3	51.1 (800)	
거주지 서울	21.9	21.1	43.1	8.9	5.0	24.4 (383)	8.60
직할시	18.9	24.0	42.7	10.5	3.9	55.4 (868)	
기타시	15.2	21.8	48.1	9.8	5.1	20.2 (316)	
부모님 30 대	22.2	25.0	47.2	5.6	-	3.8 (36)	45.31 ***
연 세 40 대	21.4	26.9	40.4	8.5	2.7	77.8 (732)	
50 대	11.6	15.0	48.6	14.5	10.4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9.0	17.4	43.8	12.4	7.4	13.5 (121)	56.03 ***
중	12.8	24.9	46.2	12.6	3.5	45.1 (405)	
상	32.3	24.2	32.8	8.6	2.2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15.4	23.2	43.9	12.9	4.7	84.9 (643)	9.61 *
전문직	25.4	26.3	36.0	7.9	4.4	15.1 (114)	
소 득 하	13.9	20.7	45.1	12.9	7.3	26.2 (410)	45.86 ***
중	18.0	22.2	47.8	8.5	3.5	49.4 (772)	
상	26.2	26.4	34.6	9.7	3.1	24.4 (382)	
합 계 (실 수)	18.9 (296)	22.9 (358)	43.9 (687)	10.0 (156)	4.4 (69)	100.0 (1,566)	

* $P < .05$ *** $P < .001$

〈표 14〉 어머니는 이상적인 여성이다

M : 2.58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2.2	24.4	36.2	11.8	5.4	48.8 (765)	6.37
여	18.7	26.9	33.9	14.2	6.4	51.2 (803)	
학 교 중학교	20.2	26.0	39.1	8.7	6.0	49.0 (769)	28.88 ***
고등학교	20.6	25.5	31.0	17.1	5.8	51.0 (800)	
거주지 서울	18.5	26.4	33.4	13.8	7.8	24.4 (383)	8.16
직할시	20.2	25.6	35.9	13.4	4.8	55.4 (879)	
특별시	23.1	25.3	34.5	10.8	6.3	20.1 (316)	
부모님 30 대	41.7	19.4	16.7	5.6	16.7	3.8 (36)	28.79 ***
연 세 40 대	18.4	26.8	36.9	12.6	5.3	77.8 (732)	
50 대	24.3	27.2	26.6	15.0	6.9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20.7	21.5	39.7	12.4	5.8	13.5 (121)	7.68
중	21.5	30.1	31.6	11.9	4.9	45.1 (405)	
상	20.4	25.8	33.1	12.9	7.8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20.8	27.1	35.0	11.5	5.6	84.9 (643)	17.54 ***
전문직	10.5	28.9	35.1	10.5	14.9	15.1 (114)	
소 득 하	20.0	26.3	34.5	12.4	6.8	26.2 (411)	8.12
중	19.3	25.5	36.9	13.1	4.5	49.3 (772)	
상	22.2	25.6	31.3	13.3	7.6	24.5 (383)	
합 계 (실 수)	20.7 (320)	25.7 (403)	35.0 (549)	13.0 (204)	5.9 (92)	100.0 (1,568)	

*** $P < .001$

〈표 15〉 아버지는 이상적인 남성이다

M : 2.69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1.2	20.5	38.8	13.7	5.8	48.8 (765)	14.31 **
여	16.1	23.9	35.8	15.3	8.9	51.2 (802)	
학 교 중학교	20.8	24.2	40.2	8.5	6.3	49.0 (768)	50.88 ***
고등학교	16.4	20.5	34.4	20.4	8.4	51.0 (800)	
거주지 서울	17.5	23.0	33.7	14.9	11.0	24.4 (383)	12.81
직할시	18.2	22.3	39.1	14.3	6.1	55.4 (869)	
기타시	20.9	21.5	36.4	14.9	6.3	20.2 (316)	
부모님 30 대	36.1	22.2	19.4	5.6	16.7	3.8 (36)	30.98 ***
연 세 40 대	19.7	22.3	37.3	14.5	6.3	77.8 (732)	
50 대	15.6	24.9	26.0	22.0	11.6	18.4 (173)	
부모님 하	19.8	19.8	35.5	17.4	7.4	13.5 (121)	7.02
학 력 중	19.5	24.0	34.6	15.8	6.2	45.1 (405)	
상	22.6	24.7	28.8	14.8	9.1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9.1	23.2	35.0	15.1	7.6	84.9 (643)	7.76
직 업 전문직	11.4	21.1	40.4	14.0	13.2	15.1 (114)	
소 득 하	17.8	22.4	39.0	12.4	8.3	26.2 (410)	10.27
중	18.1	21.6	38.9	15.3	6.1	49.4 (773)	
상	20.4	23.6	31.9	15.2	8.9	24.4 (382)	
합 계 (실 수)	18.6 (291)	22.3 (349)	37.3 (584)	14.1 (228)	7.3 (115)	100.0 (1,567)	

** P < .01 *** P < .001

〈표 16〉 자식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 : 3.28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7.9	27.9	11.8	29.1	13.4	48.8 (764)	114.86 ***
여	6.1	15.8	13.3	39.1	25.7	51.2 (803)	
학 교 중학교	12.4	18.5	14.0	34.5	20.7	49.0 (769)	10.90 *
고등학교	11.4	24.8	12.6	34.2	18.8	51.0 (799)	
거주지 서울	12.8	20.9	13.6	29.6	23.0	24.4 (382)	14.29
직할시	11.7	22.2	12.8	36.6	16.8	55.5 (870)	
특별시	11.1	21.2	10.8	33.2	23.7	20.2 (316)	
부모님 30 대	11.1	16.7	22.2	22.2	27.8	3.8 (36)	10.09
연 세 40 대	13.0	21.6	11.6	33.7	20.1	77.9 (732)	
50 대	15.1	24.4	7.6	33.7	19.2	18.3 (172)	
부모님 하	20.7	18.2	10.7	36.4	14.0	13.5 (121)	20.83 **
학 력 중	8.4	22.7	12.6	37.0	19.3	45.1 (405)	
상	10.2	19.9	11.3	34.1	24.5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1.8	24.3	12.1	34.6	17.1	85.0 (642)	5.35
직 업 전문직	14.2	26.5	6.2	31.0	22.1	15.0 (113)	
소 득 하	14.4	22.9	11.9	34.8	16.1	26.3 (411)	9.33
중	10.9	21.9	11.9	34.5	20.8	49.3 (771)	
상	11.2	19.8	14.4	32.9	21.7	24.5 (383)	
합 계 (실 수)	11.9 (186)	21.7 (340)	12.6 (197)	34.2 (536)	19.7 (308)	100.0 (1,567)	

* P < .05 ** P < .01 *** P < .001

< 표 17 > 자녀들은 존대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M : 2.273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2.5	31.6	12.4	9.8	3.7	48.8 (765)	79.58 ***
여	24.1	32.3	16.8	20.4	6.3	51.2 (804)	
학 교 중학교	35.3	29.5	15.1	13.8	6.4	49.0 (770)	12.34 *
고등학교	30.9	34.4	14.3	16.6	3.9	51.0 (800)	
거주지 서울	27.9	29.5	15.4	19.3	7.8	24.4 (383)	19.27 *
직할시	34.6	33.5	14.1	13.5	4.2	55.5 (871)	
기타시	35.1	30.7	15.2	14.9	4.1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33.3	30.6	13.9	13.9	8.3	3.8 (36)	3.80
40 대	33.7	34.0	13.0	13.8	5.5	77.8 (732)	
50 대	27.7	36.4	14.5	16.8	4.6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46.3	26.4	12.4	11.6	3.3	13.5 (121)	15.64 *
중	31.9	32.8	13.6	16.8	4.9	45.1 (405)	
상	31.2	33.1	16.7	12.4	6.7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35.1	35.1	13.1	12.8	3.9	89.9 (643)	9.86 *
전문직	23.7	41.2	10.5	16.7	7.9	15.1 (114)	
소 득 하	38.4	29.2	14.4	15.8	2.2	26.2 (411)	20.87 **
중	32.6	33.6	13.8	14.1	5.8	49.3 (773)	
상	27.9	31.9	16.7	16.7	6.8	24.4 (383)	
합 계 (실 수)	33.1 (519)	32.0 (502)	14.7 (230)	15.2 (239)	5.0 (79)	100.0 (1,569)	

* P < .05 ** P < .01 *** P < .001

< 표 18 >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 : 1.41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1.2	23.7	3.3	0.9	0.9	48.8 (765)	9.72 *
여	64.4	29.4	4.1	0.6	1.5	51.2 (804)	
학 교 중학교	67.8	24.8	5.2	1.0	1.2	49.0 (770)	12.60 *
고등학교	67.6	28.4	2.3	0.5	1.3	51.0 (800)	
거주지 서울	66.8	27.2	4.2	0.8	1.0	24.4 (288)	3.36
직할시	68.9	25.6	3.4	0.9	1.1	55.5 (871)	
특별시	65.5	28.8	3.8	0.3	1.2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61.1	30.6	5.6	2.8	-	3.8 (36)	21.19 **
40 대	69.0	25.8	4.1	0.3	0.8	77.8 (732)	
50 대	63.6	30.1	1.2	2.3	2.9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71.1	22.3	5.0	-	1.2	13.5 (121)	4.10
중	65.7	27.9	3.7	1.2	1.5	45.1 (405)	
상	65.1	28.5	3.8	0.8	1.9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67.5	25.5	4.8	1.1	1.1	84.9 (643)	2.73
전문직	64.9	30.7	3.5	-	0.9	15.1 (114)	
소 득 하	70.1	22.9	4.4	1.0	1.7	26.2 (411)	6.14
중	66.6	28.5	3.2	0.6	1.0	49.3 (773)	
상	67.4	26.9	3.9	0.8	1.0	24.4 (383)	
합 계 (실 수)	67.8 (1,063)	26.6 (417)	3.7 (58)	0.8 (12)	1.2 (19)	100.0 (1,569)	

* P < .05 ** P < .01

〈표 19〉 자식의 일기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M : 4.31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9	4.8	9.8	26.5	54.9	48.8 (765)	16.69 ***
여	2.6	5.5	7.5	20.4	64.1	51.2 (804)	
학 교 중학교	4.9	5.1	9.7	24.3	56.0	49.0 (770)	19.45 ***
고등학교	1.6	5.3	7.5	22.5	63.1	51.0 (800)	
거주지 서울	4.4	5.7	9.4	18.3	62.1	24.4 (383)	11.77
직할시	2.9	4.4	8.6	25.0	59.1	55.5 (871)	
기타시	2.8	6.6	7.6	25.0	57.9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8	2.8	11.1	11.1	72.2	3.8 (36)	5.91
40 대	3.4	5.5	7.4	24.5	59.3	77.8 (732)	
50 대	4.0	6.4	6.9	26.6	56.1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3.3	3.3	11.6	26.4	55.4	13.5 (121)	10.97
중	2.5	5.4	6.9	27.7	57.5	45.1 (405)	
상	3.0	5.1	8.3	19.6	64.0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3.1	6.4	8.7	25.7	56.1	84.9 (543)	4.99
전문직	7.0	7.0	9.6	21.1	55.3	15.1 (114)	
소 득 하	4.9	5.8	7.8	26.5	55.0	26.2 (411)	19.14 *
중	2.5	4.3	10.2	23.4	59.6	49.3 (773)	
상	3.1	6.3	6.3	19.8	64.5	24.4 (383)	
합 계 (실 수)	3.3 (51)	5.2 (81)	8.6 (135)	23.4 (367)	59.6 (935)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20〉 임시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 : 3.35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5	19.7	22.6	26.3	23.9	48.8 (765)	2.12
여	8.3	21.5	21.4	27.0	21.8	51.2 (804)	
학 교 중학교	8.2	18.6	22.3	26.0	24.9	49.0 (770)	6.43
고등학교	7.6	22.6	21.6	27.3	20.9	51.0 (800)	
거주지 서울	11.2	23.2	22.5	22.5	20.6	24.4 (383)	19.39 *
직할시	7.3	21.1	21.7	26.8	23.1	55.5 (871)	
특별시	5.4	16.1	22.2	31.3	25.0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1.1	16.7	25.0	25.0	22.2	3.8 (36)	7.76
40 대	8.9	22.3	22.5	24.0	22.3	77.8 (732)	
50 대	5.2	19.7	20.2	32.4	22.5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8.3	18.2	19.0	33.1	21.5	13.5 (121)	27.35 ***
중	5.4	18.8	19.5	30.9	25.4	45.1 (405)	
상	11.8	24.2	23.9	20.7	19.4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6.7	19.0	21.2	28.3	24.9	84.9 (543)	3.24
전문직	7.9	21.9	14.0	29.8	26.3	15.1 (114)	
소 득 하	5.4	16.3	23.4	29.2	25.8	26.2 (411)	24.55 ***
중	7.4	21.1	21.3	27.2	23.0	49.3 (773)	
상	11.7	24.3	21.9	22.7	19.3	24.4 (383)	
합 계 (실 수)	7.9 (124)	20.7 (324)	22.0 (345)	26.6 (418)	22.8 (358)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21〉 자녀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 : 2.93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8.8	30.8	16.2	18.2	15.9	48.8 (765)	12.76 *
여	14.2	28.5	17.5	18.3	21.5	51.2 (804)	
학 교 중학교	17.4	27.9	17.3	16.9	20.5	49.0 (770)	6.16
고등학교	15.5	31.3	16.5	19.5	17.3	51.0 (800)	
거주지 서울	17.5	27.4	18.5	18.5	18.0	24.4 (383)	10.63
직할시	17.5	31.2	16.0	17.6	17.8	55.5 (871)	
기타시	12.3	27.8	17.4	19.6	22.8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2.2	19.4	16.7	8.3	33.3	3.8 (36)	14.87
40 대	18.3	28.0	16.3	20.5	16.9	77.8 (732)	
50 대	14.5	27.2	13.9	19.1	25.4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9.8	28.9	16.5	19.0	15.7	13.5 (121)	10.82
중	14.8	32.8	13.8	18.8	19.8	45.1 (405)	
상	15.3	24.7	19.4	20.2	20.4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5.6	29.2	19.0	17.6	18.7	84.9 (643)	2.79
직 업 전문직	17.5	33.3	16.7	12.3	20.2	15.1 (114)	
소 득 하	16.1	31.4	15.6	19.7	17.3	26.2 (411)	6.96
중	16.7	30.8	17.1	16.8	18.6	49.3 (773)	
상	16.4	25.3	18.0	19.3	20.9	24.4 (383)	
합 계 (실 수)	16.4 (258)	29.6 (465)	16.9 (265)	18.2 (286)	18.8 (295)	100.0 (1,569)	

* $P < .05$

〈표 22〉 자녀에게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M : 4.02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4	9.0	13.5	33.2	39.9	48.8 (765)	10.52 *
여	3.2	7.0	14.4	28.7	46.6	51.2 (804)	
학 교 중학교	3.6	7.1	15.5	29.4	44.4	49.0 (770)	5.40
고등학교	4.0	8.8	12.5	32.4	42.4	51.0 (800)	
거주지 서울	3.7	10.2	13.6	31.1	41.5	24.4 (383)	6.42
직할시	4.0	7.3	13.2	31.7	43.7	55.5 (871)	
특별시	3.5	7.0	16.5	28.5	44.6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8	5.6	16.7	25.0	50.0	3.8 (36)	9.50
40 대	4.5	9.3	15.2	28.0	43.0	77.8 (732)	
50 대	7.5	5.2	11.6	33.5	42.2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5.8	5.0	16.5	34.7	38.0	13.5 (121)	10.63
중	2.7	9.1	11.9	30.9	45.4	45.1 (405)	
상	4.0	8.1	13.2	26.6	48.1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4.8	7.6	16.2	30.9	40.4	84.9 (643)	9.95 *
직 업 전문직	2.6	10.5	8.8	25.4	52.6	15.1 (114)	
소 득 하	4.6	6.6	15.8	32.4	40.6	26.2 (411)	8.94
중	3.1	7.9	13.5	31.7	43.9	49.3 (773)	
상	4.4	9.7	13.1	27.4	45.4	24.4 (383)	
합 계 (실 수)	3.8 (60)	8.0 (125)	14.0 (219)	30.9 (435)	43.3 (680)	100.0 (1,569)	

* $P < .05$

〈표 23〉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 : 3.52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9.4	17.8	17.8	27.7	27.3	48.8 (765)	6.62
여	8.5	16.3	15.8	26.2	33.2	51.2 (804)	
학 교 중학교	10.4	15.2	19.1	24.2	31.2	49.0 (770)	16.19 **
고등학교	7.5	18.8	14.5	29.6	29.6	51.0 (800)	
거주지 서울	8.6	18.8	16.2	26.6	29.8	24.4 (383)	4.66
직할시	8.6	17.0	16.0	27.6	30.9	55.5 (871)	
기타시	10.1	14.9	19.6	25.6	29.7	20.1 (316)	
부모님 30 대	8.3	13.9	19.4	22.2	36.1	3.8 (36)	4.18
연 세 40 대	10.1	17.2	16.3	27.2	29.2	77.8 (732)	
50 대	9.2	17.9	15.6	32.4	24.9	18.4 (173)	
부모님 하	10.7	12.4	18.2	31.4	27.3	13.5 (121)	9.28
학 력 중	8.1	14.3	15.8	28.6	33.1	45.1 (405)	
상	7.3	19.1	15.1	24.5	34.1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8.6	15.6	17.1	27.4	31.4	84.9 (643)	6.37
직 업 전문직	14.9	19.3	15.8	22.8	27.2	15.1 (114)	
소 득 하	9.7	14.1	19.2	27.3	29.7	26.2 (411)	9.44
중	8.8	16.6	16.8	26.6	31.2	49.3 (773)	
상	8.4	20.9	14.1	27.2	29.5	24.4 (383)	
합 계	8.9	17.0	16.8	27.0	30.3	100.0	
(실 수)	(140)	(267)	(263)	(423)	(476)	(1,569)	

** P < .01

〈표 24〉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M : 3.15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1.2	10.1	36.9	20.7	21.2	48.8 (765)	23.32 ***
여	16.9	11.6	38.3	19.7	13.6	51.2 (804)	
학 교 중학교	15.6	12.5	42.2	14.5	15.2	49.0 (770)	41.94 ***
고등학교	12.8	9.3	33.1	25.5	19.4	51.0 (800)	
거주지 서울	13.8	8.4	32.9	20.9	24.0	24.4 (383)	32.42 ***
직할시	14.9	12.7	36.3	20.0	16.1	55.5 (871)	
특별시	12.3	8.5	46.8	19.6	12.7	20.1 (316)	
부모님 30 대	8.3	13.9	50.0	8.3	19.4	3.8 (36)	12.27
연 세 40 대	15.2	10.5	36.1	20.2	18.0	77.8 (732)	
50 대	13.9	7.5	35.8	27.7	15.0	18.4 (173)	
부모님 하	12.4	9.9	40.5	17.4	19.8	13.5 (121)	7.52
학 력 중	14.6	10.4	37.0	22.5	15.6	45.1 (405)	
상	16.1	12.1	36.0	16.7	19.1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2.9	10.6	38.1	21.9	16.5	84.9 (643)	9.79 *
직 업 전문직	13.2	12.3	25.4	22.8	26.3	15.1 (114)	
소 득 하	10.9	12.2	39.4	22.4	15.1	26.2 (411)	13.10
중	14.4	11.3	36.7	19.9	17.7	49.3 (773)	
상	17.2	8.4	37.6	17.8	19.1	24.4 (383)	
합 계	14.1	10.8	37.6	20.1	17.3	100.0	
(실 수)	(222)	(170)	(590)	(316)	(271)	(1,569)	

* P < .05 *** P < .001

〈 표 25 〉 남녀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M : 3.31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9.5	18.8	20.0	29.7	22.0	48.8 (765)	4.56
여	10.4	21.3	18.3	31.3	18.7	51.2 (804)	
학 교 중학교	10.8	18.4	21.9	28.2	20.6	49.0 (770)	12.04 *
고등학교	9.3	21.6	16.4	32.8	20.0	51.0 (800)	
거주지 서울	9.7	17.8	15.7	34.2	22.7	24.4 (383)	14.53
직할시	9.8	22.4	19.3	28.8	19.7	55.5 (871)	
기타시	11.1	16.5	22.8	30.7	19.0	20.1 (316)	
부모님 30 대	8.3	16.7	16.7	27.8	30.6	3.8 (36)	5.22
연 세 40 대	10.7	23.0	18.2	29.5	18.7	77.8 (732)	
50 대	12.1	18.5	17.9	32.4	19.1	19.2 (181)	
부모님 하	12.4	19.0	21.5	25.6	21.5	13.5 (121)	16.33 *
학 력 중	8.9	20.7	18.0	35.6	16.8	45.1 (405)	
상	10.8	20.7	17.7	25.5	25.3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0.0	20.8	18.2	32.2	18.8	84.9 (643)	1.28
직 업 전문직	7.9	21.9	15.8	32.5	21.9	15.1 (114)	
소 득 하	9.5	19.2	20.7	32.1	18.5	26.2 (411)	8.06
중	11.0	19.5	19.4	30.5	19.5	49.3 (773)	
상	8.6	21.7	17.0	28.7	24.0	24.4 (383)	
합 계 (실 수)	10.0 (157)	20.1 (315)	19.1 (300)	30.5 (479)	20.3 (318)	100.0 (1,569)	

* $P < .05$

〈 표 26 〉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M : 3.503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8	12.9	19.0	30.6	29.7	48.8 (765)	11.76 *
여	10.3	16.8	19.9	29.0	24.0	51.2 (804)	
학 교 중학교	12.5	12.5	22.6	27.5	24.9	49.0 (770)	37.04 ***
고등학교	5.9	17.3	16.4	31.9	28.6	51.0 (800)	
거주지 서울	8.9	10.4	18.0	29.5	33.2	24.4 (383)	18.96 *
직할시	9.5	17.3	20.0	29.4	23.8	55.5 (871)	
특별시	8.2	13.6	19.6	31.0	27.5	20.1 (316)	
부모님 30 대	11.1	11.1	19.4	25.0	33.3	3.8 (36)	3.21
연 세 40 대	8.9	16.0	19.4	30.7	25.0	77.8 (732)	
50 대	9.8	14.5	17.9	28.9	28.9	18.4 (173)	
부모님 하	11.6	19.0	22.3	25.6	21.5	13.5 (121)	12.43
학 력 중	7.2	14.8	16.5	31.6	29.9	45.1 (405)	
상	12.1	14.0	18.0	28.0	28.0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8.6	16.2	21.6	28.1	25.5	84.9 (643)	6.15
직 업 전문직	10.5	18.4	12.3	34.2	24.6	15.1 (114)	
소 득 하	8.8	17.0	18.0	29.7	26.5	26.2 (411)	3.02
중	9.4	14.2	19.8	30.3	26.3	49.3 (773)	
상	8.9	13.8	20.4	29.0	27.9	24.4 (383)	
합 계 (실 수)	9.1 (143)	14.9 (234)	19.4 (305)	29.8 (467)	26.8 (420)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27〉 청소년들은 음주와 흡연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M : 2.14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3.1	14.5	10.8	8.4	13.2	48.8 (765)	17.02 **
여	58.3	10.1	7.3	7.6	16.7	51.2 (804)	
학 교 중학교	66.8	7.8	5.1	3.5	16.9	49.0 (770)	124.67 ***
고등학교	45.3	16.5	12.9	12.3	13.1	51.0 (800)	
거주지 서울	47.8	12.8	11.5	9.1	18.8	24.4 (383)	17.63 *
직할시	58.2	12.9	8.3	7.2	13.4	55.5 (871)	
기타시	58.9	9.8	8.2	8.5	14.6	20.1 (316)	
부모님 30 대	58.3	16.7	2.8	5.6	16.7	3.8 (36)	21.07 **
연 세 40 대	57.9	11.3	9.8	6.4	14.5	77.8 (732)	
50 대	50.3	11.0	9.2	16.2	13.3	18.4 (173)	
부모님 하	57.9	11.6	10.7	6.6	13.2	13.5 (121)	9.59
학 력 중	56.3	13.1	8.1	8.6	13.8	45.1 (405)	
상	59.9	8.1	8.3	6.2	17.5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55.4	12.4	9.3	9.3	13.5	84.9 (643)	3.05
직 업 전문직	57.9	13.2	6.1	6.1	16.7	15.1 (114)	
소 득 하	55.2	11.9	9.0	8.3	15.6	26.2 (411)	4.14
중	56.4	12.0	8.0	8.2	15.4	49.3 (773)	
상	55.1	12.8	11.2	7.3	13.6	24.4 (383)	
합 계 (실 수)	55.8 (875)	12.2 (192)	9.1 (142)	8.0 (125)	15.0 (235)	100.0 (1,569)	

* $P < .05$ *** $P < .01$ **** $P < .001$

〈표 28〉 학생들이 디스코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M : 2.21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1.4	15.2	10.6	8.5	14.4	48.8 (765)	4.49
여	52.0	13.8	8.5	10.7	15.0	51.2 (804)	
학 교 중학교	60.8	11.3	6.5	5.5	16.0	49.0 (770)	77.58 ***
고등학교	43.0	17.5	12.4	13.6	13.5	51.0 (800)	
거주지 서울	44.1	13.6	11.0	12.5	18.8	24.4 (383)	18.72 *
직할시	53.5	14.5	9.4	8.8	13.8	55.5 (871)	
특별시	56.0	15.5	7.9	8.2	12.3	20.1 (316)	
부모님 30 대	47.2	19.4	8.3	5.6	19.4	3.8 (36)	4.35
연 세 40 대	54.1	13.3	10.0	9.4	13.3	77.8 (732)	
50 대	51.4	15.6	10.4	11.0	11.6	18.4 (173)	
부모님 하	53.7	11.6	11.6	8.3	14.9	13.5 (121)	8.03
학 력 중	52.6	16.0	7.7	10.6	13.1	45.1 (405)	
상	55.1	12.6	8.1	7.5	16.7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49.8	14.8	10.7	10.6	14.2	84.9 (641)	1.37
직 업 전문직	52.6	14.9	8.8	7.9	15.8	15.1 (114)	
소 득 하	50.4	15.6	9.7	10.2	14.1	26.2 (411)	6.20
중	52.3	13.6	8.4	9.7	16.0	49.3 (773)	
상	52.0	15.1	11.5	8.6	12.8	24.4 (383)	
합 계 (실 수)	51.7 (811)	14.5 (227)	9.5 (149)	9.6 (151)	14.7 (231)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29〉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M : 2.51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9.5	24.4	23.7	14.6	7.7	48.8 (765)	3.71
여	27.2	23.9	22.6	17.9	8.3	51.2 (804)	
학 교 중학교	33.4	22.1	25.6	11.4	7.5	49.0 (770)	42.26 ***
고등학교	23.6	26.1	20.8	21.0	8.5	51.0 (800)	
거주지 서울	23.8	24.3	25.6	16.4	9.9	24.4 (383)	12.33
직할시	30.4	25.0	22.0	16.0	6.5	55.5 (871)	
기타시	28.5	21.5	23.1	17.1	9.8	20.1 (316)	
부모님 30 대	30.6	22.2	27.8	11.1	8.3	3.8 (36)	7.53
연 세 40 대	30.5	23.4	21.3	17.6	7.2	77.8 (732)	
50 대	21.4	26.6	25.4	17.9	8.7	18.4 (173)	
부모님 하	33.1	20.7	21.5	14.0	10.7	13.5 (121)	5.22
학 력 중	28.4	25.2	20.5	17.3	8.6	45.1 (405)	
상	28.5	21.8	23.7	18.5	7.5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26.7	25.7	24.3	15.4	7.9	84.9 (643)	5.38
직 업 전문직	26.3	19.3	21.9	22.8	9.6	15.1 (114)	
소 득 하	28.0	27.7	21.4	14.1	8.8	26.2 (411)	6.78
중	29.4	22.8	23.2	17.1	7.6	49.3 (773)	
상	27.2	22.7	25.1	17.0	8.1	24.4 (383)	
합 계 (실 수)	28.4 (445)	24.2 (379)	23.1 (363)	16.3 (256)	8.0 (126)	100.0 (1,569)	

*** P < .001

〈표 30〉 좋은 성적을 위해 친구타도는 어쩔 수 없다

M : 3.85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7	12.0	14.5	24.3	42.5	48.8 (765)	19.61 ***
여	3.2	11.1	18.3	29.7	37.7	51.2 (804)	
학 교 중학교	6.8	11.7	21.8	26.0	33.8	49.0 (770)	52.85 ***
고등학교	3.1	11.4	11.3	28.1	46.1	51.0 (800)	
거주지 서울	5.7	9.7	16.7	25.8	42.0	24.4 (383)	11.78
직할시	4.6	12.7	14.6	27.3	40.8	55.5 (871)	
특별시	4.7	10.4	21.2	27.8	35.8	20.1 (316)	
부모님 30 대	2.8	5.6	30.6	16.7	44.4	3.8 (36)	10.42
연 세 40 대	5.1	13.0	14.1	27.2	40.7	77.8 (732)	
50 대	5.2	11.6	16.8	28.3	38.2	18.4 (173)	
부모님 하	4.1	7.4	19.0	28.9	40.5	13.5 (121)	20.03 *
학 력 중	3.5	11.1	15.8	32.3	37.3	45.1 (405)	
상	6.2	14.0	11.6	23.1	45.2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4.4	10.6	19.1	26.6	39.3	84.9 (643)	8.53
직 업 전문직	7.9	14.0	12.3	20.2	45.6	15.1 (114)	
소 득 하	5.1	9.7	21.4	25.5	38.2	26.2 (411)	12.10
중	4.5	11.6	14.9	28.3	40.6	49.3 (773)	
상	5.5	13.1	14.4	26.4	40.7	24.4 (383)	
합 계 (실 수)	4.9 (77)	11.5 (181)	15.4 (258)	27.1 (425)	40.0 (628)	48.8 (765) 51.2 (804)	

* P < .05 *** P < .001

〈표 31〉 이기주의는 필요하다

M : 3.72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8	14.5	19.3	25.3	35.6	48.8 (765)	3.51
여	3.9	17.4	18.5	24.1	36.1	51.2 (804)	
학 교 중학교	4.8	10.9	19.6	26.5	38.2	49.0 (770)	29.34 ***
고등학교	3.9	20.9	18.3	23.4	33.6	51.0 (800)	
거주지 서울	6.3	14.9	15.7	23.2	39.9	24.4 (383)	16.49 *
직할시	4.1	16.8	20.0	26.4	32.7	55.5 (871)	
기타시	2.5	15.2	19.9	22.8	39.6	20.1 (316)	
부모님 30 대	2.8	8.3	25.0	33.3	30.6	3.8 (36)	13.58
연 세 40 대	5.5	15.7	19.0	25.3	34.6	77.8 (732)	
50 대	1.7	21.4	13.3	28.3	35.3	18.4 (173)	
부모님 하	7.4	9.1	22.3	27.3	33.9	13.5 (121)	8.98
학 력 중	4.2	17.8	18.8	26.7	32.6	45.1 (405)	
상	5.4	15.6	17.7	24.5	36.8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3.6	15.4	18.0	26.3	36.7	84.9 (643)	3.18
직 업 전문직	7.0	14.0	19.3	24.6	35.1	15.1 (114)	
소 득 하	2.9	17.3	17.0	25.1	37.7	26.2 (411)	5.64
중	4.9	14.9	19.7	24.8	35.7	49.3 (773)	
상	4.7	16.7	19.6	25.1	33.9	24.4 (383)	
합 계	4.3	16.0	18.9	24.9	35.8	100.0	
(실 수)	(68)	(251)	(297)	(391)	(562)	(1,569)	

* $P < .05$ *** $P < .001$

〈표 32〉 소질을 무시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M : 4.08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2	8.6	12.3	29.7	45.2	48.8 (765)	2.99
여	3.2	7.1	11.4	30.5	47.8	51.2 (804)	
학 교 중학교	4.7	9.1	13.2	29.7	43.2	49.0 (770)	13.09 *
고등학교	2.8	6.6	10.5	30.4	49.8	51.0 (800)	
거주지 서울	5.5	7.0	11.7	25.1	50.7	24.4 (383)	11.76
직할시	3.2	8.2	11.9	32.3	44.4	55.5 (871)	
특별시	2.8	7.9	11.7	30.1	47.5	20.1 (316)	
부모님 30 대	8.3	8.3	11.1	38.9	33.3	3.8 (36)	10.64
연 세 40 대	4.8	9.7	11.2	29.6	44.7	77.8 (732)	
50 대	2.3	6.9	7.5	30.1	53.2	18.4 (173)	
부모님 하	0.8	4.1	7.4	37.2	50.4	13.5 (121)	18.44 *
학 력 중	3.2	8.6	13.1	32.8	42.2	45.1 (405)	
상	5.4	8.1	11.6	25.8	49.2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3.0	7.6	11.4	31.4	46.7	84.9 (643)	0.69
직 업 전문직	1.8	7.0	10.5	32.5	48.2	15.1 (114)	
소 득 하	3.4	7.8	14.4	31.1	43.3	26.2 (411)	9.67
중	3.5	7.6	9.7	30.8	48.4	49.3 (773)	
상	4.4	8.4	13.3	27.2	46.7	24.4 (383)	
합 계	3.7	7.8	11.9	30.1	46.5	100.0	
(실 수)	(58)	(123)	(186)	(472)	(730)	(1,569)	

* $P < 0.5$

〈표 33〉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란 말은 맞는 말이다

M : 3.42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1.0	17.8	16.5	23.5	31.2	48.8 (765)	8.48
여	8.8	23.3	16.7	22.0	29.2	51.2 (804)	
학 교 중학교	10.3	18.1	19.7	20.5	31.4	49.0 (770)	18.08 **
고등학교	9.5	23.0	13.5	24.9	29.1	51.0 (800)	
거주지 서울	14.6	19.1	16.4	19.8	30.0	24.4 (383)	21.49 **
직할시	8.0	21.5	18.0	23.8	28.7	55.5 (871)	
기타시	9.2	19.9	12.7	23.4	34.8	20.1 (316)	
부모님 30대	8.3	13.9	19.4	19.4	38.9	3.8 (36)	4.23
연 세 40대	10.5	22.1	16.4	23.1	27.9	77.8 (732)	
50대	9.8	21.4	15.0	21.4	32.4	18.4 (173)	
부모님 하	9.9	20.7	15.7	25.6	28.1	13.5 (121)	5.22
학 력 중	10.6	20.7	13.8	25.9	28.9	45.1 (405)	
상	11.8	24.2	14.5	19.9	29.6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8.7	21.2	15.4	24.0	30.8	84.9 (643)	1.62
직 업 전문직	7.0	22.8	14.9	20.2	35.1	15.1 (114)	
소 득 하	8.8	19.7	15.6	24.3	31.6	26.2 (411)	2.74
중	10.0	21.0	17.3	22.0	29.8	49.3 (773)	
상	11.0	20.4	16.2	22.7	29.8	24.4 (383)	
합 계 (실 수)	9.9 (155)	20.6 (323)	16.6 (260)	22.8 (357)	30.2 (474)	100.0 (1,569)	

** $P < .01$

〈표 34〉 눈치와 찍기 기술은 실제로 중요하다

M : 3.16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4.4	23.2	21.2	18.2	23.0	48.8 (765)	8.68
여	12.3	20.6	22.9	23.3	20.9	51.2 (804)	
학 교 중학교	10.6	12.6	26.6	23.1	27.0	49.0 (770)	103.77 ***
고등학교	15.9	30.9	17.6	18.5	17.1	51.0 (800)	
거주지 서울	20.9	19.6	21.1	17.3	20.6	24.4 (383)	28.62 ***
직할시	10.4	23.0	21.8	22.7	22.0	55.5 (871)	
특별시	12.0	21.8	23.7	19.0	23.4	20.1 (316)	
부모님 30대	19.4	13.9	22.2	13.9	30.6	3.8 (36)	9.97
연 세 40대	13.1	23.1	20.5	22.0	21.3	77.8 (732)	
50대	16.2	25.4	24.3	17.9	16.2	18.4 (173)	
부모님 하	15.7	13.2	19.0	24.8	27.3	13.5 (121)	24.33 **
학 력 중	10.6	25.4	22.7	22.5	18.8	45.1 (405)	
상	19.1	19.9	16.7	21.5	22.8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11.2	20.8	24.3	22.7	21.0	84.9 (643)	4.62
직 업 전문직	13.2	23.7	15.8	21.9	25.4	15.1 (114)	
소 득 하	10.2	21.2	23.8	20.2	24.6	26.2 (411)	12.28
중	12.9	22.6	21.3	22.0	21.1	49.3 (773)	
상	17.5	21.1	21.4	18.8	21.1	24.4 (383)	
합 계 (실 수)	13.3 (209)	21.9 (344)	22.1 (346)	20.8 (326)	21.9 (344)	100.0 (1,569)	

** $P < .01$ *** $P < .001$

〈표 35〉 상부상조의 정신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M : 3.69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8	12.3	19.7	31.0	31.2	48.8 (765)	1.72
여	4.9	13.3	21.0	29.1	31.7	51.2 (804)	
학 교 중학교	6.0	12.9	23.5	26.9	30.8	49.0 (770)	13.75 **
고등학교	4.6	12.8	17.4	33.0	32.3	51.0 (800)	
거주지 서울	6.3	13.6	20.6	27.2	32.4	24.4 (383)	9.77
직할시	4.4	13.5	19.3	30.8	32.0	55.5 (871)	
기타시	6.6	9.8	23.1	31.3	29.1	20.1 (316)	
부모님 30 대	5.6	22.2	22.2	19.4	30.6	3.8 (36)	5.77
연 세 40 대	5.3	12.7	19.9	30.6	31.4	77.8 (732)	
50 대	4.0	12.1	17.3	34.1	32.4	18.4 (173)	
부모님 하	5.0	8.3	26.4	32.2	28.1	13.5 (121)	8.57
학 력 중	5.9	13.8	19.8	30.6	29.9	45.1 (405)	
상	5.6	12.4	17.5	29.6	34.9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5.0	12.9	21.0	30.6	30.5	84.9 (643)	4.53
직 업 전문직	7.0	11.4	14.0	30.7	36.8	15.1 (114)	
소 득 하	4.9	13.6	21.2	29.7	30.7	26.2 (411)	4.44
중	4.8	12.7	19.4	31.2	32.0	49.3 (773)	
상	6.8	12.3	21.7	27.7	31.6	24.4 (383)	
합 계 (실 수)	5.3 (83)	12.8 (201)	20.4 (320)	30.0 (471)	31.5 (494)	100.0 (1,569)	

** P < .01

〈표 36〉 성공하기 위해 경쟁정신은 필수적이다

M : 2.29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3.2	36.7	15.0	9.9	5.1	48.8 (765)	22.06 ***
여	23.0	40.5	17.2	11.7	7.6	51.2 (204)	
학 교 중학교	24.9	34.4	20.4	12.5	7.8	49.0 (770)	37.22 ***
고등학교	30.9	42.8	12.0	9.3	5.1	51.0 (800)	
거주지 서울	23.5	37.3	18.0	8.4	7.8	24.4 (383)	12.46
직할시	26.4	40.4	14.7	12.1	6.4	55.5 (871)	
특별시	31.6	35.4	17.7	10.4	4.7	20.1 (316)	
부모님 30 대	30.6	38.9	22.2	2.8	5.6	3.8 (36)	6.64
연 세 40 대	27.3	40.3	16.5	10.5	5.3	77.8 (732)	
50 대	30.6	44.5	13.3	7.5	4.0	18.4 (173)	
부모님 하	30.6	43.8	13.2	6.6	5.8	13.5 (121)	10.74
학 력 중	24.7	43.2	15.1	11.1	5.9	45.1 (405)	
상	29.0	34.9	16.7	10.8	8.6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27.4	40.7	14.0	10.4	7.5	84.9 (643)	3.89
직 업 전문직	21.9	41.2	19.3	12.3	5.3	15.1 (114)	
소 득 하	27.5	38.7	16.3	12.4	5.1	26.2 (411)	3.56
중	28.3	38.0	15.9	10.5	7.2	49.3 (773)	
상	27.7	39.7	16.4	9.9	6.3	24.4 (383)	
합 계 (실 수)	28.0 (439)	38.7 (607)	16.1 (253)	10.8 (170)	6.4 (100)	100.0 (1,569)	

*** P < .001

〈표 37〉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이란 말은 일리가 있다

M : 3.456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8.8	15.6	22.3	27.5	25.9	48.7 (764)	7.64
여	6.0	18.5	24.6	26.5	24.4	51.3 (804)	
학 교 중학교	7.8	16.6	27.9	24.3	23.4	49.1 (770)	19.44 ***
고등학교	6.9	17.5	19.1	29.5	26.9	50.9 (799)	
거주지 서울	8.9	19.6	21.9	24.0	25.6	24.4 (383)	7.66
직할시	6.8	17.0	23.3	28.3	24.6	55.4 (870)	
기타시	7.0	14.2	25.6	26.9	26.3	20.1 (316)	
부모님 30 대	2.8	16.7	30.6	30.6	19.4	3.8 (36)	10.51
연 세 40 대	6.6	17.8	23.0	26.6	26.1	77.8 (732)	
50 대	12.1	17.3	17.9	27.2	25.4	18.4 (173)	
부모님 하	2.5	12.5	30.0	27.5	27.5	13.4 (120)	18.73
학 력 중	7.4	16.8	22.2	31.1	22.5	45.2 (405)	
상	8.6	19.6	19.6	23.7	28.5	41.5 (372)	
부모님 비전문직	6.7	16.5	23.7	28.0	25.1	84.9 (642)	6.61
직 업 전문직	6.6	21.9	18.4	21.1	32.5	15.1 (114)	
소 득 하	6.6	16.1	24.3	29.9	23.1	26.2 (411)	8.40
중	7.1	16.1	23.6	26.2	27.1	49.3 (772)	
상	8.6	20.1	22.2	25.3	23.8	24.5 (383)	
합 계 (실 수)	7.3 (115)	17.1 (268)	23.5 (368)	27.0 (423)	25.1 (394)	100.0 (1,568)	

*** P < .001

〈표 38〉 남의 실패하는 것은 나의 성공에 유리하다

M : 3.34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8.5	19.9	22.4	28.0	21.3	48.8 (765)	5.99
여	5.7	21.1	25.0	28.0	20.1	51.2 (804)	
학 교 중학교	7.7	18.7	26.0	26.8	20.9	49.0 (770)	7.27
고등학교	6.5	22.3	21.5	29.1	20.6	51.0 (800)	
거주지 서울	10.7	21.7	22.5	23.5	21.7	24.4 (383)	18.72 *
직할시	5.9	20.3	22.6	29.7	21.5	55.5 (871)	
특별시	6.0	19.6	28.2	28.5	17.7	20.1 (316)	
부모님 30 대	8.3	13.9	27.8	36.1	13.9	3.8 (36)	7.56
연 세 40 대	7.7	20.1	24.0	28.7	19.5	77.8 (732)	
50 대	9.8	23.1	22.0	22.0	23.1	18.4 (173)	
부모님 하	5.8	19.0	22.3	32.2	20.7	13.5 (121)	6.30
학 력 중	5.9	22.0	24.0	27.4	20.7	45.1 (405)	
상	9.4	19.9	21.0	27.2	22.6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6.5	20.2	24.0	27.7	21.6	84.6 (643)	3.29
직 업 전문직	8.8	24.6	22.8	21.1	22.8	15.1 (114)	
소 득 하	4.4	23.4	22.1	30.7	19.5	26.2 (411)	21.88 **
중	8.5	16.7	25.5	27.2	22.1	49.3 (773)	
상	7.0	24.8	21.9	26.6	19.6	24.4 (383)	
합 계 (실 수)	7.1 (111)	20.5 (322)	23.7 (372)	28.0 (439)	20.7 (325)	100.0 (1,569)	

* P < .05 ** P < .01

〈표 39〉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M : 2.60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3.4	23.3	12.6	12.1	18.6	48.7 (763)	4.77
여	30.2	26.4	11.8	14.3	17.3	51.3 (804)	
학 교 중학교	24.9	22.0	16.9	16.0	20.2	49.0 (768)	68.38 ***
고등학교	38.4	27.6	7.6	10.5	15.9	51.0 (800)	
거주지 서울	29.9	23.4	12.3	12.9	21.5	24.3 (381)	25.17 **
직할시	34.6	26.4	12.4	12.3	14.4	55.5 (871)	
기타시	26.3	22.5	11.4	16.1	23.7	20.2 (316)	
부모님 30 대	27.8	13.9	27.8	8.3	22.2	3.8 (36)	17.21 *
연 세 40 대	34.7	27.3	10.5	11.9	15.6	77.7 (730)	
50 대	35.8	20.2	11.6	15.6	16.8	18.4 (173)	
부모님 하	31.4	19.8	10.7	12.4	25.6	13.5 (121)	21.53 **
학 력 중	29.8	26.1	10.9	14.6	18.6	45.0 (403)	
상	37.4	28.5	12.4	8.3	13.4	41.5 (372)	
부모님 비전문직	29.0	24.8	11.7	14.0	20.4	84.9 (641)	2.67
직 업 전문직	26.3	29.8	7.9	15.8	20.2	15.1 (114)	
소 득 하	27.1	22.2	14.4	17.3	19.0	26.2 (410)	21.69 **
중	31.7	25.4	12.7	12.6	17.6	49.3 (772)	
상	36.6	26.9	8.9	9.9	17.8	24.5 (383)	
합 계 (실 수)	31.8 (498)	24.9 (390)	12.2 (191)	13.2 (207)	17.9 (281)	100.0 (1,567)	

* $P < .05$ ** $P < .01$ *** $P < .001$

〈표 40〉 징집영장을 받았어도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M : 3.64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9.0	11.5	18.6	30.4	30.5	48.7 (764)	7.65
여	6.1	10.7	21.8	32.6	28.9	51.3 (804)	
학 교 중학교	9.6	9.6	22.1	29.3	29.4	49.0 (767)	16.91 **
고등학교	5.5	12.5	18.4	33.6	30.0	51.0 (800)	
거주지 서울	8.4	9.9	20.4	31.9	29.3	24.3 (382)	11.30
직할시	7.5	11.5	18.8	33.6	28.6	55.5 (871)	
특별시	6.6	11.4	23.7	25.0	33.2	20.1 (316)	
부모님 30 대	8.3	8.3	27.8	25.0	30.6	3.8 (36)	10.22
연 세 40 대	8.6	10.2	19.7	32.4	29.1	77.3 (732)	
50 대	6.4	13.3	12.7	31.8	35.8	18.4 (173)	
부모님 하	5.8	11.6	22.3	28.1	32.2	13.5 (121)	8.82
학 력 중	8.4	12.3	20.5	31.6	27.2	45.1 (405)	
상	7.5	8.6	17.5	32.0	34.4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6.5	11.5	21.3	31.3	29.4	84.9 (643)	8.33
직 업 전문직	7.0	6.1	14.9	31.6	40.4	15.1 (114)	
소 득 하	8.5	12.0	20.2	31.0	28.3	26.2 (410)	5.94
중	6.1	10.7	20.1	32.3	30.8	49.4 (773)	
상	9.4	11.0	20.4	30.0	29.2	24.5 (383)	
합 계 (실 수)	7.5 (118)	11.1 (174)	20.2 (317)	31.5 (494)	29.7 (465)	100.0 (1,568)	

** $P < .01$

〈표 41〉 “소 아홉마리의 털 중에서 하나 빠졌다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나”는
말은 일리가 있다.

M : 3.89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3	10.5	13.6	27.2	41.4	48.8 (765)	3.53
여	5.7	11.2	11.7	27.2	44.2	51.2 (804)	
학 교 중학교	7.8	11.7	14.8	24.8	40.9	49.0 (770)	14.79 **
고등학교	5.3	10.0	10.6	29.5	44.6	51.0 (800)	
거주지 서울	7.8	8.6	12.3	27.2	44.1	24.4 (383)	7.13
직할시	6.3	10.8	13.4	27.4	42.0	55.5 (871)	
기타시	5.4	13.6	11.1	26.6	43.4	20.1 (316)	
부모님 30 대	5.6	8.3	19.4	22.2	44.4	3.8 (36)	8.65
연 세 40 대	5.9	9.7	12.7	27.9	43.9	77.8 (732)	
50 대	6.4	12.7	6.4	28.9	45.7	18.4 (173)	
부모님 하	7.4	9.9	16.5	27.3	38.8	13.5 (121)	6.72
학 력 중	6.7	11.6	10.9	29.6	41.2	45.1 (405)	
상	6.5	8.1	10.8	30.1	44.6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6.2	13.2	12.4	26.0	42.1	84.9 (643)	4.42
직 업 전문직	2.6	11.4	11.4	23.7	50.9	15.1 (114)	
소 득 하	5.4	12.9	12.9	28.5	40.4	26.2 (411)	6.73
중	7.2	10.2	11.6	27.2	43.7	49.3 (773)	
상	6.3	9.9	14.6	25.8	43.3	24.4 (383)	
합 계 (실 수)	6.5 (102)	10.8 (170)	12.6 (198)	27.2 (427)	42.8 (672)	100.0 (1,569)	

** P < .01

〈표 42〉 원이 청년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아량있는 태도였다

M : 3.94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7	10.7	19.0	24.4	41.2	48.8 (765)	14.42 **
여	2.9	7.3	16.9	30.2	42.7	51.2 (804)	
학 교 중학교	4.7	7.8	24.2	23.6	39.7	49.0 (770)	48.38 ***
고등학교	2.9	10.1	11.9	31.0	44.1	51.0 (800)	
거주지 서울	2.6	7.3	18.0	25.1	47.0	24.4 (383)	8.84
직할시	4.5	9.5	17.5	28.4	40.2	55.5 (871)	
특별시	3.2	9.5	19.0	27.5	40.8	20.1 (316)	
부모님 30 대	8.3	8.3	22.2	19.4	41.7	3.8 (36)	16.76 *
연 세 40 대	4.2	9.7	18.0	25.3	42.8	77.8 (732)	
50 대	2.3	8.7	9.8	36.4	42.8	18.4 (173)	
부모님 하	4.1	13.2	21.5	23.1	38.0	13.5 (121)	11.30
학 력 중	3.5	6.9	17.8	28.9	43.0	45.1 (405)	
상	4.0	8.3	14.8	25.0	47.8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3.1	10.1	17.6	28.5	40.7	84.9 (643)	2.60
직 업 전문직	3.5	6.1	15.8	28.1	46.5	15.1 (114)	
소 득 하	3.9	10.7	20.9	27.7	36.7	26.2 (411)	13.83
중	3.9	8.9	15.5	28.6	43.1	49.3 (773)	
상	3.4	7.0	19.6	24.5	45.4	24.4 (383)	
합 계 (실 수)	3.8 (59)	9.0 (141)	17.9 (281)	27.4 (430)	41.9 (658)	100.0 (1,569)	

* P < .05 ** P < .01 *** P < .001

〈표 43〉 위의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도 청년의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다 M:3.18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4.5	19.9	27.2	14.9	23.5	48.8 (765)	6.96
여	11.6	17.5	30.5	17.5	22.9	51.2 (804)	
학 교 중학교	12.6	13.1	31.9	16.2	26.1	49.0 (770)	35.39 ***
고등학교	13.4	24.0	25.9	16.3	20.5	51.0 (800)	
거주지 서울	14.4	15.1	29.0	14.4	27.2	24.4 (383)	14.07
직할시	12.5	21.2	28.0	17.1	21.1	55.5 (871)	
기타시	12.7	15.8	31.0	16.1	24.4	20.1 (316)	
부모님 30 대	19.4	11.1	36.1	13.9	19.4	3.8 (36)	7.98
연 세 40 대	12.8	19.4	27.2	16.4	24.2	77.8 (732)	
50 대	11.6	22.5	28.9	19.1	17.9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3.2	18.2	30.6	14.0	24.0	13.5 (121)	11.08
중	14.6	16.5	29.1	19.0	20.7	45.1 (405)	
상	10.2	17.2	26.9	16.4	29.3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11.7	17.8	32.8	15.1	22.6	26.2 (411)	11.08
전문직	14.0	20.2	26.1	17.5	22.3	49.3 (773)	
소 득 하	11.7	29.7	25.1	19.6	13.9	49.0 (770)	74.47 ***
중	9.0	48.1	15.1	20.6	7.2	38.3 (601)	
상	7.0	37.7	21.6	27.6	6.0	12.7 (199)	
합 계 (실 수)	13.0 (204)	18.7 (293)	23.9 (453)	16.3 (255)	23.2 (364)	100.0 (1,569)	

*** P < .001

〈표 44〉 철수 아버지 회사의 형편으로 보아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무리이다

M:2.83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2.8	36.9	20.1	18.6	11.6	48.8 (765)	18.91 ***
여	7.5	38.7	21.5	23.4	9.0	51.2 (804)	
학 교 중학교	11.7	29.7	25.1	19.6	13.9	49.0 (770)	62.95 ***
고등학교	8.5	45.5	16.8	22.4	6.9	51.0 (800)	
거주지 서울	9.1	39.4	17.8	18.0	15.7	24.4 (383)	29.53 ***
직할시	10.0	39.8	20.4	21.2	8.5	55.5 (871)	
특별시	11.4	30.1	25.6	24.1	8.9	20.1 (316)	
부모님 30 대	16.7	16.7	25.0	33.3	8.3	3.8 (36)	11.55
연 세 40 대	8.2	40.0	20.2	20.9	10.7	77.8 (732)	
50 대	10.4	39.9	18.5	20.2	11.0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12.4	30.6	29.8	17.4	9.9	13.5 (121)	22.01 **
중	8.4	38.3	21.2	24.7	7.4	45.1 (405)	
상	8.6	40.9	19.4	17.5	13.7	41.4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9.8	38.3	21.2	21.3	9.5	84.9 (643)	2.12
전문직	10.5	43.0	21.9	15.8	8.8	15.1 (114)	
소 득 하	10.7	37.2	21.2	21.4	9.5	26.2 (411)	1.64
중	9.8	38.0	21.2	20.8	10.1	49.3 (773)	
상	9.9	37.3	19.8	21.1	11.7	24.4 (383)	
합 계 (실 수)	10.1 (158)	37.8 (593)	20.8 (327)	21.0 (330)	10.3 (161)	100.0 (1,569)	

** P < .01 *** P < .001

〈표 45〉 자연은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다

M : 2.23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2.7	25.8	14.2	8.6	8.6	48.8 (765)	6.51
	여	38.1	24.8	16.5	9.5	11.2	51.2 (804)	
학 교	중학교	34.0	24.9	19.0	9.9	12.2	49.0 (770)	35.72 ***
	고등학교	46.4	25.5	12.0	8.3	7.9	51.0 (800)	
거주지	서울	38.9	23.0	15.7	9.9	12.5	24.4 (383)	5.62
	직할시	40.8	25.9	15.3	8.5	9.5	55.5 (871)	
	기타시	40.8	25.9	15.5	9.5	8.2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2.2	27.8	19.4	13.9	16.7	3.8 (36)	10.49
	40 대	43.9	24.3	14.8	7.4	9.7	77.8 (732)	
	50 대	39.9	29.5	15.0	5.8	9.8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33.1	26.4	17.4	12.4	10.7	13.5 (121)	8.02
	중	42.7	27.2	11.6	9.4	9.1	45.1 (405)	
	상	40.9	24.5	16.4	9.7	8.6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38.4	23.5	15.1	8.9	9.2	84.9 (643)	7.89
	전문직	44.7	22.8	13.2	4.4	14.9	15.1 (114)	
소 득	하	38.9	25.1	17.3	9.0	9.7	26.2 (411)	4.99
	중	41.0	24.2	14.4	9.6	10.9	49.3 (773)	
	상	39.9	27.7	15.7	8.1	8.6	24.4 (383)	
합 계 (실 수)		40.3 (633)	25.2 (396)	15.4 (242)	9.1 (142)	9.9 (156)	100.0 (1,569)	

*** P < .001

〈표 46〉 돈이 많아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는 어른이 많다

M : 1.62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0.5	25.8	6.4	2.1	5.2	48.8 (765)	10.28 *
	여	58.7	31.2	5.6	1.1	3.4	51.2 (804)	
학 교	중학교	53.4	29.9	9.5	2.3	4.9	49.0 (770)	48.46 ***
	고등학교	65.6	27.3	2.6	0.9	3.6	51.0 (800)	
거주지	서울	63.7	25.8	5.0	1.3	4.2	24.4 (383)	8.31
	직할시	59.4	29.4	5.7	1.7	3.8	55.5 (871)	
	특별시	55.4	29.4	7.9	1.6	5.7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47.2	30.6	13.9	2.8	5.6	3.8 (86)	7.18
	40 대	59.8	29.2	5.3	1.6	4.0	77.8 (732)	
	50 대	63.6	26.0	5.2	1.2	4.0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57.0	29.8	5.8	1.7	5.8	13.5 (121)	10.63
	중	57.5	29.1	5.9	2.5	4.9	45.1 (405)	
	상	65.6	24.2	6.2	0.5	3.5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59.3	28.0	6.2	2.0	4.5	84.9 (643)	1.18
	전문직	63.2	26.3	5.3	0.9	4.4	15.1 (114)	
소 득	하	51.8	32.8	8.8	2.4	4.1	26.2 (411)	22.06 ***
	중	62.2	26.5	5.4	1.7	4.1	49.3 (773)	
	상	62.7	27.9	4.2	0.5	4.7	24.4 (383)	
합 계 (실 수)		59.6 (936)	28.6 (448)	6.0 (94)	1.6 (25)	4.3 (67)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47〉 위의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도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M : 3.38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5	13.2	39.6	19.5	20.3	48.8 (765)	10.09 *
여	4.5	10.8	41.0	22.9	20.8	51.2 (804)	
학 교 중학교	5.2	8.7	40.6	20.8	24.7	49.0 (770)	27.40 ***
고등학교	6.6	15.1	40.0	21.6	16.7	51.0 (800)	
거주지 서울	7.8	13.3	39.2	17.8	21.9	24.4 (383)	11.29
직할시	5.1	11.5	39.5	23.5	20.4	55.5 (871)	
기타시	6.0	11.7	44.0	19.0	19.3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8.3	5.6	33.3	13.9	38.9	3.8 (36)	16.69 *
40 대	5.6	12.4	41.0	19.8	21.2	21.2 (732)	
50 대	11.6	11.0	38.2	21.4	17.9	17.9 (131)	
부모님 학 력 하	8.3	12.4	43.0	17.4	19.0	13.5 (121)	19.06 *
중	6.4	13.8	38.5	23.7	17.5	45.1 (405)	
상	6.5	8.9	37.6	18.8	28.2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6.4	13.7	40.0	21.0	19.0	84.9 (643)	6.53
전문직	6.1	10.5	33.3	21.1	28.9	15.1 (114)	
소 득 하	6.8	11.2	43.8	22.1	16.1	26.2 (411)	11.42
중	5.3	12.8	39.3	21.5	21.1	49.3 (773)	
상	6.0	11.2	38.9	19.3	24.5	24.4 (383)	
합 계 (실 수)	5.9 (93)	12.0 (188)	40.3 (633)	21.2 (333)	20.5 (322)	100.0 (1,569)	

** P < .05 *** P < .001

〈표 48〉 장애자와 고아들을 위한 회관이 건립되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M : 3.89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5	10.8	19.1	29.8	34.8	48.8 (765)	22.29 ***
여	2.4	7.3	16.2	34.7	39.4	51.2 (804)	
학 교 중학교	5.2	9.5	23.0	28.8	33.5	49.0 (770)	43.26 ***
고등학교	2.6	8.6	12.4	35.6	40.8	51.0 (800)	
거주지 서울	3.4	8.1	14.4	26.1	48.0	24.4 (383)	30.61 ***
직할시	4.6	9.2	19.2	33.1	34.0	55.5 (871)	
특별시	2.5	9.8	17.1	37.7	32.9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	8.3	30.6	33.3	27.8	3.8 (36)	14.98
40 대	4.1	9.3	17.8	34.4	34.4	77.8 (732)	
50 대	4.6	9.2	12.7	27.7	45.7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4.1	9.9	18.2	38.0	29.8	13.5 (121)	8.29
중	2.7	9.4	15.8	35.1	37.0	45.1 (405)	
상	4.0	10.8	19.4	28.5	37.4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3.4	9.3	18.5	34.2	34.5	84.9 (643)	3.76
전문직	3.5	7.9	15.8	28.9	43.9	15.1 (114)	
소 득 하	4.1	6.3	17.5	34.1	38.0	26.2 (411)	5.82
중	3.6	10.1	17.6	31.2	37.5	49.3 (773)	
상	4.2	9.9	17.8	32.1	36.0	24.4 (383)	
합 계 (실 수)	3.9 (61)	9.1 (142)	17.6 (276)	32.3 (507)	37.2 (583)	100.0 (1,569)	

*** P < .001

〈표 49〉 장애자와 고아들을 위한 회관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들의 행동은 옳다 M : 4.10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1	5.0	17.3	31.1	42.6	48.8 (765)	10.75 *
여	2.2	4.9	13.1	32.6	47.6	51.2 (803)	
학 교 중학교	4.4	5.6	18.3	30.5	41.2	49.1 (770)	25.57 ***
고등학교	1.9	4.3	12.0	33.2	48.7	50.9 (799)	
거주지 서울	1.0	6.5	13.4	24.6	54.5	24.3 (382)	35.50 ***
직할시	4.0	3.8	16.9	34.0	41.3	55.5 (871)	
기타시	3.2	6.0	12.3	34.8	43.7	20.1 (316)	
부모님 30 대	-	-	13.9	52.8	33.3	3.8 (36)	13.28
연 세 40 대	3.3	4.5	14.8	32.7	44.7	77.8 (731)	
50 대	1.7	5.8	15.0	26.6	50.9	18.4 (173)	
부모님 하	3.3	5.8	14.0	36.4	40.5	13.5 (121)	13.39
학 력 중	3.0	3.0	12.1	32.1	49.9	45.1 (405)	
상	2.7	5.4	18.5	27.7	45.7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2.8	5.5	15.1	34.1	42.5	84.9 (642)	4.20
직 업 전문직	2.6	2.6	13.2	29.8	51.8	15.1 (114)	
소 득 하	2.9	4.9	12.9	33.3	46.0	26.2 (411)	5.82
중	2.8	4.9	16.3	30.0	45.9	49.4 (355)	
상	3.9	5.0	15.2	34.0	41.9	24.4 (382)	
합 계 (실 수)	3.1 (49)	4.9 (77)	15.1 (237)	31.9 (500)	45.0 (795)	100.0 (1,568)	

* $P < .05$ *** $P < .001$

〈표 50〉 소수가 다수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M : 3.39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8.2	19.9	21.2	27.1	23.7	48.8 (765)	5.15
여	6.0	21.1	20.9	30.2	21.8	51.2 (804)	
학 교 중학교	7.5	17.4	28.8	25.5	20.8	49.0 (770)	59.42 ***
고등학교	6.6	23.5	13.5	31.8	24.6	51.0 (800)	
거주지 서울	9.1	20.1	20.4	25.3	25.1	24.4 (383)	10.96
직할시	5.6	21.4	21.6	29.0	22.4	55.5 (871)	
특별시	8.5	18.7	20.3	31.6	20.9	20.1 (316)	
부모님 30 대	5.6	13.9	38.9	19.4	22.2	3.8 (36)	12.62
연 세 40 대	6.7	21.0	20.4	28.6	23.4	77.8 (732)	
50 대	10.4	18.5	16.8	31.2	23.1	18.4 (173)	
부모님 하	6.6	19.0	26.4	24.8	23.1	13.5 (121)	14.75
학 력 중	9.1	20.0	17.8	29.4	23.7	45.1 (405)	
상	5.1	24.5	19.6	23.1	27.7	41.4 (372)	
부모님 비전문직	7.9	20.4	21.5	29.7	20.5	84.9 (643)	3.41
직 업 전문직	5.3	19.3	19.3	37.7	18.4	15.1 (114)	
소 득 하	6.8	21.2	20.2	29.9	21.9	26.2 (411)	5.92
중	6.9	18.9	20.7	29.8	23.3	49.3 (773)	
상	7.8	22.7	22.7	25.3	21.4	24.4 (383)	
합 계 (실 수)	7.1 (111)	20.5 (322)	21.0 (330)	28.7 (450)	22.7 (356)	100.0 (1,569)	

*** $P < .001$

〈표 51〉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을 것이다.

M : 3.38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6	14.8	35.8	22.5	19.3	48.8 (765)	9.72 *
여	4.4	14.1	34.5	25.5	21.6	51.2 (804)	
학 교 중학교	6.8	12.3	38.6	22.3	20.0	49.0 (770)	13.48 **
고등학교	5.1	16.4	31.8	25.8	21.0	51.0 (800)	
거주지 서울	6.3	11.7	31.6	20.9	29.5	24.4 (383)	34.28 ***
직할시	5.7	16.1	34.3	24.9	18.9	55.5 (871)	
기타시	6.0	13.0	41.5	25.6	13.9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2.8	11.1	47.2	22.2	16.7	3.8 (36)	9.36
40 대	6.7	13.7	35.4	22.7	21.6	77.8 (732)	
50 대	5.2	17.3	28.3	28.9	20.2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5.8	13.2	41.3	24.8	14.9	13.5 (121)	18.40 *
중	5.2	14.1	35.1	28.4	17.3	45.1 (405)	
상	5.1	13.4	34.1	20.2	27.2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5.8	15.2	35.5	23.6	19.9	84.9 (643)	4.60
전문직	7.0	10.5	31.6	23.7	27.2	15.1 (114)	
소 득 하	5.6	14.1	35.5	28.2	16.5	26.2 (411)	10.03
중	5.8	14.5	34.9	23.5	21.2	49.3 (773)	
상	6.5	14.4	35.2	20.6	23.2	24.4 (383)	
합 계 (실 수)	5.9 (93)	14.4 (226)	35.1 (551)	34.0 (377)	20.5 (322)	100.0 (1,569)	

* $P < .05$ ** $P < .01$ *** $P < .001$

〈표 52〉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은 바람직하다

M : 3.59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9	11.0	29.7	35.6	17.9	48.8 (765)	27.11 ***
여	3.0	5.7	28.6	43.3	19.4	51.2 (804)	
학 교 중학교	7.3	9.2	35.3	31.7	16.5	49.0 (770)	76.80 ***
고등학교	1.6	7.4	23.3	47.0	20.8	51.0 (800)	
거주지 서울	4.4	8.9	27.4	36.0	23.2	24.4 (383)	10.39
직할시	4.7	7.7	30.0	41.1	16.5	55.5 (871)	
특별시	3.5	9.2	29.1	39.2	19.0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11.1	8.3	38.9	27.8	13.9	3.8 (36)	9.29
40 대	4.4	8.3	28.1	40.3	18.9	77.8 (732)	
50 대	4.6	8.7	22.5	43.9	20.2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3.3	9.1	30.6	45.5	11.6	13.5 (121)	8.01
중	5.2	7.2	27.4	40.5	19.8	45.1 (405)	
상	4.0	5.9	30.4	39.2	20.4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4.7	7.8	27.5	41.8	18.2	84.9 (643)	5.96
전문직	6.1	5.3	36.0	32.5	20.2	15.1 (114)	
소 득 하	4.9	8.8	27.3	43.3	15.8	26.2 (411)	8.74
중	3.8	8.2	29.0	39.2	19.9	49.3 (773)	
상	5.2	8.1	31.9	35.5	19.3	24.4 (383)	
합 계 (실 수)	4.4 (69)	8.3 (130)	29.1 (457)	39.5 (620)	18.7 (293)	100.0 (1,569)	

*** $P < .001$

〈표 53〉 학생에게 성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M : 3.35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9.3	19.6	15.0	33.1	23.0	48.8 (765)	15.42 **
여	7.0	26.4	14.9	33.8	17.9	51.2 (804)	
학 교 중학교	6.8	20.4	17.8	34.0	21.0	49.0 (770)	16.13 **
고등학교	9.4	25.6	12.4	32.9	19.8	51.0 (800)	
거주지 서울	8.6	21.7	12.0	34.7	23.0	24.4 (383)	6.06
직할시	7.8	23.1	16.2	33.3	19.6	55.5 (871)	
기타시	8.2	24.7	15.5	32.3	19.3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5.6	13.9	19.4	36.1	25.0	3.8 (36)	5.32
40 대	8.5	24.3	15.3	33.6	18.3	77.8 (732)	
50 대	7.5	23.1	12.1	35.3	22.0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9.9	22.3	15.7	34.7	17.4	13.5 (121)	3.11
중	9.1	25.2	12.1	32.6	21.0	45.1 (405)	
상	8.3	22.8	12.6	36.0	20.2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8.2	24.1	16.5	32.7	18.5	84.9 (643)	
전문직	6.1	20.2	9.6	42.1	21.9	15.1 (114)	
소 득 하	8.0	22.1	14.8	33.1	21.9	26.2 (411)	6.19
중	7.9	23.9	16.2	31.6	20.4	49.3 (773)	
상	8.6	21.9	13.1	37.6	18.8	24.4 (383)	
합 계 (실 수)	8.1 (127)	23.1 (362)	15.0 (235)	33.5 (525)	20.4 (320)	100.0 (1,569)	

** P < .01

〈표 54〉 부모님은 학교와 고장의 명예보다는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M : 2.43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6.0	38.6	16.5	12.5	6.4	48.8 (765)	15.82 **
여	18.7	38.8	21.6	13.6	7.3	51.2 (804)	
학 교 중학교	20.1	33.1	22.7	14.9	9.1	49.0 (770)	39.80 ***
고등학교	24.3	44.0	15.8	11.3	4.8	51.0 (800)	
거주지 서울	26.6	34.7	17.8	12.0	8.9	24.4 (383)	14.66
직할시	20.9	39.4	19.5	14.5	5.7	55.5 (871)	
특별시	20.6	41.5	19.9	10.4	7.6	20.1 (316)	
부모님 연 세 30 대	30.6	30.6	22.2	8.3	8.3	3.8 (36)	8.24
40 대	21.4	38.7	20.1	13.1	6.7	77.8 (732)	
50 대	24.3	45.1	15.0	9.2	6.4	18.4 (173)	
부모님 학 력 하	24.0	38.0	19.0	14.0	5.0	13.5 (121)	4.06
중	21.0	39.8	17.5	16.0	5.7	45.1 (405)	
상	24.5	38.7	18.0	12.1	6.7	41.4 (372)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21.0	41.5	17.4	14.0	6.1	84.9 (643)	0.89
전문직	21.1	41.2	20.2	11.4	6.1	15.1 (114)	
소 득 하	22.9	39.7	18.2	11.4	7.8	26.2 (411)	4.90
중	22.4	38.6	18.2	13.8	7.0	49.3 (773)	
상	21.4	37.6	21.9	13.3	5.7	24.4 (383)	
합 계 (실 수)	22.2 (349)	38.7 (607)	19.1 (300)	13.1 (205)	6.9 (108)	100.0 (1,569)	

** P < .01 *** P < .001

〈표 55〉 위의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은 공부만 하기를 원할 것이다

M : 2.69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0.6	31.7	17.7	20.4	9.6	48.7 (763)	2.60
여	17.9	32.0	19.3	21.9	8.8	51.3 (803)	
학 교 중학교	18.4	30.5	19.8	21.1	10.3	49.0 (768)	4.86
고등학교	20.0	33.3	17.3	21.3	8.1	51.0 (799)	
거주지 서울	18.1	31.2	15.7	23.6	11.3	24.3 (381)	15.90*
직할시	18.5	31.2	20.8	21.6	7.9	55.6 (871)	
기타시	22.5	34.6	15.6	17.1	10.2	20.1 (315)	
부모님 연 세 30 대	25.0	38.9	16.7	16.7	2.8	3.8 (36)	8.21
40 대	18.4	35.6	16.7	19.7	9.6	77.8 (730)	
50 대	26.2	30.8	16.3	19.2	7.6	18.3 (172)	
부모님 학 력 하	21.5	34.7	20.7	17.4	5.8	13.5 (121)	5.80
중	18.6	35.2	17.1	21.3	7.7	45.0 (403)	
상	18.0	35.8	15.1	21.0	10.2	41.5 (372)	
부모님 직업 비전문직	19.1	33.1	18.1	21.1	8.6	84.9 (640)	1.78
전문직	19.3	30.7	16.7	26.3	7.0	15.1 (114)	
소 득 하	18.5	32.9	20.7	18.0	9.8	26.2 (410)	7.06
중	20.1	31.7	18.3	21.6	8.3	49.4 (772)	
상	18.3	30.9	16.8	23.6	10.5	24.4 (382)	
합 계 (실 수)	19.2 (301)	31.9 (499)	18.5 (290)	21.2 (332)	9.2 (144)	100.0 (1,566)	

* $P < .05$

< 표 56 > 엄격하다(부)

M:1.868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1.8	16.1	32.1	48.9(738)	7.09
	여	45.3	16.7	38.0	51.1(771)	
학 교	중학교	45.7	19.5	34.8	49.5(748)	10.92**
	고등학교	51.0	13.4	35.6	50.5(762)	
거주지	서울	51.6	14.2	34.1	24.6(372)	3.25
	직할시	48.0	17.1	34.9	55.4(837)	
	기타시	45.5	17.3	37.2	19.9(301)	
부모님	30 대	33.3	22.2	44.4	3.8(36)	5.39
연 세	40 대	49.9	15.9	34.2	77.8(731)	
	50 대	43.9	17.3	38.7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8.98
	30 대	33.3	23.1	43.6	2.6(39)	
	40 대	49.7	16.2	34.1	65.5(977)	
	50 대	47.0	16.8	36.1	29.5(440)	
	60 대이상	45.5	9.1	45.5	2.2(33)	
모	20 대	-	-	-	-	3.82
	30 대	48.2	17.5	34.3	18.7(280)	
	40 대	49.6	16.0	34.4	68.9(1032)	
	50 대	43.2	18.8	38.1	11.7(176)	
	60 대이상	40.0	10.0	50.0	0.7(10)	
부모님	하	52.9	17.4	29.8	13.5(121)	2.58
학 력	중	45.7	17.0	37.3	45.1(405)	
	상	47.6	16.4	36.0	41.4(372)	9.23
부	무학	63.6	9.1	27.3	0.7(11)	
	국졸	50.0	17.6	32.4	9.9(148)	
	중졸	45.4	19.7	34.9	19.0(284)	
	고졸	49.5	14.6	35.9	43.7(652)	
	대졸	45.5	16.9	37.6	21.0(314)	
	대학원졸	56.6	15.7	27.7	5.6(83)	
모	무학	50.0	17.9	32.1	1.9(28)	7.39
	국졸	50.2	18.1	31.8	20.0(299)	
	중졸	46.2	17.2	36.6	28.6(429)	
	고졸	49.8	14.9	35.2	38.9(582)	
	대졸	47.0	16.1	36.9	9.9(149)	
	대학원졸	45.5	36.4	18.2	0.7(11)	
부모님	비전문직	47.9	16.6	35.5	84.9(643)	.50
직 업	전문직	50.0	14.0	36.0	15.1(114)	
부	무직	40.5	16.7	42.9	2.8(42)	12.01
	일용근로자	45.8	16.9	37.3	7.9(118)	
	근로자	45.8	19.4	34.8	15.2(227)	
	농림어업자	48.8	13.6	37.6	8.4(125)	
	자영업	49.6	17.0	33.3	26.8(399)	
	사투직	51.4	14.7	33.9	31.5(469)	
	관리직	49.2	11.1	39.7	4.2(63)	
	전문직	35.4	25.0	39.6	3.2(48)	
소 득	하	51.9	16.4	31.7	25.1(378)	4.38
	중	48.4	16.4	35.2	49.9(752)	
	상	45.0	16.4	38.6	25.1(378)	
합 계 (실 수)		48.4(731)	16.4(248)	35.1(530)	100.0(1509)	

〈 표 57 〉 업격하다(모)

M : 2.18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3.1	20.7	46.2	48.7(759)	5.98
	여	29.1	18.5	52.4	51.3(801)	
학 교	중학교	34.6	22.4	43.0	49.1(767)	25.14***
	고등학교	27.6	16.8	55.7	50.9(794)	
거주지	서울	28.1	21.0	50.9	24.4(381)	3.81
	직할시	33.0	18.7	48.3	55.5(867)	
	기타시	29.1	20.1	50.8	20.1(313)	
부모님 연 세	30 대	27.8	19.4	52.8	3.8(36)	1.99
	40 대	31.8	18.9	49.3	77.8(732)	
	50 대	26.6	20.8	52.6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10.33
	30 대	28.2	20.5	51.3	2.6(39)	
	40 대	32.6	19.5	47.8	65.6(974)	
	50 대	27.1	21.1	51.8	29.4(436)	
	60 대이상	31.1	19.8	49.1	2.2(33)	
모	20 대	-	-	-	-	3.05
	30 대	32.2	22.3	45.6	18.2(283)	
	40 대	31.2	19.0	49.9	68.7(1065)	
	50 대	28.5	19.2	52.3	12.4(193)	
	60 대이상	33.3	16.7	50.0	0.8(12)	
부모님 학 력	하	33.9	19.8	46.3	13.5(121)	19.93***
	중	24.2	22.7	53.1	45.1(405)	
	상	39.0	18.0	43.0	41.4(372)	
부	무학	54.5	-	45.5	0.7(11)	26.19**
	국졸	33.3	17.7	49.0	9.9(147)	
	중졸	26.8	21.4	51.8	18.9(280)	
	고졸	27.7	20.9	51.4	43.8(650)	
	대졸	35.0	19.4	45.5	21.1(314)	
모	대학원졸	49.4	13.3	37.3	5.6(83)	25.82**
	무학	31.3	18.8	50.0	2.1(32)	
	국졸	29.3	18.9	51.7	20.4(317)	
	중졸	24.4	21.9	53.9	29.0(451)	
	고졸	33.6	18.3	48.2	38.3(596)	
	대졸	44.0	19.3	36.7	9.6(150)	9.16**
	대학원졸	36.4	27.3	36.4	0.7(11)	
	부모님 비전문직	28.6	21.6	49.8	84.9(643)	
	직업 전문직	36.0	9.6	54.4	15.1(114)	
	부 무직	36.6	22.0	41.5	2.8(41)	
	일용근로자	23.1	24.8	52.1	7.9(117)	16.61
	근로자	30.8	22.5	46.7	15.3(227)	
	농림어업자	33.6	18.0	48.4	8.2(122)	
	자영업	27.0	19.9	53.1	26.8(397)	
	사무직	34.0	19.0	47.0	31.6(468)	
	관리직	34.9	15.9	49.2	4.2(63)	
	전문직	41.7	10.4	47.9	3.2(48)	
	소 득 하	35.0	18.4	46.7	25.9(403)	6.12
	중	28.5	21.0	50.5	49.6(772)	
	상	31.6	18.0	50.4	24.6(383)	
합 계 (실수)		31.0(484)	19.6(305)	49.4(771)	100 (1560)	

** P < .01 *** P < .001

〈 표 58 〉 책임감 있다(부)

M : 1.358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1.2	21.6	7.2	48.9(736)	0.95
	여	72.3	19.7	7.9	51.1(770)	
학 교	중학교	73.1	20.6	6.3	49.5(746)	3.44
	고등학교	70.6	20.6	8.8	50.5(761)	
거주지	서울	70.8	22.7	6.5	24.6(370)	2.82
	직할시	71.3	20.5	8.1	55.5(837)	
	기타시	74.3	18.3	7.2	19.9(300)	
부모님	30 대	75.0	16.7	8.3	3.8(36)	12.1**
연 세	40 대	73.7	19.8	6.6	77.8(729)	
	50 대	66.3	19.2	14.5	18.4(172)	
부	20 대	100.0	-	-	0.2(2)	12.03
	30 대	74.4	15.4	10.3	2.6(39)	
	40 대	73.5	20.1	6.4	65.5(977)	
	50 대	68.6	21.8	9.5	29.5(440)	
	60 대이상	65.6	21.9	12.5	2.2(33)	
모	20 대	-	-	-	-	13.22**
	30 대	75.0	19.3	5.7	18.7(280)	
	40 대	72.2	20.9	6.9	68.9(1032)	
	50 대	65.1	21.1	13.7	11.7(176)	
	60 대이상	60.0	30.0	10.0	0.7(10)	24.16***
부모님	하	62.8	28.9	8.3	13.5(121)	
학 력	중	67.2	23.8	8.9	45.0(403)	
	상	80.6	14.8	4.6	41.5(372)	32.96***
부	무학	54.5	27.3	18.2	0.7(11)	
	국졸	60.5	28.6	10.9	9.9(147)	
	중졸	70.7	21.9	7.4	19.0(283)	
	고졸	70.2	21.4	8.4	43.7(651)	
	대졸	77.7	17.2	5.1	21.1(314)	
	대학원졸	90.4	7.2	2.4	5.6(83)	22.91**
모	무학	60.7	17.9	21.4	1.9(28)	
	국졸	68.5	22.8	8.7	19.9(298)	
	중졸	67.2	24.1	8.7	28.6(427)	
	고졸	75.9	18.0	6.0	38.9(582)	
	대졸	71.8	20.7	7.5	10.0(149)	
	대학원졸	72.7	27.3	7.5	0.7(11)	2.95
부모님	비전문직	68.0	23.9	8.1	84.9(640)	
직 업	전문직	73.7	16.7	9.6	15.1(114)	
부	무직	47.6	35.7	16.7	2.8(42)	43.64**
	일용근로자	61.9	28.0	10.2	7.9(118)	
	근로자	68.0	24.9	7.1	15.1(225)	
	농림어업자	73.4	19.4	7.3	8.3(124)	
	자영업	69.2	23.8	7.0	26.8(399)	
	사무직	77.0	15.6	7.5	31.5(469)	
	관리직	84.1	11.1	4.8	4.2(63)	
	전문직	89.6	6.3	4.2	3.2(48)	
소 득	하	66.3	24.1	9.5	25.0(377)	9.78*
	중	72.7	19.6	7.7	49.9(751)	
	상	75.3	19.4	5.3	25.0(377)	
합 계(실수)		71.8(1081)	20.7(311)	7.6(114)	100(1506)	

* P < .05 ** P < .01 *** P < .001

〈 표 59 〉 책임감 있다 (모)

M : 1.36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8.2	26.9	4.9	48.6(758)	12.95***
여	71.7	20.4	7.9	51.4(802)	
학 교 중학교	70.0	24.5	5.5	49.1(767)	2.59
고등학교	70.0	22.7	7.3	50.9(794)	
거주지 서울	73.0	20.7	6.3	24.4(381)	14.75**
직합시	66.3	26.4	7.3	55.5(866)	
기타시	76.8	19.1	4.1	20.1(314)	
부모님 30 대	58.3	33.3	8.3	3.8(36)	2.93
연 세 40 대	71.8	22.3	6.4	77.8(731)	
50 대	71.1	22.0	6.9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6.16
30 대	61.5	30.8	7.7	2.6(39)	
40 대	69.9	23.7	6.4	65.6(973)	
50 대	70.4	22.5	7.1	29.4(436)	
60 대이상	72.7	24.2	3.0	2.2(33)	
모 20 대	-	-	-	-	7.44
30 대	65.4	28.3	6.4	18.2(283)	
40 대	71.3	22.5	6.3	68.7(1069)	
50 대	68.4	24.4	7.3	12.4(193)	
60 대이상	91.7	8.3	-	0.8(12)	
부모님 하	70.0	23.3	6.7	13.4(120)	1.07
학 력 중	69.9	25.2	4.9	45.2(405)	
상	70.4	23.4	6.2	41.5(372)	
부 무학	72.7	27.3	-	0.7(11)	6.92
국졸	71.2	22.6	6.2	9.8(146)	
중졸	68.2	25.7	6.1	18.9(280)	
고졸	69.8	23.2	6.9	43.8(650)	
대졸	72.0	20.7	7.3	21.2(314)	
대학원졸	65.1	31.3	3.6	5.6(83)	
모 무학	59.4	34.4	6.3	2.1(32)	
국졸	71.2	21.5	7.3	20.3(316)	5.97
중졸	69.6	24.8	5.5	29.0(451)	
고졸	69.8	24.0	6.2	38.3(597)	
대졸	71.3	20.7	8.0	9.6(150)	
대학원졸	72.7	27.3	-	0.7(11)	
부모님 비전문직	67.9	25.2	6.9	84.9(642)	.17
직 업 전문직	66.7	25.4	7.9	15.1(114)	
부 무직	61.0	31.7	7.3	2.8(41)	21.19
일용근로자	67.5	24.8	7.7	7.9(117)	
근로자	65.9	27.4	6.6	15.2(226)	
농림어업자	80.3	13.1	6.6	8.2(122)	
자영업	68.5	26.2	5.3	26.8(397)	
사무직	71.2	22.2	6.6	31.6(468)	
관리직	63.5	23.8	12.7	4.3(63)	
전문직	81.3	14.6	4.2	3.2(48)	
소 득 하	66.1	26.7	7.2	25.9(404)	4.81
중	71.5	22.2	6.4	49.5(771)	
상	71.5	23.2	5.2	24.6(383)	
합 계 (실수)	70.0(1092)	23.6(368)	6.4(100)	100(1560)	

** P < .01 *** P < .001

< 표 60 > 신중하다 (부)

M : 1.47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61.0	29.3	9.8	48.9(738)	3.43
	여	64.5	25.0	10.5	51.1(771)	
학 교	중학교	65.0	27.3	7.8	49.5(748)	1.42**
	고등학교	60.6	26.9	12.5	50.5(762)	
거주지	서울	63.4	26.9	9.7	24.6(372)	4.35
	직할시	58.1	25.6	10.3	55.4(837)	
	기타시	65.1	31.6	10.3	19.9(301)	
부모님	30 대	61.1	30.6	8.3	3.8(36)	9.96 **
연 세	40 대	64.0	26.0	10.0	77.8(731)	
	50 대	55.5	26.6	17.9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8.99
	30 대	61.5	30.8	7.7	2.6(39)	
	40 대	64.2	26.8	9.0	65.5(977)	
	50 대	59.8	28.0	12.3	29.5(440)	
	60 대이상	62.8	27.0	10.1	2.2(33)	
모	20 대	-	-	-	-	18.36**
	30 대	65.0	28.6	6.4	18.7(280)	
	40 대	63.8	26.4	9.9	68.9(1032)	
	50 대	55.1	28.4	16.5	11.7(176)	
	60 대이상	60.0	10.0	30.0	0.7(10)	18.34**
부모님	하	57.0	32.2	10.7	13.5(121)	
학 력	중	61.7	26.2	12.1	45.1(405)	
	상	72.8	21.2	5.9	41.4(372)	
부	무학	36.4	36.4	27.3	0.7(11)	31.08***
	국졸	56.1	32.4	11.5	9.9(148)	
	중졸	59.2	28.2	12.7	19.0(284)	
	고졸	60.4	28.5	11.0	43.7(652)	
	대졸	71.7	22.3	6.1	21.0(314)	
모	대학원졸	77.1	18.1	4.8	5.6(83)	33.80**
	무학	42.9	25.0	32.1	1.9(28)	
	국졸	56.9	33.4	9.7	20.0(299)	
	중졸	62.2	25.9	11.9	28.6(429)	
	고졸	64.9	25.4	9.6	38.9(582)	
	대졸	73.2	22.1	4.7	9.9(149)	
	대학원졸	63.6	36.4	-	0.7(11)	
부모님	비전문직	58.9	29.5	11.5	84.9(643)	2.58
직 업	전문직	66.7	22.8	10.5	15.1(114)	
부	무직	57.1	31.0	11.9	2.8(42)	21.78
	일용근로자	54.2	31.4	14.4	7.9(118)	
	근로자	56.4	32.2	11.5	15.2(227)	
	농림어업자	66.4	23.2	10.4	8.4(125)	
	자영업	60.2	29.3	10.5	26.8(399)	
	사무직	67.4	23.7	9.0	31.5(469)	
	관리직	73.0	20.6	6.3	4.2(63)	
	전문직	75.0	20.8	4.2	3.2(48)	
	소 득	하	59.5	28.6	11.9	
	중	61.6	27.5	10.9	49.9(752)	
	상	62.8	27.1	10.1	25.1(378)	
합 계 (실수)		62.8(947)	27.1(409)	10.1	100.0(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61 〉 신중하다 (모)

M: 1.41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1.9	30.7	7.4	48.6 (759)	10.58**
	여	69.0	23.4	7.6	51.4 (802)	
학 교	중학교	66.0	27.0	7.0	49.1 (767)	0.44
	고등학교	65.2	26.9	7.9	50.9 (795)	
거주지	서울	66.4	24.7	8.9	24.4 (381)	3.18
	직할시	64.7	27.9	7.4	55.5 (867)	
	기타시	66.9	27.1	6.1	20.1 (314)	
부모님 연 세	30 대	61.1	25.0	13.9	3.8 (36)	3.45
	40 대	68.3	24.6	7.1	77.8 (732)	
	50 대	67.1	23.1	9.8	18.4 (173)	
부 모	20 대	100.0	-	-	0.2 (2)	7.87
	30 대	61.5	25.6	12.8	2.6 (39)	
	40 대	66.6	26.2	7.2	65.6 (974)	
	50 대	62.2	30.5	7.3	29.4 (436)	
	60 대이상	69.7	18.2	12.1	2.2 (33)	
모	20 대	-	-	-	-	6.62
	30 대	62.2	29.7	8.1	18.2 (283)	
	40 대	66.2	27.0	6.8	68.7 (1070)	
	50 대	67.9	21.8	10.4	12.4 (193)	
부모님 학 력	60 대이상	58.3	33.3	8.3	0.8 (12)	4.12
	하	62.0	32.2	5.8	15.5 (121)	
부	중	66.2	26.9	6.9	45.1 (405)	10.94
	상	68.8	23.4	7.8	41.4 (372)	
부 모	무학	72.7	9.1	18.2	0.7 (11)	6.62
	국졸	63.3	31.3	5.4	9.9 (147)	
	중졸	67.5	25.0	7.5	18.9 (280)	
	고졸	63.1	29.5	7.4	43.8 (650)	
	대졸	66.9	24.2	8.9	21.1 (314)	
	대학원졸	71.1	24.1	4.8	5.6 (83)	
부 모	무학	56.3	34.4	9.4	2.1 (32)	4.67
	국졸	63.1	30.3	6.6	20.3 (317)	
	중졸	65.9	26.8	7.3	28.9 (451)	
	고졸	65.7	26.1	8.2	38.3 (597)	
	대졸	72.0	21.3	6.7	9.6 (150)	
부모님 직 업	대학원졸	63.6	27.3	9.1	0.7 (11)	38.57***
	비전문직	64.9	28.8	6.4	84.9 (643)	
부	전문직	65.8	22.8	11.4	15.1 (114)	3.73
	무직	41.5	39.0	19.5	2.8 (41)	
	일용근로자	66.7	26.5	6.8	7.9 (117)	
	근로자	62.1	33.0	4.8	15.3 (227)	
	농림어업자	76.2	18.9	4.9	8.2 (122)	
	자영업	63.0	30.2	6.8	26.8 (397)	
	사무직	68.4	22.6	9.0	31.6 (468)	
	관리직	61.9	25.4	12.7	4.2 (63)	
소 득	전문직	62.5	35.4	2.1	3.2 (48)	3.73
	하	64.1	28.7	7.2	25.9 (404)	
	중	65.4	26.0	8.5	49.5 (772)	
합 계 (실수)	상	67.1	27.2	5.7	24.6 (383)	3.73
		65.5 (1023)	27.0 (421)	7.5 (117)	100.0 (1561)	

〈 표 62 〉 지성적이다 (부)

M : 1.797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3.2	51.2	15.6	48.9 (738)	2.15
	여	36.4	49.8	13.7	51.1 (771)	
학 교	중학교	36.2	53.3	10.4	49.5 (748)	21.11**
	고등학교	33.6	47.6	18.8	50.5 (762)	
거주지	서울	39.0	47.8	13.2	24.6 (372)	14.83**
	직할시	36.3	48.7	14.9	55.4 (837)	
	기타시	25.9	58.5	15.6	19.9 (301)	
부모님	30 대	41.7	47.2	11.1	3.8 (36)	10.41*
연 세	40 대	36.9	49.0	14.1	77.8 (731)	
	50 대	27.2	50.9	22.0	18.4 (173)	
부	20 대	-	-	100.0	0.2 (2)	8.76
	30 대	43.6	46.2	10.3	2.6 (39)	
	40 대	36.3	49.6	14.0	65.5 (977)	
	50 대	32.7	51.1	16.1	29.5 (440)	
	60 대이상	24.2	51.5	24.2	2.2 (33)	
모	20 대	-	-	-	-	12.42*
	30 대	36.4	51.1	12.5	18.7 (280)	
	40 대	36.1	50.1	13.8	68.9 (1032)	
	50 대	26.1	52.3	21.6	11.7 (176)	
	60 대이상	40.0	40.0	20.0	0.7 (10)	105.93***
부모님	하	17.4	63.6	19.0	13.5 (121)	
학 력	중	27.7	55.1	17.3	45.1 (405)	
	상	58.3	34.1	7.5	41.4 (372)	145.78***
부	무학	9.1	63.6	27.3	0.7 (11)	
	국졸	15.5	62.2	22.3	9.9 (148)	
	중졸	22.9	59.5	17.6	19.0 (284)	
	고졸	31.6	52.8	15.6	43.7 (652)	
	대졸	56.1	35.7	8.3	21.0 (314)	
	대학원졸	65.1	27.7	7.2	5.6 (83)	125.17***
모	무학	14.3	32.1	53.6	1.9 (28)	
	국졸	21.7	62.2	16.1	20.0 (299)	
	중졸	28.7	54.3	17.0	28.6 (429)	
	고졸	40.4	48.3	11.3	38.9 (582)	
	대졸	61.1	28.9	10.1	9.9 (149)	
	대학원졸	63.6	36.4	-	0.7 (11)	22.69***
부모님	비전문직	26.9	55.7	17.4	84.9 (643)	
직 업	전문직	49.1	39.5	11.4	15.1 (114)	
	부	38.1	42.9	19.0	2.8 (42)	98.95***
	일용근로자	21.2	54.2	24.6	7.9 (118)	
	근로자	24.7	60.4	15.0	15.2 (227)	
	농림어업자	24.8	59.2	16.0	8.4 (125)	
	자영업	31.6	52.4	16.0	26.8 (399)	
	사무직	41.4	45.8	12.8	31.5 (469)	
	관리직	66.7	28.6	4.8	4.2 (63)	
	전문직	70.8	25.0	4.2	3.2 (48)	27.96***
소 득	하	29.1	53.2	17.7	25.1 (378)	
	중	32.6	52.0	15.4	49.9 (752)	
	상	45.2	44.7	10.1	25.1 (378)	합 계 (실수)
	합	34.9 (526)	50.5 (762)	14.6 (221)	100.0 (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63 〉 지성적이다 (모)

M : 1.72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6.6	51.5	11.9	48.6(759)	1.92
	여	39.5	50.2	10.2	51.4(802)	
학 교	중학교	43.9	48.9	7.2	49.1(767)	34.50***
	고등학교	32.6	52.7	14.7	50.9(795)	
거주지	서울	43.3	46.5	10.2	24.4(381)	9.92*
	직할시	38.1	51.4	10.5	55.5(867)	
	기타시	32.2	54.5	13.4	20.1(314)	
부모님	30 대	47.2	44.4	8.3	3.8(36)	7.51
연 세	40 대	40.2	49.0	10.8	77.8(732)	
	50 대	30.1	56.1	13.9	18.4(173)	
부	20 대	-	-	100.0	0.2(2)	15.32
	30 대	48.7	43.6	7.7	2.6(39)	
	40 대	41.1	49.2	9.8	65.6(974)	
	50 대	33.9	53.0	13.1	29.4(436)	
	60 대이상	24.2	57.6	18.2	2.2(33)	
모	20 대	-	-	-	-	13.49*
	30 대	43.8	49.5	6.7	18.2(283)	
	40 대	38.1	50.1	11.8	68.7(1070)	
	50 대	31.1	55.4	13.5	12.4(193)	
	60 대이상	25.0	66.7	8.3	0.8(12)	69.93***
부모님	하	22.3	63.6	14.0	13.5(121)	
학 력	중	30.1	55.8	14.1	45.1(405)	
	상	54.6	40.1	5.4	41.4(372)	68.53***
부	무학	9.1	63.6	27.3	0.7(11)	
	국졸	22.4	61.2	16.3	9.9(147)	
	중졸	31.1	56.8	12.1	18.9(280)	
	고졸	37.7	50.6	11.7	43.8(650)	
	대졸	51.6	41.4	7.0	21.1(314)	
	대학원졸	57.8	39.8	2.4	5.6(83)	
모	무학	21.9	46.9	31.3	2.1(32)	121.28***
	국졸	25.6	60.6	13.9	20.3(317)	
	중졸	29.9	55.9	14.2	28.9(451)	
	고졸	44.6	47.2	8.2	38.3(597)	
	대졸	68.0	28.7	3.3	9.6(150)	
	대학원졸	36.4	63.6	-	0.7(11)	12.38**
부모님	비전문직	33.0	53.8	13.2	84.9(643)	
직 업	전문직	50.0	41.2	8.8	15.1(114)	39.24***
	무직	36.6	43.9	19.5	2.8(41)	
부	일용근로자	32.5	53.0	14.5	7.9(117)	
	근로자	32.2	55.5	12.3	15.3(227)	
	농림어업자	28.7	58.2	13.1	8.2(122)	
	자영업	39.0	49.4	11.6	26.8(397)	
	사무직	41.0	50.4	8.5	31.6(468)	
	관리직	58.7	36.5	4.8	4.2(63)	
	전문직	60.4	33.3	6.3	3.2(48)	
소 득	하	31.7	54.5	13.9	25.9(404)	35.47***
	중	35.5	53.0	11.5	49.5(772)	
	상	50.1	42.8	7.0	24.6(383)	
합 계 (실수)		38.1(595)	50.9(794)	11.0(172)	100.0(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64〉 독선적이다 (부)

M : 2.31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22.5	25.6	51.9	48.9(738)	1.64
	여	22.0	23.1	54.9	51.1(771)	
학 교	중학교	15.8	29.4	54.8	49.5(748)	44.36***
	고등학교	28.6	19.3	52.1	50.5(762)	
거주지	서울	22.0	25.0	53.0	24.6(372)	0.93
	직할시	22.3	23.4	54.2	55.4(837)	
	기타시	22.3	25.9	51.8	19.9(301)	
부모님	30 대	22.2	19.4	58.3	3.8(36)	2.63
연 세	40 대	23.0	21.5	55.5	77.8(731)	
	50 대	27.2	23.7	49.1	18.4(173)	
부	20 대	-	-	100.0	0.2(2)	6.56
	30 대	20.5	25.6	53.8	2.6(39)	
	40 대	21.3	23.8	54.9	65.5(977)	
	50 대	25.0	25.7	49.3	29.5(440)	
	60 대이상	24.2	18.2	57.6	2.2(33)	
모	20 대	-	-	-	-	9.29
	30 대	17.1	28.9	53.9	18.7(280)	
	40 대	23.1	23.0	54.0	68.9(1032)	
	50 대	26.7	24.4	48.9	11.7(176)	
	60 대이상	20.0	20.0	60.0	0.7(10)	
부모님 학 력	하	23.1	23.1	53.7	13.5(121)	1.64
	중	23.2	24.7	52.1	45.1(405)	
	상	22.6	21.2	56.2	41.4(372)	
부	무학	18.2	36.4	45.5	0.7(11)	6.30
	국졸	20.3	25.0	54.7	9.9(148)	
	중졸	21.1	24.3	54.6	19.0(284)	
	고졸	23.3	25.5	51.2	43.7(652)	
	대졸	24.2	21.3	54.5	21.0(314)	
	대학원졸	16.9	22.9	60.2	5.6(83)	
모	무학	25.0	25.0	50.0	1.9(28)	2.31
	국졸	22.1	24.4	53.5	20.0(299)	
	중졸	22.8	24.9	52.2	28.6(429)	
	고졸	22.3	23.5	54.1	38.9(582)	
	대졸	20.8	23.5	55.7	9.9(149)	
	대학원졸	27.3	36.4	36.4	0.7(11)	
부모님	비전문직	20.7	23.2	56.1	84.9(643)	7.88**
직 업	전문직	28.9	28.9	42.1	15.1(114)	
부	무직	33.3	16.7	50.0	2.8(42)	16.52
	일용근로자	15.3	27.1	57.6	7.9(118)	
	근로자	21.6	25.6	52.9	15.2(227)	
	농림어업자	18.4	20.0	61.6	8.4(125)	
	자영업	25.6	24.1	50.4	26.8(399)	
	사무직	21.3	26.2	52.5	31.5(469)	
	관리직	27.0	20.6	52.4	4.2(63)	
	전문직	22.9	16.7	60.4	3.2(48)	
	전문직	22.9	16.7	60.4	3.2(48)	
소 득	하	24.6	21.4	54.0	25.1(378)	2.99
	중	21.3	25.3	53.5	49.9(752)	
	상	22.0	25.1	52.9	25.1(378)	
합 계 (실수)		22.3(336)	24.3(367)	53.4(805)	100.0(1509)	

** P < .01 *** P < .001

< 표 65 > 독선적이다 (모)

M: 2.50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1.6	29.2	59.2	48.6 (759)	6.97*
	여	11.8	23.4	64.7	51.4 (802)	
학 교	중학교	11.1	31.0	57.9	49.1 (767)	17.82***
	고등학교	12.3	21.6	66.0	50.9 (795)	
거주지	서울	15.2	24.1	60.6	24.4 (381)	10.52*
	직할시	11.4	25.6	63.0	55.5 (867)	
	기타시	8.3	30.6	61.1	20.1 (314)	
부모님	30 대	13.9	22.2	63.9	3.8 (36)	.29
연 세	40 대	12.2	25.0	62.8	77.8 (732)	
	50 대	12.1	26.0	61.8	18.4 (173)	
부	20 대	-	-	100.0	0.2 (2)	2.29
	30 대	12.8	25.6	61.5	2.6 (39)	
	40 대	11.9	26.6	61.5	65.6 (974)	
	50 대	10.6	26.8	62.6	29.4 (436)	
	60 대이상	15.2	24.2	60.6	2.2 (33)	
모	20 대	-	-	-	-	2.32
	30 대	12.0	29.3	58.7	18.2 (283)	
	40 대	11.5	25.6	62.9	68.7 (1070)	
	50 대	12.4	25.4	62.2	12.4 (193)	
	60 대이상	16.7	25.0	58.3	0.8 (12)	
부모님 학 력	하	9.9	24.8	65.3	13.5 (121)	1.82
	중	10.6	27.4	62.0	45.1 (405)	
	상	12.6	24.5	62.9	41.4 (372)	
부	무학	18.2	18.2	63.6	0.7 (11)	7.88
	국졸	7.5	26.5	66.0	9.9 (147)	
	중졸	11.1	28.6	60.4	18.9 (280)	
	고졸	12.2	27.1	60.8	48.8 (650)	
	대졸	12.7	22.6	64.6	21.1 (314)	
	대학원졸	12.0	31.3	56.6	5.6 (83)	
	대학원졸	9.1	54.5	36.4	0.7 (11)	
모	무학	6.3	25.0	68.8	2.1 (32)	11.85
	국졸	10.7	27.1	62.1	20.3 (317)	
	중졸	10.6	26.6	62.7	28.9 (451)	
	고졸	12.6	24.1	63.3	38.3 (597)	
	대졸	15.3	30.0	54.7	9.6 (150)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10.1	24.7	65.2	84.9 (643)	1.27
	전문직	13.2	26.3	60.5	15.1 (114)	
	무직	14.6	26.8	58.5	2.8 (41)	
부	일용근로자	9.4	32.5	58.1	7.9 (117)	9.81
	근로자	8.4	27.3	64.3	15.3 (227)	
	농림어업자	10.7	20.5	68.9	8.2 (122)	
	자영업	12.1	25.9	62.0	26.8 (397)	
	사무직	13.2	27.1	59.6	31.6 (468)	
	관리직	11.1	23.8	65.1	4.2 (63)	
	전문직	12.5	25.0	62.5	3.2 (48)	
	전문직	12.5	25.0	62.5	3.2 (48)	
소 득	하	13.6	24.3	62.1	25.9 (404)	2.94
	중	10.6	27.2	62.2	49.5 (772)	
	상	12.0	26.4	61.6	24.6 (383)	
합 계 (실수)		11.7 (183)	26.3 (410)	62.0 (968)	100.0 (1561)	

* $P < .05$ *** $P < .001$

〈 표 66 〉 친절하다 (부)

M : 1.45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64.1	25.9	10.0	48.9 (738)	0.20
	여	65.1	24.9	10.0	51.1 (771)	
학 교	중학교	69.7	24.2	6.1	49.5 (748)	28.79***
	고등학교	59.6	26.6	13.8	50.5 (762)	
거주지	서울	59.9	27.2	12.9	24.6 (372)	8.87
	직할시	66.3	25.4	8.2	55.4 (837)	
	기타시	65.4	23.3	11.3	19.9 (301)	
부모님 연 세	30 대	61.1	27.8	11.1	3.8 (36)	4.70
	40 대	64.0	26.5	9.4	77.8 (731)	
	50 대	60.1	24.9	15.0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16.14
	30 대	61.5	25.6	12.8	2.6 (39)	
	40 대	64.9	26.6	8.5	65.5 (977)	
	50 대	64.1	22.3	13.6	29.5 (440)	
	60 대이상	72.7	24.2	3.0	2.2 (33)	
모	20 대	-	-	-	-	10.59
	30 대	66.1	26.8	7.1	18.7 (280)	
	40 대	65.0	25.0	10.0	68.9 (1032)	
	50 대	59.7	24.4	15.9	11.7 (176)	
부모님 학 력	60 대이상	70.0	30.0	-	0.7 (10)	4.81
	하	69.4	20.7	9.9	13.5 (121)	
	중	68.9	22.0	9.1	45.1 (405)	
부	상	63.4	28.0	8.6	41.4 (372)	7.69
	무학	45.5	45.5	9.1	0.7 (11)	
	국졸	66.2	22.3	11.5	9.9 (148)	
	중졸	68.7	21.8	9.5	19.0 (284)	
	고졸	64.3	25.5	10.3	43.7 (652)	
	대졸	63.7	27.4	8.9	21.0 (314)	
모	대학원졸	59.0	30.1	10.8	5.6 (83)	31.92***
	무학	32.1	39.3	28.6	1.9 (28)	
	국졸	67.6	20.4	12.0	20.0 (299)	
	중졸	68.1	22.6	9.3	28.6 (429)	
	고졸	62.4	28.7	8.9	38.9 (582)	
부모님 직 업	대졸	65.8	24.8	9.4	9.9 (149)	5.0
	대학원졸	36.4	54.5	9.1	6.7 (11)	
	비전문직	65.5	25.2	9.3	84.9 (643)	
	전문직	54.4	31.6	14.0	15.1 (114)	
	부	무직	64.3	26.2	9.5	
부	일용근로자	67.8	24.6	7.6	7.9 (118)	
	근로자	68.3	21.6	10.1	15.2 (227)	
	농림어업자	68.0	22.4	9.6	8.4 (125)	
	자영업	61.2	28.3	10.5	26.8 (399)	
	사무직	65.7	23.9	10.4	31.5 (469)	
	관리직	61.9	28.6	9.5	4.2 (63)	
	전문직	56.3	35.4	8.3	3.2 (48)	
소 득	하	62.4	26.7	10.8	25.1 (378)	4.81
	중	67.2	23.3	9.6	49.9 (752)	
	상	61.6	28.3	10.1	25.1 (378)	
합 계 (실 수)		64.6 (975)	25.4 (383)	10.0 (151)	100.0 (1509)	

*** P < .001

〈 표 67 〉 친절하다 (모)

M : 1.28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6.4	18.1	5.5	48.6 (759)	0.14
	여	77.2	17.6	5.2	51.4 (802)	
학 교	중학교	77.7	18.0	4.3	49.1 (767)	3.42
	고등학교	75.8	17.7	6.4	50.9 (795)	
거주지	서울	73.8	18.6	7.6	24.4 (381)	7.01
	직할시	76.9	18.5	4.6	55.5 (867)	
	기타시	79.9	15.3	4.8	20.1 (314)	
부모님	30 대	69.4	19.4	11.1	3.8 (36)	5.03
연 세	40 대	76.4	18.6	5.1	77.8 (732)	
	50 대	78.0	14.5	7.5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7.99
	30 대	66.7	20.5	12.8	2.6 (39)	
	40 대	76.9	18.1	5.0	65.6 (974)	
	50 대	77.1	17.2	5.7	29.4 (436)	
	60 대이상	84.8	15.2	-	2.2 (33)	
모	20 대	-	-	-	-	5.72
	30 대	76.7	17.7	5.7	13.2 (283)	
	40 대	76.8	18.3	4.9	68.7 (1070)	
	50 대	75.6	16.1	8.3	12.4 (193)	
	60 대이상	91.7	8.3	-	0.8 (12)	
부모님	하	82.6	12.4	5.0	13.5 (121)	4.16
학 령	중	77.8	17.5	4.7	45.1 (405)	
	상	74.7	20.4	4.8	41.4 (372)	9.59
부	무학	72.7	18.2	9.1	0.7 (11)	
	국졸	82.3	13.6	4.1	9.9 (147)	
	중졸	80.0	15.7	4.3	18.9 (280)	
	고졸	75.4	18.5	6.2	43.8 (650)	
	대졸	76.4	19.4	4.1	21.1 (314)	
	대학원졸	69.9	21.7	8.4	5.6 (83)	
모	무학	68.8	28.1	3.1	2.1 (32)	13.36
	국졸	81.7	13.2	5.0	20.3 (317)	
	중졸	78.0	17.1	4.9	28.9 (451)	
	고졸	74.9	19.3	5.9	38.3 (597)	
	대졸	72.7	20.7	6.7	9.6 (150)	
	대학원졸	63.6	36.4	-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78.4	17.3	4.4	84.9 (643)	11.60**
직 업	전문직	71.9	15.8	12.3	15.1 (757)	
부	무직	75.6	22.0	2.4	2.8 (41)	32.43**
	일용근로자	81.2	12.8	6.0	7.9 (117)	
	근로자	79.3	16.7	4.0	15.3 (227)	
	농림어업자	89.3	9.8	0.8	8.2 (122)	
	자영업	71.0	21.2	7.8	26.8 (397)	
	사무직	77.1	18.2	4.7	31.6 (468)	
	관리직	82.5	11.1	6.3	4.2 (63)	
	전문직	62.5	29.2	8.3	3.2 (48)	
소 득	하	78.0	16.3	5.7	25.9 (404)	1.84
	중	76.4	18.8	4.8	49.5 (772)	
	상	76.2	17.8	6.0	24.6 (383)	
합 계 (실수)		76.8 (1199)	17.8 (278)	5.4 (84)	100.0 (1561)	

** P < .01

〈 표 68 〉 고생을 많이 한다(부)

M : 1.39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4.1	15.2	10.7	48.9(738)	6.56*
	여	69.0	20.1	10.9	51.1(771)	
학 교	중학교	67.0	21.1	11.9	49.5(748)	15.87***
	고등학교	76.0	14.3	9.7	50.5(762)	
거주지	서울	66.9	19.4	13.7	24.6(372)	12.97*
	직할시	73.1	18.3	8.6	55.4(837)	
	기타시	72.8	14.0	13.3	19.9(301)	
부모님	30 대	72.2	22.2	5.6	3.8(36)	8.69
연 세	40 대	69.9	19.0	11.1	77.8(731)	
	50 대	78.0	10.4	11.6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11.34
	30 대	74.4	20.5	5.1	2.6(39)	
	40 대	70.2	18.4	11.4	65.5(977)	
	50 대	73.9	16.1	10.0	29.5(440)	
	60 대이상	84.8	9.1	6.1	2.2(33)	
모	20 대	-	-	-	-	10.71
	30 대	70.4	18.9	10.7	18.7(280)	
	40 대	70.7	18.8	10.5	68.9(1032)	
	50 대	75.0	11.4	13.6	11.7(176)	
	60 대이상	100.0	-	-	0.7(10)	
부모님	하	81.0	8.3	5.8	13.5(121)	73.44***
학 력	중	79.5	12.1	8.4	45.1(405)	
	상	54.8	28.5	16.7	41.4(372)	
부	무학	72.7	18.2	9.1	0.7(11)	91.53***
	국졸	85.8	8.1	6.1	9.9(148)	
	중졸	83.5	9.5	7.0	19.0(284)	
	고졸	73.5	16.7	9.8	43.7(652)	
	대졸	57.0	27.4	15.6	21.0(314)	
	대학원졸	48.2	32.5	19.3	5.6(83)	
모	무학	60.7	17.9	21.4	1.9(28)	93.13***
	국졸	84.9	9.4	5.7	20.0(299)	
	중졸	78.8	12.6	8.6	28.6(429)	
	고졸	65.6	22.0	12.4	38.9(582)	
	대졸	48.3	32.2	19.5	9.9(149)	
	대학원졸	54.5	36.4	9.1	0.7(11)	
부모님	비전문직	77.4	13.7	8.9	84.9(643)	17.87***
직 업	전문직	58.8	24.6	16.7	15.1(114)	
부	무직	83.3	7.1	9.5	2.8(42)	66.29***
	일용근로자	80.5	9.3	10.2	7.9(118)	
	근로자	80.6	11.5	7.9	15.2(227)	
	농림어업자	86.4	10.4	3.2	8.4(125)	
	자영업	71.2	18.3	10.5	26.8(399)	
	사무직	65.2	22.8	11.9	31.5(469)	
	관리직	50.8	30.2	19.0	4.2(63)	
	전문직	54.2	22.9	22.9	3.2(48)	
소 득	하	79.6	12.7	7.7	25.1(378)	28.60***
	중	71.8	18.6	9.6	49.9(752)	
	상	63.2	20.9	15.9	25.1(378)	
합 계(실수)		71.5(1079)	17.7(267)	10.8(163)	100.0(1509)	

* $P < .05$ *** $P < .001$

〈 표 69 〉 고생을 많이 한다 (모)

M : 1.33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6.8	14.8	8.4	48.6 (759)	1.60
	여	74.1	16.3	9.6	51.4 (802)	
학 교	중학교	70.1	18.5	11.3	49.1 (767)	22.97***
	고등학교	80.5	12.7	6.8	50.9 (795)	
거주지	서울	70.6	16.3	13.1	24.4 (381)	18.33***
	직할시	76.2	16.8	6.9	55.5 (867)	
	기타시	79.0	11.1	9.9	20.1 (314)	
연 세	부모님 30 대	75.0	19.4	5.6	3.8 (36)	8.39
	40 대	71.3	18.2	10.5	77.8 (732)	
	50 대	81.5	11.0	7.5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21.57*
	30 대	76.9	17.9	5.1	2.6 (39)	
	40 대	71.7	18.1	10.3	65.6 (974)	
	50 대	80.3	12.2	7.6	29.4 (436)	
	60 대이상	87.9	6.1	6.1	2.2 (33)	
모	20 대	-	-	-	-	
	30 대	73.1	18.7	8.1	18.2 (283)	
	40 대	74.8	15.8	9.4	68.7 (1070)	
	50 대	80.3	10.9	8.8	12.4 (193)	
	60 대이상	100.0	-	-	0.8 (12)	
부모님 학 력	하	90.1	5.8	4.1	13.5 (121)	61.04***
	중	82.7	10.1	7.2	45.1 (405)	
	상	62.1	23.4	14.5	41.4 (372)	
부	무학	90.9	9.1	-	0.7 (11)	70.80***
	국졸	89.1	7.5	3.4	9.9 (147)	
	중졸	84.6	8.6	6.8	18.9 (280)	
	고졸	74.5	16.9	8.6	43.8 (650)	
	대학원졸	64.3	21.7	14.0	21.1 (314)	
모	무학	54.2	30.1	15.7	5.6 (83)	
	국졸	75.0	15.6	9.4	2.1 (32)	
	중졸	88.3	6.9	4.7	20.3 (317)	
	고졸	82.9	10.2	6.9	28.9 (451)	
	대학원졸	68.3	21.4	10.2	38.3 (597)	
부모님 직 업	대졸	54.7	26.0	19.3	9.6 (150)	99.99***
	대학원졸	54.5	27.3	18.2	0.7 (11)	
	비전문직	76.8	14.3	8.9	84.9 (643)	
	전문직	71.1	14.9	14.0	15.1 (114)	
	부 무직	82.9	12.2	4.9	2.8 (41)	
부	일용근로자	78.6	9.4	12.0	7.9 (117)	47.99***
	근로자	81.9	11.9	6.2	15.3 (227)	
	농림어업자	90.2	8.2	1.6	8.2 (122)	
	자영업	73.6	16.9	9.6	8.2 (122)	
	사무직	69.0	20.5	10.5	31.6 (468)	
	관리직	66.7	17.5	15.9	4.2 (63)	
	전문직	58.3	25.0	16.7	3.2 (48)	
	소 득 하	81.7	11.4	6.9	25.9 (404)	21.99***
소 득	중	76.0	15.9	8.0	49.5 (772)	
	상	67.9	19.3	12.8	24.6 (383)	
합 계 (실수)		75.4 (1177)	15.6 (243)	9.0 (141)	100.0 (1561)	

* $P < .05$ *** $P < .001$

〈 표 70 〉 관대하다 (부)

M : 1.72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46.2	40.8	13.0	48.9(738)	9.22**
	여	38.8	44.9	16.3	51.1(771)	
학 교	중학교	33.6	53.3	13.1	49.5(748)	67.39***
	고등학교	51.0	32.7	16.3	50.5(762)	
거주지	서울	46.5	37.4	16.1	24.6(372)	17.27**
	직할시	43.7	43.5	12.8	55.4(837)	
	기타시	33.6	48.2	18.3	19.9(301)	
부모님		30.6	58.3	11.1	3.8(36)	12.95**
연 세	40 대	43.8	42.4	13.8	77.8(731)	
	50 대	45.7	32.9	21.4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18.27*
	30 대	30.8	59.0	10.3	2.6(39)	
	40 대	41.6	45.0	13.4	65.5(977)	
	50 대	45.7	36.4	18.0	29.5(440)	
	60 대이상	36.4	48.5	15.2	2.2(33)	
모	20 대	-	-	-	-	26.79***
	30 대	34.6	52.9	12.5	18.7(280)	
	40 대	44.0	41.7	14.3	68.9(1032)	
	50 대	46.0	31.8	22.2	11.7(176)	
	60 대이상	40.0	60.0	-	0.7(10)	
부모님		30.6	50.4	19.0	13.5(121)	18.20***
학 력	중	39.8	45.2	15.1	45.1(405)	
	상	50.5	36.8	12.6	41.4(372)	26.63**
부	무학	45.5	45.5	9.1	0.7(11)	
	국졸	29.1	50.7	20.3	9.9(148)	
	중졸	41.9	44.7	13.4	19.0(284)	
	고졸	40.3	44.5	15.2	43.7(652)	
	대졸	49.4	36.3	14.3	21.0(314)	
	대학원졸	55.4	36.1	8.4	5.6(83)	
모	무학	32.1	42.9	25.0	1.9(28)	17.25
	국졸	37.8	45.8	16.4	20.0(299)	
	중졸	40.6	44.5	14.9	28.6(429)	
	고졸	44.2	42.1	13.7	38.9(582)	
	대졸	53.7	32.2	14.1	9.9(149)	
	대학원졸	27.3	63.6	9.1	0.7(11)	
부모님		41.8	43.2	16.7	15.1(114)	.60
직 업	비전문직	43.9	39.5	14.9	84.9(643)	
	전문직	42.9	40.5	16.7	2.8(42)	23.77*
부	무직	33.9	50.8	15.3	7.9(118)	
	일용근로자	36.1	48.9	15.0	15.2(227)	
	근로자	41.6	43.2	15.2	8.4(125)	
	농림어업자	42.9	41.1	16.0	26.8(399)	
	사무직	43.3	42.9	13.9	31.5(469)	
	관리직	63.5	23.8	12.7	4.2(63)	
	전문직	52.1	39.6	8.3	3.2(48)	
소 득	하	37.0	47.6	15.3	25.1(378)	11.39*
	중	41.9	43.8	14.4	49.9(752)	
	상	48.4	36.8	14.8	25.1(378)	
합 계(실수)		42.4(640)	42.9(647)	14.7(222)	100.0(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71 > 관대하다 (모)

M : 1.65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2.4	36.8	10.8	48.6 (759)	17.19***
	여	42.8	41.4	15.8	51.4 (802)	
학 교	중학교	34.7	49.8	15.5	49.1 (767)	100.25***
	고등학교	59.7	28.9	11.3	50.9 (795)	
거주지	서울	54.9	32.8	12.3	24.4 (381)	20.77***
	직할시	47.5	40.0	12.5	55.5 (867)	
	기타시	38.2	44.6	17.2	20.1 (314)	
연 세	부모님 30 대	27.8	61.1	11.1	3.8 (36)	14.63**
	40 대	47.3	38.0	14.8	77.8 (732)	
	50 대	57.2	31.8	11.0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24.70**
	30 대	28.2	61.5	10.3	3.6 (39)	
	40 대	44.5	41.0	14.6	65.6 (974)	
	50 대	54.8	33.3	11.9	29.4 (436)	
	60 대이상	45.5	42.4	12.1	2.2 (33)	
모	20 대	-	-	-	-	33.85***
	30 대	34.3	52.3	13.4	18.2 (283)	
	40 대	49.1	37.0	13.9	68.7 (1070)	
	50 대	58.0	31.1	10.9	12.4 (193)	
	60 대이상	50.0	41.7	8.3	0.8 (12)	
부모님 학 력	하	38.0	42.1	19.8	13.5 (121)	7.68
	중	48.4	37.8	13.8	45.1 (405)	
	상	51.3	36.0	12.6	41.4 (372)	
부	무학	45.5	45.5	9.1	0.7 (11)	15.03
	국졸	38.8	41.5	19.7	9.9 (147)	
	중졸	47.5	37.1	15.4	18.9 (280)	
	고졸	45.7	42.3	12.0	43.8 (650)	
	대졸	52.5	34.1	13.4	21.1 (314)	
	대학원졸	49.4	38.6	12.0	5.6 (83)	
모	무학	53.1	31.3	15.6	2.1 (32)	10.06
	국졸	44.5	41.0	14.5	20.3 (317)	
	중졸	49.2	37.0	13.7	28.9 (451)	
	고졸	46.9	41.0	12.1	38.3 (597)	
	대졸	50.7	33.3	16.0	9.6 (150)	
	대학원졸	36.4	63.6	-	0.7 (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49.1	37.2	13.7	84.9 (643)	1.89
	전문직	44.7	36.8	18.4	15.1 (114)	
	부 무직	43.9	48.8	7.3	2.8 (41)	
부	일용근로자	44.4	41.0	14.5	7.9 (117)	17.12
	근로자	45.4	41.0	13.7	15.3 (227)	
	농림어업자	45.1	36.9	18.0	8.2 (122)	
	자영업	47.9	38.0	14.1	26.8 (397)	
	사무직	45.1	41.7	13.2	31.6 (468)	
	관리직	65.1	27.0	7.9	4.2 (63)	
	전문직	58.3	29.2	12.5	3.2 (48)	
	하	39.4	44.1	16.6	25.9 (404)	
	중	49.1	39.1	11.8	49.5 (772)	
소 득	상	52.2	34.5	13.3	24.6 (383)	17.03***
	합 계 (실수)	47.5 (741)	39.1 (611)	13.4 (209)	100.0 (1561)	

** P < .01 *** P < .001

〈 표 72 〉 냉정하다 (부)

M : 2.397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19.5	25.9	54.0	48.9 (738)	12.07**
	여	18.4	19.1	62.5	51.1 (771)	
학 교	중학교	16.0	22.2	61.8	49.5 (748)	9.00*
	고등학교	21.8	22.6	55.6	50.5 (762)	
거주지	서울	21.5	21.8	56.7	24.6 (372)	2.72
	직할시	18.6	22.3	59.0	55.4 (837)	
	기타시	16.6	23.3	60.1	19.9 (301)	
부모님	30 대	16.7	8.3	75.0	3.8 (36)	6.75
연 세	40 대	19.8	23.5	56.6	77.8 (731)	
	50 대	23.1	21.4	55.5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15.01
	30 대	15.4	10.3	74.4	2.6 (39)	
	40 대	18.3	22.4	59.3	65.5 (977)	
	50 대	20.7	23.6	55.7	29.5 (440)	
	60 대이상	15.2	13.2	66.7	2.2 (33)	
모	20 대	-	-	-	-	17.29**
	30 대	12.9	19.3	67.9	18.7 (280)	
	40 대	19.6	23.6	56.8	68.9 (1032)	
	50 대	25.6	20.5	54.0	11.7 (176)	
	60 대이상	20.0	20.0	60.0	0.7 (10)	
부모님	하	20.7	21.5	57.9	13.5 (121)	7.64
학 령	중	15.1	21.5	63.5	45.1 (405)	
	상	22.0	22.6	55.4	41.4 (372)	
부	무학	54.5	18.2	27.3	0.7 (11)	26.53**
	국졸	16.9	23.6	59.5	9.9 (138)	
	중졸	12.7	23.6	63.7	19.0 (284)	
	고졸	19.2	21.5	59.4	43.7 (652)	
	대졸	24.8	21.3	53.8	21.0 (314)	
	대학원졸	14.5	27.7	57.8	5.6 (83)	
모	무학	25.0	25.0	50.0	1.9 (28)	12.76
	국졸	16.4	23.4	60.2	20.0 (299)	
	중졸	15.9	21.4	62.7	28.6 (429)	
	고졸	22.0	21.1	56.9	38.9 (582)	
	대졸	20.8	27.5	51.7	9.9 (149)	
	대학원졸	18.2	27.3	54.5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17.4	21.3	61.3	84.9 (643)	5.98*
직 업	전문직	23.7	27.2	49.1	15.1 (114)	
부	무직	28.6	28.6	43.9	2.8 (42)	32.03**
	일용근로자	12.7	28.8	58.5	7.9 (118)	
	근로자	18.1	18.9	63.0	15.2 (227)	
	농림어업자	12.8	18.4	68.8	8.4 (125)	
	자영업	17.8	23.8	58.4	26.8 (399)	
	사무직	22.0	22.6	55.4	31.5 (469)	
	관리직	31.7	19.0	49.2	4.2 (63)	
	전문직	8.3	18.8	72.9	5.2 (48)	
소 득	하	20.9	22.0	57.1	25.1 (378)	4.82
	중	16.8	22.9	60.4	49.7 (752)	
	상	21.4	22.0	56.6	25.1 (378)	
합 계 (실수)		19.0 (286)	22.4 (333)	58.6 (885)	100.0 (1509)	

* $P < .05$ ** $P < .01$

〈 표 73 〉 냉정하다 (모)

M : 2.525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14.2	26.0	59.8	48.6 (759)	17.18***
	여	10.8	19.3	69.8	51.4 (802)	
학 교	중학교	12.4	22.0	65.6	49.1 (767)	0.26
	고등학교	12.6	23.0	64.4	50.9 (795)	
거주지	서울	13.9	22.6	63.5	24.4 (381)	1.90
	직할시	12.6	22.5	64.9	55.5 (867)	
	기타시	10.5	22.6	66.9	20.1 (314)	
연 세	부모님 30 대	22.2	8.3	69.4	3.8 (36)	7.27
	40 대	12.6	23.1	64.3	77.8 (732)	
	50 대	13.9	18.5	67.6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23.78**
	30 대	20.5	10.3	69.2	2.6 (39)	
	40 대	12.2	22.6	65.2	65.6 (974)	
	50 대	11.7	24.5	63.8	29.4 (436)	
	60 대이상	18.2	3.0	78.8	2.2 (33)	
모	20 대	-	-	-	-	7.10
	30 대	12.0	20.5	67.5	18.2 (283)	
	40 대	12.0	23.7	64.3	68.7 (1070)	
	50 대	15.5	20.7	63.7	12.4 (193)	
	60 대이상	16.7	-	83.3	0.8 (12)	
부모님 학 력	하	12.4	20.7	66.9	13.5 (121)	6.65
	중	11.1	20.0	68.9	45.1 (405)	
	상	16.4	22.6	61.0	41.4 (372)	
부	무학	36.4	18.2	45.5	0.7 (11)	19.51*
	국졸	9.5	21.8	68.7	9.9 (147)	
	중졸	7.5	22.1	70.4	18.9 (280)	
	고졸	12.9	22.2	64.9	43.8 (650)	
	대졸	15.9	22.3	61.8	21.1 (314)	
	대학원졸	14.5	27.7	57.8	5.6 (83)	
모	무학	6.3	15.6	78.1	2.1 (32)	21.76*
	국졸	7.9	23.3	68.8	20.3 (317)	
	중졸	11.8	20.4	67.8	28.9 (451)	
	고졸	14.1	23.3	62.6	38.3 (597)	
	대졸	19.3	25.3	55.3	9.6 (150)	
	대학원졸	9.1	36.4	54.5	0.7 (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10.4	21.2	68.4	84.9 (643)	1.73
	전문직	13.2	24.6	62.3	15.1 (114)	
	부 무직	17.1	26.8	56.1	2.8 (41)	
부	일용근로자	8.5	29.9	61.5	7.9 (117)	27.79*
	근로자	11.9	19.8	68.3	15.3 (227)	
	농림어업자	4.1	18.1	77.0	8.2 (122)	
	자영업	12.3	22.7	65.0	26.8 (397)	
	사무직	16.5	21.8	61.8	31.6 (468)	
	관리직	7.9	28.6	63.5	4.2 (63)	
	전문직	10.4	16.7	72.9	3.2 (48)	
	소 득 하	14.1	22.0	63.9	25.9 (404)	
소 득	중	11.3	23.2	65.5	49.5 (772)	2.34
	상	13.3	21.9	64.8	24.6 (383)	
합 계 (실수)		12.5 (195)	22.5 (352)	65.0 (1014)	100.0 (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74 〉 침착하다 (부)

M : 1.60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4.6	30.2	15.2	48.9 (738)	0.52
	여	55.0	28.8	16.2	51.1 (771)	
학 교	중학교	59.2	29.1	11.6	49.5 (748)	21.05***
	고등학교	50.4	29.9	19.7	50.5 (762)	
거주지	서울	58.6	25.3	16.1	24.6 (372)	6.44
	직할시	54.0	29.9	16.1	55.4 (837)	
	기타시	52.2	33.9	14.0	19.9 (301)	
연 세	부모님 30 대	52.8	27.8	19.4	3.8 (36)	5.48
	40 대	54.6	30.4	15.0	77.8 (731)	
	50 대	48.0	30.1	22.0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30 대	53.8	28.2	17.9	2.6 (39)	7.71
	40 대	55.8	29.8	14.4	65.5 (977)	
	50 대	53.2	28.4	18.4	29.5 (440)	
	60 대 이상	51.5	27.3	21.2	2.2 (33)	
	모 20 대	-	-	-	-	
	30 대	59.3	26.8	13.9	18.7 (280)	11.35
	40 대	54.9	29.7	15.4	68.9 (1032)	
	50 대	46.0	33.0	21.0	11.7 (276)	
	60 대 이상	80.0	10.0	10.0	0.7 (11)	
학 력	부모님 하	47.1	32.2	20.7	13.5 (121)	15.85**
	중	51.9	29.9	18.3	45.1 (405)	
	상	63.2	25.0	11.8	41.4 (372)	26.77**
	부 무학	27.3	45.5	27.3	0.7 (11)	
	국졸	45.9	34.5	19.6	9.9 (148)	
	중졸	48.9	31.3	19.7	19.0 (284)	
	고졸	54.6	29.8	15.6	43.7 (652)	
	대졸	63.1	25.5	11.5	21.0 (314)	24.85**
	대학원졸	66.3	21.7	12.0	5.6 (83)	
	모 무학	28.6	39.3	32.1	1.9 (28)	
	국졸	48.5	32.8	18.7	20.0 (299)	
	중졸	82.4	29.8	17.7	28.6 (429)	
	고졸	59.6	27.8	12.5	38.9 (582)	2.07
	대졸	60.4	25.5	14.1	9.9 (149)	
	대학원졸	63.6	27.3	9.1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48.8	33.1	18.0	84.9 (643)	
	직 업 전문직	56.1	28.1	15.8	15.1 (114)	
	부 무직	57.1	26.2	16.7	2.8 (42)	34.76**
	일용근로자	44.1	35.6	20.3	7.9 (118)	
	근로자	49.3	32.2	18.5	15.2 (227)	
	농림어업자	52.0	34.4	13.6	8.4 (125)	
	자영업	49.4	32.3	18.3	26.8 (399)	
	사무직	62.7	24.7	12.6	31.5 (469)	
	관리직	71.4	17.5	11.1	4.2 (63)	
	전문직	60.4	25.0	14.6	3.2 (48)	
소 득	하	52.1	32.8	15.1	25.1 (378)	3.37
	중	54.8	29.1	16.1	49.9 (752)	
	상	57.4	27.0	15.6	25.1 (378)	
합 계 (실수)		54.8 (827)	29.5 (445)	15.7 (237)	100.0 (1509)	

** P < .01 *** P < .001

< 표 75 > 침착하다 (모)

M : 1.595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2.4	34.3	13.3	48.6 (759)	6.49*
	여	56.7	28.3	15.0	51.4 (802)	
학 교	중학교	56.6	31.9	11.5	49.1 (767)	8.93*
	고등학교	52.7	30.6	16.7	50.9 (795)	
거주지	서울	53.8	29.9	16.3	24.4 (381)	3.02
	직할시	54.0	32.2	13.8	55.5 (867)	
	기타시	57.3	30.3	12.4	20.1 (314)	
부모님 연 세	30 대	50.0	36.1	13.9	3.8 (36)	2.01
	40 대	53.8	32.5	13.7	77.8 (732)	
	50 대	53.2	29.5	17.3	18.4 (173)	
부 모	20 대	100.0	-	-	0.2 (2)	3.0
	30 대	51.3	34.9	12.8	2.6 (39)	
	40 대	53.6	32.4	14.0	65.6 (974)	
	50 대	54.4	31.7	14.0	29.4 (436)	
	60 대이상	60.6	24.2	15.2	2.2 (33)	
모	20 대	-	-	-	-	2.99
	30 대	53.4	31.4	15.2	18.2 (283)	
	40 대	55.0	31.7	13.3	68.7 (1070)	
	50 대	54.9	29.0	16.1	12.4 (193)	
	60 대이상	50.0	25.0	25.0	0.8 (12)	
부모님 학 력	하	52.9	30.6	16.5	13.5 (121)	1.68
	중	55.6	32.1	12.3	45.1 (405)	
	상	54.8	30.6	14.5	41.4 (372)	
부 모	무학	45.5	36.4	18.2	0.7 (11)	2.58
	국졸	53.1	31.3	15.6	9.9 (147)	
	중졸	55.7	30.0	14.3	18.9 (280)	
	고졸	53.4	33.5	13.1	43.8 (650)	
	대졸	53.8	31.8	14.3	21.1 (314)	
	대학원졸	55.4	28.9	15.7	5.6 (83)	
	모	59.4	28.1	12.5	2.1 (32)	
부 모	국졸	56.2	29.3	14.5	20.3 (317)	3.55
	중졸	55.7	31.3	13.1	28.9 (451)	
	고졸	53.8	31.5	14.7	38.3 (597)	
	대졸	52.7	34.0	13.3	9.6 (150)	
	대학원졸	36.4	45.5	18.2	0.7 (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54.6	33.4	12.0	84.9 (643)	.43
	전문직	54.4	31.6	14.0	15.1 (114)	
	부	39.0	46.3	14.6	2.9 (41)	
부 모	일용근로자	60.7	23.1	16.2	7.3 (117)	15.82
	근로자	54.6	31.7	13.7	15.2 (227)	
	농림어업자	57.4	36.1	6.6	8.8 (122)	
	자영업	52.4	33.2	14.4	26.6 (397)	
	사무직	53.4	31.2	15.4	31.2 (468)	
	관리직	54.0	33.3	12.7	4.2 (63)	
	전문직	56.3	31.3	12.5	3.3 (48)	
	소 득	53.0	32.7	14.4	25.9 (404)	
소 득	중	56.3	29.5	14.1	49.5 (772)	2.51
	상	52.5	33.4	14.1	24.6 (383)	
	합 계 (실수)	54.6 (853)	31.2 (487)	14.2 (221)	100.0 (1561)	

* $P < .05$

〈 표 76 〉 정직하다 (부)

M : 1.35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0.3	23.3	6.4	48.9 (738)	0.43
	여	71.1	22.0	6.9	51.1 (771)	
학 교	중학교	73.1	21.7	5.2	49.5 (748)	6.29*
	고등학교	68.4	23.6	8.0	50.5 (762)	
거주지	서울	72.6	19.9	7.5	24.6 (372)	3.32
	직할시	70.8	22.9	6.2	55.4 (837)	
	기타시	68.1	25.2	6.6	19.9 (301)	
부모님	30 대	77.8	13.9	8.3	3.8 (36)	16.64**
연 세	40 대	71.5	23.0	5.5	77.8 (731)	
	50 대	67.1	19.1	13.9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11.15
	30 대	76.9	15.4	7.7	2.6 (39)	
	40 대	71.6	22.7	5.6	65.5 (977)	
	50 대	67.7	24.3	8.0	29.5 (440)	
	60 대이상	72.7	12.1	15.2	2.2 (33)	
모	20 대	-	-	-	-	18.17**
	30 대	73.9	20.0	6.1	18.7 (280)	
	40 대	70.7	23.7	5.5	68.9 (1032)	
	50 대	66.5	19.9	13.6	11.7 (176)	
	60 대이상	70.0	20.0	10.0	0.7 (10)	
부모님	하	74.4	19.8	5.8	13.5 (121)	0.73
학 력	중	71.4	22.0	6.7	45.1 (406)	
	상	71.2	22.8	5.9	41.4 (372)	7.63
부	무학	63.6	27.3	9.1	0.7 (11)	
	국졸	70.9	21.6	7.4	9.9 (148)	
	중졸	73.9	20.1	6.0	19.0 (284)	
	고졸	69.2	23.8	7.1	43.7 (652)	
	대졸	69.1	23.9	7.0	21.0 (314)	
	대학원졸	78.3	20.5	1.2	5.6 (83)	
모	무학	50.0	25.0	25.0	1.9 (28)	20.59*
	국졸	72.6	20.7	6.7	20.0 (299)	
	중졸	71.3	22.1	6.5	28.6 (429)	
	고졸	70.8	23.9	5.3	38.9 (582)	
	대졸	69.8	21.5	8.7	9.9 (149)	
	대학원졸	72.7	27.3	-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69.8	23.8	6.4	84.9 (643)	4.89
직 업	전문직	61.4	27.2	11.4	15.1 (114)	
부	무직	69.0	19.0	11.9	2.8 (42)	24.68*
	일용근로자	69.5	20.3	11.2	7.9 (118)	
	근로자	72.2	23.8	4.0	15.2 (227)	
	농림어업자	79.2	15.2	5.6	8.4 (125)	
	자영업	65.4	27.6	7.0	26.8 (399)	
	사무직	71.4	21.1	7.5	31.5 (469)	
	관리직	71.4	27.0	1.6	4.2 (63)	
	전문직	81.3	16.7	2.1	3.2 (48)	
	전문직	81.3	16.7	2.1	3.2 (48)	
소 득	하	70.9	21.2	7.9	25.1 (378)	3.30
	중	69.5	24.2	6.3	49.9 (752)	
	상	72.8	21.2	6.1	25.1 (378)	
합 계 (실수)		70.7 (1067)	22.7 (342)	6.6 (100)	100.0 (1509)	

* $P < .05$ ** $P < .01$

〈 표 77 〉 정직하다 (모)

M : 1.35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0.2	23.7	6.1	48.6(759)	0.23
	여	70.7	23.8	5.5	51.4(802)	
학 교	중학교	71.4	23.1	5.5	49.1(767)	0.69
	고등학교	69.6	24.4	6.0	50.9(795)	
거주지	서울	73.2	18.4	8.4	24.4(381)	13.71 **
	직할시	69.2	25.5	5.3	55.5(867)	
	기타시	70.2	25.5	3.8	20.1(314)	
부모님	30 대	69.4	25.0	5.6	3.8(36)	5.50
연 세	40 대	69.8	24.5	5.7	77.8(732)	
	50 대	75.1	16.8	8.1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7.12
	30 대	69.2	25.6	5.1	2.6(39)	
	40 대	69.7	24.7	5.5	65.6(974)	
	50 대	70.6	24.1	5.3	29.4(436)	
	60 대이상	78.8	9.1	12.1	2.2(33)	
모	20 대	-	-	-	-	7.86
	30 대	70.3	24.4	5.3	18.2(283)	
	40 대	69.8	24.8	5.4	68.7(1070)	
	50 대	74.6	17.1	8.3	12.4(193)	
	60 대이상	75.0	25.0	-	0.8(12)	
부모님	하	65.3	28.9	5.8	13.5(121)	2.76
학 력	중	72.6	23.5	4.0	45.1(405)	
	상	70.4	24.5	5.1	41.4(372)	
부	무학	45.5	36.4	18.2	0.7(11)	11.20
	국졸	67.3	27.9	4.8	9.9(147)	
	중졸	75.0	20.4	4.6	18.9(280)	
	고졸	68.9	24.9	6.2	43.8(650)	
	대졸	69.4	24.8	5.7	21.1(314)	
	대학원졸	75.9	20.5	3.6	5.6(83)	
	모	무학	62.5	28.1	9.4	
	국졸	71.6	24.0	4.4	20.3(317)	
	중졸	72.9	22.8	4.2	28.9(451)	
	고졸	69.0	24.1	6.9	38.3(597)	
	대졸	69.3	22.7	8.0	9.6(150)	
	대학원졸	63.6	36.4	-	0.7(11)	
	부모님	비전문직	69.7	24.7	5.6	84.9(633)
직 업	전문직	64.0	30.7	5.3	15.1(114)	
	부	무직	51.2	41.5	7.3	2.8(41)
	일용근로자	67.5	29.1	3.4	7.9(117)	
	근로자	70.5	24.7	4.8	15.3(227)	
	농림어업자	77.0	17.2	5.7	8.2(122)	
	자영업	68.5	24.4	7.1	26.8(397)	
	사무직	71.8	22.6	5.6	31.6(468)	
	관리직	68.3	27.0	4.8	4.2(63)	
	전문직	75.0	22.9	2.1	3.2(48)	
소 득	하	69.6	23.3	7.2	25.9(404)	3.72
	중	69.8	24.4	5.8	49.5(772)	
	상	72.8	23.0	4.2	24.6(383)	
합 계(실수)		70.5(100)	23.8(371)	5.8(90)	100.0(1561)	

** P < .01

〈 표 78 〉 멋지다 (부)

M : 1.72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41.4	42.0	16.9	48.9(738)	5.85*
	여	47.0	36.6	16.5	51.1(771)	
학 교	중학교	49.1	37.7	13.2	49.5(748)	20.02***
	고등학교	39.1	40.8	20.1	50.5(762)	
거주지	서울	43.8	40.1	16.1	24.6(372)	1.43
	직할시	43.1	39.8	17.1	55.4(837)	
	기타시	46.8	36.9	16.3	19.9(301)	
부모님	30 대	52.8	27.8	19.4	3.8(36)	32.36***
연 세	40 대	44.2	41.7	14.1	77.8(781)	
	50 대	40.5	28.3	31.2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31.72***
	30 대	51.3	30.8	17.9	2.6(39)	
	40 대	45.1	41.2	13.6	65.5(977)	
	50 대	41.8	36.4	21.8	29.5(440)	
모	60 대이상	30.3	30.3	39.4	2.2(33)	32.77***
	20 대	-	-	-	-	
	30 대	49.6	37.5	12.9	18.7(280)	
	40 대	43.1	41.5	15.4	68.9(1032)	
	50 대	39.2	30.1	30.7	11.7(176)	19.24***
	60 대이상	50.0	30.0	20.0	0.7(10)	
부모님	하	30.6	47.1	22.3	13.5(121)	
학 력	중	44.0	37.8	18.3	45.1(405)	31.48***
	상	52.7	33.1	14.2	41.4(372)	
부	무학	27.3	36.4	36.4	0.7(11)	37.93***
	국졸	30.4	46.6	23.0	9.9(148)	
	중졸	39.8	43.3	16.9	19.0(284)	
	고졸	44.0	39.7	16.3	43.7(652)	
	대졸	51.3	32.8	15.9	21.0(314)	
	대학원졸	56.6	34.9	8.4	5.6(83)	
모	무학	25.0	32.1	42.9	1.9(28)	0.41
	국졸	33.4	46.5	20.1	20.0(299)	
	중졸	44.5	37.8	17.7	28.6(429)	
	고졸	48.8	37.6	13.6	38.9(582)	
	대졸	49.0	36.2	14.8	9.9(149)	
	대학원졸	27.3	54.5	18.2	0.7(11)	
부모님	비전문직	41.5	40.6	17.9	84.9(643)	13.66
직 업	전문직	44.7	38.6	16.7	15.1(114)	
	부	38.1	35.7	26.2	2.8(42)	11.72*
	일용근로자	38.1	47.5	14.4	7.9(118)	
	근로자	40.1	42.7	17.2	15.2(227)	
	농림어업자	43.2	38.4	18.4	8.4(125)	
	자영업	43.6	39.1	17.3	26.8(399)	
	사무직	46.3	38.2	15.6	31.5(469)	
	관리직	49.2	31.7	19.0	4.2(63)	
	전문직	56.3	33.3	10.4	3.2(48)	
소 득	하	41.8	38.9	19.3	25.1(378)	11.72*
	중	41.6	41.6	16.8	49.9(752)	
	상	51.1	34.9	14.0	25.1(378)	
합 계 (실 수)		44.1 (665)	39.2 (592)	16.7(252)	100.0(1509)	

* $P < .05$ *** $P < .001$

〈표 79〉 멋지다 (모)

M : 1.69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9.8	45.2	15.0	48.6 (759)	12.17**
	여	48.5	39.3	12.2	51.4 (802)	
학 교	중학교	47.2	40.7	12.1	49.1 (767)	6.12*
	고등학교	41.4	43.6	15.0	50.9 (795)	
거주지	서울	48.0	40.9	11.0	24.4 (381)	6.11
	직할시	42.1	42.8	15.1	55.5 (867)	
	기타시	45.5	42.0	12.4	20.1 (314)	
부모님 연 세	30 대	58.3	38.9	2.8	3.8 (36)	25.46***
	40 대	44.1	43.2	12.7	77.8 (732)	
	50 대	39.3	34.7	26.0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25.31**
	30 대	56.4	41.0	2.6	2.6 (39)	
	40 대	45.4	42.7	11.9	65.6 (974)	
	50 대	41.3	41.5	17.2	21.4 (436)	
	60 대이상	48.5	21.2	30.3	2.2 (33)	
모	20 대	-	-	-	-	36.38***
	30 대	50.9	40.6	8.5	18.2 (283)	
	40 대	43.6	43.6	12.7	68.7 (1070)	
	50 대	36.3	38.3	25.4	12.4 (193)	
부모님 학 력	60 대이상	58.3	16.7	25.0	0.8 (12)	26.14***
	하	31.4	48.8	19.8	13.5 (121)	
	중	40.2	44.4	15.3	45.1 (405)	29.43***
	상	53.8	36.3	0.9	41.4 (372)	
부	무학	45.5	27.3	27.3	0.7 (11)	56.38***
	국졸	31.3	51.0	17.7	9.9 (147)	
	중졸	38.2	47.1	14.6	18.9 (280)	
	고졸	45.1	41.1	13.8	43.8 (650)	
	대졸	52.5	35.7	11.8	21.1 (314)	
	대학원졸	53.0	39.8	7.2	5.6 (88)	
모	무학	28.1	40.6	31.3	2.1 (32)	0.15
	국졸	33.8	48.9	17.4	20.3 (317)	
	중졸	39.7	44.3	16.0	28.9 (451)	
	고졸	51.3	39.4	9.4	38.3 (597)	
	대졸	56.7	32.0	11.3	9.6 (150)	
	대학원졸	18.2	63.6	18.2	0.7 (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42.3	42.5	15.2	84.9 (643)	17.70
	전문직	40.4	43.9	15.8	15.1 (114)	
부	무직	29.3	46.3	24.4	2.8 (41)	25.32***
	일용근로자	39.3	45.3	15.4	7.9 (117)	
	근로자	39.6	45.4	15.0	15.3 (227)	
	농림어업자	41.8	45.1	13.1	8.2 (122)	
	자영업	48.1	38.8	13.1	26.8 (397)	
	사무직	44.7	42.1	13.2	31.6 (468)	
	관리직	57.1	34.9	7.9	4.2 (63)	
	전문직	52.1	37.5	10.4	3.2 (48)	
소 득	하	40.1	42.6	17.3	25.9 (404)	25.32***
	중	41.3	45.6	13.1	49.5 (772)	
	상	54.3	35.0	10.7	24.6 (383)	
합 계 (실수)		44.3 (691)	42.2 (658)	13.6 (212)	100.0 (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80 > 예의가 있다 (부)

M : 1.29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5.7	19.0	5.3	48.9 (738)	0.36
	여	75.7	19.6	4.7	51.1 (771)	
학 교	중학교	74.6	21.3	4.1	49.5 (748)	5.31
	고등학교	76.9	17.3	5.8	50.5 (762)	
거주지	서울	78.0	16.4	5.6	21.6 (372)	4.31
	직할시	75.6	20.1	4.3	55.4 (837)	
	기타시	73.4	20.6	6.0	19.9 (301)	
부모님 연 세	30 대	75.0	22.2	2.8	3.8 (36)	5.30
	40 대	77.3	18.1	4.7	77.8 (731)	
	50 대	74.0	17.3	8.7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11.93
	30 대	76.9	20.5	2.6	2.6 (39)	
	40 대	76.3	19.2	4.5	65.5 (977)	
	50 대	74.8	20.2	5.0	29.5 (440)	
	60 대이상	78.8	6.1	15.2	2.2 (33)	
모	20 대	-	-	-	-	11.75
	30 대	74.3	21.4	4.3	18.7 (280)	
	40 대	76.8	18.7	4.5	68.9 (1032)	
	50 대	74.4	17.0	8.5	11.7 (176)	
부모님 학 력	60 대이상	70.0	10.0	20.0	0.7 (10)	6.71
	하	68.6	24.8	6.6	13.5 (121)	
부	중	75.3	20.2	4.4	45.1 (405)	24.02**
	상	79.3	15.9	4.8	41.4 (372)	
모	무학	45.5	29.3	27.3	0.7 (11)	2.94
	국졸	69.6	24.3	6.1	9.9 (148)	
	중졸	74.6	20.8	4.6	19.0 (284)	
	고졸	75.9	19.8	4.3	43.7 (652)	
	대졸	80.6	14.0	5.4	21.0 (314)	
	대학원졸	78.3	19.3	2.4	5.6 (83)	
부	무학	57.1	28.6	14.3	1.9 (28)	21.11
	국졸	74.2	19.7	6.0	20.0 (299)	
	중졸	76.0	19.3	4.7	28.6 (429)	
	고졸	76.6	19.1	4.3	38.9 (582)	
	대졸	81.2	13.4	5.4	9.9 (149)	
	대학원졸	72.7	27.3	-	0.7 (11)	
직 업	비전문직	72.9	22.6	4.5	84.9 (643)	8.04
	전문직	78.1	15.8	6.1	15.1 (114)	
부	무직	78.6	14.3	7.1	2.8 (42)	21.11
	일용근로자	66.1	26.3	7.6	7.9 (118)	
	근로자	74.0	20.7	5.3	15.2 (227)	
	농림어업자	75.2	20.8	4.0	8.4 (125)	
	자영업	72.7	22.8	4.5	26.8 (399)	
	사무직	80.6	14.9	4.5	31.5 (469)	
	관리직	84.1	11.1	4.8	4.2 (63)	
	전문직	79.2	18.8	2.1	3.2 (48)	
소 득	하	72.2	23.3	4.5	25.1 (378)	8.04
	중	75.4	19.3	5.3	49.9 (752)	
	상	79.9	15.3	4.8	25.1 (378)	
합 계 (실수)		75.7 (1143)	19.3 (291)	5.0 (75)	100.0 (1509)	

〈표 81〉 예의가 있다(모)

M : 1.26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6.9	19.1	4.0	48.6(759)	0.21
	여	77.8	18.6	3.6	51.4(802)	
학 교	중학교	78.7	17.9	3.4	49.1(765)	1.69
	고등학교	76.1	19.7	4.2	50.9(795)	
거주지	서울	82.4	12.9	4.7	24.4(381)	12.62*
	직할시	75.4	21.1	3.5	55.5(867)	
	기타시	76.8	19.7	3.5	20.1(314)	
연 세	30대	72.2	19.4	8.3	3.8(36)	2.30
	40대	79.0	17.2	3.8	77.8(732)	
	50대	78.0	18.5	3.5	18.4(173)	
부	20대	100.0	-	-	0.2(2)	8.18
	30대	74.4	17.9	7.7	2.6(39)	
	40대	78.1	18.5	3.4	65.6(974)	
	50대	75.2	20.9	3.9	29.4(436)	
	60대이상	81.8	9.1	9.1	2.2(33)	
모	20대	-	-	-	-	10.33
	30대	74.9	22.3	2.8	18.2(283)	
	40대	78.0	17.9	4.1	68.7(1070)	
	50대	78.8	18.7	2.6	12.4(193)	
부모님	60대이상	75.0	8.3	16.7	0.8(12)	10.02*
	하	69.4	25.6	5.0	13.5(121)	
학 력	중	75.1	22.0	3.0	45.1(405)	16.81
	상	81.5	15.3	3.2	41.4(372)	
부	무학	54.5	27.3	18.2	0.7(11)	9.80
	국졸	71.4	24.5	4.1	9.9(147)	
	중졸	76.1	20.0	3.9	18.9(280)	
	고졸	76.6	19.8	3.5	43.8(650)	
	대졸	82.8	13.7	3.5	21.1(314)	
	대학원졸	78.3	18.1	3.5	5.6(83)	
모	무학	71.9	21.9	6.3	2.1(32)	0.22
	국졸	76.0	19.6	4.4	20.3(317)	
	중졸	75.4	21.3	3.3	28.9(451)	
	고졸	79.2	17.6	3.2	38.3(597)	
	대졸	82.0	12.7	5.3	9.6(150)	
부모님	대학원졸	72.7	18.2	9.1	0.7(11)	15.50
	비전문직	76.0	20.4	3.6	84.9(643)	
직 업	전문직	76.3	19.3	4.4	15.1(114)	8.38
	무직	68.3	19.5	12.2	2.8(41)	
부	일용근로자	74.4	22.2	3.4	7.9(117)	8.38
	근로자	74.4	21.6	4.0	15.3(227)	
	농림어업자	77.0	19.7	3.3	8.2(122)	
	자영업	76.6	19.4	4.0	26.8(397)	
	사무직	79.7	17.1	3.2	31.6(468)	
	관리직	82.5	12.7	4.8	4.2(63)	
	전문직	81.3	18.8	-	3.2(48)	
소 득	하	74.0	20.8	5.2	25.9(404)	8.38
	중	76.9	19.3	3.8	49.5(772)	
	상	81.7	15.9	2.3	24.6(383)	
합 계(실수)		77.4(1208)	18.8(294)	3.8(59)	100.0(1561)	

〈 표 82 〉 이해성이 많다 (부)

M : 1.67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4.1	32.0	14.0	48.9 (738)	14.82***
	여	47.0	31.9	21.1	51.1 (771)	
학 교	중학교	55.7	32.1	12.2	49.5 (748)	33.42***
	고등학교	45.1	31.9	23.0	50.5 (762)	
거주지	서울	49.2	31.2	19.6	24.6 (372)	1.86
	직할시	50.2	32.7	17.1	55.4 (837)	
	기타시	52.5	30.9	16.6	19.9 (301)	
부모님	30 대	50.0	30.6	19.4	3.8 (36)	9.50*
연 세	40 대	51.8	31.2	17.0	77.8 (731)	
	50 대	42.2	31.2	26.6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9.85
	30 대	46.2	33.3	20.5	2.6 (39)	
	40 대	51.4	32.3	16.3	65.5 (977)	
	50 대	48.2	32.0	19.8	29.5 (440)	
	60 대이상	42.4	27.3	30.3	2.2 (33)	
모	20 대	-	-	-	-	11.95
	30 대	51.4	33.6	15.0	18.7 (280)	
	40 대	51.5	31.5	17.1	68.9 (1032)	
	50 대	42.6	32.4	25.0	11.7 (176)	
	60 대이상	60.0	10.0	30.0	0.7 (10)	
부모님	하	47.1	35.5	17.4	13.5 (121)	9.43*
학 력	중	46.4	36.5	17.0	45.1 (405)	
	상	55.9	27.2	16.9	41.4 (372)	
부	무학	27.3	45.5	27.3	0.7 (11)	11.85
	국졸	45.3	37.8	16.9	9.9 (148)	
	중졸	45.8	35.2	19.0	19.0 (284)	
	고졸	50.3	32.1	17.6	43.7 (652)	
	대졸	55.7	27.1	17.2	21.0 (314)	
	대학원졸	54.2	30.1	15.7	5.6 (83)	
모	무학	35.7	32.1	32.1	1.9 (28)	14.05
	국졸	48.2	33.8	18.1	20.0 (299)	
	중졸	46.9	36.1	17.0	28.6 (429)	
	고졸	54.3	28.0	17.7	38.9 (582)	
	대졸	53.7	30.2	16.1	9.9 (149)	
	대학원졸	45.5	36.4	18.2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49.6	30.2	20.2	84.9 (643)	2.04
직 업	전문직	45.6	36.8	17.5	15.1 (114)	
	무직	50.0	26.2	23.8	2.8 (42)	
부	일용근로자	42.4	39.0	18.6	7.9 (118)	13.31
	근로자	48.9	33.0	18.1	15.2 (227)	
	농림어업자	53.6	28.8	17.6	3.4 (125)	
	자영업	48.1	32.3	19.5	26.8 (399)	
	사무직	52.5	33.3	14.5	31.5 (469)	
	관리직	55.6	25.4	19.0	4.2 (63)	
	전문직	54.2	22.9	22.9	3.2 (48)	
소 득	하	50.0	32.8	17.2	25.1 (378)	3.06
	중	48.8	33.1	18.1	49.9 (752)	
	상	54.0	28.8	17.2	25.1 (378)	
합 계 (실수)		50.4(761)	31.9(482)	17.6 (266)	100.0(1509)	

* P < .05 *** P < .001

〈 표 83 〉 이해성이 많다 (모)

M : 1.508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63.6	24.6	11.7	48.6(759)	2.52
	여	59.7	27.2	13.1	51.4(802)	
학 교	중학교	63.2	26.3	10.4	49.1(767)	5.53
	고등학교	60.0	25.7	14.3	50.9(795)	
거주지	서울	63.5	25.7	10.8	24.4(381)	5.08
	직할시	60.2	27.5	12.3	55.5(867)	
	기타시	63.1	22.3	14.6	20.1(314)	
부모님	30 대	52.8	33.3	13.9	3.8(36)	6.66
연 세	40 대	62.4	26.4	11.2	77.8(732)	
	50 대	62.4	20.8	16.8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7.12
	30 대	51.3	33.3	15.4	2.6(39)	
	40 대	61.7	26.7	11.6	65.6(974)	
	50 대	60.8	25.5	13.8	29.4(436)	
	60 대이상	60.6	18.2	21.2	2.2(33)	
모	20 대	-	-	-	-	5.60
	30 대	58.7	28.6	12.7	18.2(283)	
	40 대	62.4	26.0	11.6	68.7(1070)	
	50 대	61.7	22.3	16.1	12.4(193)	
	60 대이상	66.7	16.7	16.7	0.8(12)	
부모님	하	58.7	27.3	14.0	13.5(121)	1.56
학 령	중	62.2	27.4	10.4	45.1(405)	
	상	61.0	26.6	12.4	41.4(372)	
부	무학	81.8	9.1	9.1	0.7(11)	7.99
	국졸	59.2	28.6	12.2	9.9(147)	
	중졸	65.4	23.2	11.4	18.9(280)	
	고졸	59.7	27.2	13.1	43.8(650)	
	대졸	62.1	26.4	11.5	21.1(314)	
모	대학원졸	55.4	26.5	18.1	5.6(83)	7.13
	무학	68.8	18.8	12.5	2.1(32)	
	국졸	60.9	24.6	14.5	20.3(317)	
	중졸	63.0	26.6	10.4	28.9(451)	
	고졸	62.1	25.1	12.7	38.3(597)	
	대졸	57.3	30.7	12.0	9.6(150)	5.77*
	대학원졸	45.5	36.4	18.2	0.7(11)	
부모님	비전문직	63.8	24.1	12.1	84.9(643)	
직 업	전문직	55.5	27.2	19.3	15.1(114)	
부	무직	58.5	24.4	17.1	2.8(41)	8.94
	일용근로자	65.0	25.6	9.4	7.9(117)	
	근로자	61.2	26.4	12.3	15.3(227)	
	농림어업자	64.8	24.6	10.7	8.2(122)	
	자영업	61.2	26.2	12.6	26.8(397)	
	사무직	58.5	28.2	13.0	31.6(468)	
	관리직	69.8	20.6	9.5	4.2(63)	
	전문직	56.3	22.9	20.8	3.2(48)	
	소 득	59.2	27.2	13.6	25.9(404)	1.56
	중	62.6	25.3	12.2	49.5(772)	
	상	62.1	26.1	11.7	24.6(383)	
합 계 (실 수)		61.6(962)	25.9(405)	12.4(194)	100.0(156)	

〈 표 84 〉 자신감이 넘친다 (부)

M: 1.71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9.3	47.4	13.3	48.9 (738)	1.48
	여	41.9	46.4	11.7	51.1 (771)	
학 교	중학교	43.3	47.5	9.2	49.5 (748)	15.16***
	고등학교	37.9	46.5	15.6	50.5 (762)	
거주지	서울	45.2	45.7	9.1	24.6 (372)	7.70
	직할시	39.8	47.0	13.3	55.4 (837)	
	기타시	37.2	48.5	14.3	19.9 (301)	
부모님	30 대	55.6	36.1	8.3	3.8 (36)	31.33***
연 세	40 대	39.9	49.5	10.5	77.8 (731)	
	50 대	34.7	39.9	25.4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30.19***
	30 대	56.4	33.3	10.3	2.6 (39)	
	40 대	40.8	48.6	10.5	65.5 (977)	
	50 대	39.1	45.7	15.2	29.5 (440)	
	60 대이상	30.3	33.3	36.4	2.2 (33)	
모	20 대	-	-	-	-	33.28***
	30 대	46.1	43.9	10.0	18.7 (280)	
	40 대	40.0	48.9	11.0	68.9 (1032)	
	50 대	34.1	42.6	23.3	11.7 (176)	
	60 대이상	40.0	20.0	40.0	0.7 (10)	
부모님	하	37.2	45.5	17.4	13.5 (121)	35.03***
학 력	중	34.6	51.1	14.3	45.1 (405)	
	상	52.7	40.9	6.5	41.4 (372)	54.24***
부	무학	18.2	36.4	45.5	0.7 (11)	
	국졸	34.5	47.3	18.2	9.9 (148)	
	중졸	33.8	48.9	17.3	19.0 (284)	
	고졸	38.7	49.5	11.8	43.7 (652)	
	대졸	48.4	44.3	7.3	21.0 (314)	
	대학원졸	61.4	32.5	6.0	5.6 (83)	
모	무학	21.4	32.1	46.4	1.9 (28)	76.69***
	국졸	33.8	48.5	17.7	20.0 (299)	
	중졸	34.3	51.3	14.5	28.6 (429)	
	고졸	45.2	46.7	8.1	38.9 (582)	
	대졸	57.0	35.6	7.4	9.9 (149)	
	대학원졸	36.4	54.5	9.1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37.9	46.8	15.2	84.9 (643)	6.49*
직 업	전문직	50.0	35.1	14.9	15.1 (114)	
부	무직	35.7	38.1	26.2	2.8 (42)	36 37.76***
	일용근로자	33.9	51.7	14.4	7.9 (118)	
	근로자	38.3	48.9	12.8	15.2 (227)	
	농림어업자	32.8	46.4	20.8	8.4 (125)	
	자영업	40.9	46.6	12.5	26.8 (399)	
	사무직	41.4	48.2	10.4	31.5 (469)	
	관리직	58.7	41.3	-	4.2 (63)	
	전문직	54.2	37.5	8.3	3.2 (48)	
	전문직	54.2	37.5	8.3	3.2 (48)	
소 득	하	38.1	45.8	16.1	25.1 (378)	16.44**
	중	38.2	49.6	12.2	49.9 (752)	
	상	47.9	42.9	9.3	25.1 (378)	
합 계 (실수)		40.6 (613)	46.9 (708)	12.5 (188)	100.0 (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85 〉 자신감이 넘친다 (모)

M : 1.801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31.2	56.1	12.6	48.6 (759)	3.23
	여	34.8	51.6	13.6	51.4 (802)	
학 교	중학교	36.9	52.8	10.3	49.1 (767)	16.26***
	고등학교	29.3	54.8	15.8	50.9 (795)	
거주지	서울	39.4	48.6	12.1	24.4 (381)	15.92**
	직할시	31.1	55.1	13.7	55.5 (867)	
	기타시	30.6	56.7	12.7	20.1 (314)	
부모님	30 대	38.9	52.8	8.3	3.8 (36)	17.44
연 세	40 대	33.5	55.1	11.5	77.8 (732)	
	50 대	28.9	48.6	22.5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19.77**
	30 대	41.0	48.7	10.3	2.6 (39)	
	40 대	34.3	54.5	11.2	65.6 (974)	
	50 대	30.3	51.4	18.3	29.4 (436)	
	60 대이상	30.3	60.6	9.1	2.2 (33)	
모	20 대	-	-	-	-	23.93***
	30 대	36.9	53.0	10.2	18.2 (283)	
	40 대	32.8	54.8	12.4	68.7 (1070)	
	50 대	28.5	49.2	22.3	12.4 (193)	
	60 대이상	33.3	66.7	-	0.8 (12)	
부모님	하	26.4	57.0	16.5	13.5 (121)	26.33**
학 력	중	27.2	57.8	15.1	45.1 (405)	
	상	42.5	46.5	11.0	41.4 (372)	60.93***
	부	무학	45.5	27.3	27.3	
	국졸	25.9	57.1	17.0	9.9 (147)	
	중졸	29.3	54.6	16.1	18.9 (280)	
	고졸	31.2	56.8	12.0	43.8 (650)	
	대졸	40.8	47.1	12.1	21.1 (314)	
	대학원졸	43.4	48.2	8.4	5.6 (83)	
모	무학	21.9	40.6	37.5	2.1 (32)	0.42
	국졸	27.1	59.0	13.9	20.3 (317)	
	중졸	27.1	57.4	15.5	28.9 (451)	
	고졸	36.0	52.9	11.1	38.3 (597)	
	대졸	52.0	39.3	8.7	9.6 (150)	
	대학원졸	54.5	45.5	-	0.7 (11)	7.73
부모님	비전문직	30.6	54.6	14.8	84.9(643)	
직 업	전문직	33.3	53.5	13.2	15.1(114)	11.97*
	부	무직	34.1	53.7	12.2	
	일용근로자	33.3	52.1	14.5	7.9(117)	
	근로자	33.9	54.6	11.5	15.3(227)	
	농림어업자	31.1	50.0	18.9	8.2(122)	
	자영업	32.0	55.4	12.6	26.8(397)	
	사무직	32.5	54.1	13.5	31.6(468)	
	관리직	39.7	49.2	11.1	4.2(63)	
	전문직	41.7	47.9	10.4	3.2(48)	
소 득	하	29.2	55.7	15.1	25.9(404)	
	중	31.7	55.1	13.2	49.5(772)	
	상	39.7	49.6	10.7	24.6(383)	
합 계 (실수)		33.1 (516)	53.8 (840)	13.1 (205)	100.0 (156)	

* P < .05 ** P < .01 *** P < .001

〈 표 86 〉 밀을 수 있다 (부)

M : 1.375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2.5	20.7	6.8	48.9(738)	3.88
	여	68.1	23.2	8.7	51.1(771)	
학 교	중학교	78.9	22.2	5.9	49.5(748)	7.30*
	고등학교	61.5	21.9	9.6	50.5(762)	
거주지	서울	68.1	21.2	9.7	24.6(372)	4.25
	직할시	69.5	23.2	7.3	55.4(837)	
	기타시	79.4	19.9	6.6	19.9(301)	
부모님 연 세	30 대	53.3	36.1	5.6	3.8(36)	10.68*
	40 대	71.0	22.7	6.3	77.8(731)	
	50 대	65.3	22.5	12.1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10.61
	30 대	61.5	33.3	5.1	2.6(39)	
	40 대	71.3	21.9	7.1	65.5(977)	
	50 대	70.0	20.7	9.3	29.5(440)	
	60 대이상	54.5	36.4	9.1	2.2(33)	
모	20 대	-	-	-	-	9.25
	30 대	70.7	20.7	8.6	18.7(280)	
	40 대	70.9	22.5	6.6	68.9(1032)	
	50 대	64.8	22.7	12.5	11.7(176)	
	60 대이상	80.0	10.0	10.0	0.7(10)	
부모님	하	71.1	18.2	10.7	13.5(121)	5.06
학 력	중	70.1	21.7	8.1	45.1(405)	
	상	72.6	22.0	5.4	41.4(372)	
부	무학	54.5	27.3	18.2	0.7(11)	12.67
	국졸	70.9	18.2	10.8	9.9(148)	
	중졸	71.5	20.1	8.5	19.0(284)	
	고졸	68.6	23.8	7.7	43.7(652)	
	대졸	69.7	23.9	6.4	21.0(314)	
	대학원졸	80.7	15.7	3.6	5.6(83)	
모	무학	53.6	25.0	21.4	1.9(28)	18.84*
	국졸	70.6	18.7	10.7	20.0(299)	
	중졸	70.4	21.7	7.9	28.6(429)	
	고졸	69.9	24.2	5.8	38.9(582)	
	대졸	73.2	20.8	6.0	9.9(149)	
	대학원졸	72.7	27.3	-	0.7(11)	
부모님	비전문직	69.1	21.6	9.3	84.9(643)	0.54
직 업	전문직	65.8	24.6	9.6	15.1(114)	
부	무직	57.1	23.8	19.0	2.8(42)	22.08
	일용근로자	66.9	22.9	10.2	7.9(118)	
	근로자	67.4	24.2	8.4	15.2(227)	
	농림어업자	80.8	14.4	4.8	8.4(125)	
	자영업	67.7	24.1	8.3	26.8(399)	
	사무직	71.0	22.2	6.8	31.5(469)	
	관리직	77.8	19.0	3.2	4.2(63)	
	전문직	77.1	16.7	6.3	3.2(48)	
소 득	하	69.0	22.2	8.7	25.1(378)	1.37
	중	69.9	22.5	7.6	49.9(752)	
	상	72.2	20.6	7.1	25.1(378)	
합 계 (실수)		70.2(1060)	22.0(332)	11.7(7.8)	100.0(1509)	

* $P < .05$

〈표 87〉 믿을 수 있다 (문)

M : 1.33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4.3	18.8	6.9	48.6 (759)	0.66
	여	72.6	19.8	7.6	51.4 (802)	
학 교	중학교	71.8	21.0	7.2	49.1 (767)	2.45
	고등학교	74.8	17.9	7.3	50.9 (795)	
거주지	서울	72.7	18.1	9.2	24.4 (381)	6.89
	직할시	72.1	21.0	6.9	55.5 (867)	
	기타시	77.7	16.6	5.7	20.1 (314)	
부모님 연 세	30 대	69.4	22.2	8.3	3.8 (36)	0.58
	40 대	72.7	19.5	7.8	77.8 (732)	
	50 대	71.1	19.7	9.2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4.93
	30 대	71.8	20.5	7.7	2.6 (39)	
	40 대	72.0	20.2	7.8	65.6 (974)	
	50 대	76.4	17.4	6.2	29.4 (436)	
	60 대 이상	69.7	18.2	12.1	2.2 (33)	
모	20 대	-	-	-	-	6.78
	30 대	69.6	23.7	6.7	18.2 (283)	
	40 대	74.8	18.3	6.9	68.7 (1070)	
	50 대	70.5	20.2	9.2	12.4 (193)	
	60 대 이상	83.3	8.3	8.3	0.8 (12)	
부모님 학 력	하	77.7	15.7	6.6	13.5 (121)	3.55
	중	75.8	18.5	5.7	45.1 (405)	
	상	71.2	21.0	7.8	41.4 (372)	
부	무학	72.7	-	27.3	0.7 (11)	14.15
	국졸	76.9	17.7	5.4	9.9 (147)	
	중졸	76.1	17.5	6.4	18.9 (280)	
	고졸	72.9	19.5	7.5	43.8 (650)	
	대졸	69.1	22.9	8.0	21.1 (314)	
	대학원졸	75.9	15.7	8.4	5.6 (83)	
	모	무학	68.8	15.6	2.1 (32)	9.90
	국졸	75.7	17.0	7.3	20.3 (317)	
	중졸	74.9	19.3	5.8	28.9 (451)	
	고졸	71.4	21.1	7.5	38.3 (597)	
	대졸	74.0	18.0	8.0	9.6 (150)	
	대학원졸	54.5	36.4	9.1	0.7 (11)	
	부모님 비 전문직	74.7	19.1	6.2	84.9 (643)	2.87
직 업	전문직	70.2	19.3	10.5	15.1 (114)	
	부 무직	53.7	26.8	19.5	2.8 (41)	31.78**
	일용근로자	70.9	17.9	11.1	7.9 (117)	
	근로자	75.8	16.7	7.5	15.3 (227)	
	농림어업자	84.4	13.1	2.5	8.2 (122)	
	자영업	72.8	22.2	5.0	26.8 (397)	
	사무직	72.0	20.1	7.9	31.6 (468)	
	관리직	69.8	20.6	9.5	4.2 (63)	
	전문직	75.0	12.5	12.5	3.2 (48)	
소 득	하	69.8	21.5	8.7	25.9 (404)	3.82
	중	74.7	18.4	6.9	49.5 (772)	
	상	74.2	19.3	6.5	24.6 (383)	
합 계 (실수)		73.4 (1146)	19.3 (302)	7.2 (113)	100.0 (1561)	

< 표 88 > 행복하다 (부)

M : 1.558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5.1	34.1	10.7	48.9(738)	0.52
	여	55.5	32.8	11.7	51.1(771)	
학 교	중학교	62.0	30.3	7.6	49.5(748)	33.04***
	고등학교	48.8	36.5	14.7	50.5(762)	
거주지	서울	56.2	32.5	11.3	24.6(372)	1.35
	직할시	54.4	34.6	11.0	55.4(837)	
	기타시	57.1	31.2	11.6	19.9(301)	
부모님	30 대	66.7	16.7	16.7	3.8(36)	17.06**
연 세	40 대	54.6	35.3	10.1	77.8(731)	
	50 대	48.0	32.4	19.7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21.10*
	30 대	69.2	15.4	15.4	2.6(39)	
	40 대	55.6	34.8	9.6	65.5(977)	
	50 대	54.5	32.7	12.7	29.5(440)	
	60 대이상	42.4	30.3	27.3	2.2(33)	
	모	20 대	—	—	—	
30 대	61.1	30.0	8.9	18.7(280)		
40 대	55.2	34.4	10.4	68.9(1032)		
50 대	47.7	33.5	18.8	11.7(176)		
60 대이상	50.0	20.0	20.0	0.7(10)		
부모님	하	50.4	34.7	14.9	13.5(121)	4.46
학 력	중	56.0	33.8	10.1	45.1(405)	
	상	57.8	33.6	8.6	41.4(372)	
부	무학	27.3	36.4	36.4	0.7(11)	14.60
	국졸	50.7	34.5	14.9	9.9(148)	
	중졸	59.5	29.9	10.6	19.0(284)	
	고졸	54.1	35.0	10.9	43.7(652)	
	대졸	56.1	34.1	9.9	21.0(314)	
	대학원졸	60.2	31.3	8.4	5.6(83)	
모	무학	28.6	35.7	35.7	1.9(28)	27.54*
	국졸	52.8	32.8	14.4	20.0(299)	
	중졸	56.2	33.1	10.7	28.6(429)	
	고졸	58.4	32.8	8.8	38.9(592)	
	대졸	52.3	36.9	10.7	9.9(149)	
	대학원졸	45.5	36.4	18.2	0.7(11)	
부모님	비전문직	53.8	34.2	12.0	84.9(643)	0.94
직 업	전문직	49.1	38.6	12.3	15.1(114)	
부	무직	52.4	23.8	23.8	2.8(42)	20.06
	일용근로자	50.8	41.5	7.6	7.9(118)	
	근로자	59.5	30.4	10.1	15.2(227)	
	농림어업자	53.6	32.0	14.4	8.4(125)	
	자영업	52.6	34.8	12.5	26.8(399)	
	사무직	56.5	33.5	10.0	31.5(469)	
	관리직	61.9	28.6	9.5	4.2(63)	
	전문직	56.3	39.6	4.2	3.2(48)	
소 득	하	50.0	35.7	14.3	25.1(378)	8.45 *
	중	56.3	33.4	10.4	49.9(752)	
	상	59.0	31.2	9.8	25.1(378)	
합 계(실수)		55.3(835)	33.5(505)	11.2(169)	100.0(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89 〉 행복하다 (모)

M : 1.55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7.8	31.6	10.5	48.6(759)	3.68
	여	56.0	30.3	13.7	51.4(802)	
학 교	중학교	64.0	27.0	9.0	49.1(767)	33.32***
	고등학교	50.1	34.7	15.2	50.9(795)	
거주지	서울	57.2	28.9	13.9	24.4(381)	3.46
	직할시	55.8	32.5	11.6	55.5(867)	
	기타시	59.6	29.0	11.5	20.1(314)	
부모님 연 세	30 대	63.9	22.2	13.9	3.8(36)	6.65
	40 대	55.3	32.4	12.3	77.8(732)	
	50 대	54.3	27.2	18.5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16.06
	30 대	66.7	20.5	12.8	2.6(39)	
	40 대	56.9	32.3	10.8	65.6(974)	
	50 대	57.6	28.7	13.8	29.4(436)	
	60 대이상	57.6	18.2	24.2	2.2(33)	
	모	20 대	-	-	-	
30 대	62.2	29.7	8.1	18.2(283)		
40 대	56.4	31.3	12.2	68.7(1070)		
50 대	50.8	31.6	17.6	12.4(193)		
60 대이상	60.7	16.7	16.7	0.8(12)		
부모님 학 력	하	55.4	31.4	13.2	13.5(121)	2.05
부	중	59.5	28.1	12.3	45.1(405)	
	상	52.8	31.7	10.5	41.4(372)	
	무학	27.3	27.3	45.5	0.7(11)	18.82*
국졸	55.1	32.7	12.2	9.9(147)		
중졸	63.9	25.4	10.7	18.9(280)		
고졸	55.2	32.3	12.5	43.8(650)		
대졸	57.6	31.2	11.1	21.1(314)		
대학원졸	56.6	31.3	12.0	5.6(83)	29.53***	
모	무학	25.0	37.5	37.5		2.1(32)
국졸	57.1	30.9	12.0	20.3(317)		
중졸	58.3	28.2	13.5	28.9(451)		
고졸	58.5	31.5	10.1	38.3(597)		
대졸	53.3	35.3	11.3	9.6(150)		
대학원졸	45.5	36.4	18.2	0.7(11)	4.3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57.5	29.9	12.6		84.9(643)
부	전문직	47.4	38.6	14.0	15.1(114)	8.71
	무직	53.7	24.4	22.0	84.9(643)	
	일용근로자	58.1	29.9	12.0	7.9(117)	
	근로자	59.9	29.1	11.0	15.3(227)	
	농림어업자	60.7	25.4	13.9	8.2(122)	
	자영업	54.9	32.7	12.3	26.8(397)	
	사무직	57.7	31.2	11.1	31.6(468)	
	관리직	58.7	31.7	9.5	4.2(63)	
	전문직	52.1	35.4	12.5	3.2(48)	
	소 득	하	55.4	31.4	13.1	
중	56.9	31.9	11.3	49.5(772)		
상	58.7	28.5	12.2	24.6(383)		
합 계 (실 수)		56.9(888)	30.9(483)	12.2(190)	100.0(1561)	

* P < .05. *** P < .001

<표 90> 위선적이다 (부)

M : 2.531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9.5	29.0	61.5	48.9 (738)	1.77
	여	10.0	25.9	64.1	51.1 (771)	
학 교	중학교	8.3	32.4	59.4	49.5 (748)	19.22***
	고등학교	11.2	22.6	66.3	50.5 (762)	
거주지	서울	12.1	25.3	62.6	24.6 (372)	7.80
	직할시	10.0	27.8	62.1	55.4 (837)	
	기타시	6.0	28.9	65.1	19.9 (301)	
부모님	30 대	22.2	22.2	55.6	3.8 (36)	9.40*
연 세	40 대	8.5	28.2	63.3	77.8 (731)	
	50 대	12.1	24.3	63.6	18.4 (173)	
부	20 대	-	-	100.0	0.2 (2)	22.04*
	30 대	20.5	25.6	53.8	2.6 (39)	
	40 대	8.7	29.0	62.3	65.5 (977)	
	50 대	10.9	26.1	63.0	29.5 (440)	
	60 대이상	9.1	12.1	78.8	2.2 (33)	
모	20 대	-	-	-	-	3.86
	30 대	11.4	28.4	59.6	18.7 (280)	
	40 대	9.0	27.4	63.6	68.9 (1032)	
	50 대	11.9	24.4	63.6	11.7 (176)	
	60 대이상	10.0	20.0	70.0	0.7 (10)	
부모님	하	8.3	33.9	57.9	13.5 (121)	7.28
학 력	중	8.4	29.1	62.5	45.1 (405)	
부	상	11.3	23.4	65.3	41.4 (372)	8.20
	무학	9.1	36.4	54.5	0.7 (11)	
	국졸	8.1	33.1	58.8	9.9 (148)	
	중졸	10.6	27.1	62.3	19.0 (284)	
	고졸	8.6	28.7	62.7	43.7 (652)	
	대졸	12.1	23.9	64.0	21.0 (314)	
모	대학원졸	9.6	24.1	66.3	5.6 (83)	4.56
	무학	14.3	25.0	60.7	1.9 (28)	
	국졸	9.0	28.1	62.9	20.0 (299)	
	중졸	9.1	28.9	62.0	28.6 (429)	
	고졸	9.8	27.1	63.1	38.9 (582)	
	대졸	12.8	22.8	64.4	9.9 (149)	
부	대학원졸	9.1	18.2	72.7	0.7 (11)	2.79
	비전문직	9.8	25.0	65.2	84.9 (643)	
	전문직	12.3	30.7	57.0	15.1 (114)	
	무직	11.9	35.7	52.4	2.8 (42)	
	일용근로자	8.5	35.6	55.9	7.9 (118)	
	근로자	8.8	26.0	65.2	15.2 (227)	
부	농림어업자	7.2	24.8	68.0	8.4 (125)	13.70
	자영업	11.0	26.3	62.7	26.8 (399)	
	사무직	10.2	28.8	61.0	31.5 (469)	
	관리직	11.1	19.0	69.8	4.2 (63)	
	전문직	4.2	27.1	68.8	3.2 (48)	
	소 득	8.7	28.3	63.0	25.1 (378)	
소 득	중	9.6	27.0	63.4	49.9 (752)	1.43
	상	11.1	27.2	61.6	25.1 (378)	
	합 계 (실수)	9.7 (147)	27.4 (44)	62.8 (948)	100.0 (1509)	

* $P < .05$ *** $P < .001$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8.6	27.8	63.6	48.6 (759)	2.20
	여	8.2	24.7	67.1	51.4 (802)	
학 교	중학교	8.7	31.0	60.2	49.1 (767)	19.94***
	고등학교	8.1	21.5	70.4	50.9 (795)	
거주지	서울	10.0	23.6	66.4	24.4 (381)	8.25
	직환시	9.0	26.9	64.1	55.5 (867)	
	기타시	4.8	27.4	67.8	20.1 (314)	
부모님	30 대	11.1	22.2	66.7	3.8 (36)	3.17
연 세	40 대	8.3	27.5	64.2	77.8 (732)	
	50 대	7.5	22.0	70.5	18.4 (173)	
부	20 대	-	100.0	-	0.2 (2)	13.97
	30 대	10.3	25.6	64.1	2.6 (39)	
	40 대	8.5	27.7	62.8	65.6 (974)	
	50 대	7.8	24.5	67.7	29.4 (436)	
	60 대이상	6.1	9.1	84.8	2.2 (33)	
모	20 대	-	-	-	-	4.65
	30 대	10.2	26.5	63.3	18.2 (283)	
	40 대	7.9	26.6	65.5	68.7 (1070)	
	50 대	9.3	22.3	68.4	12.4 (193)	
	60 대이상	-	33.3	66.7	0.8 (12)	2.30
부모님	하	6.6	28.9	64.5	13.5 (121)	
학 력	중	7.2	24.9	67.9	45.1 (405)	
	상	9.1	26.6	64.2	41.4 (372)	6.81
부	무학	-	36.4	63.6	0.7 (11)	
	국졸	5.4	27.9	66.7	9.9 (147)	
	중졸	8.9	25.7	65.4	18.9 (280)	
	고졸	8.2	26.0	65.8	43.8 (650)	
	대졸	8.3	28.0	63.7	21.1 (314)	
	대학원졸	13.3	21.7	65.1	5.6 (280)	9.67
모	무학	6.3	28.1	65.6	2.1 (32)	
	국졸	6.6	26.8	66.6	20.3 (317)	
	중졸	7.5	25.1	67.4	28.9 (451)	
	고졸	8.7	26.6	64.7	38.3 (597)	
	대졸	13.3	24.7	62.0	9.6 (150)	
	대학원졸	18.2	36.4	45.5	0.7 (11)	0.33
부모님	비전문직	7.8	24.7	67.5	84.9 (643)	
직 업	전문직	7.9	27.2	64.9	15.1 (114)	15.26
부	무직	17.1	34.1	48.8	2.8 (41)	
	일용근로자	6.0	33.3	60.7	7.9 (117)	
	근로자	6.6	26.4	67.0	15.3 (227)	
	농림어업자	5.7	23.0	71.3	8.2 (122)	
	자영업	8.8	25.2	66.0	26.8 (397)	
	사무직	9.6	26.3	64.1	31.6 (468)	
	관리직	6.3	23.8	69.8	4.2 (63)	
	전문직	6.3	25.0	68.8	3.2 (48)	2.09
소 득	하	8.7	28.0	63.4	25.9 (404)	
	중	7.8	26.0	66.2	49.5 (772)	
	상	9.4	24.5	66.1	24.6 (383)	
합 계 (실수)		8.4 (131)	26.2 (409)	65.4 (1021)	100.0 (1561)	

*** P < .001

< 표 92 > 솔직하다 (부)

M : 1.47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60.6	31.4	8.0	48.9(738)	0.91
	여	61.2	29.7	9.1	51.1(771)	
학 교	중학교	64.8	29.0	6.1	49.5(748)	14.78***
	고등학교	57.1	32.0	10.9	50.5(762)	
거주지	서울	61.6	30.1	8.3	24.6(372)	2.39
	직할시	59.7	31.9	8.4	55.4(837)	
	기타시	63.5	27.2	9.3	19.9(303)	
부모님 연 세	30 대	69.4	19.4	11.1	3.8(36)	11.99*
	40 대	61.3	31.5	7.3	77.8(731)	
	50 대	52.0	34.1	13.9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11.30
	30 대	69.2	20.5	10.3	2.6(39)	
	40 대	62.0	30.8	7.2	65.5(977)	
	50 대	57.3	31.1	11.6	29.5(440)	
	60 대이상	60.6	30.3	9.1	2.2(33)	
모	20 대	-	-	-	-	12.21
	30 대	65.4	26.8	7.9	18.7(280)	
	40 대	61.1	30.9	7.9	68.9(1032)	
	50 대	52.3	34.1	13.6	11.7(176)	
부모님 학 력	60 대이상	60.0	40.0	-	0.7(10)	2.10
	하	57.9	34.7	7.4	13.5(121)	
	중	61.5	30.6	7.9	45.1(405)	4.11
	상	60.2	29.8	9.9	41.4(372)	
부	무학	72.7	18.2	9.1	0.7(11)	26.98**
	국졸	57.4	33.1	9.5	9.9(148)	
	중졸	61.6	30.6	7.7	19.0(284)	
	고졸	61.7	30.7	7.7	43.7(652)	
	대졸	60.2	29.6	10.2	21.0(314)	
	대학원졸	59.0	30.1	10.8	5.6(83)	
모	무학	60.7	10.7	28.6	1.9(28)	1.13
	국졸	60.5	31.8	7.7	20.0(299)	
	중졸	61.1	30.5	8.4	28.6(429)	
	고졸	59.6	33.0	7.4	38.9(582)	
	대졸	67.1	21.5	11.4	9.9(149)	18.37
	대학원졸	45.5	45.5	9.1	0.7(11)	
	비전문직	60.7	30.9	8.4	84.9(643)	
	전문직	59.6	28.9	11.4	15.1(114)	
부	무직	52.4	28.6	19.0	2.8(42)	2.13
	일용근로자	60.2	31.4	8.5	7.9(118)	
	근로자	61.2	31.3	7.5	15.2(227)	
	농림어업자	69.6	23.2	7.2	8.4(125)	
	자영업	56.9	35.1	8.0	26.8(399)	
	사무직	62.7	28.1	9.2	41.5(469)	
	관리직	66.7	25.4	7.9	4.2(63)	
	전문직	52.1	39.6	8.3	3.2(48)	
	하	62.4	30.2	7.4	25.1(378)	
소 득	중	59.4	31.6	8.9	49.9(752)	2.13
	상	62.4	28.6	9.0	25.1(378)	
합 계 (실수)		60.9(919)	30.6(461)	8.5(129)	100.0(1509)	

*P < .05. ** P < .01. *** P < .001

〈 표 93 〉 솔직하다 (모)

M : 1.45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63.5	28.6	7.9	48.6 (759)	0.89
	여	63.0	27.8	9.2	51.4 (802)	
학 교	중학교	65.3	27.2	7.4	49.1 (767)	3.78
	고등학교	61.3	29.1	9.7	50.9 (795)	
거주지	서울	66.7	24.1	9.2	24.4 (381)	8.15
	직할시	60.4	30.8	8.8	55.5 (867)	
	기타시	66.9	25.8	7.3	20.1 (314)	
부모님 연 세	30 대	58.3	27.8	13.9	3.8 (36)	3.27
	40 대	62.8	29.0	8.2	77.8 (732)	
	50 대	62.4	26.0	11.6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6.58
	30 대	61.5	25.6	12.8	2.6 (39)	
	40 대	63.1	29.3	7.6	65.6 (974)	
	50 대	62.6	28.2	9.2	29.4 (436)	
	60 대이상	66.7	18.2	15.2	2.2 (33)	
모	20 대	-	-	-	-	4.70
	30 대	64.0	29.0	7.1	18.2 (283)	
	40 대	63.2	28.5	8.3	68.7 (1070)	
	50 대	62.2	25.9	11.9	12.4 (194)	
	60 대이상	75.0	16.7	8.3	0.8 (12)	
부모님 학 력	하	62.0	31.4	6.6	13.5 (121)	8.02
	중	66.2	28.9	4.9	45.1 (405)	
	상	60.5	29.6	9.9	41.4 (372)	
부	무학	81.8	9.1	9.1	0.7 (11)	6.18
	국졸	62.6	29.9	7.5	9.9 (147)	
	중졸	65.7	26.1	8.2	18.9 (280)	
	고졸	63.2	29.2	7.5	43.8 (650)	
	대졸	60.8	28.7	10.5	21.1 (314)	
	대학원졸	60.2	31.3	8.4	5.6 (83)	
모	무학	59.4	15.6	25.0	2.1 (32)	26.90**
	국졸	66.2	26.5	7.3	20.3 (317)	
	중졸	65.9	28.2	6.0	28.9 (451)	
	고졸	59.3	31.2	9.5	38.3 (597)	
	대졸	66.0	22.0	12.0	9.6 (150)	
	대학원졸	63.6	36.4	-	0.7 (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63.8	27.7	8.6	84.9 (643)	1.82
	전문직	63.2	24.6	12.3	15.1 (114)	
부	무직	46.3	34.1	19.5	2.8 (41)	27.72*
	일용근로자	64.1	28.2	7.7	7.9 (117)	
	근로자	65.6	26.0	8.4	15.3 (227)	
	농림어업자	74.6	16.4	9.0	8.2 (122)	
	자영업	58.2	34.0	7.8	26.8 (397)	
	사무직	64.7	27.6	7.7	31.6 (468)	
	관리직	66.7	27.0	6.3	4.2 (63)	
	전문직	52.1	35.4	12.5	3.2 (48)	
소 득	하	61.1	28.0	10.9	25.9 (404)	4.29
	중	63.6	28.8	7.6	49.5 (772)	
	상	65.0	27.2	7.8	24.6 (383)	
합 계 (실수)		63.2 (987)	28.2 (440)	8.6 (134)	100.0 (1561)	

〈 표 94 〉 답답하다 (부)

M : 2.294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23.8	25.5	50.7	48.9(738)	1.40
	여	21.5	25.2	53.3	51.1(771)	
학 교	중학교	17.5	25.5	57.0	49.5(748)	24.12***
	고등학교	27.7	25.1	47.2	50.5(762)	
거주지	서울	26.3	22.6	51.5	24.6(372)	13.33**
	직할시	23.7	25.6	50.8	55.4(837)	
	기타시	15.3	27.9	56.8	19.9(301)	
부모님	30 대	19.4	19.4	61.1	3.8(36)	8.34
연 세	40 대	22.6	24.1	53.4	77.8(731)	
	50 대	28.3	29.5	42.2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24.28**
	30 대	17.9	17.9	64.1	2.6(39)	
	40 대	20.7	24.7	54.7	65.5(977)	
	50 대	26.8	26.1	47.0	29.5(440)	
	60 대이상	39.4	30.3	30.3	2.2(33)	
모	20 대	-	-	-	-	18.43**
	30 대	15.4	25.0	59.6	18.7(280)	
	40 대	23.7	24.6	51.6	68.9(1032)	
	50 대	26.1	30.7	43.2	11.7(176)	
	60 대이상	40.4	30.0	30.0	0.7(10)	7.59
	부모님 하	24.8	26.4	48.8	13.5(121)	
학 력	중	19.3	27.9	52.8	45.1(405)	14.77
	상	25.0	21.0	54.0	41.4(372)	
부	무학	36.4	45.5	18.2	0.7(11)	15.32
	국졸	19.6	30.4	50.0	9.9(148)	
	중졸	23.9	26.9	49.3	19.0(284)	
	고졸	21.2	25.3	53.5	43.7(652)	
	대졸	26.8	20.7	52.5	21.0(314)	
	대학원졸	20.5	22.9	56.6	5.6(83)	
M	무학	21.4	42.9	35.7	1.9(28)	1.00
	국졸	25.4	26.8	47.8	20.0(299)	
	중졸	19.6	27.5	52.9	28.6(429)	
	고졸	22.0	24.1	54.0	38.9(582)	
	대졸	28.2	18.8	53.0	9.9(149)	
	대학원졸	18.2	27.3	54.5	0.7(11)	42.03***
	부모님 비전문직	23.3	25.3	51.3	84.9(643)	
직 업	전문직	19.3	28.1	52.6	15.1(114)	1.03
	부 무직	47.6	7.1	45.2	2.8(42)	
	일용근로자	16.9	22.9	60.2	7.9(118)	1.03
	근로자	20.3	31.7	48.0	15.2(227)	
	농림어업자	14.4	28.0	57.6	8.4(125)	
	자영업	28.6	21.3	50.1	26.8(399)	
	사무직	21.3	27.1	51.6	31.5(469)	
	관리직	20.6	25.4	54.0	4.2(63)	
	전문직	18.8	20.8	60.4	3.2(48)	
소 득	하	23.3	25.7	51.1	25.1(378)	1.03
	중	22.1	24.6	53.3	49.9(752)	
	상	23.0	26.5	50.5	25.1(378)	
합 계(실수)		22.7(342)	25.3(382)	52.0(785)	100.0(1509)	

** P < .01 *** P < .001

〈 표 95 〉 답답하다 (모)

M : 2.380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18.4	29.9	51.6	48.6(759)	12.01**
	여	17.3	22.9	59.7	51.4(802)	
학 교	중학교	15.4	24.9	59.7	49.1(769)	10.39**
	고등학교	20.3	27.7	52.1	50.9(795)	
거주지	서울	20.2	24.7	55.1	24.4(381)	4.24
	직할시	17.6	27.6	54.8	55.5(867)	
	기타시	15.6	24.8	59.6	20.1(314)	
부모님	30 대	19.4	27.8	52.8	3.8(36)	4.07
연 세	40 대	18.6	24.9	56.6	77.8(732)	
	50 대	23.7	27.7	48.6	18.4(173)	
부	20 대	-	-	100.0	0.2(2)	11.49
	30 대	20.5	28.2	51.3	2.6(39)	
	40 대	16.5	24.6	58.8	65.6(974)	
	50 대	20.6	28.4	50.9	29.4(436)	
	60 대이상	24.2	30.3	45.5	2.2(33)	
모	20 대	-	-	-	-	15.82*
	30 대	12.7	23.7	63.6	18.2(283)	
	40 대	18.4	26.3	55.3	68.7(1070)	
	50 대	21.8	30.1	48.2	12.4(193)	
	60 대이상	33.3	33.3	33.3	0.8(12)	5.20
부모님	하	20.7	29.8	49.6	13.5(121)	
학 력	중	15.6	29.1	55.3	45.1(405)	
	상	19.6	24.2	56.2	41.4(372)	12.88
부	무학	36.4	36.4	27.3	0.7(11)	
	국졸	17.0	30.6	52.4	9.9(147)	
	중졸	19.6	28.2	52.1	18.9(280)	
	고졸	16.2	25.1	58.8	43.8(650)	
	대졸	19.4	22.6	58.0	21.1(314)	
	대학원졸	21.7	27.7	50.6	5.6(83)	11.04
모	무학	25.0	34.4	40.6	2.1(32)	
	국졸	20.8	26.8	52.4	20.3(317)	
	중졸	16.0	28.6	55.4	28.9(451)	
	고졸	16.8	24.5	58.8	38.3(597)	
	대졸	20.7	23.3	56.0	9.6(150)	
	대학원졸	18.2	36.4	45.5	0.7(11)	0.97
부모님	비전문직	17.1	27.2	55.7	84.9(643)	
직 업	전문직	20.2	23.7	56.1	15.1(114)	
	부	26.8	24.4	48.8	2.8(41)	7.73
부	일용근로자	15.4	23.9	60.7	7.9(117)	
	근로자	17.6	28.6	53.7	15.3(227)	
	농림어업자	14.8	27.0	58.2	8.2(122)	
	자영업	18.4	25.2	56.4	26.8(397)	
	사무직	19.2	25.0	55.8	31.6(468)	
	관리직	12.7	31.7	55.6	4.2(63)	
	전문직	18.8	22.9	58.3	3.2(48)	
소 득	하	21.0	26.2	52.7	25.9(404)	3.99
	중	16.7	26.7	56.6	49.5(772)	
	상	17.0	25.8	57.2	24.6(383)	
합 계 (실 수)		17.9(279)	26.3(411)	55.8(871)	100.0(1561)	

* $P < .05$, ** $P < .01$

〈 표 96 〉 다정하다 (부)

M : 1.58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5.6	29.5	14.9	48.9 (738)	0.05
	여	56.0	29.4	14.5	51.1 (771)	
학 교	중학교	61.5	28.1	10.4	49.5 (748)	28.23***
	고등학교	50.1	36.0	18.9	50.5 (762)	
거주지	서울	55.4	26.1	18.5	24.6 (372)	8.87
	직할시	55.0	31.8	13.3	55.4 (837)	
	기타시	58.5	27.6	14.0	19.9 (301)	
부모님	30 대	55.6	22.2	22.2	3.8 (36)	4.31
연 세	40 대	54.3	30.5	15.2	77.8 (731)	
	50 대	49.7	30.1	20.2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6.87
	30 대	59.0	20.5	20.5	2.6 (39)	
	40 대	56.5	29.6	13.9	65.5 (977)	
	50 대	54.1	29.8	16.1	29.5 (440)	
	60 대이상	54.5	27.3	18.2	2.2 (33)	
모	20 대	-	-	-	-	12.12
	30 대	62.9	25.4	11.8	18.7 (280)	
	40 대	54.9	30.6	14.4	68.9 (1032)	
	50 대	48.9	30.7	20.5	11.7 (176)	
	60 대이상	60.0	30.0	10.0	0.7 (10)	
부모님	하	59.5	26.4	14.0	13.5 (121)	1.28
학 력	중	54.8	30.6	14.6	45.1 (405)	
	상	57.8	28.8	13.4	41.4 (372)	
부	무학	36.4	27.3	36.4	0.7 (11)	13.26
	국졸	56.1	30.4	13.5	9.9 (148)	
	중졸	58.1	24.3	17.6	19.0 (284)	
	고졸	54.3	31.6	14.1	43.9 (652)	
	대졸	59.2	27.7	13.1	21.0 (314)	
	대학원졸	49.4	33.7	16.9	5.6 (83)	
모	무학	35.7	32.1	32.1	1.9 (28)	14.68
	국졸	55.5	28.4	16.1	20.0 (299)	
	중졸	54.5	30.8	14.7	28.6 (429)	
	고졸	56.5	29.7	13.7	38.9 (582)	
	대졸	61.7	26.2	12.1	9.9 (149)	
	대학원졸	36.4	54.5	9.1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57.7	27.8	14.5	84.9(643)	2.08
직 업	전문직	50.9	30.7	18.4	15.1(114)	
부	무직	47.6	28.6	23.8	2.8(42)	11.74
	일용근로자	59.3	26.3	14.4	7.9 (118)	
	근로자	57.3	29.5	13.2	15.2 (227)	
	농림어업자	63.2	22.4	14.4	8.4 (125)	
	자영업	54.6	29.1	16.3	26.8 (399)	
	사무직	54.4	30.9	14.7	31.5 (469)	
	관리직	50.8	36.5	12.7	4.2 (63)	
	전문직	58.3	33.3	8.3	3.2 (48)	
	전문직	58.3	33.3	8.3	3.2 (48)	
소 득	하	54.5	29.4	16.1	25.1 (378)	1.00
	중	56.3	29.8	14.0	49.9 (752)	
	상	56.1	29.1	14.8	25.1 (378)	
합 계 (실 수)		55.8 (842)	29.5 (445)	14.7 (222)	100.0 (1509)	

〈 표 97 〉 다정하다 (모)

M : 1.351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3.9	18.4	7.6	48.6 (759)	0.76
	여	71.9	19.8	8.2	51.4 (802)	
학 교	중학교	72.8	19.8	7.4	49.1 (767)	0.78
	고등학교	73.0	18.6	8.4	50.9 (795)	
거주지	서울	74.5	16.8	8.7	24.4 (381)	3.09
	직할시	72.0	19.8	8.2	55.5 (867)	
	기타시	73.2	20.4	6.4	20.1 (314)	
부모님	30 대	63.9	19.4	16.7	3.8 (36)	4.49
연 세	40 대	73.8	18.3	7.9	77.8 (732)	
	50 대	70.5	21.4	8.1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18.36*
	30 대	66.7	17.9	15.4	2.6 (39)	
	40 대	73.9	18.3	7.8	65.6 (974)	
	50 대	73.4	19.7	6.9	29.4 (436)	
	60 대이상	69.7	15.2	15.2	2.2 (33)	
모	20 대	-	-	-	-	6.13
	30 대	73.5	18.0	8.5	18.2 (283)	
	40 대	73.8	18.5	7.7	68.7 (1070)	
	50 대	67.4	24.9	7.8	12.4 (193)	
	60 대이상	66.7	16.7	16.7	0.8 (12)	2.71
부모님	하	81.8	14.0	4.1	13.5 (121)	
학 력	중	75.6	18.0	6.4	45.1 (405)	
	상	75.0	18.0	7.0	41.4 (372)	31.90***
부	무학	54.5	9.1	36.4	0.7 (11)	
	국졸	81.6	15.6	2.7	9.9 (147)	
	중졸	75.7	15.7	8.6	18.9 (280)	
	고졸	70.3	20.9	8.8	43.8 (650)	
	대졸	76.1	18.5	5.4	21.1 (314)	
	대학원졸	67.5	18.1	14.5	5.6 (83)	7.73
모	무학	53.1	31.3	15.6	2.1 (32)	
	국졸	75.1	18.0	6.9	20.3 (317)	
	중졸	74.7	18.2	7.1	28.9 (451)	
	고졸	71.5	20.6	7.9	38.3 (597)	
	대졸	74.0	15.3	10.7	9.6 (150)	
	대학원졸	54.5	36.4	9.1	0.7 (11)	5.41
부모님	비전문직	75.1	16.6	8.2	84.9 (643)	
직 업	전문직	65.8	20.2	14.0	15.1 (114)	33.03**
	부	63.4	12.2	24.4	2.8 (41)	
	일용근로자	76.9	18.8	4.3	7.9 (117)	
	근로자	76.2	13.2	10.6	15.3 (227)	
	농림어업자	80.3	13.9	5.7	8.2 (112)	
	자영업	72.0	20.2	7.8	26.8 (397)	
	사무직	71.4	21.4	7.3	31.6 (468)	
	관리직	77.8	14.3	7.9	4.2 (63)	
	전문직	68.8	27.1	4.2	3.2 (48)	
소 득	하	69.8	19.6	10.6	25.9 (404)	7.44
	중	72.8	20.1	7.1	49.5 (772)	
	상	76.2	17.0	6.8	24.6 (383)	
합 계 (실수)		72.9 (1138)	19.2 (999)	7.9 (124)	100.0 (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98 〉 무섭다 (부)

M : 2.06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33.5	27.9	38.6	48.9 (738)	5.43
	여	34.6	22.8	42.5	51.1 (771)	
학 교	중학교	32.0	26.9	41.2	49.5 (748)	3.44
	고등학교	36.1	23.8	40.2	50.5 (762)	
거주지	서울	37.1	23.4	39.5	24.6 (372)	5.58
	직할시	34.2	24.6	41.2	55.4 (837)	
	기타시	29.9	29.6	40.5	19.9 (301)	
부모님	30 대	27.8	19.4	52.8	3.8 (36)	2.55
연 세	40 대	33.2	25.2	41.6	77.8 (731)	
	50 대	36.4	23.1	40.5	18.4 (173)	
부	20 대	-	-	100.0	0.2 (2)	8.39
	30 대	25.6	20.5	53.8	2.6 (39)	
	40 대	34.3	25.7	40.4	65.5 (977)	
	50 대	33.6	25.0	41.4	29.5 (440)	
	60 대이상	45.5	21.2	33.3	2.2 (33)	
모	20 대	-	-	-	-	3.68
	30 대	36.4	25.7	37.9	18.7 (280)	
	40 대	33.0	25.5	41.5	68.9 (1032)	
	50 대	36.4	22.7	40.9	11.7 (176)	
	60 대이상	20.0	40.0	40.0	0.7 (10)	
부모님	하	40.5	25.6	33.9	13.5 (121)	3.64
학 력	중	33.6	25.4	41.0	45.1 (405)	
	상	32.3	25.0	42.7	41.4 (372)	12.13
부	무학	72.7	9.1	18.2	0.7 (11)	
	국졸	36.5	27.7	35.8	9.9 (148)	
	중졸	37.0	23.9	39.1	19.0 (284)	
	고졸	33.0	25.0	42.0	43.7 (652)	
	대졸	32.5	24.8	42.7	21.0 (314)	
	대학원졸	30.1	30.1	39.8	5.6 (83)	
모	무학	39.3	17.9	42.9	1.9 (28)	9.35
	국졸	39.5	24.1	36.5	20.0 (299)	
	중졸	33.1	26.6	40.3	28.6 (429)	
	고졸	32.8	25.4	41.8	38.9 (582)	
	대졸	30.2	25.5	44.3	9.9 (149)	
	대학원졸	18.2	18.2	63.6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36.4	25.3	38.3	84.9 (643)	0.82
직 업	전문직	36.0	21.9	42.1	15.1 (114)	
부	무직	33.3	26.2	40.5	2.8 (42)	11.72
	일용근로자	39.0	26.3	34.7	7.9 (118)	
	근로자	33.9	25.6	40.5	15.2 (227)	
	농림어업자	39.2	23.2	37.6	8.4 (125)	
	자영업	36.3	24.8	38.8	26.8 (399)	
	사무직	31.1	25.6	43.3	31.5 (469)	
	관리직	33.3	28.6	38.1	4.2 (63)	
	전문직	22.9	20.8	56.3	3.2 (48)	
소 득	하	38.6	24.6	36.8	25.1 (378)	6.07
	중	31.5	26.1	42.4	49.9 (752)	
	상	34.7	24.6	40.7	25.1 (378)	
합 계 (실수)		34.1 (514)	25.3 (382)	40.6 (613)	100.0 (1509)	

〈 표 99 〉 무섭다 (모)

M : 2.38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18.2	27.8	54.0	48.6(759)	2.23
	여	17.1	25.2	57.7	51.4(802)	
학 교	중학교	21.6	28.8	48.5	49.1(767)	28.22***
	고등학교	13.7	24.2	62.1	50.9(795)	
거주지	서울	21.3	23.6	55.1	24.4(381)	5.98
	직할시	16.6	26.8	56.6	55.5(867)	
	기타시	15.9	29.0	55.1	20.1(314)	
부모님	30 대	16.7	16.7	66.7	3.8(36)	2.35
연 세	40 대	17.9	23.2	58.9	77.8(732)	
	50 대	14.5	25.4	60.1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30 대	15.4	20.5	64.1	2.6(39)	
	40 대	19.0	26.0	55.0	65.6(974)	
	50 대	14.4	29.4	56.2	29.4(436)	
	60 대이상	27.3	9.1	63.6	2.2(33)	
모	20 대	-	-	-	-	11.55
	30 대	19.8	32.2	48.1	18.2(283)	
	40 대	17.5	24.9	57.7	68.7(1070)	
	50 대	14.5	25.9	59.6	12.4(993)	
	60 대이상	25.0	33.3	41.7	0.8(12)	
부모님	하	16.5	25.6	57.9	13.5(121)	5.46
학 력	중	15.1	25.2	59.8	45.1(405)	
	상	20.4	27.3	52.4	41.4(372)	
부	무학	36.4	9.1	54.5	0.7(11)	20.60*
	국졸	14.3	29.3	56.5	9.9(147)	
	중졸	11.4	23.9	64.6	18.9(280)	
	고졸	19.1	26.5	54.5	43.8(650)	
	대졸	20.7	27.4	51.9	21.1(314)	
	대학원졸	21.7	28.9	49.4	5.6(83)	
모	무학	15.6	28.1	56.3	2.1(32)	24.59*
	국졸	13.9	24.9	61.2	20.3(317)	
	중졸	15.1	25.3	59.6	28.9(451)	
	고졸	20.3	26.8	52.9	38.3(597)	
	대졸	24.0	28.0	48.0	9.6(150)	
	대학원졸	-	63.6	36.4	0.7(11)	
부모님	비전문직	14.3	28.9	56.8	84.9(643)	7.67*
직 업	전문직	24.6	24.6	50.9	15.1(114)	
부	무직	17.1	31.7	51.2	2.8(41)	10.87
	일용근로자	12.8	28.2	59.0	7.9(117)	
	근로자	15.0	26.4	58.6	15.3(227)	
	농림어업자	14.8	25.4	59.8	8.2(122)	
	자영업	17.1	28.2	54.7	26.8(397)	
	사무직	21.2	24.8	54.1	31.6(468)	
	관리직	19.0	28.6	52.4	4.2(63)	
	전문직	22.9	20.8	56.3	3.2(48)	
	전문직	22.9	20.8	56.3	3.2(48)	
소 득	하	19.8	28.0	52.2	25.9(404)	5.16
	중	15.8	26.0	58.2	49.5(772)	
	상	19.1	25.8	55.1	24.6(383)	
합 계 (실 수)		17.6(275)	26.5(413)	55.9(873)	100.0(1561)	

* $P < .05$, *** $P < .001$

〈 표 100 〉 정의롭다 (부)

M : 1.58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46.2	48.4	5.4	48.9 (738)	5.02
	여	48.9	43.0	7.5	51.1 (771)	
학 교	중학교	46.8	48.9	4.3	49.5 (748)	14.19***
	고등학교	48.3	43.0	8.7	50.5 (762)	
거주지	서울	49.2	44.6	6.2	24.6 (372)	3.18
	직할시	48.4	45.4	6.2	55.4 (837)	
	기타시	43.2	49.2	7.6	19.9 (301)	
부모님	30 대	55.6	38.9	5.6	3.8 (36)	14.15**
연 세	40 대	47.5	47.2	5.3	77.8 (731)	
	50 대	50.9	37.0	12.1	18.4 (173)	
부	20 대	100.0	-	-	0.2 (2)	15.77
	30 대	51.3	41.0	7.7	2.6 (39)	
	40 대	46.5	48.1	5.4	65.5 (977)	
	50 대	49.5	43.0	7.5	29.5 (440)	
	60 대이상	48.5	33.3	18.2	2.2 (33)	
모	20 대	-	-	-	-	15.73*
	30 대	46.1	48.6	5.4	18.7 (280)	
	40 대	47.6	46.7	5.7	68.9 (1032)	
	50 대	50.6	36.9	12.5	11.7 (176)	
	60 대이상	50.0	40.0	10.0	0.7 (10)	
부모님	하	43.0	48.8	8.3	13.5 (121)	7.19
학 력	중	46.4	47.4	6.2	45.1 (405)	
	상	54.0	39.8	6.2	41.4 (372)	
부	무학	36.4	54.5	9.1	0.7 (11)	15.50
	국졸	41.2	50.0	8.8	9.9 (148)	
	중졸	45.1	48.2	6.7	19.0 (284)	
	고졸	46.5	47.9	5.7	43.7 (652)	
	대졸	51.6	41.7	6.7	21.0 (314)	
	대학원졸	62.7	32.5	4.8	5.6 (83)	
모	무학	35.7	50.0	14.3	1.9 (28)	19.17*
	국졸	41.5	51.2	7.4	20.0 (299)	
	중졸	46.6	46.9	6.5	28.6 (429)	
	고졸	49.7	45.0	5.3	38.9 (582)	
	대졸	57.7	34.2	8.1	9.9 (149)	
	대학원졸	45.5	54.5	-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45.4	47.9	6.7	84.9 (643)	4.03
직 업	전문직	54.4	37.7	7.9	15.1 (114)	
부	무직	35.7	52.4	11.9	2.8 (42)	16.56
	일용근로자	40.7	50.0	9.3	7.9 (118)	
	근로자	44.5	49.8	5.7	15.2 (227)	
	농림어업자	48.0	46.4	5.6	8.4 (125)	
	자영업	45.6	47.4	7.0	26.8 (399)	
	사무직	51.0	43.3	5.8	31.5 (469)	
	관리직	60.3	36.5	3.2	4.2 (63)	
	전문직	54.2	41.7	4.2	3.2 (48)	
소 득	하	43.7	49.2	7.1	25.1 (378)	6.57
	중	47.1	46.9	6.0	49.9 (752)	
	상	52.1	41.0	6.9	25.1 (378)	
합 계 (실수)		47.6 (718)	45.9 (693)	6.5 (98)	100.0 (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101 〉 정의롭다 (모)

M : 1.680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39.0	53.2	7.8	48.6(759)	0.39
	여	40.5	51.7	7.7	51.4(802)	
학 교	중학교	40.8	53.3	5.9	49.1(767)	7.48*
	고등학교	38.7	51.7	9.6	50.9(795)	
거주지	서울	42.5	50.4	7.1	24.4(381)	6.17
	직할시	40.5	51.3	8.2	55.5(867)	
	기타시	34.4	58.3	7.3	20.1(314)	
부모님 연 세	30 대	33.3	61.1	5.6	3.8(36)	5.33
	40 대	38.5	53.6	7.9	77.8(732)	
	50 대	46.2	45.1	8.7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10.86
	30 대	30.8	64.1	5.1	2.6(39)	
	40 대	39.0	53.4	7.6	65.6(974)	
	50 대	42.9	49.8	7.3	29.4(436)	
	60 대이상	45.5	39.4	15.2	2.2(33)	
모	20 대	-	-	-	-	7.17
	30 대	40.3	53.0	6.7	18.2(283)	
	40 대	38.8	53.5	7.8	68.7(1070)	
	50 대	43.5	47.2	9.3	12.4(193)	
	60 대이상	66.7	33.3	-	0.8(12)	
부모님 학 력	하	29.8	62.0	8.3	13.5(121)	15.14**
	중	38.3	54.3	7.4	45.1(405)	
부	상	47.6	44.6	7.8	41.4(372)	20.35*
	무학	36.	54.5	9.1	0.7(11)	
	국졸	29.9	62.6	7.5	9.9(147)	
	중졸	38.9	53.2	7.9	18.9(280)	
	고졸	38.5	54.2	7.4	43.8(650)	
	대졸	46.8	44.6	8.6	21.1(314)	
모	대학원졸	51.8	43.4	4.8	5.6(83)	15.12
	무학	34.4	56.3	9.4	2.1(32)	
	국졸	33.4	59.6	6.9	20.3(317)	
	중졸	38.1	53.9	8.0	28.9(451)	
	고졸	43.2	49.2	7.5	38.3(597)	
	대졸	46.0	44.7	9.3	9.6(150)	
부모님 직 업	대학원졸	45.5	54.5	-	0.7(11)	1.10
	비전문직	38.6	53.0	8.4	84.9(643)	
부	전문직	41.2	48.2	10.5	15.1(114)	10.16
	무직	46.3	43.9	9.8	2.8(41)	
	일용근로자	31.6	59.0	9.4	7.9(117)	
	근로자	39.2	51.1	9.7	15.3(227)	
	농림어업자	41.8	51.6	6.6	8.2(122)	
	자영업	39.8	54.2	6.0	26.8(397)	
	사무직	41.2	51.1	7.7	31.6(468)	
	관리직	42.9	47.6	9.5	4.2(63)	
소 득	전문직	45.8	50.0	4.2	3.2(48)	16.67**
	하	34.4	55.2	10.4	25.9(404)	
	중	38.9	54.1	7.0	49.5(772)	
합 계 (실수)	상	47.0	46.5	6.5	24.6(383)	
		39.8(621)	52.5(819)	7.8(121)	100.0(1561)	

* $P < .05$, ** $P < .01$

〈 표 102 〉 근면하다 (부)

M : 1.291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75.7	18.0	6.2	48.9(738)	5.28
	여	79.2	13.7	7.0	51.1(771)	
학 교	중학교	76.2	18.7	5.1	49.5(748)	13.06**
	고등학교	78.7	13.1	8.1	50.5(762)	
거주지	서울	77.2	16.7	6.2	24.6(372)	3.82
	직할시	76.2	16.5	7.3	55.4(837)	
	기타시	81.4	13.3	5.3	19.9(301)	
부모님	30 대	77.8	16.6	5.6	3.8(36)	7.17
연 세	40 대	78.4	15.9	5.7	77.8(731)	
	50 대	76.9	12.1	11.0	18.4(173)	
부	20 대	100.0	-	-	0.2(2)	4.12
	30 대	74.4	20.5	5.1	2.6(39)	
	40 대	77.8	16.1	6.1	65.5(977)	
	50 대	76.4	15.7	8.0	29.5(440)	
	60 대이상	84.8	9.1	6.1	2.2(33)	
	모	-	-	-	-	
	30 대	77.1	16.4	6.4	18.7(280)	10.52
	40 대	77.9	16.4	5.7	68.9(1032)	
	50 대	76.7	12.5	10.8	11.7(176)	
	60 대이상	70.0	10.0	20.0	0.7(10)	
	부모님	하	80.2	10.7	9.1	
학 령	중	77.0	16.8	6.2	45.1(405)	4.08
	상	75.5	17.5	7.0	41.4(372)	
부	무학	63.6	18.2	18.2	0.7(11)	14.69
	국졸	77.7	12.8	9.5	9.9(148)	
	중졸	78.2	16.9	4.9	13.0(284)	
	고졸	78.8	14.9	6.3	43.7(652)	
	대졸	72.6	19.1	8.3	21.0(314)	
	대학원졸	84.3	13.3	2.4	5.6(83)	
모	무학	67.9	14.3	17.9	1.9(28)	14.66
	국졸	81.6	11.7	6.7	20.0(299)	
	중졸	76.7	17.2	6.1	28.6(429)	
	고졸	77.3	16.3	6.4	38.9(582)	
	대졸	76.5	17.4	6.0	9.9(149)	
	대학원졸	54.5	36.4	9.1	0.7(11)	
부모님	비전문직	76.2	15.4	8.4	84.9(643)	2.32
직 업	전문직	78.1	17.5	4.4	15.1(114)	
부	무직	61.9	14.3	23.8	2.8(42)	56.74***
	일용근로자	66.1	22.9	11.0	7.9(118)	
	근로자	75.3	18.9	5.7	15.2(227)	
	농림어업자	91.2	4.8	4.0	8.4(125)	
	자영업	75.2	16.0	8.8	26.8(399)	
	사무직	79.7	15.4	4.5	31.5(469)	
	관리직	85.7	14.3	-	4.2(63)	
	전문직	79.2	16.7	4.2	3.2(48)	
소 득	하	76.5	16.1	7.4	25.1(378)	2.97
	중	76.9	17.0	6.1	49.9(752)	
	상	79.6	13.5	6.9	25.1(378)	
합 계 (실수)		77.5 (1170)	15.8 (239)	6.6 (100)	100.0(1509)	

** P < .01, *** P < .001

〈 표 103 〉 근무하다 (보)

M : 1.236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78.5	17.7	3.8	48.6(759)	2.24
	여	81.5	15.1	3.4	51.4(802)	
학 교	중학교	76.5	20.1	3.4	49.1(767)	14.97***
	고등학교	83.4	12.8	3.8	50.9(795)	
거주지	서울	78.7	16.0	5.2	24.4(381)	9.83*
	직할시	78.8	18.0	3.2	55.5(867)	
	기타시	85.0	12.4	2.5	20.1(314)	
부모님	30 대	69.4	25.0	5.6	3.8(36)	7.50
연 세	40 대	79.0	17.2	3.8	77.8(732)	
	50 대	86.1	10.4	3.5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19.53*
	30 대	66.7	28.2	5.1	2.6(39)	
	40 대	78.3	17.8	3.9	65.6(974)	
	50 대	85.1	12.4	2.5	29.4(436)	
	60 대이상	81.8	12.1	6.1	2.2(33)	
모	20 대	-	-	-	-	7.00
	30 대	76.0	19.4	4.6	18.2(283)	
	40 대	80.3	16.4	3.4	68.7(1070)	
	50 대	85.0	11.9	3.1	12.4(193)	
	60 대이상	75.0	16.7	8.3	0.8(12)	10.78*
부모님	하	83.5	14.9	1.7	13.5(121)	
학 력	중	84.7	12.6	2.7	45.1(405)	
	상	76.1	19.4	4.6	41.4(372)	14.20
부	무학	100	-	-	0.7(11)	
	국졸	81.6	17.0	1.4	9.9(147)	
	중졸	84.6	12.9	2.5	18.9(280)	
	고졸	79.7	16.3	4.0	43.8(650)	
	대졸	77.1	18.2	4.8	21.1(314)	
	대학원졸	72.3	22.9	4.8	5.6(83)	
모	무학	81.3	15.6	3.1	2.1(32)	25.49**
	국졸	84.5	12.9	2.5	20.3(317)	
	중졸	84.0	13.1	2.9	28.9(451)	
	고졸	77.1	18.8	4.2	38.3(597)	
	대졸	72.0	22.0	6.0	9.6(150)	
	대학원졸	54.5	45.5	-	0.7(11)	0.51
부모님	비전문직	81.2	15.7	3.1	84.9(643)	
직 업	전문직	83.3	13.2	3.5	15.1(114)	
부	무직	78.0	12.2	9.8	2.8(41)	23.16
	일용근로자	76.1	21.4	2.6	7.9(117)	
	근로자	78.0	18.5	3.5	15.3(227)	
	농림어업자	91.8	6.6	1.6	8.2(122)	
	자영업	80.6	15.9	3.5	26.8(397)	
	사무직	77.4	18.4	4.3	31.6(468)	
	관리직	85.7	12.7	1.6	4.2(63)	
	전문직	85.4	12.5	2.1	3.2(48)	
소 득	하	79.7	17.1	3.2	25.9(404)	5.22
	중	81.6	14.5	3.9	49.5(772)	
	상	77.0	19.6	3.4	24.6(383)	
합 계(실수)		80.1(1250)	16.3(255)	3.6(56)	100.0(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104 > 현실적 (실리적) 이다 (부)

M : 1.623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 (실수)	χ^2
성 별	남	52.0	31.8	16.1	48.9 (738)	0.88
	여	54.3	30.7	14.9	51.1 (771)	
학 교	중학교	54.3	34.5	11.2	49.5 (748)	22.60**
	고등학교	52.2	28.1	19.7	50.5 (762)	
거주지	서울	53.5	27.7	18.8	24.6 (372)	6.20
	직할시	53.9	32.0	14.1	55.4 (837)	
	기타시	51.2	33.6	15.3	19.9 (301)	
부모님	30 대	50.0	38.9	11.1	3.8 (36)	2.27
연 세	40 대	54.2	30.6	15.2	77.8 (731)	
	50 대	54.9	27.7	17.3	18.4 (173)	
	부	20 대	-	100.0	0.2 (2)	
	30 대	48.7	41.0	10.3	2.6 (39)	10.15
	40 대	54.6	30.6	14.8	65.5 (977)	
	50 대	51.4	31.8	16.8	29.5 (440)	
	60 대이상	51.5	24.2	25.2	2.2 (33)	
	모	20 대	-	-	-	
	30 대	56.4	30.7	12.9	18.7 (280)	4.61
	40 대	52.6	31.6	15.8	68.9 (1032)	
	50 대	54.0	28.4	17.6	11.7 (176)	
	60 대이상	40.0	50.0	10.0	0.7 (10)	
	부모님	하	47.9	36.4	13.5 (121)	
학 력	중	52.3	30.4	17.3	45.1 (405)	9.08*
	상	59.1	29.6	11.3	41.4 (372)	
부	무학	54.5	18.2	27.3	0.7 (11)	20.49*
	국졸	44.6	39.9	15.5	9.9 (148)	
	중졸	47.9	35.2	16.9	19.0 (284)	
	고졸	54.6	28.2	17.2	43.7 (652)	
	대졸	58.9	29.9	11.1	21.0 (314)	
	대학원졸	55.4	32.5	12.0	5.6 (83)	
모	무학	50.0	35.7	14.3	1.9 (28)	16.02
	국졸	49.5	35.1	15.4	20.0 (299)	
	중졸	51.3	31.2	17.5	28.6 (429)	
	고졸	57.9	27.7	14.4	38.9 (582)	
	대졸	53.0	33.6	13.4	9.9 (149)	
	대학원졸	18.2	63.6	18.2	0.7 (11)	
부모님	비전문직	50.5	33.0	16.5	84.9 (643)	2.66
직 업	전문직	50.9	27.2	21.9	15.1 (114)	
부	무직	45.2	31.0	23.8	2.8 (42)	16.27
	일용근로자	44.1	39.8	16.1	7.9 (118)	
	근로자	48.9	33.5	17.6	15.2 (227)	
	농림어업자	52.0	32.0	16.0	8.4 (125)	
	자영업	54.9	29.8	15.3	26.8 (399)	
	사무직	55.0	30.3	14.7	31.5 (469)	
	관리직	60.7	25.4	7.9	4.2 (63)	
	전문직	60.4	25.0	14.6	3.2 (48)	
	소 득	하	45.2	36.0	25.1 (378)	
	중	54.4	29.7	16.0	49.9 (752)	17.28**
	상	58.7	29.9	11.4	25.1 (378)	
	합 계 (실수)	53.2 (803)	31.3 (472)	15.5 (234)	100.0 (1509)	

* $P < .05$ ** $P < .01$ *** $P < .001$

〈 표 105 〉 현실적(실리적) 이다 (모)

M : 1.519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4.3	33.5	12.3	48.6(759)	13.25**
	여	63.3	27.1	9.6	51.4(802)	
학 교	중학교	56.2	34.6	9.3	49.1(767)	15.28**
	고등학교	61.6	25.9	12.5	50.9(795)	
거주지	서울	60.4	26.2	13.4	24.4(381)	7.95
	직할시	58.5	30.7	10.8	55.5(867)	
	기타시	58.6	33.4	8.0	20.1(314)	
부모님	30 대	55.6	36.1	8.3	3.8(36)	5.33
연 세	40 대	61.5	28.7	9.8	77.8(732)	
	50 대	55.5	29.5	15.0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9.36
	30 대	53.8	38.5	7.7	2.6(39)	
	40 대	60.2	29.7	10.2	65.6(974)	
	50 대	56.4	30.5	13.1	29.4(436)	
	60 대이상	60.6	27.3	12.1	2.2(33)	
모	20 대	-	-	-	-	4.59
	30 대	58.0	31.8	10.2	18.2(283)	
	40 대	60.3	29.3	10.4	68.7(1070)	
	50 대	53.9	32.1	14.0	12.4(193)	
	60 대이상	50.0	33.3	16.7	0.8(12)	
부모님	하	52.9	36.4	10.7	13.5(121)	5.61
학 력	중	57.8	30.9	11.4	45.1(405)	
	상	63.4	27.7	8.9	41.4(372)	
부	무학	72.7	18.2	9.1	0.7(11)	12.35
	국졸	49.0	38.1	12.9	9.9(147)	
	중졸	56.8	33.6	9.6	18.9(280)	
	고졸	59.4	28.6	12.0	43.8(650)	
	대졸	62.7	27.4	9.9	21.1(314)	
	대학원졸	61.4	30.1	8.4	5.6(83)	
모	무학	43.8	40.6	15.6	2.1(32)	16.00
	국졸	55.5	33.1	11.4	20.3(317)	
	중졸	57.2	30.8	12.0	28.9(451)	
	고졸	62.8	27.3	9.9	38.3(597)	
	대졸	62.0	30.0	8.0	9.6(150)	
	대학원졸	27.3	45.5	27.3	0.7(11)	7.39*
부모님	비전문직	55.8	33.3	10.9	84.9(643)	
직 업	전문직	69.3	21.9	8.8	15.1(114)	
부	무직	48.8	29.3	22.0	2.8(41)	23.81*
	일용근로자	48.7	35.9	15.4	7.9(117)	
	근로자	52.0	35.2	12.8	15.3(227)	
	농림어업자	59.8	31.1	9.0	8.2(122)	
	자영업	61.7	28.5	9.8	26.8(397)	
	사무직	60.3	29.7	10.0	31.6(468)	
	관리직	69.8	23.8	6.3	4.2(63)	
	전문직	68.8	18.8	12.5	3.2(48)	
소 득	하	54.0	33.2	12.9	25.9(404)	7.99
	중	60.0	30.4	9.6	49.5(772)	
	상	61.9	26.6	11.5	24.6(383)	
합 계 (실수)		58.9(920)	30.2(471)	10.9(170)	100.0(1561)	

* P < .05, ** P < .01, *** P < .001

〈 표 106 〉 허세가 많다 (부)

M : 2.60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9.3	23.6	67.1	48.9(738)	5.85
	여	9.5	18.5	72.0	51.1(771)	
학 교	중학교	4.5	26.3	69.1	49.5(748)	57.41***
	고등학교	14.2	15.7	70.1	50.5(762)	
거주지	서울	11.0	19.6	69.4	24.6(372)	3.36
	직할시	9.3	22.0	68.7	55.4(837)	
	기타시	7.6	19.9	72.4	19.9(301)	
부모님 연 세	30 대	13.9	33.3	52.8	3.8(36)	6.77
	40 대	9.4	20.7	69.9	77.8(731)	
	50 대	13.3	20.8	65.9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15.76
	30 대	12.8	33.3	53.8	2.6(39)	
	40 대	8.6	21.1	70.3	65.5(977)	
	50 대	11.4	19.8	68.9	29.5(440)	
	60 대이상	6.1	18.2	75.8	2.2(33)	
모	20 대	-	-	-	-	6.44
	30 대	6.8	24.3	68.9	18.7(280)	
	40 대	9.5	20.4	70.1	68.9(1032)	
	50 대	13.1	20.5	66.5	11.7(176)	
	60 대이상	10.0	20.0	70.0	0.7(10)	
부모님 학 력	하	8.3	26.4	65.3	13.5(121)	4.93
	중	10.6	18.3	71.1	45.1(405)	
	상	11.8	18.8	69.4	41.4(372)	
부	무학	18.2	36.4	45.5	0.7(11)	16.16
	국졸	9.5	28.4	62.2	9.9(148)	
	중졸	8.8	19.4	71.8	19.0(284)	
	고졸	8.3	21.0	70.7	43.7(652)	
	대졸	13.1	18.8	68.2	21.0(314)	
	대학원졸	6.0	20.5	73.5	5.6(83)	
	모	10.7	28.6	60.7	1.9(28)	
모	무학	7.7	24.1	68.2	20.0(299)	7.27
	국졸	10.5	18.4	71.1	28.6(429)	
	중졸	9.8	21.6	68.6	38.9(582)	
	고졸	8.7	20.1	71.1	9.9(149)	
	대졸	-	18.2	81.8	0.7(11)	
	대학원졸	-	18.2	81.8	0.7(11)	
부모님 직 업	비전문직	10.1	19.6	70.3	84.9(643)	0.75
	전문직	7.9	21.9	70.2	15.1(114)	
	부	16.7	28.6	54.8	2.8(42)	
부	일용근로자	10.2	25.4	64.4	7.9(118)	26.05*
	근로자	7.0	25.1	67.8	15.2(227)	
	농림어업자	5.6	14.4	80.0	8.4(125)	
	자영업	13.0	21.1	65.9	26.8(399)	
	사무직	8.3	19.6	72.1	31.5(469)	
	관리직	6.3	15.9	77.8	4.2(63)	
	전문직	8.3	22.9	68.8	3.2(48)	
	소 득	9.5	19.8	70.6	25.1(378)	
소 득	하	9.8	21.7	68.5	25.1(378)	0.58
	중	9.2	21.3	69.5	49.9(752)	
	상	9.5	19.8	70.6	25.1(378)	
합 계 (실 수)		9.4(142)	21.0(317)	69.6(1050)	100.0(1509)	

* $P < .05$ *** $P < .001$

〈 표 107 〉 허세가 많다 (모)

M : 2.682

		그런것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같다	합계(실수)	χ^2
성 별	남	5.8	23.1	71.1	48.6(759)	4.62
	여	5.0	19.1	75.9	51.4(802)	
학 교	중학교	3.9	25.3	70.8	49.1(767)	20.89***
	고등학교	6.8	16.9	76.4	50.9(795)	
거주지	서울	6.6	18.6	74.8	24.4(381)	9.50*
	직할시	5.9	22.5	71.6	55.5(867)	
	기타시	2.5	19.7	77.7	20.1(314)	
부모님 연 세	30 대	2.8	27.8	69.4	3.8(36)	12.56*
	40 대	4.9	20.9	74.2	77.8(732)	
	50 대	11.6	18.5	69.9	18.4(173)	
부	20 대	-	100.0	-	0.2(2)	23.17**
	30 대	2.6	28.2	69.2	2.6(39)	
	40 대	4.3	22.2	73.5	65.6(974)	
	50 대	8.0	17.9	74.1	29.4(436)	
	60 대이상	3.0	9.1	87.9	2.2(33)	
모	20 대	-	-	-	-	24.75***
	30 대	2.8	26.5	70.7	18.2(283)	
	40 대	5.0	19.6	75.3	68.7(1070)	
	50 대	11.4	20.2	68.4	12.4(193)	
부모님 학 력	하	3.3	23.1	73.6	13.5(121)	4.19
	중	5.2	20.7	74.1	45.1(405)	
부	상	7.3	18.3	74.5	41.4(372)	14.05
	무학	18.2	36.4	45.5	0.7(11)	
	국졸	3.4	25.2	71.4	9.9(147)	
	중졸	5.0	19.3	75.7	18.9(280)	
	고졸	4.5	21.7	73.8	43.8(650)	
	대졸	7.3	19.1	73.6	21.1(314)	
	대학원졸	7.2	16.9	75.9	5.6(83)	
모	무학	3.1	28.1	68.8	2.1(32)	4.12
	국졸	4.1	21.8	74.1	20.3(317)	
	중졸	5.3	21.3	73.4	28.9(451)	
	고졸	6.2	20.3	73.5	38.3(597)	
	대졸	6.0	20.0	74.0	9.6(150)	
부모님 직 업	대학원졸	-	27.3	72.7	0.7(11)	0.17
	비전문직	5.8	19.6	74.7	84.9(643)	
부	전문직	6.1	21.1	72.8	15.1(114)	25.05*
	무직	9.8	34.1	56.1	2.8(41)	
	일용근로자	5.1	26.5	68.4	7.9(117)	
	근로자	4.0	21.1	74.9	15.3(227)	
	농림어업자	4.1	12.3	83.6	8.2(122)	
	자영업	7.1	22.7	70.3	26.8(397)	
	사무직	3.8	19.9	76.3	31.6(468)	
	관리직	9.5	17.5	73.0	4.2(63)	
소 득	전문직	6.3	16.7	77.1	3.2(48)	3.65
	하	4.2	23.5	72.3	25.9	
	중	5.8	19.6	74.6	49.5	
합 계 (실 수)	상	5.7	21.4	72.8	24.6	
		5.4(84)	21.0(328)	73.6(1149)	100.0(1561)	

* P < .05 ** P < .01 *** P < .001

정 오 표

번호	페이지	행	수 정 내 용
1	60	<표 II-5>	고졸 → 중졸 대졸 → 고졸 대졸 314(20.0) 150(9.6) 고졸다음에 삽입 대졸이상 → 대학원 이상
2	66	17	문순 → 무순
3	67	<표 III-2>	(실수) (118) (174) (317) (494) (465) (1569) → (실수) (102) (170) (198) (427) (672) (1569)
4	70	25	67.5% → 69.5%
5	72	10	대도(6.0%) → 테도(8.0)
6	73	5	72.2% → 58.2%
7	73	6	6.3% → 12.7%
8	79	21	국민학교현장 → 국민교육현장
9	83	27	31.5% → 61.5%
10	85	26	66.7% → 56.7%
11	93	23	60% → 50%
12	98	5	정신직 → 정상직
13	110	7	긍적 → 긍정
14	111	12	중학생(76.7%) → 중학생(76.2%)
15	111	15	농림어업자(91.9%) → 농림어업자(91.2%)
16	112	6	대학원졸(78.2%) → 대학원졸(78.3%)
17	112	6	고졸(75.6%) → 고졸(75.9%)
18	117	7	고등학교 : 57.7% → 고등학교 : 57.1%
19	123	9	상 : 21.2% → 상 : 51.2%
20	124	5	상 : 13.2% → 상 : 43.2%
21	128	25	상 : 97.9% → 상 : 67.9%
22	135	22	30대이상 → 60대이상

